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2월

박사학위 논문

홍대용과 박지원의 작가정신 비교 연구

-『의산문답』과 『열하일기』를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 성 훈

홍대용과 박지원의 작가정신 비교 연구

-『의산문답』과 『열하일기』를 대상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writer's Spirit of
Hong Daeyong and Park Jiwon:

Analysis of 『Euisanmundap(醫山問答)』 and 『Yeolhailgi(熱河日記)』

2016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 성 훈

홍대용과 박지원의 작가정신 비교 연구

-『의산문답』과 『열하일기』를 대상으로-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 성 훈

정성훈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김 경주 (인)
위 원	전남대학교	교수	신 해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삼원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미령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수중 (인)

2015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ii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사 검토.....	3
3. 논의 방향.....	9
II. 『의산문답』의 장르적 성격과 주제의식	13
1. 『의산문답』의 장르적 성격.....	14
1) 문학과 장르적 성격 문제.....	14
2) 서사적 교술 성격과 글쓰기 방식.....	22
2. 『의산문답』의 주제의식.....	40
1) 진실한 가치 탐색.....	40
2) 다른 생명체 존중.....	46
3) 무한한 세계 탐구.....	51
4) 이적의 나라 존중.....	56

Ⅲ. 『열하일기』의 장르적 성격과 주제의식	69
1. 『열하일기』의 장르적 성격	70
1) 구성 체계와 장르적 성격 문제	70
2) 잡록 성격과 글쓰기 방식	90
2. 『열하일기』의 주제의식	110
1) 외교의 실상 탐색	110
2) 천하 정세의 흐름 탐구	117
3) 외국의 공연 문화 탐구	130
4) 대내외 문화 교류 양상 탐구	141
Ⅳ. 홍대용과 박지원의 작가정신 비교 논의	163
1. 송고의 글쓰기와 풍자의 글쓰기	163
2. 내외론과 점외론	179
Ⅴ. 결론	210
【참고문헌】	221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writer's Spirit of Hong Daeyong and Park Jiwon: Analysis of 『Euisanmundap(醫山問答)』 and 『Yeolhailgi(熱河日記)』

Jeong Seonghun

Advisor : Prof. Kim Sujung,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was written with the purpose of study a Comparative Study on the writer's Spirit of Damheon and Yeonam of the literary works in focusing on 『Euisanmundap(醫山問答)』 and 『Yeolhailgi(熱河日記)』 the task of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in the period of king Jeongjo(正朝, 1752~1800; penname: Hongjae)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 1392~1910). Also, this paper derived inductively from the data in focusing on 『Euisanmundap』 and 『Yeolhailgi』 formed by the cultural homogeneity of writer's spirit in relation to governing thought of Hong Daeyong(洪大容, 1731~1783; penname: Damheon), Park Jiwon(朴趾源, 1737~1805; penname: Yeonam). Especially, This paper have a different signification from the others in the way that Character of literature genre and Thematic consciousness comparative case study. In that way, This paper provides an opportunity to deepen one's understanding of 『Euisanmundap』 and 『Yeolhailgi』. The following were among their findings:

In chapter II, this chapter analyzed Character of literature genre,

Characteristics in Expressions, and subject consciousness in 『Euisanmundap』.

Consequently, This work uses a very unusual a Natural configurations of spatial migration and parallel configurations of Change ringing. Also, This work has a tentative ending. This configurations originate in the configuration of 『Eul-Byeong-Yonhaengrok(乙丙燕行錄)』, 『Yon-Gi(燕記)』, 『Implication of Friendship(會友錄)』. Also, This work is devising rhetorical expressions figuring, changing, emphasizing and others to effectively communicate this theme to the reader.

Hong Daeyong(1731~1783; penname: Damheon) was a scholar who worked during the era of King Jeongjo in the Chosun Dynasty. He wrote 『Euisanmundap』. An obvious issue discussed throughout the story is Issues of the Inmulsungdongyilon(人物性同異論; The debate over the similarity or differences between the morality of humans and animals), traditional East Asian cosmology and modern Europe cosmology, Sino-Barbarian Theory(華夷論; sinocentrism) etc. In the second half of the 18th century during the Joseon, these issues was the overriding theme of that era. Hong Daeyong is met the demands of the times. He had covert need and he tried to untangle a fundamental matter. Also, he didn't follow the wisdom of ancient sages such as Neo-Confucianism(性理學). His ideas had thought very deeply out of the box concerning Ki-hak(氣學). Hong Daeyong rebutted ethical falsity, astronomical falsity, political falsity with logical arguments through 『Euisanmundap』. It so happened then that he come to his own viewpoint and the conclusion that he set up a new theory. (a) Other creatures is every man's master. (b) The human and other living things are equational indivisible relation from the viewpoint of Ki(氣) that fills Outer space. (c) Setup of the center of the

Earth is just a stopgap measure from the viewpoint of Infinite universe, infinite mass, infinite energy. For this reason, there the separation itself between the civilized countries and fringe countries is the product of exclusive nationalism or defensive nationalism. Therefore, (d) Global positioning between the civilized countries and fringe countries can be varied historic Changes.

In chapter III, this chapter analyzed Character of literature genre, Characteristics in Expressions and subject consciousness in 『Yeolhailgi』.

Consequently, Park Jiwon(1737~1805; penname: Yeonam) was a scholar who worked during the era of King Jeongjo in the Chosun Dynasty. His transcendent ability in terms of sentence constructing ability from all his fellows made him a famous person. The Literary style(文體), alias Paegwanjapgi(稗官雜記; Miscellanies from story tellers), Paesasopum(稗史小品; Unofficial histories and miscellaneous notes) was popular in the reign of king Jeongjo(正朝, 1776~1800) of the Joseon. But Jeongjo insisted on the Literary style(文體), alias Gomun(古文; a classic style). On the other hand, Park Jiwon have believed fusion of both Literary style is possible. He proved it through 『Yeolhailgi』. On the other hand, his writing intention was also another reasons. (a) His ingenious diplomacy suggestion, (b) Grasp the constant changes in the state of international affairs, (c) We should also try to embrace various cultures that exist in Joseon, (d) Promote equal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Qing in China and Joseon and other countries.

In chapter IV, this chapter supposed a way to create a work and common point of two authors.

Hong Daeyong and Park Jiwon have in common utilized analogy to show subject consciousness of the Inmulsungdonggidonglon(人物性同氣同

論). Also, they used analogical reasoning to reach his conclusion.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m is in the way they presented persuasive argument. Hong Daeyong present the reasons for an argument to heighten other creatures like humans. so his work of literature has embodied the sublime beauty. But Park Jiwon present the reasons for an argument to lower humans than other creatures. so his work of literature a spice of humor.

Meanwhile, Hong Daeyong's Naeoeron(內外論) and Park Jiwon's Jeomoeron(覘外論) is an ingenious argument to show the relation of Chinese(中華) and Barbarians(夷狄). By the way, Hong Daeyong's Naeoeron(內外論) highlights inter-related and interdependent in Chinese(中華) and Barbarians(夷狄) relations. Park Jiwon's Jeomoeron(覘外論) highlights inter-related and mutually exclusive in Chinese(中華) and Barbarians(夷狄) relations. Nevertheless, hidden beneath Park Jiwon's Jeomoeron(覘外論) were implied a satire on Joseon Junghwa Ideology(朝鮮中華主義).

on the other hand, So what are we going to do for recreate their writer's spirit? I dreamed up a plan to solve both problems at once. Consequently, their writer's spirit have something in common. (a) Seonbi(士; Intellectuals) need to arouse critical awareness of social reality, (b) Seonbi(士; Intellectuals) need to consider reform plan it as a stepping stone to acquire a cosmopolitan outlook, (c) Seonbi(士; Intellectuals) need to aim for activation energy of the people and the country.

1.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이 논문은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3)과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작가정신을 비교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두 작가의 대표 저작이라 할 수 있는 『의산문답(醫山問答)』과 『열하일기(熱河日記)』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작가정신이란 용어에 대해 간략히 해명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작가정신이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작가정신은 작가가 문학을 통해 구현한 어떤 주제의식이라고 규정한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작가정신은 작가가 선정한 주제의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문학적 형식과 문학적 표현 문제를 포함한다. 문학적 형식은 당대 역사나 사회의 관습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문학 장르와 관련이 있으며, 문학적 표현은 작가 개인의 기질을 기반으로 창조한 글쓰기 방식으로 문학작품 구성에 관한 발상, 수사나 문체의 독창적인 활용 능력, 서사·묘사·설명·설득의 운용 방식 등과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문학의 내용적 측면, 형식적 측면, 표현적 측면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써 담헌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의 작가정신을 고찰하려 한다. 특히, 본고는 작가의 문학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르 및 글쓰기 방식과 작가의 사상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당대 폼하나 금기의 대상이 된 것들에 대한 윤리적 ‘존중’과 이성적 ‘탐구’라는 주제의식을 새롭게 고찰한 비교 연구 사례로서 소중한 의의가 있다.

그러면 왜 두 작가의 작가정신을 비교 고찰할 필요가 있는가? 필자의 판단으로

1) 김수중, 『한국의 서사문학과 민속』, 보고사, 2013, pp.215-237에서 「연암의 기행문에 나타난 산문정신의 변이」 문제를 다루며, 산문정신이란 글이 갖는 형식의 제약을 벗어나 대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산물로, 인간의 의식 속에 발현되는 여러 생각들을 구속 없이 표현하고자 하는 문학적 사고라고 규정한 선례가 있다. 『열하일기』는 사실 기록을 토대로 하고 부수적으로 미적 효과를 곁들인 문학 지향적 산문집으로 평가하였다.

는 동시대 작가들 가운데 이례적으로 대외 체험과 상호 교류를 통해 정신적 각성과 성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보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도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은 18세기 후반 대표적인 작가이자 사상가라는 문학사적 위상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산문문학사의 흐름 파악을 위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두 사람의 작가정신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두 사람의 작가정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작가의 모든 저작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두 작가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다루다 보면, 논의 방향이 산만해질 우려가 있고,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연구 역량 문제 등을 고려해 대표적인 저작물을 선정하기로 한다.

담헌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의 대표적인 저작물은 각각 『의산문답(醫山問答)』과 『열하일기(熱河日記)』이다. 박희병은 담헌 홍대용의 『의산문답(醫山問答)』은 “만년의 담헌이 도달한 인간, 자연, 세계, 우주에 대한 인식이 극히 압축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망라”된 작품²⁾으로 평가한 바 있다. 김명호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가 “그 방대한 규모와 진보적 사상, 그리고 탁월한 표현력으로 인해 명실 공히 연암 문학의 대표작으로 공인되었던 작품”이고, “연암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북학파의 사상적·문예적 성과를 총괄하고 있는 저작”으로 평가³⁾한 바 있다. 이처럼 담헌 홍대용의 『의산문답(醫山問答)』과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는 동시대 노론계 주도의 실학과 문학과 실학사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저작이다. 두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두 작품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성과와 방법론적인 모색을 한 선행 연구자들의 논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의산문답(醫山問答)』과 『열하일기(熱河日記)』는 두 작가가 남긴 저작 가운데 그들의 작가정신이 최종적으로 집약된 문학적 유산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두 작품을 통해 두 작가의 작가정신을 비교함으로써 문학과 사상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조선후기 문학의 성격도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2) 박희병, 「천견경재와 홍대용-중화적 화이론의 헤체양상과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4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p.389 참조.

3)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p.13 참조.

2. 연구사 검토

『의산문답』과 『열하일기』는 근대 인문학 연구 초창기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논저의 성격이나 논저의 방향에 따라 작품의 가치 평가 또한 다양한 편폭을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부각되었던 주요 논저와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말머리를 삼으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산문답』의 경우, 유학 전공자는 인물균론(人物均論) 대목에 주목하고, 자연과학 전공자는 지원설(地圓說) · 지전설(地轉說) · 무한우주설(無限宇宙說) 대목에 주목하며, 조선후기 사회사상 전공자는 화이일론(華夷一論) 대목에 주목했다. 고전문학 전공자는 작품의 주제 의식과 표현 방식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하는 시각에서 주로 접근해 왔다. 이는 홍대용이 영·정조대에 활동하면서 당대 과제인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의 쟁점, 동아시아 중세문명의 우주론과 유럽 근대문명의 우주론을 둘러싼 쟁점, 조선과 명·청의 화이사상(華夷思想)을 둘러싼 쟁점을, 별개의 여럿인 과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로 인식하여 이를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홍대용의 문제 의식은 오늘날에도 생태적 세계관, 우주에 관한 탐구정신, 국제질서의 대등한 관점 등의 미래사회 지향점과 맞물려 있어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원의 경우, 홍대용이 주목한 시대적 과제뿐만 아니라 그와는 또 다른 정조대 당대 과제를 『열하일기』에서 담아내고 있어 주목을 받아 왔다. 고문(古文) 글쓰기와 패관소품(裨官小品體) 글쓰기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이 그것이다. 박지원은 법고와 창신을 지양하는 경계적 글쓰기 전범을 이론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를 『열하일기』 글쓰기를 통해 실천했다. 또한, 천하대세를 통찰하여 외교 방법의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고, 자국과 외국의 정신적·물질적 문화 교류의 실상을 탐색한 결과를 『열하일기』에 담아내기도 했다. 그리하여 당대 문사들로부터 독특한 연행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열하일기』가 40여 종이 넘는 이본으로 유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이 대립적 양상을 띠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어 새로운 글쓰기 이론

을 모색하는 데에 귀감 노릇을 하고 있다.

필자는 선행 연구의 다양한 성과물 가운데 단지 한 차례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작가정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편 대표 논저를 중심으로 간명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취하여 연구사를 검토하기로 한다. 『의산문답』·『열하일기』는 일제 강점기부터 주목을 받아왔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나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산문답』의 경우, 김태준·조동일·박희병의 논의가 주목된다. 김태준은 1970년대 후반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함께 읽다가, 그의 일기에 수없이 등장하는 홍대용에게로 관심이 옮겨가 1980년 숭실대 소장본 『을병연행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러고는 『담헌서』와 함께 거듭 읽어가면서 전기문학적 연구 방법으로 홍대용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총괄한 저서 『홍대용과 그의 시대』(일지사, 1982)를 한국에서 출판하였다. 1988년에는 이 책을 개고·번역하여 『虛學에서 實學으로』라는 이름으로 동경대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고, 일본에서 출판했다. 또한 『홍대용 평전』(민음사, 1987)을 성과물로 내놓았는데, 제8장에서 『의산문답』을, 홍대용의 실학론을 집대성한 저작인 동시에 조선조의 대표적인 철학소설로 보았다. 지구설, 지전설, 무한우주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과학사 연구자들의 입장과는 달리 『의산문답』은 자연과학적 주장에 저술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학적 경륜에 뜻이 있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⁴⁾고 했다.

조동일은 『한국문학사상사시론』(지식산업사, 1978)과 『한국문학통사-조선후기 문학』(지식산업사, 1984)에서 실학과 문학의 범주로 묶어 박지원과 함께 문학사적 위상을 설정하였다. 『철학사와 문학사 돌인가 하나인가』(지식산업사, 2000)에서는 『의산문답』을 서사적 교술 갈래에 속한 작품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나타난 인물성론 대목과 화이론 대목을 집중적으로 논했다. 특히, 이간(李柬: 1677~1727)의 인물성인리동론(人物性因理同論),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인물성인기이론(人物性因氣異論) 사이에서 인물성론이 전개되다가, 임성주(任聖周)·홍대용(洪大容)·박지원(朴趾源)이 인물성인기동론(人物性因氣同論)을 제기해 새로운 차원에서 해결되었음을 밝힌 논의

4) pp.215-219 참조.

가 주목된다. 임성주·홍대용·박지원이 주장한 인물성인기동론에서는 선(善)의 개념이 군자에 이르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추구해야 할 도덕적인 당위로 보지 않았다⁵⁾고 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은 사람과 다른 생명체, 자국인과 외국인, 상하·남녀를 불문하고, 삶을 누리는 것 자체가 선이라는 데까지 이르렀다⁶⁾고 했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공식적인 논설로 펼치기에는 당대 이념과 배치되어, 허구적인 설정을 이용한 문답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⁷⁾고 했다. 또한, 인물성인기동론은 당대 18세기 일본의 안등창익(安藤昌益:1703~1762)이나, 유구의 채온(蔡溫:1682~1762) 그리고 유럽의 계몽주의 작가들이 우연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주제의식과 상통하는 면이 있음⁸⁾을 논증했다.

박희병은 1990년대 초에 기존 학문의 패턴에서 벗어나 학문의 틀을 새롭게 정초하고 싶다는 바람을 지니고 있다가 『담헌서(湛軒書)』를 읽으면서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 이후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규보, 서경덕, 신희과 함께 홍대용과 박지원의 글을 통해 한국적 생태주의 사상을 천명한 『한국의 생태사상』(돌베개, 1999)을 출간했다. 그 이후에도 홍대용의 탈화이론(脫華夷論)과 평화주의 사상에 관심을 보이는 논의를 계속하여 조선후기 문학사와 사상사의 관련 양상에 천착한 결과 『범애와 평등』(돌베개, 2013)을 출간했다. 그는 홍대용 연구를 통해 “물질적 부와 효율의 추구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가?”, “검소와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자기중심주의를 덜어가면서 사회적 평등을 제고하는 쪽에 힘을 쏟는 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가?”하는 궁극적인 물음⁹⁾을 던져가며 『의산문답』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특히, 인(人)/물(物), 지(地)/성(星), 내(內)/외(外), 화(華)/이(夷), 춘추(春秋)/역외춘추(域外春秋) 등으로 간추릴 수 있는 양 대립 항목에서 ‘중심’으로 간주된 앞쪽과 ‘주변’에 해당하는 뒤쪽이 위계 관계나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상호 관계임을 천명¹⁰⁾하는 주제의식에 주목했다. 이어서 학문의 자유 측면, 화이론 시각 측면, 신분

5) p.314 참조.

6) p.321 참조.

7) p.341 참조.

8)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 pp.314-332 참조.

9) p.9 참조.

10) pp.170-180 참조.

제도와 토지제도에 관한 입장 측면에서 조선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유형원, 정제두, 이익,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최한기 등의 사상과 견주어 보았을 때, 홍대용의 사회사상은 상대적으로 정점에 해당하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¹¹⁾는 결론을 내놓았다.¹²⁾

한편, 김태준·조동일·박희병에 이어 『의산문답』의 문학성에 초점을 맞춘 후속 연구로는 윤주필, 길진숙, 이승준 등의 연구가 주목된다.

윤주필¹³⁾은 이 작품의 갈래를 우언으로 보고 작품론을 전개했다. 진정한 학문의 출발점은 관찰이지, 선입관에 의한 가치평가가 아니라는 별도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허자와 실용이라는 작가의 분신을 등장시켜 대비하는 우언 장치와 전통 한문학에서 보이는 은자우언의 패러디 수법, 다양한 용사(用事)를 구사하였다고 보았다. 길진숙¹⁴⁾은 홍대용이 『의산문답』에서 허자의 서사를 통해 철학적 성찰 과정을 실감나게 형상화하는 한편, 실용의 서사를 통해 난해하고 이론적인 학술적 논의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유비추론을 구사하기도 하는 등 문학적 표현 능력을 활용하여 학문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았다. 이승준¹⁵⁾은 『의산문답』의 서사적 구성과 서술 양상에 주목하였다. 허자를 주인공으로 볼 때, 현실과의 갈등을 빛자 회의에 빠졌다가 탐색의 과정을 거쳐 자기부정과 깨달음에 도달하는 서사구조를 도출하여, 『의산문답』은 성장의 의미를 지니는 교육 플롯을 띤 작품으로 보았다. 작품의 서술 양상 논의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출발하여 서술자와 인물의 시점의 분화 단계를 거쳐 논변부에 이르면 인물의 목소리만 남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11) pp.231-366 참조.

12) 그 밖에 홍대용에 관한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논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박성래, 「홍대용의 과학사상」, 『한국학보』23, 일지사, 1981, pp.159-180.; 박성래, 「홍대용 『湛軒書』의 서양과학 발견」, 『진단학보』79, 진단학회, 1995, pp.247-261.; 김문용, 『홍대용의 실학과 18세기 북학사상』, 예문서원, 2005.; 정훈식, 『홍대용 연행록의 글쓰기와 중국인식』, 세종출판사, 2007.; 김인규, 「홍대용 사회개혁론의 특징과 그 의의」, 『한국사상과 문화』3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pp.215-244.; 문석윤·박희병·김문용·송지원·이경구, 『담헌 홍대용 연구』, 실사구시 실학연구총서 3, 사람의 무늬, 2012.

13) 윤주필, 「朝鮮朝 寓言小説의 反文明性-「의산문답」의 허구적 장치를 중심으로」, 『道敎文化研究』12, 한국도교문화학회, 1998.5, pp179-215.

14) 길진숙, 「홍대용의 「의산문답(醫山問答)」 읽기와 문학 교육적 성찰」, 『우리어문연구』29, 우리어문학회, 2007, pp165-199.

15) 이승준, 「담헌 홍대용의 「의산문답」 연구 -문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53, 우리어문학회, 2015, pp.153-179.

한편 『열하일기』의 경우 문학 분야에서 자료학과 이론학이 동시에 진행되어 선행 연구가 매우 풍성한 편이다. 『열하일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많은 논자들 가운데 이가원, 김명호의 연구 성과를 손에 꼽을 수 있다. 이가원은 수택본, 일제본, 박영철본 등 9종 이상의 이본을 참조하여 『국역 열하일기』(민족문화추진회, 1966)를 출판한 성과를 내어 연암 박지원의 문학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또한 박지원이 남긴 전(傳) 12여 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역사·전기적 방법과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연암소설 연구』(울유문화사, 1965년)라는 이론서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김명호는 10종의 이본이 존재하는 『연암집』의 원문 교감과 주해 작업을 바탕으로 신호열 선생과 함께 완역한 『연암집』上·中·下(돌베개, 2007)를 출간하였다. 또한 40여 종 이상으로 전해지고 있는 열하일기 이본 연구에 천착하여 『열하일기 연구』(창작과비평사, 1990)와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돌베개, 2013)를 통해 박지원의 사상과 문예의식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두 저서는 논의의 연계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실학(實學)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고, 실학에서 근대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시대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에 맞서, 연암이 서기(西器)와 서교(西敎)를 받아들여 혁신을 모색한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 이외에 『열하일기』에 관한 연구 논저 가운데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 것으로 몇 가지를 더 들 수 있다. 강동엽¹⁶⁾의 『열하일기 연구』는 종합적 연구를 표방했다. II장에서 12개의 이본을 비교하고, III장에서 박지원의 시대인식과 문학론을 검토했다. IV장에서 『열하일기』의 표현기법과 문체의식을 다루고, V장과 VI장에서 주제의식과 문학사적 의의를 논한 이론서이다.

김철조¹⁷⁾는 이가원에 이어 『열하일기』 완역에 도전하여 전문가와 일반 대중이 흡족할 만한 번역 성과를 냈다.¹⁸⁾ 꼼꼼한 주석이 달려 있는 데다 내용 파악에 도움을 주는 도판(圖版)이 실려 있고, 한글 세대를 고려한 쉬운 문장으로 번역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열하일기』를 완역하기에 앞서 조선후기에 나온 2종의 한글본 『열하일기』와 일제 강점기부터 번역되기 시작하여 해방 이후까지 여러 차례 번역된 『열하

16) 강동엽, 『열하일기 연구』, 일지사, 1988.

17) 김철조, 『연암집 異本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회연구』17, 한국한문학회, 1994, pp.157-189.;

김철조, 『『열하일기』 번역의 여러 문제들』, 『한문학보』19, 우리한문학회, 2008, pp.679-718.

18) 박지원, 『열하일기』1~3, 김철조 옮김, 돌베개, 2009.

일기』 11종을 검토하고, 번역서에서 문제가 될 만한 대목들을 들어 표절, 오역, 얼버무리기, 지나친 개역(改譯) 등으로 구분해 논한 뒤, 올바른 번역 방향을 제시하는 선행 작업을 했다.

서현경¹⁹⁾은 강동엽, 김명호에 이어 『열하일기』 이본을 검토하고, 『열하일기』에 나타난 담론을 연구했다. 특히 이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단국대 연민문고(淵民文庫) 소장본들이 공개되고, 해외 한국학 문헌이 학술 교류에 의해 알려지게 되면서 이루어진 성과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래서 단국대 연민문고(淵民文庫) 소장의 『열하일기』 원초고본 계열과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소장의 『열하일기』 정본 계열 등을 추가하여 연구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그는 동양문고 소장본이 『열하일기』의 정본(定本)이라 한 것이 핵심 논지이다. 또한 『열하일기』의 담론은 상대론(相對論)과 포월론(包越論)이라는 박지원의 사유 양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 담론이 ‘새로운 조(朝)·청(淸) 관계 모색’으로 수렴됨을 밝히고, 그 하위 담론인 북학(北學) 담론과 심적(審敵) 담론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입증했다.

근래에는 『열하일기』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각 장별로 구분하여 기존 논의를 심화하는 방향²⁰⁾을 보이기도 하고, 전공 분야와 관심사에 따라 독자적인 주제를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²¹⁾하기도 하며, 박지원의 글쓰기 방식이 오늘날 일반 대중들의 글쓰기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개괄적인 교양서²²⁾를 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개별적인 연구 성과들은 차후의 서술 과정에서 본고의 작품 분석 논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주를 통해 언급하기로 한다.

19) 서현경, 「『열하일기』 定本の 탐색과 서술 분석」,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8.

20) 이현식, 「『열하일기』의 체일장관, 청나라 중화론과 청나라 문화 수용론」, 『동방학지』14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8, pp.433-469.; 이현식, 「『열하일기』의 「황성기」, 청 왕조 정통론」, 『국어국문학』152, 국어국문학회, 2009, pp.331-363.; 이현식, 「도강록序, 열하일기를 위한 위장」, 『동방학지』152,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0, pp.163-203.

21) 임형택·김명호·염정섭·리혜탕·김용태, 『연암 박지원 연구』, 실사구시 실학연구총서 4, 사람의 무늬, 2012.

22) 박수밀,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돌베개, 2013.

3. 논의 방향

위에서 살핀 선행 논의의 성과들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동안 상식화되다시피 한 논리를 면밀히 다시 검토하여 『의산문답』과 『열하일기』에 접근할 때, 조선 후기 사회상이 어떠했는지 그 실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종래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연구 경향에 대한 미비점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본고의 논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사적으로 볼 때 『의산문답』의 경우, 홍대용이 영·정조대에 활동하면서 당시 시대적 과제인 인물성동이론의 쟁점, 동아시아 문명의 우주론과 유럽 문명의 우주론을 둘러싼 쟁점, 조선과 명·청의 화이사상을 둘러싼 쟁점을 별개의 여럿인 과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로 인식한 상태에서 『의산문답』을 집필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해 고찰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홍대용이 노론의 낙론 계통에 속했으며, 서학 서적 중 수리서와 천문학 서적을 탐독하였고, 청나라 문인과의 우호적인 교류를 통해 청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 결과 『의산문답』이 성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노론 낙론 계통이면서 이학이 아닌 기학의 관점으로 학문관을 전환한 계기, 지구설과 지전설을 이해한 후 우주무한을 가정하여 비약한 연유, 화이의 구분에서 화이일의 관점으로 전환한 까닭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II장에서 작품 구성과 주제의식을 분석한 뒤, 집필 동기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관해 다루기로 한다.

II-1장에서는 홍대용의 『의산문답』이 과학 서적이거나 철학 서적이 아닌 문학작품이라는 점을 부각하기로 한다. 또한 문학작품으로서 접근을 하려 할 때, 서사적 교술 산문 장르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그러자면, 서사적인 측면과 교술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작품의 구성 체계와 표현방식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리하여 구성 체계와 표현방식의 분석에서 도출된 작품의 특징을 근거로 『의산문답』이 지닌 문학성을 부각하는 방법론적 접근이 타당성을 얻게 된다면 『의산문답』의 이해를 심화하는 데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II-2장에서는 작품의 도입부에 초점을 두고 작품이 지닌 주제의식을 도출하기로 한다. 문답부에서는 허자가 수동적이고 실용이 실질적인 대화를 주도하는 특징을 보

이지만, 도입부에서는 허자가 능동적인 주체로서 주인공 구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작품 내적 주체와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작가가 어떤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과 중국의 선비들에게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소외감을 느낀 허자가 은거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 새롭게 등장하는 실용과의 만남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어서 문답부에 초점을 두고 먼저 홍대용의 『의산문답』과 박지원의 <호질>을 견주어 보면서 인물성동이 논쟁을 둘러싼 쟁점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허자와 북곽 선생, 실용과 범의 관계 해명을 통해 ‘세상은 사람이든 다른 생명체든 우열 관계라는 가치 판단을 넘어 균등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과 삶은 사람이든 다른 생명체든 누리 는 것 자체가 귀(貴)한 것이자 선(善)한 것이라는 주장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공통점을 부각하려 한다. 동시에 『의산문답』에서의 탈속과 <호질>에서의 속세라는 공간 설정의 차이점도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이어서 동아시아 문명의 세계관과 유럽 문명의 세계관을 둘러싼 쟁점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지구의 형태, 지구의 운행, 자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고 타국을 주변으로 여기는 시각에 대한 대안 등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사람을 ‘정생물(正生物)’, 동식물을 ‘횡생물(橫生物)’과 ‘도생물(倒生物)’로 보는 논리와 자국인을 정계인(正界人), 타국인을 횡계인(橫界人)이나 도계인(倒界人)으로 보는 논리 사이에 존재하는 유비적 상동성 추론을 전개하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조선과 명·청의 화이사상을 둘러싼 쟁점을 다룬다. 내외 철학을 바탕으로 배타적 국가주의 이념과 대립하는 방어적 국가주의 이념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펼치는 논리를 우선 주목할 수 있다. 또한 만물을 생성하는 기로 가득한 우주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때, 문명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철학을 견지하고 있었던 작가의식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열하일기』의 경우,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 주제의식과 형상화 방식, 대외 관계에 관한 작가의식에 관한 해명이 그동안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개성적 특질로 여겨온 것이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기도 하고, 외적 영향이 있었으나 주체성이 없이 수용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극복한

사실도 증명되기도 했다.

그런데 질적 비약을 가치로 삼는 『열하일기』의 총체적인 성격 이해에는 모자란 면이 있다. 일기부와 잡기부, 그리고 필담부의 유기적인 구성에 따른 분석과 문체의 활용 측면, 주제의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장가로서의 주제 의식과 서술 방식의 창조적인 결합, 사상가로서의 인생과 사물에 관한 통찰 등에 관한 이해의 심화를 III장에서 시도하기로 한다.

III-1장에서는 일기부와 잡기부, 그리고 필담부의 구성 체계를 검토하여 잡록 장르적 성격을 규정하는 한편, 정조가 지향하는 고문 글쓰기에 대해 패관소품 글쓰기 또한 경세의식을 담아내는 형식일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박지원의 반론을 「도강록」이나 「성경잡지」의 분석을 통해 문체론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구성 체계 측면은 일기부, 잡기부, 필담부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특징을 도출하는 방법을 구사한다. 문체의 활용 측면은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가 결합된 양상에 따라 대표적인 예증을 들어 가며, 박지원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양면성과 독창성을 부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고문이라 불리는 한문학 양식이 지향하는 경국제세의 문체의식과 패관소품이라 불리는 잡문 양식이 지향하는 개성적인 심미의식이 결합되기도 하고, 구분되기도 하는 양상을 고찰하는 가운데 박지원 글쓰기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드러나리라 예상한다.

III-2장에서는 『열하일기』에 나타난 박지원의 주제의식을 고찰하기로 한다. 박지원은 조선중화주의 이념의 과잉이 자국의 이익과 청조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체의식을 품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자신은 대청 외교의 실상을 파악하려는 노정을 밟으면서 탐구한 내용을 『열하일기』에 고스란히 반영하려 한 사실을 고찰하기로 한다. 그러자면 조·청 관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박지원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외교 방법론 및 사신이 개선해야 할 외교적 자세 등에 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족 사대부와 학술적인 화제를 나누는 가운데 정치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필담, 필담을 통해 터득한 비공식적 외교방법을 담은 잡기 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목을 추려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이어서 패관소품 글쓰기의 특징이 좀 더 두드러진 잡기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청나라의 풍속을 실상대로 파악하려는 박지원의 주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고찰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박지원은 괴력난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공연문화라 하더라도 이를 포용하는 있는 청조 문화의 개방성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 문화와 타국 문화는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양측이 발전할 수 있다는 현실인식을 잡기에서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IV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성과를 바탕으로 두 작가의 글쓰기 방식을 비교하는 한편, 홍대용과 박지원의 현실개혁 정신을 비교한다. 『의산문답』과 <호질>에서 주장을 펴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활용한 추론 방식, 『의산문답』과 <호질>에서 동일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제시 방법의 차이, 『의산문답』에서의 송고와 <호질>에서의 골계라는 미의식의 대조 등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이어서 II장에서 III장까지 독자성에 초점을 두고 개별적으로 고찰한 성과를 바탕으로 『의산문답』과 『열하일기』에서 보이는 두 작가의 특징을 비교한 다음, 홍대용·박지원의 현실개혁 정신이 지닌 동질적인 기반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II. 『의산문답』의 장르적 성격과 주제의식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의산문답(醫山問答)』은 정확한 저작 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다.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1780년 이후에 쓴 저작으로 보인다.²³⁾ 『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 『연기(燕記)』, 『회우록(會友錄)』에서 홍대용은 청나라를 대국(大國)으로 높인 반면 자국인 조선은 변방의 오랑캐로 낮추고 있으며 청나라를 역사적 실체로 인정하면서도 청나라의 의관과 복식제도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게 보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의산문답』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1765년 연행 이후, 홍대용에게 조·청 관계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지는 어떤 계기가 있어 내외(內外)의 사상이 성립한 이후에 『의산문답』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의산문답(醫山問答)』에 나타난 서사성과 교술성 고찰을 근거로 장르적 성격을 검토한다. 이어서 홍대용의 글쓰기 방식이 지닌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작품의 구성을 고찰하고, 수사 활용 양상을 논의한다. 끝으로 『의산문답(醫山問答)』에 나타난 주제의식 고찰을 통해 홍대용이 당대의 시대적 과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하려 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3) 박희병, 『범애와 평등-홍대용의 사회사상』, 돌베개, 2013, pp.132-134 참조.

1. 『의산문답』의 장르적 성격

1) 문학성과 장르적 성격 문제

홍대용의 『의산문답』에 나타난 주제의식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이 작품은 과학 서적이냐 철학 서적이냐? 문학 작품인가? (2) 문학 작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작품의 장르적 성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 장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되, (2)의 문제를 탐구하여 도출된 문학적 특징들을 논거로 삼아 (1)의 문제까지 해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1)의 경우 연구사적으로 볼 때, 『의산문답』을 통해 홍대용의 사상이 주목받은 이유는 김석문(金錫文: 1658~1735)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지전설을 표명한 대표적인 실학자의 저작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과학사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홍대용은 주자학적 우주관을 극복하여 새로운 사조인 서학서의 영향을 받아 실증적 우주관을 표명한 정점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조선 후기 들어 연행을 통해 대량으로 유입된 서학서의 외재적 영향을 증시하는 한국 과학사상 연구 분야와는 별도로, 한국 철학사상 연구 분야에서는 한국철학 혹은 동아시아철학의 내재적 발전 양상을 증시하고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 주자학의 심성론에 기반을 둔 호락논쟁(湖洛論爭)의 연장선상에서 홍대용이 『의산문답』을 통해 ‘인물균론(人物均論)’을 표명함으로써 낙론(洛論) 계통에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의 혁신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의산문답』은 홍대용이 지은 다른 저작들과 비교해 볼 때, 과학서적이냐 철학서적과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담헌서(湛軒書)』의 체계를 보면 크게 내집과 외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집의 경우 젊은 시절 미호(溟湖)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을 스승으로 삼아 경전(經典)과 사서(史書)에 관한 탐구 과정에서 품은 유학적 주제의식과 관련된 저작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반면 외집의 경우 1765년과 1766년

연행 이후 촉발된 청나라 문물에 관한 관심의 산문인 연행록과 서학에 관한 관심의 산문인 『주해수용(籌解需用)』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근대학문의 관점에서 볼 때, 철학 서적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내집에 있는 『사서문변(四書問辨)』이나 『삼경문변(三經問辨)』이다. 과학서적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18세기 말 당대 조선의 수학적 지식과 천문학적 지식을 담아내고 있는 저작이 외집에 있는 『주해수용』이다. 반면 『의산문답』은 홍대용의 철학사상이나 과학사상을 내포하면서, 그 사상을 성현의 권위나 수리적 논리에 기대어 논술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허구적인 인물들의 대화 방식을 통해 유추와 비유적인 수법으로 형상화한 문학 작품의 성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앞의 저작과는 구별해야 한다.

또한 『의산문답』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다루는 작품이 아니라, 홍대용이 뚜렷한 창작의식을 가지고 꾸며낸 문학 작품이다. 실제 존재했던 사실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당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있음직한 일을 형상화한 문학 작품이기도 하다. 당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대 폄하의 대상이나 금기의 대상이었던 것들에 대한 윤리적 존중 의식과 이성적 탐구의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문학적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 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서사문학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거론되는 허구성, 개연성,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 작품의 하나로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의산문답』을 어떤 장르로 이해할 것인가? 연구사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적 관점에서 『의산문답』을 최초로 다룬 김태준은 철학사상을 내포한 소설 장르로 보았다.²⁴⁾ 『의산문답』을 소설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소설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인물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인물이 등장한다. 전자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이루고, 후자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형상화한다. 『의산문답』 도입부에 등장하는 허지는 조선과 중국에서 사귀어온 사람들과 학문적 대화를 나누어보았으나, 만족감을 얻지 못했다. 홍대용은 조선과 중국에서 사귀어온 인물 서술을 흐리

24) 김태준, 『홍대용 평전』, 민음사, 1987, p.215 참조.

게 하고 축소하여 허자 중심의 이야기로 칭직했다. 그런데 허자의 독백만 나타날 뿐이고 요약식 서술이다.

『의산문답』 문답부에서는 허자가 중국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도중 의무려산에서 우연히 만난 실옹과의 대화에서 학문적 근본원리[本原]와 커다란 깨달음[大道]을 터득하며 만족감을 얻었다. 문답이 시작되자 허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실옹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나며 허자의 견해는 실옹의 견해에 의해 수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문제해결식 대화의 대결에서 승패를 나누는 싸움이 벌어져 실옹이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허자와 실옹의 대립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나타나지만, 이면적으로는 적대적인 관계에서 사회적 갈등을 암시하고 있다.

소설은 서술과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 의식과 상황의 관계를 문제로 삼는다. 서술은 작품 외적 자아가 모습을 숨기고 말하고자 하는 대상만 드러내 보이는 묘사와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서술인 설명이 있다. 『의산문답』 도입부에서 한 대목을 들어보자.

㉠수십 리쯤 가니 앞에 돌문[石門]이 나왔는데 실거지문(實居之門)이라고 씌어 있다. 허자가 말하기를,

“㉡의무려산이 중국과 조선의 접경에 있으니, 동북 사이에 이름난 산이다. 반드시 숨은 선비가 있을 것이니, 내가 반드시 가서 물어 보리라.”

드디어 석문으로 들어가니 한 거인(巨人)이 새집처럼 만든 증소(檜巢) 위에 홀로 앉았는데, 모습이 괴이하였으며 나무를 쪼개서 글씨쓰기를 실옹지거(實翁之居)라 하였다.

허자는 혼잣말로,

“㉢내가 허(虛)자로써 호(號)를 한 까닭은 장차 천하의 실(實)을 살펴보고 싶어 한 것이며, 저가 실(實)자로써 호한 것은 장차 천하의 허(虛)를 탐파시키고자 함일 것이다. 허는 허대로 실은 실대로 하는 것이 묘도(妙道)의 진리이니, 내 장차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리라.”

하고, ㉣영금영금 기어 앞으로 나아가 우러러 절한 다음, 존경의 표시로 팔짱을 끼고 그의 오른쪽에 섰다. 거인(巨人)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멍하게 있는 채 보는 것 같지도 않았다.²⁵⁾

25)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의산문답』의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김철희가 번역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조일문의 번역을 참조한다. 『의산문답』의 원문은 한국문집총간 『답현서』(홍영선본)을 기준으로 한다. 『답현서』 원문과 번역문들은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㉑는 실옹이 사는 장소를 알려주는 설명 장면이다. ㉒와 ㉓는 허자의 독백을 통해 허자의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㉔는 허자와 실옹의 행동을 묘사하는 장면을 통해 실옹과의 대화를 원하는 허자의 의도와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허자에게 무관심한 실옹의 태도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허자의 의식과 실옹의 태도 상황이 서로 어긋나는 것 자체가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보여준다.

이처럼 『의산문답』은 허구적인 인물이 등장하여 사회적 유대나 사회적 갈등을 서술과 대화를 통해 형상화하고, 인물의 의식과 인물이 처한 상황을 문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소설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설 기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전개되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 두루 나타나는 도입부와는 달리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답부에 들어서면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허자나 실옹이 제기한 화제의 변화에 따른 병렬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의무려산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자연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도입부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화제의 변화에 따른 병렬식 대화 구성을 설정하기 위한 장식적 구실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정조대 사회적 모순과 윤리적인 가치관 문제를 담아낸 박지원의 <허생전>이나 <호질>과 비교하면, 소설적 형상화 수법도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의산문답』보다 <호질>이, <호질>보다는 <허생전>이 더 서사성이 강화되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조동일은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는 자아와 세계 상호 우위

경우, 한국고전번역원의 DB를 이용하였다.

홍대용, 『의산문답』, 『국역 담헌서』, 김철희 역, 민족문화추진회, 1974-1975.

홍대용, 『임하경륜·의산문답』, 조일문 역,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5.

洪大容, 『湛軒書』, 한국문집총간 248, 홍영선본, 민족문화추진회, 2000.

『湛軒書』, 이상은·김철희·김동기·안병주·이호영 역(<http://www.itkc.or.kr/itkc/Index.jsp>)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行數十里, 有石門當道, 題曰實居之門. 虛子曰: 暨巫閭處夷夏之交, 東北之名嶽也. 必有逸士居焉, 吾必往叩之. 遂入門, 有巨人獨坐于檜巢之上, 形容詭異, 斫木而書之曰實翁之居. 虛子曰: 我號以虛, 將以稽天下之實. 彼號以實, 將以破天下之虛. 虛虛實實, 妙道之眞, 吾將聞其說. 虛子膝行而前, 向風而拜, 拱手而立於右. 巨人俛首視, 嗒然若無見也.”

에 입각한 대결 갈래인 소설로 보기에는 작품 내적 인물이 행동을 통해 벌이는 사건이 희소하다고 판단하고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기본적인 성격은 자아의 세계화의 갈래인 교술로 보고, 부차적인 성격은 자아와 세계의 대립 갈래인 서사로 보아 서사적 교술 갈래로 보았다.²⁶⁾

한편 박희병은 『의산문답』에서 『장자』의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차용하고 있지만 『장자』의 글쓰기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우언이나 우화로 보는 시각에 반대하고, 중세 동아시아 글쓰기 전통으로 보았을 때 소옹(邵雍)의 『어초문대(漁樵問對)』와 같은 문대체(問對體) 교술산문으로 규정했다.²⁷⁾ 이 때 문대체²⁸⁾는 논설로 전개해야 할 어떤 주장을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두 인물 간의 대화 방식으로 전개하는 한문학 양식 가운데 하나이다.

『의산문답』에 대한 조동일의 장르 규정과 박희병의 장르 규정이 반드시 대립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술산문이라고 본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술산문의 하위 항목을 설정할 때, ‘우언’으로 볼 경우 내용 분석에서 숨겨진 주제 의식을 부각하는 내용적 측면이 강조가 되는 장르적 특성이 부각된다. 문답 방식으로 진행되는 토의체 우언이라는 하위분류를 통해 형식적 측면과 내용의 측면을 고

26) 한국 우언작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펴고 있는 윤주필은 『의산문답』에 대해 (1) 양식 및 문학적 관습에 의거한 우언의 측면에서 볼 때 토의체 우언이며, 유통방식에 의거한 우언의 측면에서 볼 때 답론형 우언이며, 주제 및 미의식에 의거한 우언의 측면에서 볼 때 철리 우언에 속한다고 보았다. 윤주필, 「우언 글쓰기와 원리와 적용 자료의 범위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28, 한국한문학회, 2001, pp25-29 참조. ; 조동일 또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을 논하는 장에서 한 절로 ‘우언의 기여’ 항목 안에서 『의산문답』을 거론하면서, 표면상으로는 작가가 허자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실옹의 말을 통해 자기 생각을 나타낸 작품으로 허자가 지닌 그릇된 관념이 실옹의 반론에 부딪혀 시정되었다는 자아비판의 논지를 전개하면서 사상혁신을 보여주었다고 보았다.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 p329 참조.

27) 박희병, 『범예와 평등-홍대용의 사회사상』, 들베개, 2013, p.136에서 주52번 참조.

28) 한국문집총간 가운데 ‘문대’를 표제어로 삼아 독립적인 한 편의 글로 작성된 사례 11건 가운데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연석문대(筵席問對)>의 경우, 1623년 5월부터 1627년 3월까지 인조(仁祖)와 일곱 차례 만나, 경전(經典)을 강론(講論)하거나 시사(時事)를 의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할 때, 문대체 형식은 임금과 신하 또는 교우 간에 서로 묻고 대답한 실제 내용을 담기도 하고, 소옹(邵雍)의 <漁樵問對>나 이규보(李奎報)의 <문조물(問造物)>처럼 가상적 상황을 허구적으로 설정하여 작가의 주제 의식을 표명하기도 하는 양식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대체’로 볼 경우, 문답이라는 형식적 특성이 부각되는 반면, ‘우언’으로 볼 경우, 추상적인 개념인 ‘허’와 ‘실’을 의인화한 작품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성격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보아 후자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려한 성격도 드러낼 수 있다. 반면 ‘문대체 교술산문’으로 볼 경우 물음과 대답이라는 형식적인 측면만 강조가 되는 데에 그치고 만다. 그렇다면 『의산문답』을 우언 장르이자, 서사적 교술 장르에 속하는 문학작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제 『의산문답』을 우언이라 규정하고 그 근거를 따져보자. 우언은 허구적인 사건을 전개해 사건이 지닌 의미가 사건 자체에서 도출되지 않아 이면에 담긴 별개의 숨은 의미를 서사적인 수법을 통해 전달하는 문학 갈래이다. 『의산문답』을 서사적 교술 장르라고 규정하든 <호질>이나 <허생전>을 교술적 서사 장르라고 규정하든 우언은 ‘교술성’과 함께 ‘서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언에 관한 개념 규정이 학자마다 달라 혼동의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개념을 둘러싼 논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우언과 우화는 별개의 용어이다.
- (2) 우언과 우화는 동일한 장르이다.
- (3) 우언과 우화는 어느 한쪽에 포함되는 전체와 부분의 장르이다.
- (4) 우언은 우화와는 달리 장르적 개념이자, 표현기법의 하나이다.

(1)의 규정은 동아시아 한문문명권 지식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한 용어와 유럽문명권 지식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한 용어를 번역한 용어라는 차이에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한다. 우언의 소종래는 『장자』에서 찾고, 우화의 소종래는 『이솝우화』에서 찾고 있다. 전자가 동아시아 기록문학 전통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후자는 유럽 구비문학 전통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언은 한문 지식인이 쓴 우화이며, 우화는 우언적 수법으로 구성된 설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동서(東西)라는 지역과 상하(上下)라는 작가의 신분상 차이 점보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 자체를 통해 숨은 의미를 발견하는 묘미를 추구하는 동질성을 부각하면 (2)의 규정이 마련된다.

동아시아 전통 용어와 유럽에서 유래한 용어의 번역어를 동일한 용어로 보되, 하위 유형 분류에서 지식인이 만든 창작 우언과 구비 전승된 설화 가운데 하나인 민간 우언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의 규정에 따라 (3)의 견해를 지닌 논자들은

우언이 우화를 포함하는 전체 개념으로 삼고, 우화는 설화의 한 유형이거나 민간우언의 속성을 받아들여 기록된 창작우언이라 규정하는 데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언은 우화(fable)보다 알레고리(allegory)의 개념과 대응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론이 있다. 그래서 (4)의 규정이 제기된 것이 우언의 개념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한 간략한 연구사라고 할 수 있다.²⁹⁾

재론해 보면, 우화(fable)는 알레고리(allegory)라는 표현기법으로 이루어진 서사 장르 가운데 하나이고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유럽문명권의 영향이 두드러진 시기 이전에는 전혀 사용 용례가 없는 근대적 번역 학술 용어로 동아시아 한국문학 연구사적 관점으로 볼 때 개화기 이후 『이습우화』라는 번역물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개화기 문학부터 사용해 왔다.

반면 우언은 장르론적 개념과 수사학적 개념으로 구별하여 별도로 이용해 왔는데, 장르론적 개념으로서의 우언은 동아시아 전통 한문학의 한 갈래로 서사적 교술 장르 개념으로, 교술적 서사인 우화와 구별된다. 우언 작품과 우화 작품을 포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3)의 규정을 바탕으로 우언과 우화 가운데 하나를 상위 용어로 삼고, 교술성을 기본 특징으로 지닌 한문학 갈래와 서사성을 기본 특징으로 갖는 구비문학 갈래를 합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학술용어로 이용해왔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문학 작품 가운데 근대 유럽문학의 수사이론을 원용하여 작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상을 형상화된 심상으로 표현하는 비유법 가운데 하나가 우언이라는 개념 규정을 근거로, 개별 작품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므로 필자는 우언과 우화는 별개의 용어가 아니라 동일한 장르에 속하며 우언이 우화를 포함하는 전체와 부분의 장르 개념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이제 『의산문답』을 우언 장르의 한 작품으로 보고 접근해보자. 『의산문답』은 표면적으로 허자가 실용을 현인으로 여겨 자신이 30년 동안 닦은 학문적 깊이를 확인하고자 대화의 상대로 접근하려다 망신당하는 허구적인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가의 자아성찰과 비판정신을 바탕으로 ‘허(虛)’와 ‘실(實)’이라는 추상적인

29) 윤주필, 「향우 10년간의 우언 연구를 위한 영역 설정과 제언」, 한국우언문학회 편, 『우언의 인문학적 위상과 현대적 활용』, 박이정, 2006, p10 참조.

개념을 의인화하여 ‘허자’와 ‘실옹’이라 칭하고, 이들의 대화를 통해 별개의 숨은 의미를 전달한 우언장르의 한 작품이다. 그 숨은 의미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 알기 쉬운 사실판단보다 보는 관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가치판단을 먼저 앞세우는 그릇된 자세에서 벗어나자는 데에 있다.

거인이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 너에게 시험 삼아 물어 보겠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현자라는 것을 알 뿐이지 부자가 누구인 줄 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현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부자를 보니, 얼굴은 토목(土木) 같고 음성은 생옹(笙鏞) 같으며 세상을 피해 외로이 서서 뇌정(雷霆)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이로써 부자가 현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하구나, 너의 허(虛)여! 너는 저 석문(石門)에 적힌 것과 작목(斫木)에 쓰인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네가 석문으로부터 들어왔고 작목에 쓰인 글자를 보았으니, 나의 이름은 이미 알았을 터이거늘 도리어 모른다 하고, 나의 어짐[賢]을 알지 못하거늘 도리어 안다고 하다니. 너의 허위[虛]가 너무도 심하구나.”³⁰⁾

인용문에 따르면, 허자와 실옹이라는 가상 인물이 어떤 대상을 두고 내리는 현(賢)·우(愚)라는 가치판단과 진(眞)·위(僞)라는 사실판단이 대립되어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허자가 상대방의 정체를 탐색하여 내린 결론은 어진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가치판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실옹은 허자가 내린 가치판단이 허위의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자 할 때 가치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사실판단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허자가 석문에 들어서서 ‘실옹이 머무는 집[實翁之居]’이라는 글자를 보았으니 상대방의 이름이 ‘실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실옹’이

30)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巨人曰: 來, 吾試問爾. 爾以余爲誰也? 虛子曰: 吾知其爲賢者而已, 吾烏知夫子之爲誰?” 巨人曰: 然. 雖然, 爾既不知我之爲誰, 則又烏知我之爲賢者乎? 虛子曰: 吾見夫子, 土木之形, 笙鏞之音, 遯世獨立, 不迷於大麓. 吾以是知夫子之爲賢者也. 巨人曰: 甚矣, 爾之爲虛也. 爾獨不見夫石門之題斫木之書乎? 爾由門而入, 見木之書, 吾之名, 爾所已知而反謂不知, 吾之賢爾所不知而反謂之知甚矣. 爾之爲虛也.”

라는 사실을 감추고 가치판단을 앞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학문의 자세인데 사실판단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체하는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의산문답』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이 ‘실(實)’과 ‘허(虛)’라는 관념을 나타내는 추상명사를 의인화한 것이라는 특성에 주목하면, 우언 장르의 전형적인 특성과 부합한다. 여기에 ‘실’로 의인화된 인물은 중국이나 조선의 문화적 경계 지점에 사는 도가풍의 ‘옹(翁)’으로, ‘허’로 의인화된 인물은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을 오가며 유가에 속하는 ‘자(子)’로 설정되고 있는 점도 보탬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의산문답』은 추상적인 관념을 의인화하여 대립되는 두 인물의 만남이라는 허구적인 사건을 설정하고 구성 방식 측면에서는 주로 대화 형식을 취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장자 사상의 상대주의적 인식방법에 입각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장자』에서 유래한 동아시아 한문문명권의 우언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의산문답』을 서사적 교술산문 장르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서사성과 교술성의 측면에서 『의산문답』의 구성 체계와 표현 방식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 체계와 표현 방식에 관한 분석을 통해 문학작품으로서의 『의산문답』의 성격을 부각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이하의 논의를 더 진행하고자 한다.

2) 서사적 교술 장르와 글쓰기 방식

『의산문답』은 서사적 교술산문 장르이므로 서사성과 교술성이 공존한다. 따라서 『의산문답』에는 서사성에 초점을 맞춘 글쓰기와 교술성에 초점을 맞춘 글쓰기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 절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기로 하겠다.

먼저 서사적인 성격에 초점을 두고 『의산문답』의 구성 체계를 정리해 보자.

- ① 은자(隱者) 허자는 30년 간 성명(性命), 오행(五行), 삼교(三教)를 익혀 인도(人道)와 물리(物理)를 깨친다.
- ② 조선에 사는 속유(俗儒)들은 은자 허자의 말을 듣고 공감하지 않는다.
- ③ 허자는 연도(燕都)의 선비들과 두 달 동안 인도와 물리에 관해 이야기한다.
- ④ 중국에 사는 연도의 선비들 또한 은자 허자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 ⑤ 허자는 귀국하는 도중 중국과 조선의 접경에 있는 의산(醫山)에 오른다.
- ⑥ 허자는 하산하는 도중 ‘실거지문(實居之門)’이라 적힌 석문(石門)을 발견한다.
- ⑦ 허자는 석문으로 들어가 ‘실옹지거(實翁之居)’에 사는 한 거인[실옹]을 만난다.
- ⑧ 허자는 실옹과 문답을 통해 인도와 물리에 관한 가르침을 받는다.

①에서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는데, 속세에서 벗어나 사람의 도리와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궁구하는 학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에서 허자는 자신이 깨달은 사람의 도리와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공유하려 하나 외면을 당하고, 이후 조선의 선비들이 사소한 지식[小知]과 비루한 속세[陋俗]에 머무르려는 까닭이라고 여기며 실망하는 내심을 고백한다. 이는 중국 북경 여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되어 ③이라는 사건을 낳는다.

그러나 ④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 북경 선비들조차 조선의 선비들의 반응과 그리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고 허자는 성인(聖人)과 철인(哲人)이 밝힌 사람의 도리와 사물의 이치에 관한 학문 자체에 대해 회의(懷疑)한다. ⑤~⑧까지는 조선이나 중국의 선비들과는 달리, 두 나라의 경계에 있는 지점에서 학문적 대화의 상대가 될 만한 실옹과 만나 사람의 도리와 사물의 이치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허자와 실옹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직전 허자의 내심을 들어보자.

허자는 혼잣말로

“내가 허(虛)자로서 호(號)를 한 까닭은 장차 천하의 실(實)을 살펴보고 싶어 한 것이며,

지이가 실(實)자로써 호한 것은 장차 천하의 허(虛)를 타파시키고자 함일 것이다. 허는 허대로 실은 실대로 하는 것이 묘도(妙道)이니, 내 장차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리라.”³¹⁾

인용문에 따르면, 허에는 실의 이면이 실 또한 그 이면에는 허가 내포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허와 실을 둘러싼 논란을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지닌 인물 간의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작가의 내심을 담아내고 있다. 여기서 한쪽은 조선의 은자이며, 다른 한쪽은 중국의 은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은자라는 점에서 허자와 실옹은 서로 통하며, 긍정적인 인물이다. 반면 조선의 선비와 중국의 선비들은 허자로 하여금 성인과 철인이 밝힌 사람의 도리와 사물의 이치에 관한 학문 자체에 대해 회의(懷疑)하게 만드는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인물이다.

또한 『의산문답』 도입부에서, 은자와 은자의 만남을 통해 사람의 도리와 사물의 이치에 관한 학문적 대화를 나누기 위한 장소로 ‘의산(醫山)’을 선택한 점으로 미루어 ‘의산’은 학문적 대화가 가능한 이상(理想)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조선’과 ‘중국’은 허자가 추구하는 학문에 대해 공감대와 심화된 이해를 얻기에는 부적합한 장소라는 점을 미루어 부정되어야 할 현실(現實)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서사적인 성격에 초점을 두고 구성 체계를 정리해 본 결과, 『의산문답』은 인물 간의 대립 체계와 공간상의 대립 체계를 바탕으로 깔고 구성된 작품으로 ‘인물무분(人物無分)’, ‘인물지분(人物之本)’, ‘고금지변(古今之變)’, ‘화이지분(華夷之分)’ 등과 같은 사람의 도리에 관한 화제와 ‘천지지체형정상(天地之體形情狀)’과 같은 사물의 이치에 관한 화제를 다룬 문학작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작품의 형상적 측면에서 구성 방식을 재론해보자. 홍대용은 『의산문답』 도입부에서 각각의 단락을 시간적 질서의 선후 관계와 사건의 인과 관계로 짜여 있는 유기적 질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유기적 질서를 이루고 있는 도입부는 서사성을 띤 자연적 구성이다. 자연적 구성은 시간적 구성과 공간적 구성으로 구분되는데 『의산문답』은 허를 의인화한 ‘허자’라는 인물이 ‘조선’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중국’에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도중 실을 의인화한 실옹이라는 인물이 사는 ‘의산’에서 문답이

31)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虛子曰: 我號以虛, 將以稽天下之實. 彼號以實, 將以破天下之虛. 虛虛實實, 妙道之眞, 吾將聞其說.”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자연적 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방식은 도입부를 장식하고 있을 따름이다. 서사성은 (1) 일정한 성격을 가진 인물의 등장 (2) 유기적인 질서를 갖춘 사건의 전개 (3) 실제 있음직한 이야기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의산문답』에서는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유기적인 질서를 갖춘 사건이 미미하고, 사건의 진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창작의도가 드러나는 서사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반면 작품 외적 세계와 작품 내적 세계가 일치하며, 작품 외적 세계에서 작가가 살던 당대에 어떤 대상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허자와 실옹의 대화에 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술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서사적인 성격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고찰하는 방향에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술적인 성격에 초점을 두고 『의산문답』의 구성 체계를 정리해보자.

- ① 허자는 상대를 현자(賢者)라고 여기자, 실옹은 자신을 실옹이라고 가르친다.
- ② 허자는 인물유분(人物有分)이라고 하자, 실옹은 인물무분(人物無分)이라고 가르친다.
- ③ 허자는 인물지본(人物之本)을 묻자, 실옹은 천지지체형정상(天地之體形情狀)부터 가르친다.
- ④ 허자는 인물지본, 고금지변(古今之變), 화이지분(華夷之分)을 묻자, 실옹은 인물지본은 천지에 있고, 고금지변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해왔으며, 허자가 화이지분이 있다고 하자, 실옹은 화이일(華夷一)이라고 가르친다.

①은 도입부의 끝 대목이자 문답부의 시작 대목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도입부의 끝 대목은 허자가 실옹과 문답을 통해 인도(人道)와 물리(物理)에 관한 가르침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①에서 실옹과의 본격적인 대화를 통해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문답부는 한쪽 인물이 다른 한쪽 인물에게 작품에서 거론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실상을 가르치는 부분인이다. ①에서부터 그 가르침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

이다.

①은 다시 ㉠ 허자의 정체 문답 ㉡ 실옹의 정체 문답 ㉢ ‘현자’의 개념 문답 ㉣ 허자의 학문 내력 확인 ㉤ 학문의 단계 설정으로 구분된다. ㉠은 실옹이 허자를 관찰하고 두 가지 사실을 간파한다는 내용이다. 첫째, 자신을 찾은 상대방의 옷차림과 목소리를 듣고 허자가 조선에서 왔으리라 판단한다. 둘째, 겸양을 꾸며서 공손한 척하여 거짓으로써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미루어 상대방이 허자일 것이라 판단한다. ㉡은 실옹이 허자에게 본원(本源)을 먼저 말한 뒤에 인도와 물리에 관한 대도(大道)를 가르치겠다고 서두를 때는 내용이다.

㉠부터 ㉤까지 주요 화제는 학문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학자의 기본자세란 궁심(矜心)·승심(勝心)·권심(權心)·이심(利心)으로부터 벗어나 사물과 현상의 진실에 다가서려고 하는 자유로운 상태를 일컫는다. 이 네 가지 잘못된 마음을 홍대용은 ‘심허(心虛)’라 하고, 연쇄법과 점층법의 표현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³²⁾

②는 학문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에 관한 화제에서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관계에 관한 화제로 바뀌어 문답이 진행되는 대목이다. ②는 다시 ㉠ 인(人)·물(物)의 차이 문답 ㉡ 인·물 간 귀천(貴賤)의 등분(等分) 문답 ㉢ 실옹의 견해에 대한 허자의 반론과 실옹의 재반론 ㉣ 허자의 수궁으로 구분된다. 이 대목에 관한 주제론적 측면에서의 작품 분석은 후술하기로 하고 대화 전개 방식에서 보이는 구성상의 특징을 살피기로 하자.

㉠과 ㉡에서는 실옹이 대화를 주도하여 허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문의 대화로 실옹과 허자의 관계는 상보 관계이다. ㉢에서는 허자와 실옹이 인·물 간 귀천의 등분 문제를 둘러싸고 벌이는 논쟁 대화로 허자와 실옹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형태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실옹과 허자의 관계는 경쟁 관계이다. ㉣에서 실옹의 견해에 허자가 동의하여 수용함으로써 하나의 사안을 둘러싼 대화가 완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³³⁾

32)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 心虛則禮虛, 禮虛則事無不虛. 虛於己則虛於人, 虛於人則天下無不虛. (…)”

33) ②에서 보이는 교술 산문적 특징은 허자와 실옹의 상호우위에 입각한 서사적 대결 방식으로 바뀌어 오늘날 재능이 있는 작가에 의해 재창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

②와 상통하는 구성과 주제의식을 보이는 선례로는 이규보(李奎報: 1168 ~1241)가 지은 <문조물(問造物)>을 들 수 있다.

㉠ 내가 조물에게 묻기를,

“대저 하늘이 못사람을 낼 때 사람을 내고 나서 따라서 오곡(五穀)을 내었으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고, 따라서 상마(桑麻)를 내었으므로 사람이 그것으로 옷을 해 입으니, 하늘은 사람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 것 같은데 어찌서 다시 독(毒)을 가진 물건을 내었는가? 큰 것으로는 곶·범·늑대·승냥이 같은 것이요, 작은 것으로는 모기·등에·벼룩·이 같은 유가 사람을 이처럼 심하게 해친다. 만약 하늘이 사람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할 것 같으면, 그 미워하고 사랑함이 일정하지 않음은 무슨 까닭인가?”

조물이 대답하길,

“그대가 묻는 바인 사람과 물건이 나는 것은 모두 명조(冥兆)에서 정해져서 자연에 발로 된 것이기에, 하늘도 알지 못하고 조물도 알지 못한다. 대저 사람의 태어남은 본래 스스로 태어날 뿐이요, 하늘이 시켜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오곡과 상마의 생산도 본래 스스로 생산된 것이요, 하늘이 시켜서 생산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더구나 무슨 이(利)와 독(毒)을 분별하여 그 사이에 놓아두었겠는가? 오직 도(道)가 있는 자는 이(利)가 오면 순수히 받고 구차히 기뻐하지 아니하며, 독(毒)이 이르면 순수하게 당하고 구차히 꺼리지 않아, 물건을 대하되 빈 것처럼 하므로 물건도 그를 해치지 않는다.”

(…)

㉡ 내가,

“나의 의심은 환히 풀렸다. 다만 모를 것은, 자네가 말한 ‘하늘이 스스로 알지 못하고 나도 또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늘은 무위(無爲)한 것이니,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함이 마땅하거니와, 조물인 당신은 왜 모르는가?”

조물은,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이 다른 생명체에 비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귀하거나 우월한 존재인가?”하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생태주의 시각과 맞물려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둘째, 이 문제는 사실판단만으로는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가치판단을 둘러싼 사안이므로, 허자와 실용이 각자 드는 사실논거, 소견논거, 선행논거의 질과 양에 따라 독자를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강화하고, 독자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오늘날에는 교술 문학보다는 서사 문학, 특히 소설이 우위를 점하는 시대이다. 한쪽이 우위를 점하는 구성보다는 상호우위에 입각한 인물 토론 방식이 오늘날 독자로 하여금 긴장과 흥미를 자아낸다. 넷째, 『의산문답』이나 『호질』이 고전번역서적, 동화, 만화, 외국어 번역물 등 다양한 형태로 출판되어 일정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다섯째, 연암 박지원의 작품 『허생전』의 경우, 근대작가에 의해 재창작된 사례가 있다.

“내가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자네가 보았는가? 대저 물건은 제 스스로 나고 제 스스로 화(化)한다. 내가 무엇을 만들며 내가 무엇을 알겠는가. 나를 조물이라 한 것을 나도 모른다.”³⁴⁾

㉠에서는 허구화된 내가 대화를 주도하여 만물을 창조한 존재를 의인화한 조물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문의 대화로 나와 조물의 관계는 상보 관계이다. 홍대용이 ‘인·물 간 귀천의 등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반면, 이규보는 ‘인·물 간 이독(利毒)의 등분’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생(自生)하며 자화(自化)하는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생명체는 삶을 온전히 누리며 존중받아야 할 것들이므로 인·물 간의 이와 독을 등분하여 일희일탄(一喜一憚)하는 인간 중심주의 사고로부터 벗어난 경지에 이를 것을 우의적으로 당부하고 있다.³⁵⁾

㉡에서는 나와 조물(造物)이 ‘조물의 존재 여부’ 문제를 둘러싸고 벌이는 논쟁 대화로 나와 조물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형태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나와 조물주의 관계는 경쟁 관계이다. 창조와 변화는 물(物) 자체에서 이루어질 뿐 인격화된 별개의 조물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규보 자신의 주장을 ‘조물’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통해 조물을 섬기며 믿고 있는 ‘나’에게 충격을 주는 역설적 수법으로 표현했다.

한편 어떤 주제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구사하고 있는 문의 대화와 논쟁 대화 방식의 특징이 ㉡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가? 다양한 화제가 병렬적으로 구성된 문답부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가?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다. 문답부 ㉡에서

34)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卷第十一, 「問答」 四, <問造物>, “予問造物者曰: 夫天之生蒸人也, 既生之, 隨而生五穀, 故人得而食焉, 隨而生桑麻, 故人得而衣焉, 則天若愛人而欲其生之也, 何復隨之以含毒之物? 大若熊、虎、豺、獮, 小若蚊、蠱、蚤、蠹之類, 害人斯甚. 則天若憎人而欲其死之也, 其憎愛之靡常, 何也? 造物曰: 子之所問, 人與物之生, 皆定於冥兆, 發於自然, 天不自知, 造物亦不知也. 夫蒸人之生, 夫固自生而已, 天不使之生也. 五穀桑麻之產, 夫固自產也, 天不使之產也. 況復分別利毒, 措置於其間哉? 唯有道者, 利之來也, 受焉而勿苟喜, 毒之至也, 當焉而勿苟憚, 遇物如虛, 故物亦莫之害也. (….) 予曰: 吾已判然釋疑矣, 但不知子言天不自知也, 予亦不知也. 且天則無爲, 宜其不自知也, 汝造物者, 何得不知耶? 曰: 予以手造其物, 汝見之乎? 夫物自生自化耳. 予何造哉, 予何知哉? 名予爲造物, 吾又不知也.”

35) 이규보는 <술견설(虱犬說)>에서도 작고 해로운 존재인 ‘이’와 크고 이로운 존재인 ‘개’를 예증으로 들어 대조하면서 차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생명체를 대등하게 여기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담아낸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③과 ④에서도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면, 문의 대화와 논쟁 대화의 활용을 통한 주제의식의 구현이라는 성격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허자와 실옹은 상보 관계와 경쟁 관계로 맺어진 가상의 인물이다. 둘째, 허자 또는 실옹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문의 대화로 화제가 시작된다. 셋째, 특정한 화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벌이는 논쟁 대화로 전환된다. 넷째, 실옹이 제시하는 논거가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 허자가 동의하여 수용함으로써 문제해결식 대화가 완결되는 짜임새를 보인다.

③은 ㉠ 지원(地圓)에 관한 문답 ㉡ 지전(地轉)에 관한 문답 ㉢ 지측(地測)과 정계(定界)에 관한 문답 ㉣ 지중설(地中說)과 우주무한설(宇宙無限說)에 관한 문답 ㉤ 신선설(神仙說)에 관한 문답 ㉥ 분야설(分野說)과 음양설(陰陽說)에 관한 문답 ㉦ 천도(天道)의 변(變)에 관한 문답 ㉧ 오행설(五行說)과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문답으로 구분된다. 8개로 구분한 세부항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천지(天地)의 체형정상(體形情狀)에 관한 다양한 화제로 구성되어 있다. ③에서 해당 구절을 찾아 인용해 보자.

허자가 놀라 크게 깨닫고 다시 절하고 다가서서 말하기를,

“사람과 物이 등분이 없다는 것은 삼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物이 생긴 근본에 관해 청하여 물어도 되겠습니까?”

실옹이 말하기를,

“좋은 물음이다. 그렇지만 사람과 物이 생긴 것은 천지에 근본하고 있으니, 내가 천지의 실정부터 이야기하리라.

(…)

허자가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 하였는데, 지금 부자는 ‘땅의 체(體)가 둥글다.’ 함은 무엇입니까?”

실옹이 말하기를,

“심하다. 너의 둔함이여! (…)”

(…)

허자가 말하기를,

“천지의 형체와 정상은 이미 가르쳐 주심을 들었습니다. 인물의 근본과 고금의 변화와 화이(華夷)의 구별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³⁶⁾

인용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허자와 실옹은 상보 관계와 경쟁 관계로 맺어진 가상의 인물이다. 먼저 허자가 실옹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문의 대화로 화제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지원설에 대한 의견 차이로 벌이는 논쟁 대화로 전환되었다. 끝으로, 실옹이 제시하는 논거가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 허자가 동의하여 수용함으로써 문제해결식 대화가 완결되는 짜임새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③에서도 ②에서 보이는 문의 대화→논쟁 대화 양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은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관계에 관한 화제에서 천지의 체형정상에 관한 화제로 바뀌어 문답이 진행되는 대목이다. ③이 천지의 체형정상에 관한 화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용문에서 허자가 실옹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문의 대화 장면과 논쟁 대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실옹이 허자에게 의견을 묻는 ②의 대화방식에서 허자가 실옹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 화제가 모두 문의 대화→논쟁 대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허자와 실옹이 경쟁 관계를 보이지 않고, 상보 관계로만 맺어져 한쪽이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문의 대화로 화제가 시작되고, 특정한 화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없이 실옹이 제시하는 논거가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 허자가 바로 동의하여 수용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도 보인다. ㉡을 대표적인 예증으로 들 수 있다.

허자가 말하기를,

“바람과 구름, 비와 눈, 서리와 우박, 천둥과 벼락, 무지개와 무리 등 무릇 천도(天道)의 변화에 대하여 모두 들을 수 있습니까?”

실옹이 말하기를,

“허(虛)란 하늘이다. 우물과 구덩이의 공(空)이나 병의 공 또한 하늘이다. 무릇 바람이나 구름 따위는 모두 허(虛)에서 나왔다 하여 도(道)라고 이르지만, 실은 지기(地氣)의 증발로 생긴 것이지, 하늘에 전속된 것이 아니다. (...) 무지개는 수기(水氣)이다. 아침에는 동쪽, 저녁에

36)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虛子豐然大悟, 又拜而進曰: 人物之無分, 敬聞命矣. 請問人物有生之本? 實翁曰: 善哉問也. 雖然, 人物之生, 本於天地, 吾將先言天地之情. (...) 虛子曰: 古人云: 天圓而地方. 今夫子言地體正圓, 何也? 實翁曰: 甚矣, 人之難曉也! (...) 虛子曰: 天地之體形情狀, 既聞命矣. 請卒聞人物之本, 古今之變, 華夷之分?”

는 서쪽에서 햇빛을 빌려 이루어진다. 해가 비스듬히 비치면 반드시 둥근 형태가 반원을 이루며 해가 정오가 되면 무지개가 없어지는 것은 수기가 두텁지 못한 때문이다. 햇무리와 달무리도 무지개의 한 종류이다. 허공에 생기는 까닭에 반드시 원모양을 이룬다. 무지개와 해무리가 원을 이루는 것은 해와 달이 둥글기 때문이다.”³⁷⁾

인용문에서 문답의 화제는 ‘천도지변(天道之變)’이다. 실용의 답변에 주목하면 ‘풍(風)’에서 ‘훈(暈)’까지는 ‘천도지변(天道之變)’의 구체적인 사례이며, 번개와 노을, 이슬과 안개 등이 추가될 수도 있고 몇 개의 화제가 빠지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유기적 질서나 연쇄적 질서가 아닌 삽화적 질서에 의한 병렬적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지의 체형정상’을 대단위 화제라 하고, ‘천도지변’을 중단위 화제라 하며, ‘훈’에 관한 문답을 소단위 화제라 하면, 가장 많은 문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③은 전체 분량의 절반을 웃도는 만큼 ②나 ④와 달리 병렬적 구성과 함께 계층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당대 사회적 통념을 대변하는 기존 학설을 허위로 여겨 비판하고, 서학의 영향으로 등장한 새로운 학설을 진실로 여겨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 가운데 ㉠과 ㉢에 있는 대목을 선택하여 문답 방식에서 보이는 표현 방식을 고찰하기로 한다.

허자가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 하였는데, 지금 부자는 ‘땅의 체(體)가 둥글다.’ 함은 무엇입니까?”

실용이 말하기를,

“심하다. 너의 둔함이여! 온갖 물의 형체가 다 둥글고 모난 것이 없는데 하물며 땅이라! 달이 해를 가릴 때는 일식(日蝕)이 되는데 가려진 체(體)가 반드시 둥근 것은 달의 체가 둥근 때문이며, 땅이 해를 가릴 때 월식(月蝕)이 되는데 가려진 체가 또한 둥근 것은 땅의 체가 둥

37) 洪大容, 『湛軒書』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虛子曰: 風、雲、雨、雪、霜、雹、雷霆、虹、暈、凡天道之變, 可得悉聞歟? 實翁曰: 虛者天也. 是以井坎之空, 瓶罌之空, 亦天也. 凡風雲之屬, 皆出於虛, 故謂之道, 其實地氣之蒸成, 不專於天也. (….) 虹者, 水氣也. 朝東夕西, 借日以成. 日之斜射, 必成半規, 日午無虹, 水氣不厚也. 日月之暈, 虹之類也. 成於空, 故必成全規. 虹暈之成規, 日月之圓也.”

글기 때문이다. 그러니 월식은 땅의 거울이다. 월식을 보고도 땅이 둥근 줄을 모른다면 이것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추면서 그 얼굴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어리석지 않느냐? (...)³⁸⁾

인용문은 실옹이 인용문의 앞 대목에서 지원설을 펴자, 공자·안자·자사·맹자와 함께 동양 5성(五聖)으로 꼽히는 증자(曾子)의 말씀이 담긴 『대대례기(大戴禮記)』 가운데 성현의 ‘천원지방설’과 어긋남을 들어 허자가 실옹의 말에 의문을 표하는 대목이다. 이에 실옹은 먼저 영탄법을 구사해 경전에 나온 말로 진위를 판단하는 풍조를 나무랐다.

이어서 설의법을 구사하여 만물의 기본 형태가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는 점을 첫 번째 논거로 삼아, 땅 역시 곡선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두 번째 논거로는, 해와 달 그리고 땅이 천체운행 중에 상관관계로 나타나는 일식 현상과 월식 현상을 들었다. 특히 땅이 둥근 달과 둥근 태양 사이에 위치하여 땅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려지는 현상은 지구가 둥근 증거라는 말을 은유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끝으로 직유법과 유추를 구사하여 허위에 빠져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경전에 나온 말로 진위를 판단하지 말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사고를 바탕으로 진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허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세속에서 이르는 선인(仙人)의 술법입니다. 소자도 그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감히 믿지는 않았습시다. 선인의 술법이 만약 있다면, 아내와 자식 버리기를 헌신짝 버리듯 하겠습시다.”

실옹은 노여워 큰소리로 말하기를,

“나는 너를 가르칠 만하다고 하였더니, 어리석고 막힌 소견을 열기가 이렇게 어려우며,

38)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虛子曰: 古人云, 天圓而地方. 今夫子言地體正圓, 何也? 實翁曰: 甚矣, 人之難曉也! 萬物之成形, 有圓而無方, 況於地乎! 月掩日而蝕於日, 蝕體必圓, 月體之圓也. 地掩日而蝕於月, 蝕體亦圓, 地體之圓也. 然則月蝕者, 地之鑑也. 見月蝕而不識地圓. 是猶引鑑自照而不辨其面目也. 不亦愚乎? (...)”

이욕에 흐려진 마음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느냐? (...) 그러므로 신선의 무리는 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이 진원(眞元)을 보전하지만 천년만년을 지낸 뒤엔 결국 소멸(消滅)로 돌아가 육체도 진원도 다 없어지고, 더디든 빠르든 구별 없이 모두 석화(石火)요, 포환(泡幻)이 되니 실로 어려서 일찍 죽은 아이와 마찬가지로다. 그러한 바람을 지닌 마음을 캐보면 사실은 이심(利心)에서 나왔던 것인데 결과는 이로움이 없었으니, 그 생각이 교(巧)하였으나 실은 졸(拙)이요, 영리하였으나 실상은 어리석음이다. 너는 도(道)를 배우고 싶어 하면서 이러한 바람을 두었으니, 이 또한 잘못이 아니냐?”

허자는 깜짝 깨닫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소자가 잘못했습니다.39)

인용문의 앞 대목에서 실용이 속세에서 흔히 유행하고 있는 신선 무리들이 보이는 술법에 대해 열거하자, 인용문에서 허자가 신설술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 한편, 신선술의 매혹에 사로잡힌 태도를 취하니 실용이 준엄하게 허자의 태도를 나무라고 있는 대목이다. 앞에서 한 허자의 발언에서는 가정법과 직유, 풍유를 활용하여 허자의 허위의식을 풍자하고 있다.

이에 실용은 먼저 설의법을 구사해 허자의 어리석은 소견과 이욕에 사로잡힌 마음가짐을 나무랐다. 이어서 신선의 삶은 결국 허망한 것이라는 견해를 펴는 데에서는 ‘부싯돌에 잠깐 이는 불꽃’이나 ‘물거품이자 환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끝으로 역양법과 대구법을 구사하여 사사로운 이로움을 추구하려는 허자를 나무라며, 설의법을 활용하여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사사로운 이로움을 추구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고찰한 것처럼 ③은 천지의 체형정상을 둘러싼 이해와 해석 과정에서 빚어진 당대 통념이자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진실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홍대용은 주로 문의 대화나 논쟁 대화 유형의 구성 방식을 선택하고, 연쇄, 점층, 영탄, 설의, 비유, 유추, 역양, 대구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동원하고

39) 洪大容, 『湛軒書』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虛子曰: 此世俗所謂仙人之術也. 小子聞其說而不敢信也. 果有此術, 棄妻子如弊屣也. 實翁厲聲曰: 吾以汝爲可教也, 乃愚滯之難啓, 利慾之難清, 有如是乎? (...) 是以仙昇之徒, 無營無欲, 以葆眞精, 萬千年間, 終歸消滅, 畢竟就盡, 久速無分, 石火泡幻, 實同蕩子. 原其發願, 實由利心而卒無其利, 巧而實拙, 黠而實愚. 爾欲學道而乃有是願, 不亦悞乎? 虛子霍然而悟, 犁然而笑曰: 小子過矣.”

있음을 알 수 있다.

④는 천지의 체형정상에 관한 화제에서 인물지본(人物之本), 고금지변(古今之變), 화이지분(華夷之分)으로 바뀌어 문답이 진행되는 대목이다. ④를 다시 세분하면, ㉠ 인물지본, 고금지변, 화이지분에 대한 물음 ㉡ 인물지본에 관한 대답 ㉢ 고금지변에 관한 대답 ㉣ 화이지분에 관한 물음 ㉤ 화이지분에 관한 대답 ㉥ 내외론(內外論)에 대한 대답 ㉦ 춘추론(春秋論)과 역외춘추론(域外春秋論)에 대한 대답으로 구분된다. ③에서 허자가 던진 인물지본에 관한 물음에 대해 ④ 지점에 이르고서야 실용이 대답하는 셈이다.

그런데 인물지본과 고금지변은 서로 다른 화제이다. 그러므로 인물지본에 관한 실용의 답변 다음에 고금지변에 관한 화제로 허자의 질문이 들어가야 구성상 조리(條理)가 정연하게 된다. 하지만 인물지본과 고금지변 사이의 연결고리를 마련하지 않았다. 구성상 조리에 비추어 구성상 미흡한 점이 드러난 대목으로 판단된다. ㉢과 ㉣ 대목의 일부를 들어 구성상 조리가 맞는 대목과 대조해 보자.

㉢ (…·) 혼돈(混沌)이 뚫어지매 대박(大樸)이 흩어졌고 문치(文治)가 승해지매 무력(武力)이 쇠했으며, 처사(處士)가 제멋대로 의논하매 주(周) 나라 도(道)가 날로 쭈그러졌다. 진시황(秦始皇)이 서적을 불사르매 한(漢) 나라 왕업이 조금 편케 되었고, 석거(石渠)에서 분쟁이 생기매 신망(新莽)이 망하였다. 육조(六朝)는 강좌(江左) 부속되었고, 오호(五胡)는 완락(宛洛)을 처부시었으며, 척발(拓跋)은 북조(北朝)에서 위(位)를 바르고, 서량(西涼)은 당(唐) 나라에 통합되었다. 요(遼)와 금(金)은 서로 주인 노릇하다가 송막(松漠)에서 합쳐졌고, 주씨(朱氏)가 왕통을 잃으며 천하는 오랑캐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남풍(南風)이 떨치지 못하고 오랑캐[胡]의 운수가 날로 자라남은 곧 인사(人事)의 감응이기도 하지만 천신(天時)의 필연이다.”

㉣ 허자가 말하기를,

“공자(孔子)가 춘추(春秋)를 짓되 중국은 안으로, 사(四夷)는 밖으로 하였습니다. 중국과 오랑캐의 구별이 이와 같이 엄격하거늘 지금 부자는 ‘인사의 감응이요 천지의 필연이다.’고 하니, 옳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⁴⁰⁾

40)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 (…·) 混沌鑿而大樸散, 文治勝而武力衰, 處士橫議, 周道日蹙. 秦皇焚書, 漢業少康, 石渠分爭, 新莽篡位. 鄭馬演經, 三國分裂, 晉氏清談, 神州陸沈, 六朝附庸於江左. 五胡跳盪於宛洛, 拓跋正位於北朝, 西涼一統於唐祚, 遼金迭主, 合於松漠, 朱氏失統, 天下薙髮. 夫南風之不競, 胡運之日長, 乃人事之感召, 天時之必然也. 虛子曰: 孔子作春秋, 內中國而外四夷. 夫華夷之分, 如是其嚴, 今夫子歸之於人事之感召, 天時之

인용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금지변과 화이지분 사이에는 허자의 물음이 들어가 있어 왜 허자가 화이지분이라는 화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독자가 납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㉔는 구성상의 미흡함과 함께 구성상의 조리가 동시에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음은 ㉒와 ㉓에서 확인한 문의 대화와 논쟁 대화 유형이 ㉔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자. ㉒은 허자가 대화를 주도하여 실용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문의 대화로 실용과 허자의 관계는 상보 관계이다. ㉒의 답변에서는 실용의 견해에 허자가 동의하여 수용하였기 때문인지 반문이 들어가지 않다가, ㉓에서 중화의 힘이 약세를 보이고 이적의 힘이 강성해지는 사태에 대해 그 자체로 긍정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평을 하자 논쟁 대화로 전환된다.

㉒~㉓까지는 허자와 실용이 ‘화이지분(華夷之分)’ 문제를 둘러싸고 벌이는 논쟁 대화로, 허자와 실용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형태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실용과 허자의 관계는 경쟁 관계이다. 그런데 실용의 견해에 허자가 동의하여 수용함으로써 하나의 사안을 둘러싼 대화가 완결되는 특징을 보이고 않고, 미완으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㉔의 대화 전개 방식을 분석한 결과, ㉒와 ㉓에서 보인 문의 대화→논쟁 대화 양상이 ㉔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면, 문의 대화→논쟁 대화 구성은 문답부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판단된다.

한편 표현 방식의 활용 면에서 인용한 ㉒구절을 예증으로 삼아 분석해 보자. 먼저 흥대용은 천지와 인물의 관계,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관계가 조화롭고 순수했던 시대에서 천지의 구분, 인물의 구분 의식이 강화되는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부조리한 현상이 판을 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역사의식을 “혼돈(混沌)이 뚫어지매 대박(大樸)이 흩어졌다.”라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열거법을 활용하여 주나라부터 청나라까지의 중화 제국의 흥망을 중화와 이적의 이권 다툼으로 인한 교체의 역사로 간명하게 추렸다. 끝으로 중화의 나라에서 상하가 화합하여 나라가 안정

必然, 無乃不可乎?”

되고 백성의 삶이 넉넉한 상태를 ‘남풍’으로 비유하고, ‘남풍’의 중화가 쇠하고 이적의 운수가 성한 당대까지의 변화 자체는 인사의 감응이자 천운의 필연이라 한 구절에서는 대조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지와 인물의 분리로 인한 화란(禍亂)의 시초에서 긍심(矜心), 승심(勝心), 권심(權心), 이심(利心)의 발현으로 인한 ‘고금지변’의 흥망성쇠를 간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상징, 비유, 열거, 대조 등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의 문답부 구성방식을 분석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결말 처리방식이다. ‘화이지분(華夷之分)’이 허위이고, ‘화이일(華夷一)’이 진실이라는 문제해결식 문답이 이루어진 뒤에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어 미완성인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문답부에서 화제들끼리의 관계는 인사(人事)에서 물리(物理)로, 물리에서 다시 인사로 연결되는 선후관계를 맺고 있는 연쇄적 질서로 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화제는 각각의 화제를 이루고 있는 하위 단락 단위에서 특정 화제가 삭제되어도 무방한 삽화적 질서로 독립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와 반대로 삽화적 질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창작하는 과정에서 허자의 입을 빌려 선후 관계의 관련성을 맺고 있는 새로운 화제의 추가가 가능하다.

또한 『의산문답』은 하나의 화제 안에서 보이는 문의 대화나 논쟁 대화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작품 외적 서술자가 독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대 독자나 오늘날의 독자가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허자와 실용이 대화를 마치지 않은 채 작품이 마무리되는 특징을 보이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자가 허자와 실용 사이에 보이는 상보 관계와 경쟁 관계의 구도 아래 새로운 화제를 들고 나와 재창작을 통한 후속작 마련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진실과 허위를 둘러싼 대화의 당사자로 독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완성의 열린 결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술적인 성격에 초점을 두고 『의산문답』의 구성 체계를 정리한 결과, 두 인물 간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지점부터는 여러 화제가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선후 관계의 관련성을 맺고 있는 연쇄적 질서와 특정 화제의 위치가 바뀌거나 특정 화제가 삭제되어도 무방한 삽화적 질서를 이루고 있는 구성 방식임을 알 수 있

었다.

연쇄적 질서와 삽화적 질서로 이루어진 작품의 문답부에 들어서면 인물부분, 천지지체형정상, 인물지분, 고금지변, 화이지분 순으로 화제의 변화에 따라 병렬식 구성을 취하고 있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지지체형정상의 경우는 계층적 구성도 나타났다. 그러므로 『의산문답』을 도입부의 구성방식과 문답부의 구성방식으로 양분해서 볼 때, 작품의 구성방식은 서사적 교술 장르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자연적 구성과 화제의 변화에 따른 병렬식 대화체 구성이 결합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화를 마무리하지 않아 독자의 참여를 기대하는 미완성의 열린 구성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의산문답』에 자연과학적 지식과 철학적 개념이 표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학 서적이거나 철학 서적으로만 보고, 서사적 교술 장르에 속하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도외시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첫째, 『의산문답』은 구성 측면에서 볼 때 과학 서적이거나 볼 수 있는 『주해수용(籌解需用)』이나 철학 서적이거나 볼 수 있는 『사서문변(四書問辨)』·『삼경문변(三經問辨)』과 같은 논리적 구성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산문답』은 도입부의 경우 공간의 이동에 따른 자연적 구성을 취하고 있고, 문답부의 경우 화제의 변화에 따른 병렬식 대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완성의 열린 결말로 처리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여운을 주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그러면 『의산문답』의 이러한 독특한 구성 방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오늘날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이질적인 구성이기는 하나, 작가인 홍대용의 저작 내력을 미루어 작품 구성의 연원을 헤아려 보면 작가 자신의 입장에서 매우 친숙한 구성 방식이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홍대용이 『의산문답』을 창작하기 이전에 심혈을 기울여 저작한 것으로 『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 『연기(燕記)』, 『회우록(會友錄)』 등을 들 수 있다. 『을병연행록』은 국문으로 작성한 연행록으로 18세기 기행문학의 백미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조선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조선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자연적 구성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의산문답』 도입부에서 허자가 조선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상황 설정으로 활용하였다.

『연기』는 『을병연행록』에서 다룬 동일한 체험과 지식을 재구성하여 중국에서 만난 여러 인물과의 문답(問答) 항목에서부터 노정(路程) 항목까지 화제의 변화에 따른 병렬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먼저 연행에서 만나 새롭게 사귄 인물과의 문답 내용을 다루고, 여정지 주변에 있는 여러 명소들을 소개했다. <인물>에서 <명소>로 화제가 변화하다가 <문화> 항목으로 화제를 마무리했다. 문화 항목은 공연 문화, 상업 문화, 종교 문화,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생활 문화 순으로 배열했다.

『회우록』은 중국에서 만난 여러 인물 가운데 엄성(嚴誠), 반정균(潘庭筠), 육비(陸飛)와 교류 과정을 다룬 것으로 학술, 문예, 정치 문제 등의 내용을 대화 방식으로 구성한 형식이다. 『연기』에 「오·팽 문답(吳彭問答)」, 「장·주 문답(蔣周問答)」, 「유·포 문답(劉鮑問答)」 항목과 대화 형식이라는 점에서 상통하지만, 필답 분량 면에서 압도적으로 많고, 엄성(嚴誠), 반정균(潘庭筠), 육비(陸飛) 등과의 만남을 연행 기간 중 가장 의미 있는 만남으로 가치를 매겨 『연기』의 일부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독립된 저서가 되었다.

따라서 당대 허와 실을 둘러싼 시대적 문제를 우회적으로 새롭게 다룬 『의산문답』은 허구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을병연행록』, 『연기』, 『회우록』 등에서 개별적으로 구사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자연적 구성, 화제의 변화에 따른 병렬식 구성, 우연한 만남이지만 매우 깊이 있는 정신적 교감을 나누게 된 문제해결식 대화 형식 등을 혼용하여 독창적으로 변용한 작품으로 보인다.

둘째, 『의산문답』은 인물 설정의 측면에서 볼 때 과학 서적이라 볼 수 있는 『주해수용』이나 철학 서적이라 볼 수 있는 『사서문변』·『삼경문변』에서와는 달리 작품 외적 자아와 작품 내적 자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의산문답』의 경우 도입부에서 허자와 실옹을 소개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허자나 실옹과 같은 작품 내적 자아는 작품 외적 서술자가 아니라 ‘허’와 ‘실’을 의인화한 가상의 인물이다. 이는 곧 홍대용이 작품을 구상할 때 학문관, 인성관, 우주관, 역사철학관, 국가나 문명을 보는 관점 등이 서로 또렷하게 구별되는 허구적인 두 인물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인물의 대화 진행 과정에서 교화와 설득의 방식으로 내적 각성을 이루어가는 인물은 ‘자(子)’로, 자(子)가 내적 각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물은 ‘옹(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홍대용이 설정한 허구적인 장치 가운데 하나이다.

셋째, 『의산문답』은 배경 설정에서 볼 때 조선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지리적 권역으로는 중국이지만, 문화적 권역으로는 조선과 중국의 경계를 상징하는 가상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곧 홍대용이 현실 공간에서 부딪치는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상 공간을 허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당대 지식인으로서의 문제의식을 형상화하기 위한 작품으로 창작에 임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넷째, 『의산문답』은 문체상의 특징에서 볼 때 과학 서적이라 볼 수 있는 『주해수용』이나 철학 서적이라 볼 수 있는 『사서문변』·『삼경문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보 전달이나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논변류 문체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작품의 비중이 매우 높은 『의산문답』 문답부에서 홍대용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특정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연쇄나 점층, 영탄을 구사하기도 하며, 인물의 감정 표현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 유추나 설의의 표현방식을 구사하기도 하는 등 다채로운 수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의산문답』의 주제의식

1) 진실한 가치 탐색

『의산문답』의 도입부 장면에서 허자는 자신이 깨달은 궁극적인 이치를 세속인과 공유하려 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웃었다는 대목이 있다. 이 대목을 놓고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허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인식’이다. 다른 하나는 ‘고담준론이 통하지 않는 속세에 대한 허자의 한탄’이다. 전자로 볼 경우, 허자의 성격은 박지원의 <호질>에 등장하는 북곽 선생의 성격과 동질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후자로 볼 경우, 범과 적대관계에 있는 북곽 선생과는 달리 허자와 실옹이 서로 우호 관계로서 둘 다 이해관계에 얽매인 속세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이치를 탐구하고자 하는 홍대용의 자의식을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의 설정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전자와 후자의 경우를 동시에 고려하며 독법이 이루어질 때에 『의산문답』의 도입부가 지닌 양면적인 성격을 보다 잘 드러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㉔ 허자는 숨어 살면서 독서한 지 30년에 천지의 조화와 성명의 은미함을 궁구하였다. 오행(五行)의 근원과 삼교(三敎)의 진리를 달통하여 인도(人道)를 경위로 하고 물리(物理)를 깨달아 통했다. 심오한 원위(源委)를 환히 안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남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듣는 자마다 웃었다.

허자는 말했다.

“작은 지혜와 더불어 큰 지혜를 이야기할 수 없다. 비루한 속세 사람과 함께 도(道)를 이야기할 수 없다.”

서쪽으로 연도[북경]에 들어가 선비와 함께 이것저것 이야기했다. 저사[여관]에서 60일 동안이나 있었다. 마침내 서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이에 허자가 슬피 탄식하면서 말했다.

“주공(周公)이 쇠했는가? 철인(哲人)이 죽었는가? 우리 도[三敎]가 시들었는가?”

행장을 차려 돌아왔다.

㉕ 이에 의무려산에 올라 남쪽으로 창해(滄海)와 북쪽으로 대막[큰 사막]을 바라보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말했다.

“노담[노자]은 ‘호(胡)로 들어간다.’고 했고, 중니[공자]는 ‘바다에 뜨고 싶다.’고 했으니 어찌 그만둘 수 있으랴, 어찌 그만 둘 수 있으랴.”

드디어 세상으로부터 은둔할 뜻을 두었다.⁴¹⁾

㉠ 단락은 『의산문답』의 맨 첫 구절로, 허자의 깨달음이 조선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청나라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사정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 단락은 방향상실로 인한 허자의 좌절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여기에 나타난 허자의 성격을 두고 박희병 교수는 지양되어야 할 홍대용의 자의식을 상징하면서 허학에 매몰된 조선의 속류적 유자를 대변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⁴²⁾ 필자는 허자를 조롱하며 웃는 사람들의 입장과 자탄하는 허자의 입장 양쪽을 고려하여 허자의 성격과 『의산문답』의 서두 형상화에 관한 홍대용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람의 인식능력을 근거로 한 사물의 존재 방식에 대한 파악은 사회생활을 통한 경험적 인식에서 부분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허자의 경우 속세와 단절하고 오로지 독서를 통해 궁극적인 이치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선비인 허자’의 학문 방법이 성현의 말씀을 전제로 삼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대도(大道)의 타당성을 판별하는 논거를 성현의 말씀에서 찾을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 사실에서 찾을 것인지는 이학(理學)과 기학(氣學)을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깨달은 당사자인 허자는 큰 지혜니 큰 도리니 여기고 있지만, 세속인의 입장에서

41)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子虛子隱居讀書三十年, 天地之化, 究性命之微, 極五行之根, 達三教之蘊, 經緯人道, 會通物理, 鉤深測奧, 洞悉源委, 然後出而語人, 聞者莫不笑之, 虛子曰: 小知不可與語大, 陋俗不可與語道也, 乃西入燕都, 遊談于搢紳, 居邸舍六十日, 卒無所遇, 於是虛子. 然歎曰: 周公之衰耶, 哲人之萎耶, 吾道之非耶, 束裝而歸, 乃登. 巫閭之山, 南臨滄海, 北望大漠, 泫然流涕曰: 老聃入于胡, 仲尼浮于海, 烏可已乎, 烏可已乎, 遂有遜世之志.”

42) 박희병, 『범애와 평등-홍대용의 사회사상』, 돌베개, 2013, pp.136-139 참조. ; 이승준, 「담헌 홍대용의 「의산문답」 연구 -문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53, 우리어문학회, 2015, pp.153-179에서 서사적 측면에서 구성, 인물 관계, 공간의 의미, 서술자와 시점을 고찰하면서, p.164에서는 ‘虛子’를 진리에 대한 열정에 비해 시대적 한계를 지닌 인물이자 실용과의 만남을 통해 세계관의 혁신을 경험하는 인물로 일반 유자보다는 포용적으로 학문을 추구하고 복학과 실학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인물로 보았다.

보면 긴요한 관심사항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허자를 부정하고 세속인의 반응을 긍정하는 관점으로 서두를 장식하는 게 홍대용의 의도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도입부는 물론 실용과의 문답부에서도 허자의 깨달음은 곧잘 식견이 모자라는 인물로 그려진다. ‘허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읽어야 마땅해 보인다.

그런데 허자든 실용이든, 속세[조선]와 속세[청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의무려산’이라는 탈속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비일상적인 사건과 고담준론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서두에서 허자를 부정적인 인물로 풍자하거나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세속인을 옹호하려 했다면, 실용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의무려산’이 아니라 박지원의 <호질>에 나타나는 공간[들판]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느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더 설득력이 있다. 또한 일상에서 나누는 담론이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허자가 실용과 함께 나눈 중심 화제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담론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바람직한 관계 탐색, 지구의 형태와 운동, 지구와 다른 별들의 관련 양상, 여러 자연 현상의 원인, 문명의 탄생과 역사의 변천 등에 관한 일종의 고담준론이다. 이러한 실용의 담론에 관해 허자는 긍정 또는 부정의 반응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들로 보아 조선에서든 청나라에서든 궁극적인 이치에 대한 탐구자인 ‘허자’나 ‘실용’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데에 창작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궁극적인 이치에 대한 탐구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홍대용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있는 논거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용주 족하야! 제 나이 벌써 43세(1773)입니다. 비록 작은 나라에서 성장하였지만, 어려서부터 경전(經傳)과 사기(史記) 등을 학습하고, 인륜을 좋아함이 천성(天生)에서 나왔으며, 국내에 사귀어 노는 친구도 또한 많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인(學人)은 고상함을 자랑하여 자기를 높이며, 묵객(墨客)은 문체는 화려하지만 진실성이 적었습니다. 고귀한 가문의 사람들은 교만과 방탕에 젖어 있고, 한미(寒微)한 가문의 사람들은 몸을 낮추고 순종하는 자세만 몸에 익히고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식견이 어둡고, 재주가 풍부한 자는 그 행실이 보

잘 것 없습니다. 이리하여 반세상 그들과 사귀어 보았지만 능히 지성(至性)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⁴³⁾

박지원의 <호질>에 나타난 공간 설정과 북곽 선생에 대한 작가의 서술 태도와 견주면, 이와 같은 관점에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북곽 선생이 과부와 밀회를 즐기는 장면을 보자. 과부의 성씨가 다른 다섯 아들이 밀회 현장을 덮치자 북곽 선생은 크게 놀라서 뺑소니를 친다. 남들이 행여 제 얼굴을 알아볼까 해서 한 다리를 비틀어서 목덜미에 얹어 도깨비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으며 문밖으로 나와서 들이뛰어 가는 장면으로 박지원은 묘사하고 있다. 북곽 선생이 도망치다가 별관 구덩이에 빠지니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장면이 이어진다.⁴⁴⁾

이를 근거로 할 때 북곽 선생을,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한 글이 1만 권, 구경(九經)의 뜻을 부연해서 책을 엮은 것이 1만 5천 권이나 되는 비범한 학자의 면모로 보기 어렵다. 천자(天子)가 북곽 선생의 의(義)를 아름답게 여기고, 제후(諸侯)들은 그의 이름을 사모하였다는 평가가 허명이었음을 박지원은 <호질>의 이 대목을 통해 풍자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호질>의 공간 설정과 상황 설정은 ‘언행이 어긋나는 도학자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비판인식’이라는 박지원의 창작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43) 洪大容, 『湛軒書』外集 卷一, 『杭傳尺牘』, 「與蓉洲書」, “蓉洲足下! 某年已四十三矣. 雖生長小邦, 自幼服習經史, 愛好人倫, 出於天性, 域內交遊, 亦不爲不多矣. 但學人矜高而自亢, 墨容藻麗而小實. 貴胄狃於驕逸, 寒門習於卑順. 純其心者藹其識, 富其材者濇其行. 由是而半世交遊, 其能推至性終始不替者.”

44) 『열하일기』의 번역문은 최근 번역된 김혈조의 책을 기준으로 하고, 이가원과 리상호, 그리고 고미숙·길진숙·김풍기의 번역을 참조한다. 『열하일기』의 원문은 한국문집총간 『연암집』(박영철본)을 기준으로 한다. 『연암집』 원문과 번역문들은 한국고전번역원의 DB를 이용하였다.

박지원, 『열하일기』 1~3, 김혈조 옮김, 돌베개, 2009.

박지원, 『열하일기』, 이가원 역, 민족문화추진회, 1966.

박지원, 『열하일기』 상·중·하, 리상호 옮김, 보리, 2004.

박지원, 『세계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상·하, 고미숙·길진숙·김풍기 엮고 옮김, 그린비, 2008.

朴趾源,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박영철본, 민족문화추진회, 2000.

『燕巖集』, 신호열·김명호 역 (<http://www.itkc.or.kr/itkc/Index.jsp>)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於是五子共圍而擊之. 北郭先生大驚遁逃, 恐人之識己也. 以股加頸, 鬼舞鬼笑, 出門而跑. 乃陷野窞, 穢滿其中.”

반면 똥이 가득한 별판 구덩이에서 범과 대면하는 풍자의 대상으로 전락한 북곽 선생과는 달리, 허자는 은거의 뜻을 품고 중국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길목에 있는 ‘의무려산’에서 우연히 실옹과 대면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고담준론이 통하지 않는 속세에 대한 한탄’에서 ‘고담준론을 실현하는 장소의 탐색’을 거쳐 ‘속세 공간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이치를 논의할 만한 탈속 공간을 탐색’하고 있다. 따라서 허자를 비판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진실한 가치를 탐색하는 인물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허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인식’이라는 홍대용의 창작 의도는 부정되는가? 허자와 실옹과의 만남에서 벌어진 허자에 대한 실옹의 논박을 들어본다.

실옹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도술(道術)에 미혹됨이 있음을 진실로 나는 알겠다. 아아! 슬프다. 도술이 사라진 지 오래다. (…)

㉠ 사실상 자랑하려는 마음에서 정확(正學)을 붙들었다. ㉡ 사실상 이기려는 마음에서 사설(邪說)을 물리쳤다. ㉢ 사실상 권력을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인(仁)으로 세상을 구제하려 했다. ㉣ 사실상 이익을 노려보자는 마음에서 명철함으로 몸을 보존하려 했다. 이 네 가지 마음이 서로 따르며, 참뜻은 날로 사라지고, 온 천하는 물 흐르듯이 날로 허망으로 치달았다. 지금 너는 거짓 겸손과 거짓 공손으로 스스로를 ‘현’(賢)이라 여기며, 얼굴만 보고 음성만 듣고서 남도 ‘현’(賢)이라 여기고 있다. 마음이 헛되면 예(禮)가 헛되고 예(禮)가 헛되면 모든 일이 헛되게 된다. 스스로에게 헛되면 남에게도 헛되고, 남에게 헛되면 천하가 허망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도술(道術)의 미혹은 반드시 천하를 어지럽히기 마련이니, 네가 그것을 아는가?”⁴⁵⁾

인용한 구절에 따르면, 홍대용이 ㉠에서 ㉣까지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마음으로 정확을 옹호하며 이단을 배척하거나 경세제민(經世濟民)하겠다는 이면에, 권력을 추구하고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는 유학자를 허학의 신봉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45)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實翁昂然而笑曰: 吾固知爾有道術之惑. 嗚呼! 哀哉. 道術之亡久矣. (…)

崇其業而忘其眞, 習其言而失其意. 正學之扶, 實由矜心. 邪說之斥, 實由勝心. 救世之仁, 實由權心. 保身之哲, 實由利心. 四心相仍, 眞意日亡, 天下滔滔, 日趨於虛. 今爾飾讓僞恭, 自以爲賢, 見形聽音, 擬人以賢. 心虛則禮虛, 禮虛則事無不虛. 虛於己則虛於人, 虛於人則天下無不虛. 道術之惑, 必亂天下, 爾其知之乎?”

주목된다. 여기서 홍대용이 활동한 18세기 후반기에 조선의 유교사회에서 정학을 옹호하고 이단을 배척해 국왕과 사대부들이 공인하는 ‘현자’의 범위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실용을 설정하여 대결하고자 한 논쟁 상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행단 일원으로 연행을 떠났던 홍대용은 1766년 음력 2월 한족 선비와 교류할 기회를 얻었는데, 음력 15일자에 한족 선비들에게 준 편지글 ‘동국기략(東國記略)’을 통해 조선의 유학사를 간명하게 소개한 대목을 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 홍대용이나 당시 유학자 일반이 생각하는 ‘현자’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 가늠하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홍대용은 이학(理學)을 주창한 사람으로 고려 말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를 들고 있다. 정주학으로 일정한 성과를 내어 널리 세상에 알려진 인물로 한훤(寒暄) 김굉필(金宏弼)과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을 들었다.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는 젊은 나이에 개혁가로서 남녀의 길을 다르게 하고, 서민들이 상장에서 모두 가례(家禮)를 따르게 한 인물로 들었다. 저작을 통해 의리(義理)를 천명한 인물로는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을 들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유가의 도를 실천하는 데에 독실했던 인물로 평가했고, 울곡(栗谷) 이이(李珣)는 성리(性理)를 논한 학설로 이름이 높은 인물로 평가했다. ‘발(發)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發)하게 하는 것이 이(理)이다. 기(氣)가 아니면 능히 발하지 못하고, 이가 아니면 발할 수가 없다’는 기본 명제를 이학의 요지로 들었다. 울곡과 동시대에 이름이 난 유학자로는 우계(牛溪) 성혼(成渾)을 들었다. 예학(禮學)을 더욱 밝혀 분석이 치밀하고, 조리가 찬연한 성과를 낸 사람으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을 들었다.

끝으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과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을 들고, 특히 우암 송시열은 춘추대의를 존숭한 상징적인 인물로 삼았다. 포은 정몽주부터 우암 송시열까지 11명의 현자들은 모두 조선왕조에서 성묘(聖廟)에 모시고 있다고 했다.⁴⁶⁾

46) 洪大容, 『湛軒書』外集 卷二, 『乾淨衒筆談』, “有鄭圃隱夢周始倡理學. 其入本國以來, 文學漸興, 其金寒暄宏弼, 鄭一蠹汝昌, 皆表章程朱之學. 有趙靜庵光祖天資極高, 年三十掌風憲, 數年國中化之, 男女異路, 庶民喪葬, 皆遵家禮, 不幸早死, 未究其學. 有李晦齋彥迪始著書, 闡明義理. 有李退溪滉踐履篤實, 倡道益盛, 有李栗谷珣稟質清通, 見解超邁. 其論性理諸說, 高明的確, 洞見大原, 如發之者氣也, 所以發者理也. 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 數句語其要旨也. 亦不

그런데 허자가 의무려산에서 만난 실용은 주공과 공자의 업적을 높이고 정주학을 익혀 정확을 옹호하며 이단을 배척하는 ‘현자’에 대해 미혹한 학문을 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허자의 학문 태도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긍심(矜心), 승심(勝心), 권심(權心), 이심(利心)에서 비롯한 학문은 결국 허학(虛學)에 빠지는 지름길임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자’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는 실용의 태도와 반응을 근거로 홍대용의 『의산문답』 도입부 형상화 의도를 파악하면, ‘고답준론이 통하지 않는 속세에 대한 허자의 한탄’과 함께 ‘표리부동한 허자에 대한 실용의 날카로운 비판인식’을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진실한 가치 추구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홍대용의 내면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판단을 근거로 하고 긍심(矜心), 승심(勝心), 권심(權心), 이심(利心)에 구애받지 않는 가치판단을 내려야 진실을 도달할 수 있다는 홍대용의 진리관을 표명한 것으로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2) 다른 생명체 존중

『의산문답』 도입부 분석에 이어 이제 허자와의 대화를 통해 정주학과는 변별되는 인간관, 세계관, 역사관, 국가관을 제시한 『의산문답』 문답부에 나타난 주제의식을 고찰한다.⁴⁷⁾ 『의산문답』 문답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바람직한가?’, (2) ‘우주와 기(氣)의 상호 작용 결과로 천체 운행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3) ‘만물과 인간의 역사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의 관계는 변화가

幸四十九而卒。有成牛溪渾，與栗谷並時齊名。其後有金沙溪長生益闡禮學，毫分縷析，條理燦然。其後宋尤庵時烈，宋同春浚吉同時倡道。尤庵享年最久，尊尚春秋。圃隱以下諸賢，皆從祀本國聖廟。”

47) 송영배와 이경보의 논문이 이러한 상대주의 사유에 초점을 두고, 홍대용의 사상과 그 연원을 캐는 논의를 펴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송영배, 「홍대용의 相對主義的 思惟와 變革의 論理-특히 莊子의 상대주의적 문제의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제74집, 일지사, 1994, pp.112-134.

이경보, 「洪大容의 相對主義的 思惟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9.

가능한가?’

(1)을 통해 ‘인간 중심주의’에 관해 성찰과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2)를 통해 ‘지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우주의 실상을 그 자체로 탐구하는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3)을 통해 ‘문명국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간에 대등한 상호 관계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모색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홍대용의 담론 가운데 허자의 ‘인간 중심주의’라는 테제에 대한 실용의 안티테제와 진테제를 분석한다.⁴⁸⁾ 허자와 실용과의 대화에서 첫 번째 화제는 ‘인물균론’이다. 허자는 사람과 다른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존귀하고 다른 생명체는 빈천한 존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용은 사람과 다른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대등하게 삶을 누리고 있는 존재이고 사람은 다른 생명체로부터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배우면서 제도 문물을 만들었으며 가지런하고 고르게 삶을 누리는 균등한 관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른 생명체를 윤리적으로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는 홍대용의 작가정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허자와 실용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구절을 인용해 보자.

㉔ 내가 네게 물겠다. 생명체의 종류는 사람·금수·초목 셋이다. 초목은 도생(倒生)으로, 지혜는 있어도 깨달음이 없다. 금수는 횡생(橫生)으로 깨달음은 있어도 지혜가 없다. 사람·금수·초목은 끝없이 어지럽게 서로 쇠퇴하게도 왕성하게도 하는데 귀천이라는 등급의 구분이 있겠는가?”

허자가 대답했다.

“천지의 생명체 가운데 오직 사람이 귀한 존재입니다. 저 금수나 초목은 지혜가 없거나, 깨달음이 없으며, 예법과 의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금수보다 귀하며, 초목은 금수보다 천합니다.”

실용은 고개를 젓히고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진실로 사람이로다. 오륜(五倫)과 오사(五事)가 사람의 예의(禮義)라면, 때를 지어 다니며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고, 떨기로 나서 무성함은 초목의 예의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물(物)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물이 천하다. 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물이 귀

48) 홍대용과 박지원이 기일원론에 입각하여 18세기 심성론과 윤리관을 혁신한 성과를 분석한 대표적인 성과로는 조동일, 『한국의 문학과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pp.310-321 참조.

하고 사람이 천하다. 하늘이 보면 사람과 물은 균등하다. 무릇 지혜가 없기에 거짓이 없고 깨달음이 없기에 작위(作爲)도 없다. 그러므로 물이 사람보다 귀하다. 또한, 봉황(鳳凰)은 높이 천 길을 날아다니고, 용(龍)은 날아 하늘에 있다. 시초(蓍草)와 울금초(鬱金草)는 신(神)을 통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재목으로써 그 쓰임새가 있다. 사람과 견주어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한가? 무릇 대도(大道)를 헤치는 것으로 공심(矜心)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사람이 자기 쪽만 귀하게 여기고, 물(物)을 천하게 여기는 사고는 공심(矜心)의 본바탕이다.”

㉞ (….) “봉황과 용이 난다 하지만 금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초나 울금초, 소나무나 잣나무는 초목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백성에게 혜택을 입힐 인자함과, 임금 아래 세상을 다스릴 지혜도 부족합니다. 복식(服飾)·의장(儀章)의 제도나 예악(禮樂)·병형(兵刑)의 사용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사람과 같다 하십니까?” (….)

“심하도다, 너의 미혹됨이여! 물고기를 흐리게 하지 않음은 용의 백성을 위한 혜택이다. 참새가 놀라서 달아나게 하지 않음은 봉황의 임금 아래 세상의 다스림이다. 다섯 가지 채색 구름은 용의 의장이다. 온몸에 두fms 문채는 봉황의 복식이다. 바람과 우레가 떨치는 것은 용의 병형(兵刑)이다. 높은 언덕에서 화한 울음을 우는 것은 봉황의 예악(禮樂)이다. 시초와 울금초는 종묘제사[廟社]에서 귀하게 쓰인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동량(棟樑)의 귀중한 재목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림에는 물(物)에 도움 받지 않음이 없었다. 무릇 군신(君臣)의 의리는 벌[蜂]에게서, 병진(兵陣)의 법은 개미[蟻]에게서, 예절(禮節)의 제도는 박쥐[拱鼠]에게서, 그물 치는 법은 거미[蜘蛛]에게서 각각 배운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聖人)은 만물(萬物)을 스승으로 삼는다.’ 하였다. 너는 어찌해서 하늘의 입장에서 물을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입장에서만 물을 보느냐?”⁴⁹⁾

18세기 당대 동아시아 문명에서는 삼분법 생명 분류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둥근

49) 洪大容, 『湛軒書』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㉞我復問爾. 生之類有三, 人也, 禽獸也, 草木也. 草木倒生, 故有知而無覺. 禽獸橫生, 故有覺而無慧. 三生之類, 塊軋泯莽, 互相衰旺, 抑將有貴賤之等乎? 虛子曰: 天地之生, 惟人爲貴. 今夫禽獸也草木也, 無慧無覺, 無禮無義, 人貴於禽獸, 草木賤於禽獸. 實翁仰首而笑曰: 爾誠人也. 五倫五事, 人之禮義也. 羣行啣哺, 禽獸之禮義也. 叢苞條暢, 草木之禮義也. 以人視物, 人貴而物賤. 以物視人, 物貴而人賤. 自天而視之, 人與物均也. 夫無慧故無詐, 無覺故無爲, 然則物貴於人, 亦遠矣. 且鳳翔千仞, 龍飛在天. 蓍鬯通神, 松栢需材, 比之人類, 何貴何賤? 夫大道之害, 莫甚於矜心. 人之所以貴人而賤物, 矜心之本也. ㉞(…) 鳳翔龍飛, 不離禽獸, 蓍鬯松栢, 不離草木. 仁不足以擇民, 智不足以御世. 無服飾儀章之度, 無禮樂兵刑之用. 其於人也, 若是班乎? (…) 甚矣, 爾之惑也! 魚鮪不淪, 龍之澤民也. 鳥雀不獮, 鳳之御世也. 雲氣五采, 龍之儀章也. 遍體文章, 鳳之服飾也. 風霆震剝, 龍之兵刑也. 高崗和鳴, 鳳之禮樂也. 蓍鬯, 廟社之寶用. 松栢, 棟樑之重器. 是以古人之澤民御世, 未嘗不資法於物. 君臣之儀, 盖取諸蜂, 兵陣之法, 盖取諸蟻, 禮節之制, 盖取諸拱鼠, 網罟之設, 盖取諸蜘蛛. 故曰聖人師萬物. 今爾曷不以天視物, 而猶以人視物也?”

하늘을 향해 바르게 서있는 사람[正生], 사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옆으로 살아가는 조·수·충·어[橫生], 거꾸로 살아가는 산천의 초목[倒生]이라는 분류체계가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실용이 말한 ‘호상쇠왕(互相衰旺)’이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명활동의 존재 양상에 관해 대전제를 설정할 때, 존비귀천 관념이나 중심부와 변두리 즉 중변(中邊) 관념을 깔지 않았다. 사람과 다른 생명체는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왕성하게 번성하여 늘어나기도 하고, 쇠망하여 줄어들기도 하며 끝없이 어지럽게 삶을 누리는 가변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실용이 지혜와 깨달음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과 어느 하나만 갖추고 있는 다른 생명체 사이에 존귀(尊貴)와 비천(卑賤)의 등분이 있는지를 허자에게 묻는 데서 논쟁이 시작된다.

㉔에서는 실용이 문제제기를 하자 허자는 ‘사람과 다른 생명체 사이에는 귀천이 있고, 사람>금수>초목 순으로 가치의 등분이 구분된다.’는 테제(these)를 표명한다. 실용이 이에 대해 ‘금수나 초목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천하다.’는 안티테제(antithese)와 ‘사람과 금수, 그리고 초목을 생성하게 한 바탕인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과 다른 생명체는 균등하다.’는 진테제(synthese)로 반박하는 짜임새이다. 허자와 실용이 공통적으로 든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귀천을 구분하는 논거로는 지혜와 깨달음, 예절과 의리의 유무를 들고 있다.

㉕에서는 실용의 반박에 대해 허자가 반론하고, 허자의 반론에 대해 실용이 다시 반박하는 짜임새이다.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귀천을 구분하기 위해 든 논거로는 통치자가 백성에게 끼치는 혜택과 통치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지식, 여러 제도 등의 유무를 들고 있다. 사람에게는 있는 것들을 다른 생명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귀한 반면 다른 생명체는 천하다는 것이 허자의 입장이다. 반면 사람에게 있는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기에 긍정적인 면만을 들어 다른 생명체를 폄하하는 논거로 삼아서 안 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것들이라 하더라도 다른 생명체로부터 얻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기 사람만 높이는 논법을 구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실용의 입장이다.

허자의 논리는 자기 쪽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고자 하는 인간중심주의의 소산이다. 반면 실용의 논리는 자기 쪽이나 상대방이나 온전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

서 서로 대등하다는 보편주의 관점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혜와 깨달음, 혜택과 지식, 제도 등은 당대 사람과 다른 생명체를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들로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홍대용은 이 절대적 기준들을 기발한 발상과 비유로 뿌리째 흔들어 독자들에게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는 사고를 지닐 것을 촉구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때를 지어 다니며 먹고 사는’ 짐승의 삶이나 ‘떨기로 나서 무성한’ 초목의 삶 자체가 금수와 초목의 예이라고 하는 사고의 바탕에는 사람과 다른 생명체가 삶을 누리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도덕률보다 선행하며, 근본적인 원인[本源]이고, 가치판단에서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실용의 보편주의 관점과 상통하는 관점을 표명한 사례로는 박지원의 「호질」을 들 수 있다. 박지원은 범의 입을 빌려 범이 노루, 사슴, 마소, 사람을 해치는 사례와 사람이 노루, 마소, 사람이 저희들끼리 서로 해치는 사례를 견주며 누가 더 지나친지를 논거로 들고는 사람의 본바탕은 선하고, 다른 생명체의 본바탕은 악한 존재라는 입장이 부당하다고 했다.⁵⁰⁾ 사람의 본바탕이 선하면 다른 생명체의 본바탕도 선하며, 다른 생명체의 본바탕이 악하면 사람의 본바탕 또한 악한 존재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사람이든 다른 생명체든 삶을 누리는 것 자체가 선(善)이라는 명제가 도출된다.

인물균론에서 홍대용은 사람의 관점으로 다른 생명체를 보지 말고, ‘하늘’의 관점에서 사람과 다른 생명체를 가지런하게 보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이때 ‘하늘’은 곧 흩어진 기와 뭉친 기로 가득한 우주 공간이다. 이 우주 공간에는 뭉친 기운의 규모가 제각각 존재하고 있다. 지구의 지표면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 생명체는, 광활한 기운이 이합집산하며 역동적인 우주공간에서 보면 동질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나 할 것 없이 일시적이며 미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을 누리고 있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귀천의 가치관이나 선악의 가치관을 적용하는 생명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대용과 박지원이 실용과 범의 입을 빌려 내세우는 인물성인기동론(人物性因氣同論)은 사단칠정(四端七情)이나 인심도심(人心道心)을 내세우던 귀천이나 선악 관정의 근거를 생살(生殺) 여부로 전환한 획기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⁵¹⁾ 이러한 인식

50)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虎誠惡也, 人性亦惡也. 人性善則, 虎之性亦善也.”; “自天所命而視之, 則虎與人, 乃物之一也.”

의 전환은 18세기 조선사회의 내적·외적 변화의 조짐을 예고했다.

대명의리론과 조선중화주의 이념을 근거로 한 존주론 옹호 세력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한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료, 한 집안을 다스리는 가부장, 농·공·상을 다스리는 선비 순으로 체계화된 유교문명의 질서는 절대적이고 불변의 규범이었다. 그런데 인물성인기동론(人物性因氣同論)의 논리를 발전시키면, 새롭게 발견한 이치에 따라 무엇이든 새롭게 규정될 수 있기에 천지, 천하, 나라, 지방, 집안, 농·공·상이라는 대상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 조선은 물론 명·청과 일본, 그리고 서양의 문물과 풍습 또한 비교를 통한 실상에 따라 중화와 이적이라는 범주 또한 고정불변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의 의지와 객관적 상황적 조건에 따라 역사적으로 다시 규정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었다.

3) 무한한 세계 탐구

박지원의 <호질>에서는 사람이든 다른 생명체든 삶을 누리는 것 자체가 선이고, 삶 자체를 해치는 행위가 악이라는 생활선악론에서 논의가 마무리된다. 반면 홍대용의 『의산문답』에서는 인물균론에 이어 사람이거나 다른 생명체의 존재는 지구와 우주 공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우주와 기의 상호 작용에 관한 대화 장면으로 화제를 전환하여 논의가 확대되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극(無極)-태극(太極)-음양오행(陰陽五行)으로 연결되

51) 조동일은 이황, 이이, 윤훈구, 박지원이 다룬 인성론 문제를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가) 사단(四端)에서 선이 나오고, 칠정(七情)에서 악이 나온다고 하는 ‘사단칠정론’ (나) 인심(人心)은 악하고, 도심(道心)은 선하다는 ‘인심도심론’ (다) 인심(人心)은 악하기도 하고, 도리에 합당하면 선하기도 한다는 ‘인심선악론’ (라) 사람이거나 다른 생명체가 삶을 누리는 것 자체가 선이고, 상대방의 삶을 빼앗는 말이나 행동을 악이라고 하는 ‘생활선악론’ (가)는 선악의 출처가 서로 다른 특징이 있고, (나)는 자신을 위하여 하는지 도(道)를 위하여 하는지 지향점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이 있으며, (다)는 (나)와 상통하나, 인심이 악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나)와 다른 특징이 있고, (라)는 권력이나 재력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간의 관련 양상에 따라 사회악이 판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조동일, 『조선시대 인성론의 선악 논란』, 『문명연지』16, 한국문명학회, 2015, pp.5-16 참조.

는 학설과 태허(太虛)-일기(一氣)-지구와 태양의 거리에 따른 온도차, 지구의 바다와 대륙과 태양열의 상호 작용에 의한 만물의 생성으로 연결되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띠는데 허자의 이학적 세계관이 실용의 기학적 세계관에 의해 하나씩 논파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 다루는 세계관 논란 대목은 앞 절의 대화와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중세 동아시아 문명의 우주론과 근대 유럽 문명의 우주론을 대립 구도로 하고, 홍대용은 그 두 우주론의 경계에서 양측의 두 우주론의 타당성을 하나씩 따지면서 허자와 실용의 대화를 흥미롭게 전개하는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의산문답』에서 우주론에 관한 논의는 태허와 기의 관계, 기와 여러 별의 관계, 지구의 형질과 형태 및 운동 양상, 지표면과 생명체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태허(太虛)는 텅 비었으며,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기(氣)이다. 내외의 구분도 없으며 시작과 끝의 구분도 없다.

쌓인 기가 일렁거리고 엉켜 모여서 형체를 이루며 허공(虛空)에 두루 퍼져서 돌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 곧 지구와 달과 해와 별이 이것이다.

무릇 지구는 그 바탕이 물과 흙이다. 그 모양은 둥글다. 공계(空界)에 떠서 쉬지 않고 돈다. 만물(萬物)은 그 지표면에 기대어 살고 있다.⁵²⁾

실용은 먼저 사람과 다른 생명체가 있는 존립 근거인 지구, 지구와 다른 별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존립 근거인 천체를 ‘태허(太虛)’라고 했다. 우주 공간은 고요하고 빈 것처럼 보이지만, 기(氣)가 고요하고 빈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했다. 내외의 구분도 없고 시종의 구분도 없지만, 흩어진 기가 어떤 계기를 마련하여 모여 형체를 이루면 지구와 일월과 무수한 별이 된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송대(宋代)의 장재(張載)나 주희(朱熹)의 우주론과 일치한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 지구든 일월이든 다른 무수한 별이든 우주 공간에서 자전이나 공전과 같은 여러 운행 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데

52) 洪大容, 『湛軒書』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太虛寥廓, 充塞者氣也. 無內無外, 無始無終. 積氣汪洋, 凝聚成質, 周布虛空, 旋轉停住. 所謂地月日星是也. 夫地者, 水土之質也. 其體正圓. 旋轉不休, 滄滄空界. 萬物得以依附於其面也.”

목에 이르면 우주 체계의 인식에서 장재(張載)나 주희(朱熹)의 우주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전불휴(旋轉不休)’의 운행 방식에 관한 이후의 상세한 논의가 그것이다.⁵³⁾

이어서 지구의 형태와 운행에 관한 논의로 들어갔다. 사람이든 다른 생명체든 바다와 대륙에 기대어 살아가며 지구는 둥글 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에서 자전한다고 했다. 지구가 둥글다는 근거로는 일식 현상이나 월식 현상에서 보이는 둥근 형태를 들었다. 지구의 둘레가 9만 리나 되는데 하루 동안 한 바퀴를 돌기에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했다. 지구의 자전 운동에서 기(氣)의 회전에 의해 ‘상하지세(上下之勢)’가 형성되고, 상하지세는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양상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 지표면에서 우주공간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상하지세는 점점 줄어들어든다고도 했다.

홍대용의 우주체계에 관한 발상은 땅은 아래이고, 하늘은 위라고 하는 전통적 상하 관념과 대립하고 있었다. 또한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우주는 주변이라고 하는 유럽 선교사들의 중변(中邊) 관념과도 대립된 사고였다. 홍대용은 인물균의 발상과 상통하는 논리를 우주에 적용해, 못별은 우주공간에서 균등한 존재론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중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지구의 자전 운행에서 형성된 기(氣)로 인해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가 지표면에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⁵⁴⁾

이어지는 다음 대목에서는 앞 절에서 거론한 생명체의 정(正)·횡(橫)·도(倒) 범주 설정 방식과 상동성을 지니는 지구의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정계·횡계·도계의 범주론을 전개했다.

땅 측량은 하늘 측량에 표준하고, 하늘 측량은 남북 양극(兩極)에 뿌리를 둔다. 하늘을 측량하는 방법에 날[經]과 씨[緯]가 있다. 이따르므로 선(線)을 드리워 놓고 그 직선(直線)의 도수[度]를 우러러 측량하는 것을 일러 천정(天頂)이라 하고, 극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측량하는 것을 기하위도(幾何緯度)라 한다.

지금 중국에서 배와 수레가 통하는 곳으로, 북쪽에 러시아[鄂羅]가 있고 남쪽에 캄보디아

53) 문중양, 「18세기 조선 실학자의 자연지식적 성격-상수학적 우주론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제21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1999, pp.51-54 참조.

54) 전용훈, 「조선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pp. 236-238 참조.

[眞臘]가 있다. 러시아의 천정은 북쪽으로 북극과의 거리가 20도이다. 캄보디아의 천정은 남쪽으로 남극과의 거리가 60도가 되며, 두 천정의 상거는 90도가 되고 두 지역의 상거는 2만 2천 5백 리가 된다. 그러므로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를 정계(正界)를 삼고, 캄보디아를 횡계(橫界)로 삼으며, 캄보디아 사람은 캄보디아를 정계로 삼고, 러시아를 횡계로 삼는다. 또 중국은 서양에 대해서 경도의 차이가 1백 80도에 이른다. 중국 사람은 중국을 정계로 삼고, 서양을 도계(倒界)로 삼으며, 서양 사람은 서양을 정계로 삼고 중국을 도계로 삼는다. 그러나 사실은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으로 지역에 따라 다 그러하니, 횡(橫)이나 도(倒)할 것 없이 다 정계다.⁵⁵⁾

인용문에 따르면, 지표면에서 우주공간을 측량하는 방법은 남극과 북극을 잇는 위도와 적도의 동서를 잇는 경도가 있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 캄보디아와 서양 사이에는 배와 수레가 오가는데, 각국은 자기 쪽을 정계로 삼고, 다른 쪽은 도계나 횡계로 삼는다고 했다. 정계는 바로 선 지역이고, 도계는 거꾸로 선 지역이며 횡계는 옆으로 선 지역을 말한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자국은 정계이고 타국은 도계나 횡계가 되지만, 실상은 어느 지역에 살든 우주 공간 속에서 지표면에 사는 사람은 모두 정계라고 했다.

이와 같은 홍대용의 관점은 17세기부터 예수회 선교사들이 명말·청초에 선교 활동을 위해 들어와 동아시아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자 했던 ‘무상하(無上下)’ 관념과 ‘무사방(無四方)’ 관념의 수용으로 보인다.⁵⁶⁾ 하지만 당시 예수회 선교사들 역시 지구중심주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주의 중심에는 물과 흙으로 이루어진 지구가 있고, 그 위로 공기, 가장 바깥 부분은 불로 이루어져 있다는 식의 관념 체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홍대용은 유럽 선교사가 내세운 사원소설(四元

55) 洪大容, 『湛軒書』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量地準於測天, 測天本於兩極, 測天之術, 有經有緯, 是以垂線而仰測其直線之度, 命之曰天頂, 距極近遠, 命之曰幾何緯度, 今中國舟車之通, 北有鄂羅, 南有眞臘, 鄂羅之天頂, 北距北極爲二十度, 眞臘之天頂, 南距南極爲六十度, 兩頂相距爲九十度, 兩地相距爲二萬二千五百里, 是以鄂羅之人, 以鄂羅爲正界, 以眞臘爲橫界, 眞臘之人, 以眞臘爲正界, 以鄂羅爲橫界, 且中國之於西洋, 經度之差, 至于一百八十, 中國之人, 以中國爲正界, 以西洋爲倒界, 西洋之人, 以西洋爲正界, 以中國爲倒界, 其實戴天履地, 隨界皆然, 無橫無倒, 均是正界.”

56) 마테오리치 이래 예수회 선교사들이 17세기 이후 지구설과 오대주설을 동아시아 문명권에 소개하여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교정하고, 기독교의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개관한 연구로는 임종태, 『17·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서구 지리학 이해』, 창비, 2012, pp.37-84 참조.

素說)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은하는 여러 세계를 묶은 하나의 세계로 우주 공간[空界]을 두루 돌아 하나의 큰 테두리를 이룬 것이다. 은하계 속에 세계의 수는 몇 천 몇 만이다. 해와 지구 등의 세계도 하늘의 한 거대한 세계이다. 하지만 지구에서 볼 때 이와 같을 뿐이다. 지구에서 보는 이외에도 은하 세계 같은 것도 몇 천 몇 만 몇 억이나 되는 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의 좁은 시야로 보아 갑자기 은하가 [우주 공간에서-인용자 주] 가장 큰 세계라 할 수 없다.⁵⁷⁾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적인 원천인 기가 약동하는 무한의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려는 상대론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대목이다. 지구의 지표면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생명체를 균등하게 보려는 가치관과 상통하여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지구의 지표면 공간에서 자리 잡은 세계 각국을 모두 정계로 보려는 균형 감각까지 고려하면 모든 존재에 대한 인식은 자타의 구분을 넘어서는 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고가 엿보인다. 이는 다음 절의 내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존재에 관한 인식론과 연결된다.

하나인 기(氣)는 존재론적으로 서로 균등하여 여럿인 기(氣)의 존재이기도 하다는 명제로 규정할 수 있다.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적인 원천인 기가 가득한 우주 공간인 태허와 지구를 견주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미세한 티끌에 불과하다. 구만 리 둘레의 지구와 중국을 견주면, 중국은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 불과하다. 만물 가운데 사람이 중심이 아닌 것처럼 우주에서 지구, 지구에서 중국은 여럿 가운데 하나로서의 가치 이상이 아니므로 과대평가를 경계하고자 한 주제의식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홍대용이 우주와 기의 상호작용에 관해 논의하면서 그 밖에 무엇을 따지고 싶었던 것일까? 지구중심설, 신선설, 음양오행설, 분야(分野)의 설 따위는 모두 허망한 학설이라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중화주의적 세계관의 극복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7)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銀河者, 叢衆界以爲界, 旋規於空界, 成一大環, 環中多界, 千萬其數, 日地諸界, 居其一爾, 是爲太虛之一大界也, 雖然, 地觀如是, 地觀之外如河界者, 不知爲幾千萬億, 不可憑我渺眼, 遽以河爲第一大界也.”

지구는 우주의 중심으로 달빛, 햇빛, 별빛으로 둘러싸여 있다. 사람 가운데 신선이 있어 탈속의 세계에 죽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 살고 있다. 음양오행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 예전 주나라와 여러 제후국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도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있으며, 일 년 내내 보이는 하늘의 중앙에도 중국의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수도가 있고, 하늘의 주변에는 제후가 다스리는 28숙의 제후국이 있다. 홍대용은 이러한 학설들을 대표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한한 세계라는 대상을 탐구하려 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홍대용은 자기가 사는 곳을 세상의 기준점으로 삼는 견해는 자칫 자기중심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여겼다. 자기가 사는 방식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는 견해도 자기중심주의에 빠지기 십상이라며 부정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지구에서 제각각 어떤 지역에서 살아가든 모두 정계에서 살고 있다. 사람이든 다른 생명체든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을 영위하며 삶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 판단 근거로, 정계니 횡계니 도계니 하는 범주 설정 자체가 임의적인 것이므로 자기 쪽만 정계라고 하거나 사람은 정생(正生), 조·충·수·어는 횡생(橫生), 초목은 도생(倒生)이라 규정하는 범주 설정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자기 쪽만 귀하고 상대방은 천하다는 잘못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가치 판단을 내렸다.

4) 이적의 나라 존중

『의산문답』 문답부에서 보이는 세 번째 답론은 ‘만물과 인간의 역사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의 관계는 변화가 가능한가?’에 관한 논의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가)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근본, (나) 자연과 문명의 역사철학, (다) 화이(華夷) 인식으로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에서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근본은 자전하는 지구와 태양⁵⁸이라 했다. 지구

와 태양과의 거리, 지구축의 기울기에 따라 계절이 생겨나며, 이를 기반으로 사람과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홍대용이 활물(活物)이라 한 땅은 하루 한 번씩 자전하는 지구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이다. 빛과 열과 힘을 지닌 태양을 표현하기 위해 오행 가운데 하나인 불[火]을 빌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홍대용이 새로운 용어를 창안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기 위해 차용한 용어로 이해해야 한다. 그는 오행 설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지구는 대륙[土]과 바다[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자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기반으로 사람과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흙과 물도 불[火]과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오행설에 대한 대안으로 삼행설을 주창했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홍대용은 오행 가운데 이 셋을 빌려 태양의 운동을 외적 요소로 삼고 대륙과 바다의 운동을 내적 요소로 삼아 내외의 상호 작용으로 사람과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근본이라고 여겼다. 서로 다른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사람과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공심(矜心)·승심(勝心)·권심(權心)·이심(利心)에 빠진 사람들에게 홍대용은 다음과 같은 실상을 알리려 했다.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하면, 초목은 지표면에서 자란 모발이나 다름 바가 없고, 사람이나 조충수어는 지구의 표면에서 활동하는 벼룩이나 이처럼 미미할 존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나)에서는 지구의 천체 활동력과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의 생체 활동력은 길항 관계여서 전자가 우위인 시대를 기화(氣化)의 시대, 후자가 우위인 시대를 형화(形化)의 시대라고 구분했다. 길항 관계란 지구의 천체 활동력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의 생체 활동력이 늘어나는 관계를 뜻한다. 홍대용의 역사존재론과 역사인식론을 핵심적으로 파악하면 다음 두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첫째, 자연과 문명의 역사는 기화의 시대에서 형화의 시대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존재한다. 둘째, 지구의 천체 활동력이 강하고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의 생체 활동력이 약했던 시대는 모든 존재가 조화로운 총체상을 이룬 시대로 긍정적인 반면, 지구의 천체 활동력

58)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虛子曰: 天地之體形情狀, 既聞命矣. 請卒聞人物之本, 古今之變, 華夷之分. 實翁曰: 夫地者虛界之活物也. 土者其膚肉也. 水者其精血也. 雨露者其涕汗也. 風火者其魂魄榮衛也. 是以水土釀於內, 日火熏於外, 元氣湊集, 滋生衆物. 草木者地之毛髮也, 人獸者地之蚤蝨也.”

이 약하고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의 생체 활동력이 강해지는 시대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상세히 고찰하기 위한 논거로 삼기 위해 해당 대목을 제시해 본다.

상고시대에는 오직 기화로 되었기에 人·物이 많지 않았다. 태어난 성품이 두텁고 정신과 지혜가 밝고 동정도 순수했다. 음식은 物에 의뢰하지 않고, 기뻐함과 노여워함도 마음에 싹트지 않고, 호흡만 토하고 마시는데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았다. 하는 일과 하고 싶은 것도 없이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놀러만 다니니, 조수(鳥獸)와 어벌(魚鱗)도 모두 제 마음대로 살고 초목과 금석도 각각 제 자체를 보전하였다. 하늘엔 음하고 요사스러운 재앙이 없고, 땅엔 무너지고 마르는 해가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인물의 근본이요 진실로 태화(太和)의 세상이었다.

중고로 내려오면서부터 지기(地氣)가 비로소 쇠해지자 人·物이 점점 박잡하고 흐리게 되었다. 남녀가 서로 모이면 곧 정욕이 생기고 정신이 감동되어 아이를 베게 되었으니, 비로소 형화가 생긴 것이다. 형화가 있음으로부터 인물은 점점 늘어나고 지기는 더욱 줄어들며 기화가 끊어졌다. 기화가 끊어지면 인물이 태어나는 것이 오로지 정혈만 타고나기 때문에 찌꺼기의 나쁜 것만 점점 자라나고 맑고 밝은 마음은 점점 없어졌다. 이것이 천지의 불행한 운수요, 화란(禍亂)의 시초였다.⁵⁹⁾

인용문에 따르면, 기화(氣化) 우위의 시대는 사람과 다른 생명이 서로 조화로운 특징을 보였다고 했다. 문학사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원시 서사시와 원시 신화의 시대이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어 조화와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이다. 자전하는 지구의 기가 약해지자 사람과 다른 생명체가 번성하는 형화(形化) 우위의 시대로 변했다고 했다.

홍대용은 형화 우위의 시대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까? 사람과 다른 생명체,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갈등한다. 용맹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 자기 무리를 이끌고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약자의 삶은 비참해지고, 강자

59)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邃古之時, 專於氣化, 人物不繁鍾. 深厚, 神智清明, 動止純, 養生不資於物, 喜怒不萌於心, 呼吸吐納, 不飢不渴, 無營無欲, 遊戲于于, 鳥獸魚鱗, 咸遂其生, 草木金石, 各其體, 天無淫之, 地無崩渴之害, 此人物之本, 眞太和之世也. 降自中古, 地氣始衰, 人物生成, 轉就駁濁, 男女相聚, 乃生情欲, 感精結胎, 始有形化, 自有形化, 人物繁衍, 地氣益泄而氣化絕矣, 氣化絕則人物之生, 專. 精血, 滓穢漸長, 清明漸退, 此天地之否運, 禍亂之權輿也.”

는 이권을 누리면서 전쟁을 일으켜 백성들은 온전한 삶을 누리기 어려워진다. 각각 지도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기(殺氣)를 불러일으키고, 날카로운 칼과 창, 혹독한 활과 화살로 남의 성곽을 빼앗고 땅을 차지하려 들어 쓰러진 시체가 들판을 메운다. 정치·군사 중심의 문명사를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했다. 문학사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면 고대 영웅 신화와 영웅 서사시의 시대이다. 사람과 사람이 힘의 강약과 우열에 따라 자기중심주의를 천명하여 승패를 나누려드는 특징을 보이는 시대이다. 이 시기에는 용맹과 지혜를 바탕으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여 나라를 건국하는 이야기가 여럿 생겨났다. 자기 쪽이 상대방을 공격하면 그럴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하고, 상대가 자기를 공격하면 납득하기도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악행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논리가 지배하던 특징을 보인 시기이다.

왕조 교체로 본 중국의 정치사에 대한 홍대용의 포핍(褒貶)을 보자. 복희부터 요순까지 신화적인 인물이 다스린 정치에 관해서는 후한 평가를 한 반면, 하·상·주의 시대는 잘 다스려지다 이내 어지러운 시대로 규정했다. 주나라 이후로는 패권으로 신하와 백성들을 통치하는 정치가 횡행하여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왕조가 거듭 교체되는 중국 정치사를 열거하다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흥성하는 세대를 두고, 인사(人事)의 감응이자 천신(天時)의 필연이라면서, 이는 자연스러운 형세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자 (다)에서 줄곧 실용의 말을 받아들여던 허자가 반격했다. 명 왕조의 뒤를 이은 청 왕조의 정당성 옹호 발언이 중화와 이적의 구분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다룬 실용의 인물균론, 정·황·도 실(悉)정계론, 만국(萬國)-만성(萬星) 위상론, 기화→형화 전환론의 논리대로라면 중화와 이적의 구분은 자의적인 개념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허자의 반박 장면은 강조를 위한 수사학적 장치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허자의 반박 발언 수위가 더 높아지거나 이어지지 않고 실용의 해명으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홍대용은 상하의 관점이나 중변의 관점을 부정하고, 내외의 관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화와 이적의 구분’ 논의 대목을 들어 보자.

㉔ 하늘이 내고 땅이 길러주는, 무릇 혈기가 있는 자는 모두 이 사람이다. 여럿 가운데 뛰어나 한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자는 모두 이 임금이다. 문을 거둬 만들고 해자를 깊이 파서 강토를 조심하여 지키는 것은 다 같은 국가이다. 장보이건 위모건 문신이건 조제건 간에 다 같은 자기들의 풍습이다. 하늘에서 본다면 내외의 구분이 어찌 있겠는가? 그러므로 각각 제 나라 사람을 친하고 제 임금을 높이며 제 나라를 지키고 제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가 한가지다.

㉕ 대저 천지의 변함에 따라 인물이 많아지고 인물이 많아짐에 따라 물아(物我)가 나타나고 물아가 나타남에 따라 내외(內外)가 구분된다. 장부와 지절은 한 몸뚱이의 내외이다. 자신의 사체[사지(四肢)]와 처자는 한 집안의 내외이다. 형제와 종당(宗黨)은 한 문중의 내외이다. 이웃 마을과 네 변두리(四境)는 한 나라의 내외이다. 법이 같은 제후국과 왕화가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는 천지의 내외이다. 무릇 자기의 것이 아닌데 취하는 것을 도(盜)라 하고, 죄가 아닌데 죽이는 것을 적(賊)이라 하며, 사이(四夷)로서 중국을 침노하는 것을 ‘구(寇)라 하고, 중국으로서 사이를 번거롭게 치는 것을 ‘적(賊)이라 한다. 서로 구(寇)하고 서로 적(賊)하는 것은 그 뜻이 한 가지다.⁶⁰⁾

먼저, 인용한 ㉕의 논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갖 사물을 생성하는 궁극적인 실체인 기(氣)로 가득찬 태허(太虛) 즉 우주의 관점을 보면 사람들끼리, 임금끼리, 국가끼리, 풍속이나 문화끼리 사이에는 차별성이 내재한 구분이 없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이며, 부분적으로는 제각각의 사람, 임금, 국가, 풍속과 문화일 뿐이라 했다. 이를 논거로 자국민끼리 가깝고, 자기 임금을 높이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 하고, 자기 나라의 풍속과 문화를 좋게 여기는 점은 중화의 중심부 국가이든 이적의 주변부 국가이든 같다는 명제를 도출했다. 여기서 허자의 ‘화이지분(華夷之分)’ 논리와 실옹의 ‘화이일야(華夷一也)’ 논리를 비교하여 홍대용이 화이의 구분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60)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天之所生, 地之所養, 凡有血氣, 均是人也. 出類拔華, 制治一方, 均是君王也. 重門深濠, 謹守封疆, 均是邦國也. 章甫委貌, 文身雕題, 均是習俗也. 自天視之, 豈有內外之分哉? 是以各親其人, 各尊其君, 各守其國, 各安其俗, 華夷一也. 夫天地變而人物繁, 人物繁而物我形, 物我形而內外分, 臟腑之於肢節, 一身之內外也. 四體之於妻子, 一室之內外也. 兄弟之於宗黨, 一門之內外也. 里之於四境, 一國之內外也. 同軌之於化外, 天地之內外也. 夫非其有而取之謂之盜, 非其罪而殺之謂之賊, 四夷侵疆, 中國謂之寇, 中國瀆武, 四夷謂之賊, 相寇相賊, 其義一也.”

중화와 이적의 구분이 엄격하다고 내세우는 허자의 논리는 표면적으로 중화(中華)는 중화이고, 이적(夷狄)은 이적이라는 논리이다. 허자의 논리 이면에는 음양론의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중화도 아니고 이적도 아닌, 하나인 상태에서 특정한 시기에 중화와 이적의 구분이 생겨 중화는 섬김을 받는 가치를 부여하고, 이적은 교화의 대상이 되어 평가 절하해야 마땅하다는 논리가 음양론이다. 홍대용은 이처럼 차별성이 내재한 음양론을 부정했다.

반면 실용의 논리는 중화와 이적이 다툼을 벌여 중화가 이적이 되거나, 이적이 중화가 되어 통일이 되는 형세는 자연스러우며 역사적 필연이라는 논리이다. 홍대용과 상통하는 논리를 편 동시대 사례로는 청성(靑城)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을 들 수 있다.

중국인 이적(夷狄)을 대한 방법은 결국 보복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적이 비록 우리와 같은 부류는 아니지만 그들도 사람이다. 하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중국과 이적이 어찌 차별이 있겠는가?

오랑캐와 중화의 구분은 사람이 한 것이지 하늘은 똑같이 아들로 여긴다. 오랑캐가 중국을 어지럽힌다는 걱정은 요 임금 때부터 시작되어 《춘추》에서는 오로지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을 법으로 삼았으니 오나라 계찰(季札)도 중화와 같은 반열에는 끼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운수가 들고 도는 것은 성인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초나라와 오나라와 월나라가 돌아가며 중국의 맹주가 되었고, 진나라가 천하를 합병하고 오호(五胡)가 중국을 어지럽혔다. 송나라와 명나라 이후로는 드디어 중국 전역이 오랑캐에게 복속되었으니, 오랑캐가 본래 강하긴 하지만 중국이 또한 정녕 그들의 보복을 초래한 것이다.⁶¹⁾

성대중은 1790년에서 1801년 사이에 쓴 저작 『청성잡기(靑城雜記)』에서 중화와 이적의 구분은 한족이 주변 이민족에 대해 규정한 자의적인 이념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이 주변 이민족에게 영토를 빼앗긴 이유로 첫째 주변 이민족의 힘이 한족보다 강했

61) 成大中, 『靑城雜記』卷之三, 「醒言」75번째 記事, “然中華之待夷狄, 畢竟合有其報. 夷狄縱非我類, 然亦人也. 天之視之, 華夷豈有別哉?”; 成大中, 같은 책, 「醒言」118번째 記事, “夫華夷之別, 人也, 天則等是子也. 猾夏之憂, 始於舜時, 春秋則專以攘夷爲法, 吳札亦不齒矣. 然氣數之迭變, 聖亦無如之何矣. 楚與吳越, 迭主夏盟, 秦並天下, 五胡亂華. 宋明以後, 遂以全局付之, 夷固強也, 中國正亦招其報也.”

다. 둘째 한쪽이 주변 이민족의 보복을 할 만한 명분을 제공했다. 이 두 가지를 제시했다.

실용의 논리 이면에는 중화는 불변의 가치를 지닌 중화이기에 이적과 구분되어야 하고, 중화를 섬기는 이적은 이적이기에 교화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허위라며 거부하는 반발심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중화인의 우월감과 이적인의 반발심을 동시에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대안 논리는 무엇이였을까? 중화는 중화이면서 중화[보편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적[개별성]을 존중해야 마땅하고, 이적은 이적이면서 이적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중화를 존중하는 것이 보편적인 진실이라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

중화와 이적이 내외의 관계일 뿐이라는 홍대용의 논리는 중화는 중화이면서 이적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에 속하기도 하므로 과도하게 존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 머물지 말고 평가 절하의 대상으로 여긴 이적을 존중하는 태도로 어울려야 한다는 논지를 내포한다. 동시에 이적은 이적이면서 중화로부터 선진 문물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합해야 비약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이므로 중화를 배타적으로 물리치지 말고 어울려야 한다는 논지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인용한 ㉔에서는 온갖 사물을 생성하는 궁극적인 실체인 기로 가득찬 태허[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이 자전이나 공전 등 행성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다른 생명체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앞에서 다룬 홍대용의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다른 생명체가 증가하는 양상은 화란(禍亂)이 판치는 형화(形化)의 시대로 사람과 다른 생명체가 많지 않았던 기화(氣化)의 시대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사람과 다른 생명체가 증가하면서 사람이든 다른 생명체든 인식과 행동의 주체, 주체가 바라보는 어떤 대상 등에 관한 인지능력이 생겨난다고 했다. 그런데 주체 쪽에 과도하게 우위적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긍심(矜心)·승심(勝心)·권심(權心)·이심(利心)을 유발하기 십상이고 상대를 지나치게 폄하하는 역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외의 구분에 차별적인 관점을 부여하는 것에 홍대용은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했다.

내외의 구분은 비단 중화와 이적의 구분뿐만 아니라 좁은 범주에서 넓은 범주에

이르기까지 범주 설정이 가능하다면서, 이에 대해 사례를 여럿 들었다. 장부와 사지로 구성된 신체의 내외, 처자식과 가장으로 구성된 가정의 내외, 형제와 종당으로 구성된 가문의 내외, 수도와 지방으로 구성된 국가의 내외, 천자(天子)의 권역 내의 나라들과 천자의 권역 밖의 나라들로 구성된 천하의 내외 등등이 그것이다. 홍대용은 내외의 구분이 차이를 드러내는 상대적인 개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화이의 구분과 같은 자의적인 범주 설정은 추상적인 개념의 조작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허자의 경우처럼 중화와 이적의 구분에 차별적인 관점을 견지한다면, 중화와 이적 사이에 갈등이 대를 이어 계속 고조되는 양상이 지속되리라 예상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중화와 이적의 갈등으로 인한 양쪽의 전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통해 홍대용의 우려를 짐작할 수 있다. 주변의 여러 이적의 나라가 중화의 나라를 공격해 전쟁을 벌이든, 중화의 나라가 주변의 여러 이적의 나라를 공격해 전쟁을 벌이든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부당 행위라고 했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전쟁 명분에 관한 통찰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어떤 대의명분이든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이 중화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정당하다는 논리는 자기중심주의 소산으로 무상하(無上下)·무중변(無中邊)의 기(氣)로 가득 찬 태허(太虛)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성이 없다고 여겼다. 중화가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 등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정당하다는 논리가 동시에 성립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화이의 지나친 구분으로 상대를 자극해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서로 구(寇)니, 적(敵)이니 하여 화란(禍亂)이 판치는 형화(形化)의 시대가 지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중화와 이적을 하나로 보려는 홍대용의 통찰은 보편논리로서 오늘날에도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홍대용은 끝으로 자국이 상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 나라를 옹호하고 상대국을 나무라는 역사의식이 담긴 국사 『춘추(春秋)』를 남긴 공자를 예증으로 삼았다. ‘화이의 구분’이 생기게 된 시대적 배경을 듣기 위해서였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자기 나라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항적 국가주의 이념을 담은 역사서 『춘추』를 남긴 공자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동일한 논리로 공자가 이적의 나라

에서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더라도 역사서 ‘역외춘추’를 통해 자기 나라의 상황을 극복하려 했을 것이라며 대항적 국가주의 이념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외부세력이 침략하고 동시에 내부세력이 분열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형성된 대항적 국가주의 이념이 중화의 나라에서는 정당하고, 이적의 나라에서는 부당한가? 아니면 대항적 국가주의 이념은 중화의 나라이든 이적의 나라이든 구분이 없이 역사적 상황의 전개에 따라 언제 어디든 다시 형성될 수 있어 두루 정당한가? 이러한 물음은 오늘날 배타적 국가주의 이념 극복 과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깊은 울림을 준다.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한 보편논리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홍대용은 중화의 나라도 없고, 이적의 나라도 없어 하나였던 상태에서 『춘추』가 저술된 특정한 시기에 중화와 이적의 구분이 생겨난 내력을 파악했다. 『춘추』의 논리는 차별성이 내재한 음양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양(陽)은 심감을 받는 가치를 부여받고 다른 한쪽인 음(陰)은 교화의 대상이 되어 평가 절하해야 마땅하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홍대용은 음양의 논리를 부정하고 서로 나라와 나라끼리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내외의 논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화의 나라에 『춘추』가 있다면 다시 특정 시기에 이적의 나라에서도 『역외춘추(域外春秋)』가 생겨날 수 있는 가정을 했다. 그 가정의 이면에는 중화의 나라라고 해서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평가 절하의 대상으로 여긴 이적을 존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동시에 장차 『역외춘추』를 마련할 이적의 나라에서도 배타적 국가주의나 대항적 국가주의를 넘어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중화의 문물을 창조할 수 있도록 중화의 나라와 화합하여 비약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금까지 고찰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홍대용이 『의산문답』을 집필한 동기를 총괄해 보자.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는 그 어떤 서문도 남기지 않아 그 창작 동기를 우선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1)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궁극적인 이치의 근본에 대한 의문을 풀려고 했다. 학자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특히 첫 번째 물음과 두 번째 물음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학문을 위한 특수한 관심을 넘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이치를 찾아보자는 것은 허자가 30년 동안 은거하여 이학(理學)을 했던 바람이기도 했고, 실옹이 의무려산에 은거하여 유학과는 다른 학문인 기학(氣學)을 했던 바람이기도 했다.

홍대용이 실옹의 입을 빌려 『의산문답』에서 본원(本源)과 대도(大道)를 허자에게 설파하겠다고⁶²⁾ 한 것은 이치의 근본에 대한 의문을 가리킨다. 따라서 홍대용이 『의산문답』을 쓴 이유는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람과 다른 생명체가 궁극적인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운행을 하는 지구와 무수한 행성은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할 수 있었는가? 문명과 역사는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변모하였는가? 문명의 중심부 국가와 문명의 주변부 국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바람직한가? 등등 이치의 근본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다.

고상함을 자랑하여 자기를 높이는 데에 힘쓰는 학자들, 문체는 화려하지만 진실성이 적은 문인들, 교만과 방탕에 젖어 있는 고귀한 가문 사람들, 몸을 낮추고 순종하는 자세만 몸에 익히는 데에 힘쓰고 있는 한미한 가문 사람들, 마음이 순수하지만 그 식견이 어두운 이들, 재주는 풍부하지만 그 행실이 보잘 것 없는 이들 등이 외면한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 그의 평생 과제였다.

(2) 성현의 말씀을 불변의 선형적인 이치로 여기는 이학(理學)을 하는 데서는 견줄 수 없는 만족을 기학(氣學)을 하는 데서 얻으려 했다. 이에 관해 홍대용은 「손옹주에게 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바를 추구하고,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바를 추구하고서 잘하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지런히 하길 어려운 게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이 가장 심하지요. 좋아하여 숭상하는 것이 사람마다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 누가 능히 이것을 총괄할까요? 각각 그 선을 닦고, 각각 그 능한 장점을 다하여, 사사로움을 버리고, 풍속을 선량하게 하길 목적으로 한다면, 대동하는 데에 무엇이 해롭겠습니까?”⁶³⁾라고 했다.

62) 洪大容, 『湛軒書』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實翁曰: 然, 爾儒者也. (….) 今吾將語爾以大道, 必將先之以本源.”

63) 洪大容, 『湛軒書』外集 卷一, 『杭傳尺牘』, 『與孫蓉洲書』, “在我則從吾所好, 在彼則與其爲善, 顧何傷乎? 難齊者物而心爲甚, 人各有好尚, 孰能一之? 然則各修其善, 各效其能, 要以祛私

정학과 이단을 구분하여 정학을 옹호하고 이단을 배척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자. 정학이라 부르든 이단이라 부르든 당사자가 좋아하고, 당사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름대로의 삶을 온전하게 누리면 그만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결과 남도 이롭게 하는 데에 이르면, 선택한 학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대동(大同)은 이단을 버리고 정학을 추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학문의 실상을 인정하고, 다양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공공(公共)을 추구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정학과 이단의 구분을 극복한 홍대용의 포용적 사고는, 19세기 실학자 혜강(惠崗) 최한기(崔漢綺:1803~1877)의 저술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므로 해당 구절을 논거로 삼아 두 사람의 포용적 사고를 견주어볼 필요가 있다. 최한기는 『인정』에서 천지의 범위와 만물이 운행하는 변화를 한 단어로 표현했다. 아무런 부족이나 남김이 없고, 정밀한 것과 거친 것, 내외(內外)를 간곡하게 정성을 다하여 표현한 것이 ‘기(氣)’이며, 기가 유행하는 양상을 ‘도(道)’라 하고, 기의 조리(條理)를 ‘이(理)’라 하고는⁶⁴⁾ 이학과 기학의 상호보완적 관계와 이학과 기학을 하는 데에서 생길 수 있는 폐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㉔ 이학(理學)을 하는 사람이 기학(氣學)에 밝다면, 이학은 더욱 밝아진다. 기학을 하는 사람이 이학을 겸한다면, 이학이 바르게 된다. 기를 미루어 이를 밝히면, 기학이 이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를 미루어 기를 증험하면, 이학도 기학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학의 폐단은 자기주장만 내세워 다른 학문을 비방하기에 여력(餘力)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기학의 폐단은 운화에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학문을 권하여 함께 대도(大道)로 돌아가려는 것이다.⁶⁵⁾

㉕ 모든 학문 중에 폐단이 없는 것은 없다. 허무학(虛無學)의 폐단은 준적이 없는 곳으로 빠져가므로 그 폐단을 바로잡기 어렵고, 성실학(誠實學)의 폐단은 스스로를 속박하는 지경으로 깊어지므로 그 폐단을 풀기 어렵고, 운화학(運化學)의 폐단은 빗나가고 지나침에 있으나 폐단을 바로잡기가 지극히 쉽다. 왜냐하면 이미 운화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서, 배운 것을 가지고 착오와 과불급

而善俗, 則何害於大同乎?”

64) 崔漢綺, 『增補 明南樓叢書』 3, 『人政』 卷十二, 「教人門」五, <學有一字目>, “天地範圍, 萬物造化, 以一言括之. 無有欠闕遺漏, 曲盡精麤內外者氣也. 氣之流行謂之道. 條理謂之理.”

65) 崔漢綺, 같은 책, 「教人門」五, <理氣學就質>, “理學人明氣學, 則理學益明. 氣學人兼理學, 則理學得正. 氣學可使有補於理學, 理學亦可有助於氣學也. 理學之弊, 涉於自主張毀他學. 不遺餘力. 氣學之弊, 恐不逮於運化, 勸他學而同歸大道.”

을 고찰하여 표준으로 잡으면, 그 법칙이 멀지 않고 도리에 따르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⁶⁶⁾

㉞는 이학과 기학이 서로 다른 학문이기는 하지만, 이학에서 기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여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폐단으로는 자기가 하는 학문은 정학(正學)이고, 나머지는 이단(異端)으로 여겨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고집하는 점을 꼽았다. 최한기 자신이 추구하는 기학 또한 폐단이 있다면, 여러 분과학문을 병행하여 하나의 궁극적인 이치를 발견하려 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최한기는 이학의 폐단과 기학의 폐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㉞에서 불교학이나 도교까지 추가하여 한 차례 더 거론했다. 이학자가 다른 학문을 배격하는 태도는 자신을 속박하는 경지에 이르러 폐단을 바로잡기 어렵지만, 기학은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을 논거로 들어 발견한 이치를 재검증하기 때문에 거듭 수정하여 새로운 이치 발견에 더 다가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최한기가 지녔던 이러한 문제의식을 홍대용에게 적용해 보자.

홍대용이 노론 낙론 계통이면서도 이학이 아닌 기학의 관점으로 학문관을 전환한 계기, 지구설과 지진설을 이해한 후 우주무한을 가정하여 비약한 연유, 화이의 구분에서 화이일의 관점으로 전환한 까닭은 바로 최한기가 언급한 이학[正學]이 지닌 폐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다른 학문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가 스스로를 속박하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남달랐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윤리적 · 천문학적 · 정치적 허위를 논박하고자 했다. 이것은 『의산문답』에 명시되어 있는 의도이다.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는 그 바탕이 다른 존재이며, 하늘과 닮은 사람은 귀하고 다른 생명체는 천하다는 유교적 윤리관은 허위라고 여겼다. 하늘은 둥근 반면, 땅은 평평하며 움직이지 않는 존재로 우주의 중심이라는 상하(上下) 관념이나 중변(中邊) 관념에 입각한 천문학은 허위라고 했다. 중화문명은 세계 여러

66) 崔漢綺, 같은 책, 『教人門』六, <諸學之弊>, “一切學問, 莫不有弊. 虛無學之弊, 馳驚於無準之地, 其弊難救. 誠實學之弊, 漸篤於自縛束之境, 其弊難解. 運化學之弊, 在於違越, 而救弊至易. 既有運化之形質, 舉所學而考準差誤與過不及, 其則不遠, 惠迪不難.”

나라의 중심부이며, 그 이외의 나라들은 모두 이적으로, 중화가 이적을 침범하면 정당하고, 이적이 중화 문명을 침략하면 부당하다는 자기중심의 중화문명의 정치관은 허위라고 했다.

(4) 『의산문답』을 당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으로 삼으려 했다. (3)과 연결된다. 인물성동이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생명체는 사람의 스승이며, 우주와 만물을 생성하는 기의 관점에서 보면 균등한 관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시아 사대부의 중화 중심 우주관과 유럽 선교사의 신 중심의 우주관 사이의 논란에 대해서는, 무한 우주에서 중심부는 없으며, 진실은 우주와 기(氣)의 작용으로 인한 생성과 변화 그 자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심부 문명국과 주변부 나라들의 구분에 대해서는, 구분의 자체가 배타적 국가주의 소산이거나 대항적 국가주의 소산이므로, 중심부 문명국과 주변부 국가의 위상은 역사적 변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홍대용에게 심성론과 우주 본체론, 역사철학과 화이론 문제 등은 통합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하나의 연구 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Ⅲ. 『열하일기』의 장르적 성격과 주제의식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열하일기(熱河日記)』는 1780년 여름에 사행단 일원으로 북경에 다녀온 뒤 얻은 견문을 바탕으로 일기부, 필담부, 잡기부 형식에 조·청 관계의 경세의식을 담고 있는 저서이다. 1780년부터 1783년까지 초고본은 『연행음청(燕行陰晴)』이라는 제명을 붙였으나, 그 이후에도 거듭 개작(改作)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미완성인 글도 일부 있다. 이를 통해 박지원이 이 저서에 쏟은 열정과 현실적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헤아릴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열하일기(熱河日記)』에 나타난 유기성, 연쇄성, 삼화성 고찰을 근거로 장르적 성격을 검토한다. 이어서 박지원의 글쓰기 방식이 지닌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고문체와 패관소품체의 활용 양상을 논의하고, 이를 잡록적 성격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끝으로 『열하일기(熱河日記)』에 나타난 주제의식 고찰을 통해 박지원이 당대의 시대적 과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하려 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열하일기』의 장르적 성격

1) 구성 체계와 장르적 성격 문제

『열하일기』가 문학작품이라는 데에는 학계의 이견이 없으나 문학 장르 측면에서 (1) 『열하일기』는 일기문학이다 (2) 『열하일기』는 기행문학이다 (3) 『열하일기』는 필담을 포함한 잡록이다 하는 쟁점을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다. (1)은 연구자들이 내린 규정은 아니다. 그런데 작가인 박지원의 입장을 대변한다. 가장 초창기에 필사되었으며, 『열하일기』의 독립적인 체제가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시기의 초고본 계열의 이본들을 보면 『열하일기』의 제목 정하기를 두고 고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초고본 계열의 이본들을 보면, 『행재잡록』, 『잡록』, 『연행음청』 등의 이름을 달고 있다. 일기와 필담을 포함한 잡기의 저술이 비등하다 보니 『음청(陰晴)]이라 달기도 하고, 『잡록(雜錄)]이라 달기도 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열하에서의 체험에 관한 기록이 연행록의 역사에서 박지원 자신의 기록이 최초라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날마다 일어난 행적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의미에서 『열하일기』라 한 것으로 보인다.

(2)는 오늘날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장르 규정이다. 연구자들의 이러한 이해 방식은 김경선(金景善: 1788~1853)이 『연원직지(燕巔直指)] 서문에서 보인 관점을 주요 논거로 삼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

북경에 갔던 이들 다수가 그 행적을 기록하였는데, 세 분이 최고이다. 노가재 김창업, 담헌 홍대용, 연암 박지원이 그들이다. 기록한 문서를 예로 논해 보면 노가재는 편년체인데 가지런하고 실하며, 유려하고 조리가 있다. 담헌은 기사체인데, 바르고 우아하며, 곱고 정밀하다. 연암은 입전체의 종류인데,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크고 넓다.⁶⁷⁾

67) 金景善, 『燕巔直指』, 『燕巔直指序』. “適燕者多紀其行, 而三家最著. 稼齋金氏, 湛軒洪氏, 燕巖朴氏也. 以史例則稼近於編年, 而平實條暢. 洪沿乎紀事, 而典雅縝密. 朴類夫立傳, 而瞻麗闊博.”

김명호는 『열하일기』가 “그 풍부한 내용과 다채로운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연행록의 범주에 속하는 한편의 통일된 작품”이라 하고, “연행록의 전통 속에서 출현할 수 있었던 기행문학사의 응편 저작”으로 규정⁶⁸⁾하고 있다. 『열하일기』는 사서(史書)의 편년체(編年體)적인 방식과 각 사항마다 본말(本末)을 갖추고 있는 기사체(記事體)적인 방식을 종합하면서, 박지원 나름의 창안을 가미한 입전체(立傳體)적 연행록⁶⁹⁾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열하일기』 장르 문제는 『열하일기』의 유기성, 연쇄성, 삽화성을 두루 고려한 뒤에 이 문제를 해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건의 인과 관계와 선후 관계가 긴밀하게 짜인 유기적인 구성이 두드러지면 (1)이나 (2)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일기문이나 기행문은 해당 날짜에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갈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사건의 선후 관계로 이루어진 연쇄성만 지니고 있거나, 사건의 인과 관계나 선후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삽화성이 두드러진 구성이면 (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잡록은 단락과 단락의 관계가 인과 관계가 두드러지지 않거나, 특정 단락이 빠지거나 새로 추가되어도 무방한 갈래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열하일기』의 전체적인 구성 체계 분석을 통해 이 절에서 『열하일기』의 유기성을 논의한다. 이어서 『열하일기』의 연쇄성, 삽화성을 논의한다. 끝으로 『열하일기』의 장르적 본질이 일기문학의 특성이나, 기행문학의 특성에 있다기보다는 잡록문학의 특성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한다.

박지원이 남긴 『열하일기』의 짜임새를 고찰해 볼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사항은 사행 체험을 기록한 일기문학이자 기행문학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행 기록이 시작되는 제1편 「도강록(渡江錄)」에서 1780년 음력 6월 24일자 일기를 분석함으로써 확인된다.

㉔ 6월 24일 신미일

68)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p.154 참조.

69)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pp.155-159 참조.

㉔ 아침에 가랑비가 오더니 종일토록 오락가락하였다.

㉕ 오후에 압록강을 건너 뒤 삼십 리를 나아가 구련성에서 노숙하였다. (...)

㉖ 처음에 용만, 곧 의주의 의주관에서 열흘을 머물고서야 중국에 보낼 방물이 모두 도착하여 떠날 일정이 매우 촉박해졌다.

㉗ 그러나 큰비가 장맛비가 되고 두 강물이 넘쳐흘렀다. 그 사이에 쾌청한 날이 나흘이나 지났건만, 물살은 더욱 거세져 나무와 돌이 함께 휩쓸려 내려오고 탁한 물결이 하늘과 마주 닿았다.⁷⁰⁾

인용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㉔ 날짜 ㉕ 날씨 ㉖ 여정 ㉗ 감상 ㉘ 건문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는 25편으로 이루어진 『열하일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분량으로 「도강록(渡江錄)」, 「성경잡지(盛京雜識)」, 「일신수필(駟汎隨筆)」, 「관내정사(關內程史)」, 「막북행정록(漠北行程錄)」, 「태학유관록(太學留館錄)」, 「환연도중록(還燕道中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⁷¹⁾ 필자는 이를 ‘일기부’⁷²⁾라고 칭하고 『열하일기』의 구성 체계에 관해 간명하게 이해하기로 한다.

일기부를 세분하여 보자. 박지원은 1780년 음력 6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56일간의 기간을 설정하여 여행 당시 작성한 일지(日誌) 초고를 바탕으로 『열하일기』를 집필했다. 이를 다시 일곱 개로 세분하여 ① 「도강록(渡江錄)」 ② 「성경잡지(盛京雜識)」 ③ 「일신수필(駟汎隨筆)」 ④ 「관내정사(關內程史)」 ⑤ 「막북행정록(漠北行程錄)」 ⑥ 「태학유관록(太學留館錄)」 ⑦ 「환연도중록(還燕道中錄)」으로 구분했다. 『열하일기』를 한 편의 문학작품으로 규정할 경우 박지원이 ~록, ~잡지, ~수필, ~정사 등의

70)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渡江錄」, “六月二十四日辛未. 朝小雨, 終日乍灑乍止. 午後渡鴨綠江, 行三十里, 露宿九連城. (...) 初留龍灣義州館十日, 方物盡到, 行期甚促. 而一雨成霖, 兩江通漲. 中間快晴. 亦已四日, 而水勢益盛, 木石俱轉, 濁浪連空.”

71) 박지원은 1780년 음력 5월 25일 한양에서 출발하여 6월 15일까지 의주에 당도하고, 6월 24일까지 열흘 동안 의주에 머물렀다. 이 기간 내의 사행 여정과 그 내력을 박지원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또한, 박지원은 음력 8월 21일부터 9월 17일까지 북경에 머물다가, 10월 20일에 압록강을 건너, 10월 27일 한양에 당도했다. 음력 8월 21부터 10월 27일까지 여정과 그 내력도 박지원은 다루지 않았다. 남권희, 「새로 발견된 노이점의 <수사록>에 대한 서지적 연구」, 『圖書館學論集』2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5, pp405-437 참조.

72) 본고에서는 일기부를 제외한, 잡록(雜錄), 잡기(雜記), 록(錄), 시말(始末), 이문(異聞), 기략(紀略), 술(述), 섭필(涉筆), 야화(夜話) 등 박지원이 사용한 여러 한문학 양식을 활용한 부분을 ‘잡기부’라고 규정하고, 일기부와 잡기부 이외에 구어가 아닌 문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과정을 기록한 부분을 ‘필담부’라 규정한다.

당대 교술 장르적 명칭의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일기부 내에 잡기와 필담이 섞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잡록 장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각 편 속에 잡기나 필담의 삽입 유무를 기준으로 삼으면, 잡기나 필담이 삽입된 ①~④의 일기부와 잡기나 필담이 삽입 되지 않은 ⑤~⑦의 일기부로 구분이 가능하다.

⑤~⑦에 잡기나 필담이 일기 속에 포함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⑤~⑦의 기간에 작성된 잡기나 필담이 일기부와 대등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의주에서 북경까지 이동한 기간에는 박지원의 행동반경이 넓고, 이동속도가 빠르며, 이동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일기의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잡기나 필담의 분량이 적은 결과를 빚어 일기⊃잡기, 일기⊃잡기+필담 등의 구성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⑤~⑦에 이르러서는 박지원의 사행 상황이 반대로 바뀌었다. ①~④에 비해 박지원의 행동반경이 좁고 이동속도가 느리며, 이동거리가 짧아졌다. 일정 기간 특정 장소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한족 사대부들과 교류하고, 북경과 열하의 문물에 관한 견문과 감상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까닭이다.

또한 의주에서 북경까지 작성한 일지는 40일이다. 이에 반해, 열하에 체류한 기간과 다시 북경으로 돌아와 체류한 기간에 작성한 일지는 단 16일이다.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음력 8월 21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 가까운 북경 체류 기간 동안 박지원은 무엇을 했을까? 열하나 북경과 관련된 잡기의 소재가 될 만한 다양한 화제들을 수집하는 한편, 난필로 작성된 필담 초고들을 정리하는 데에 힘썼던 것이다. 그 결과 의주에서 북경까지 이동 기간과는 달리, 북경과 열하에서의 체류 기간에는 잡기부와 필담부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일기부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결과를 낳았고, 일기부와 대등한 잡기부와 필담부가 별도로 설정되는 특징이 『열하일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①~④는 일기부 속에 잡기와 필담이 들어있다. ①은 1780년 음력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의주에서 요양에 이르기까지 보름 동안의 행적을 적은 일기이다. 보름 동안의 행적 가운데 6월 24일자 의주에서 구련성까지 행적, 6월 27일자 책문에서의 행적, 6월 28일자 봉황성에서의 행적이 자세한 편이다. <구요동기>, <요동백담기>,

<관제묘기>, <광우사기> 등의 잡기를 포함하고 있다. 박지원은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넘을 때 비장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요동을 지나면서 요동이 조선의 옛 영토였음을 변증하기도 하며, 봉황성 내의 건축물을 보고 조선과 청나라의 건축술을 견주기도 했다.

반면 ②는 1780년 음력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심리하에서 소흑산에 이르기까지 닷새 동안의 행적을 적은 일기이다. 닷새 동안의 행적 가운데 7월 10일자와 7월 11일자 심양에서 머문 기간의 행적이 자세한데, 특히 7월 10일자 행적의 분량이 늘어 난 데에는 한족 상인과의 만남과 필담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7월 14일자에서 한족 상인들을 위해 상호명(商號名)을 써준 ‘기상새설(欺霜賽雪)’에 얽힌 일화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일기 속에 <속재필담>, <상루필담> 등의 필담과 <고동록>, <성경가람기>, <산천기략> 등의 잡기가 들어 있다. 여기에서도 만주 지역이 조선의 옛 강역이었음을 부각하는 한편, 심양에서 만난 청나라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자신들의 본업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③은 1780년 음력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신광녕에서 산해관에 이르기까지 아흐레 동안의 행적을 적은 일기이다. 아흐레 동안의 행적 가운데 ‘장관론’과 <수레제도>라는 의론을 펼친 7월 15일자 구광녕성에서의 행적이 자세하다. <북진묘기>, <강녀묘기>, <장대기>, <산해관기> 등의 잡기도 포함하고 있다.

③은 ①과 달리 기(記) 형식 이외에도 청나라의 상업 발달과 여유가 있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돋보이게 하는 글이 실려 있다. <수레제도>, <연희 무대>, <시장 점포>, <객점>, <다리> 등의 제명이 달려 있다. 이 글들은 박제가의 『북학의』와 성격이 상통하는 글을 읽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이 글들은 ‘장관론’과 관련이 있다. ‘장관론’은 박지원이 자신을 삼류 선비라 규정한 뒤 기와 조각, 조약돌, 똥거름 등과 같은 하찮은 것들을 실용적이며 심미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청나라 문물을 조선의 선비들이 배워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다. 청나라 문물의 발달 상황을 부각시켜 박지원이 이용후생을 통한 정덕의 실현이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는 1780년 음력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산해관에서 북경에 이르기까지 11일 간의 행적을 적은 일기이다. 11일 간의 행적 가운데 무령현 성내에 있는 서학년의 집에 들렀을 때 행적이 담긴 7월 25일자, 이제묘에서 점심을 든 행적이 담긴 7월 27일자, 옥전현에 있는 심유봉의 가게에 들른 행적이 담긴 7월 28일자, 긴 여정 끝에 당도한 8월 1일자 북경에서의 행적이 자세하다. <열상화보>, <이제묘기>, <난하범주기>, <사호석기>, <동악묘기> 등의 잡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④에서는 절의를 지키느라 굶어 죽은 백이·숙제의 사당을 방문한 내력을 다루면서, 백이를 숭상하는 의례 풍습을 회화적으로 다룬 일화와 함께 박지원의 대표적인 한문단편의 우언이자 기문(奇文)인 <호질>이 잡기인 <사호석기>와 <동악묘기> 사이에 포함되어, 홍대용의 『의산문답』과 성격이 상통하는 글을 신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천하통치론’에서 중화 출신이든 이적 출신이든 삼천여 년 동안 중국의 황제가 된 이들은 모두 유정(惟精)·유일(惟一)의 마음으로 다스려왔을 것⁷³⁾이라는 통찰을 담아내기도 했다.

반면 ⑤~⑦은 잡기나 필답이 일기부 편중 또는 편말에 배치되지 않아 일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는 1780년 음력 8월 5일부터 8월 9일 오전까지, 북경에서 열하에 이르기까지 닷새 동안의 행적을 적은 일기이다. 북경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 열하로 떠나게 된 내력을 다룬 8월 5일자, 순의현 손가장에서 목가곡까지 여정에서 추위에 떨고 뱃속이 굶주려 경관을 둘러보고 즐길 겨를이 없었던 사연을 다룬 8월 6일자, 북방민족과 한족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상징적인 장소인 고북구 근방에서 감회와 황제 생신연 날짜를 맞추기 위해 위험을 무릅 쓰고 강을 밤새 아홉 번이나 건너게 된 사연을 다룬 8월 7일자 일기가 자세하다. 이 기간에 쓴 명문(名文)이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口記)>와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인데 자신의 문예성과 사상성을

73) 이는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의 존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목으로 주목할 만하다. 『의산문답』에서 홍대용이 화이의 구분을 부정하고 ‘화이일’을 내세운 점과 연결해 견줄 필요가 있다. 한족이 세운 제국과 만주족이 세운 제국을 구별하여 전자는 중화의 제국으로 후자는 이적의 제국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박지원이 지지하고 있다면 중국의 황제가 된 이들이 모두 유정·유일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것이라는 통찰을 청나라 황정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펼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담아내었다. 그리고 「산장잡기」라 한 별도의 편명 속에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박지원 자신의 문예성과 사상성이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선택한 장르가 일기문학이 나 기행문학이 아니라 잡록 장르임을 시사한다.

⑥은 1780년 음력 8월 9일 오후부터 8월 14일까지, 사행단의 숙소인 태학에 머물며 엿새 동안의 행적을 적은 일기이다. 열하에 당도하여 태학에서 만난 청나라 관리와 한족 선비들과 소개가 이루어진 8월 9일자, 사신단과 함께 황제를 알현한 내력을 담은 8월 10일자, 황제의 명으로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 판첸 라마를 알현한 내력을 담은 8월 11일자, 무심코 태학관을 나서다 보게 된 청나라 말뚝 무리를 보고 조선의 목축 기술과 견준⁷⁴⁾ 8월 14일자 일기가 자세하다.

⑦은 1780년 음력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하에서 북경으로 귀경(歸京)하기까지 엿새 동안의 행적을 적은 일기이다. 금산령 장성과 고북구를 지나면서 황하의 범람과 이적의 침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중국 황제의 근심을 헤아린 8월 17일자, 북경에 당도하여 필담 초고와 여행 중 쓴 일기 초고가 담긴 보따리를 풀어헤치며 보따리 내용물을 궁금해 했던 일행들에게 보여준 상황을 해학적으로 다룬 8월 20일자 일기가 자세하다.

①~⑦까지 일기부 내 56일 가운데 ①에서 3일, ②에서 2일, ③에서 1일, ④에서 4일, ⑤에서 3일, ⑥에서 4일, ⑦에서 2일 등 19일간의 서술 분량이 다른 날들에 비해 늘어나게 된 것은 그 날에 벌어진 사건이 많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지원이 사행 도중 겪은 여러 사건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방식과 함께 서사적인 대화 방식으로 자신과 인연을 맺은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재구성하여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분량이 늘어난 일자들에서 보이는 다양한 사건 기술, 인물 간 대화 방식으로의 기술 등의 특징보다 더욱 두드러진 점은 풍부한 내면묘사 장면이다. 박지원은 특정 장소에서 느낀 감회를 자세하게 묘사하여 독자로 하여금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56일 간의 일기 중 19일간은 서사적 대화 방식과 상황에 따른

74) 이를 통해 박지원은 청나라 문물제도가 조선의 문물제도에 비해 보다 완비되어 있음을 보다 완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적의 나라라고 멸시하고 금기시한 대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 중화의 나라라고 자부하는 조선의 선비로 하여금 성찰을 유도하는 집필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판단한다.

박지원 자신의 내면을 꿰뚫히게 묘사하는 기술이 다른 날들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북경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 열하로 떠나게 된 내력을 다룬 「8월 5일자」의 구성 방식을 고찰해 보자.

㉞ 사시(오전 9시에서 11시)에 사은 겸 진하정사를 따라서 북경을 출발하여 열하로 떠났다. 부사, 서장관, 역관 세 사람, 비장 네 사람, 하인 등 사람이 모두 일흔넷이고, 말은 신다섯 필이었다. 나머지는 북경에 남아서 서관에 머물렀다.

㉟ 마두배들이 다투어 능금과 배를 사서 주기에 각각 하나씩 받았다. 모두들 침운패루 앞까지 따라와 말 머리에서 절을 하고 작별하며 각기

“부디 몸조심하시라”

라고 하는데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

박래원이 여기(동직문-인용자 주)까지 따라와서 이별을 슬퍼하며 하직하고 돌아섰다. 장복은 말의 등장을 붙잡고 슬퍼하며 목이 잠겨서는 차마 놓질 못한다. 내가 돌아가라고 타이르니 다시 창대의 손을 잡고는 서로 슬피 우는데 눈물이 비처럼 흐른다. 만 리 길을 동무하여 왔다가 하나는 떠나고 하나는 남게 되었으니, 인정상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말 위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㊱ 이런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이십여 리를 갔다.

(…)

손가장에서 밥을 먹고 숙박을 하였다. 동직문에서 여기까지는 지름길이 있었으나, 오히려 수십 리 길을 둘러서 왔다.⁷⁵⁾

1780년 8월 5일 박지원이 적은 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상황에 따라 배열하면 인용문과 같다. ㉞에서 오전에 사신 일행 일부는 열하로 향하고, 나머지 일행은 북경에 머물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㉟에서 열하로 떠나는 일행의 송별식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㊱에서 열하로 떠나는 일행이 동직문에서 북경에 남은 사신 일행과

75)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漠北行程錄」, “巳時, 從謝恩兼進賀正使, 自燕京發熱河之行. 副使書狀官譯官三員, 裨將四員, 并從人共計七十四人, 馬共計五十五匹. 餘皆落留西館. (….) 馬頭輩, 爭買獻蘋果梨子, 爲各取一個. 皆至瞻雲牌樓前, 辭拜馬首, 各囑保重, 莫不落淚. (….) 來源追至, 黯然辭別而去. 張福執鐙, 悲咽不忍捨. 吾諭令辭還, 則又執昌大手, 兩相悲泣, 淚如雨下. 萬里作伴, 一行一留, 情所固然. 因於馬上. 如此以思, 不覺行二十餘里. (….) 炊宿孫家庄. 東直門爲其捷路, 而猶迂數十里.”

송별하고, 손가장에서 숙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먼저 주목되는 점은 ㉠이다. 장복과 창대의 이별 장면은 다음과 같은 두 장면과 긴밀하게 호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기부 첫 기록일인 ① 「도강록(渡江錄)」 6월 24일자에서, 국경을 넘기에 앞서 박지원이 장복, 창대와 함께 무사귀환을 위한 기원을 비장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그 하나이다.

사정인즉 두 사람이 주머니를 털어 보니 돈 스물여섯 푼이 나왔는데, 우리 돈을 가지고는 국경을 나갈 수 없는 금법이 있기 때문에 길에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술을 사왔다. (...) 한 잔을 가득 따라서 첫 번째 기둥에 부어 이번 여행이 무사하길 스스로 빌고, 또 한잔을 채워 둘째 기둥에 부어 장복과 창대를 위해 빌었다. 호리병을 흔들어 보니 아직 몇 잔이 남았기에 창대를 시켜 땅에 붓고 말을 위해 빌게 했다.⁷⁶⁾

일기부 마지막 기록일인 ⑦ 「환연도중록(還燕道中錄)」 8월 20일자에서, 박지원과 창대가 장복과 재회하는 기쁨을 해학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다른 하나이다.

창대는 장복을 보자마자 그동안 일행과 떨어져 혼자 쓸쓸히 보낸 괴로움은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 한다는 말이, 네게 줄 특별한 상금을 가지고 왔단다. 장복 역시 그간의 노고는 묻지도 않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상으로 내린 은자는 얼마나 되나?

(...)

밤이 되자 서관에 묵는 역관들이 모두 내 방에 모였다. 술과 안주거리를 약간 준비했으나, 오랜 여행의 뒤끝이라 도통 입맛이 없었다. 여러 사람이 모두 내가 앉아 있는 오른쪽의 보통이를 힐끔거리며 속에 뭐가 들었나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창대에게 보따리를 풀어서 자세히 살펴보게 하였다. 특별한 물건은 없고 단지 지니고 갔던 붓과 벼루뿐이었으며, 두툼하게 보였던 것은 모두 필담을 하느라 갈겨 쓴 초고와 유랍하며 적은 일기였다. 그제야 사람들은 궁금중이 풀렸다는 듯 웃으며,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갈 때는 보따리가 없더니, 돌아올 때는 보따리가 너무 커졌다고 했지. 장복도 서운한지 머쓱한 표정으로 창대에게, 특별 상금은 어디 있는 거야?⁷⁷⁾

7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渡江錄」, “蓋兩人者, 自檢其囊中得廿六文, 而東錢有禁, 不可出境, 棄之道則可惜, 故沽酒云. (...) 滿酌一盞, 酌第一柱, 自祈利涉, 又斟一杯, 酌第二柱, 爲張福昌大祈. 搖壺則猶餘數杯, 使昌大酌地禱馬.”

77)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三 別集 『熱河日記』, 「還燕道中錄」, “昌大見張福, 不叙其間離索之苦, 直言汝有別賞銀帶來. 張福亦未及勞苦, 笑容可掬, 問賞銀幾兩? (...) 夜留館諸譯, 盡會

이러한 사실은 박지원이 일기부 구성 전략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연행 기록에 머물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홍대용이 『을병연행록』에서 17살 먹은 낭자산(狼子山) 출신 차부(車夫) 왕문거(王文擧)를 등장시켜 독자의 흥미를 고취했던 것처럼, 박지원은 마두 창대와 하인 장복을 등장시켜 ‘동행(기·승)-생이별(전)-재회(결)’라는 짜임새를 갖도록 치밀하고 유기적인 전략을 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과 ㉡ 사이의 장면 구성 전략이다. ㉠의 현재 상황과 ㉡의 현재 상황 사이에 과거 상황이 끼어들어가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박지원이 북경에 머무르지 않고 정사를 따라 열하로 향하게 된 내력을, 정사와 박지원의 대화 장면, 변계함, 박래원, 박지원의 대화 장면 등 서사적인 대화 장면으로 재구성하여 서술하고 있다.

처음 국경인 책문에 들어선 이후에 길에서 자주 비를 만나 물에 길이 막혔다. 통원보 같은 곳에서는 대엿새 동안이나 앉아서 날짜를 허비하였으므로 정사는 밤낮 없이 걱정하였다. 당시 나는 정사와 방을 마주하여 숙박했으므로, 매양 빗소리를 듣는 밤이면 문득 촛불을 밝히고 새벽까지 날을 꼬박 새우며 장막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정사가 말하길,

“세상일에는 짐작할 수 없는 것이 있네. 만에 하나라도 유리 사신에게 황제의 생일 전에 열하로 오라는 명이 내리면 날짜가 부족할 것이네. 그러니 장치 어찌할 것인가? 설령 열하로 가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웅당 황제의 생일날에는 황성 안에 도착해야 할 터인데, 만약 심양과 요동 사이에서 또 물에 길이 막힌다면, 이아말로 숙담에 ‘새벽부터 밤새 가도 문턱에도 못 미친다’는 격이네.”

(…)

나는 함께 가기를 간절하게 바랐으나, 첫째 몸을 안장에서 푼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독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또다시 먼 길을 가는 것을 견딜 수 없다. 둘째, 열하에서 곧바로 조선으로 귀국하라고 황제의 명이 내린다면 북경 유람이 실로 낭패가 되므로 가기를 주저하였다. 근년에 와서 황제는 우리나라를 끔찍하게 생각하여, 매양 일상을 뛰어넘는 과격적인 명령을 내

余炕. 略有酒饌, 而行役之餘, 全失口味. 諸人者, 皆晚坐右封裹, 意其中有物. 余遂令昌大解褌細檢, 無他物, 只是帶去筆硯, 惝然者皆筆談胡草, 遊覽日記. 諸人者俱釋然解頤曰: 吾果怪其去時無裝, 歸橐甚大也. 張福亦憮然謂昌大曰: 別賞銀安在?

려 속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특별한 은전을 내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열하에서 바로 조선으로 돌아가게 명령을 내릴 염려가 심증팔구이다.

정사가 내게 말하기를,

“자네가 만 리 길 북경에 온 것은 유람을 위해서인데, 뭘 망설이는가? 이번 열하 여행은 앞서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이니, 만약 귀국하는 날에 누가 열하가 어떻더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북경이야 사람들마다 모두 와서 보는 곳이고, 이번 열하 여행은 천 년에 한 번 만나는 좋은 기회이니 자네가 가지 않을 수는 없네.”

나는 드디어 가기로 작정하였다.⁷⁸⁾

어젯밤에도 이런 일을 꺼내어 이야기하면서 변계함, 박래원 등과 함께 서로 웃으며 농담을 했다. 이제 저렇게나 급한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을 보아서는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으나 큰일이 나긴 난 모양이다. 급하게 웃을 쟁겨 입을 즈음에 상방의 마부 시대가 급히 달려와서,

“지금 즉시 열하로 가야 합니다.”

변군과 래원이 화들짝 놀라며,

“숙소에 불이라도 났습니까?”

나는 장난삼아,

“황제가 열하로 가서 북경이 비어 있는 틈을 노리고 몽고 기병 십만 명이 쳐들어왔다네.”

그들은 놀라서,

“으악!”

소리를 지른다.

(…)

어떤 사람은 제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치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 뺨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 목을 스스로 끊는 시늉을 하면서 울며불며, 아이고, 이제 ‘카이카이’ 될 판이다. ‘카이카이’란 목이 달아난다는 말이다. 또 팔짝 뛰면서, 아까운 모가지가 잘려 나가게 되었네.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없지만 행동거지들이 몹시도 흉측하고 호들갑스럽다.⁷⁹⁾

78)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漠北行程錄」, “初入柵之後, 道數遇雨. 阻水通遠堡, 坐費五六日, 正使日夜憂念. 時余對炕而宿, 每夜聞雨聲, 則輒明燭達曉. 隔幔相語曰: 天下事有不可知. 萬一有如命使臣前赴熱河, 則日計不足矣. 將奈何? 設無熱河之役, 當趁萬壽節入皇城, 若又阻水於瀋遼之間, 是諺所謂‘曉夜行不及門’ (….) 余極欲同赴, 而一則卸鞍屬耳, 餘慙未蘇, 又作遠役, 誠所難堪. 二則若自熱河, 直令東還, 於皇京遊覽, 實爲狼狽. 比年皇帝軫念我東, 每出常格, 以速令撥回爲特恩, 則其直還之慮, 十之八九. 正使謂余曰: 汝萬里赴燕爲遊覽? 今此熱河, 前輩之所未見, 若東還之日, 有問熱河者, 何以對之? 皇城人所共見, 至於此行, 千載一時, 不可不往. 余遂定行.”

끝으로 주목되는 점은 ㉠와 ㉡ 사이의 장면 구성 전략이다. ㉠의 상황과 ㉡의 상황 사이에서는 박지원이 장복과 창대의 이별 장면을 보고는 감회가 일어 <이별기(離別記)>라고 별도의 제명을 붙일 만한 장문(長文)을 삽입하여, 인간사 가운데 이별보다 더한 괴로움은 없으며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는 떠나고 다른 하나는 남는 생이별(生離別)보다 더 괴로운 건 없다는 내용으로 박지원의 내면에서 일어난 풍부한 감성을 짙진하게 묘사하고 있다.⁸⁰⁾

인간에게 가장 괴로운 일로 이별보다 더한 괴로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별의 괴로움은 생이별보다 더한 것이 없으리라.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저 생사의 영결쯤이야 족히 괴롭다고 말할 것이 못 된다.

(…)

괴롭기로 말한다면, 하나는 떠나고 다른 하나는 남는 생이별보다 더 괴로운 건 없다. 이별할 때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괴로움은 더욱 커진다.

(…)

오늘 열하로 우리를 전송하며 혼자 북경에 처져 있는 장복과는 부자의 친분도 아니고, 군신간의 의리도 아니고, 부부간의 정분도 아니고, 봉우간의 사قم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 생이별의 괴로움이 이와 같은 것은 이별의 장소가 하량과 같은 물가이기 때문만은 아니리라. 남의 나라에 함께 왔다가 그곳에서 또 타지방으로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이국 타향은 그 어디인들 이별의 적당한 장소가 아니겠는가?⁸¹⁾

①~⑦ 가운데 서문이 있는 경우는 ①, ③, ⑤이다. ①에서는 연호를 쓰는 문체와

79)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漠北行程錄」, “昨夜余舉此事, 以語卞君及來弟, 相笑謔矣. 及此急足橐橐, 莫知何事, 而第有大事變矣. 方披衣之際, 時大急來告曰: 卽今赴熱河矣. 來第卞君方驚覺曰: 館中失火耶? 余戲曰: 皇帝在熱河, 京城空虛, 蒙古十萬騎入. 卞君輩驚曰: 訝. (….) 或推胸擗踊, 或自擊其頰, 或自劃其頸, 號泣曰: 乃今將‘開開’也. 開開者, 斬斷也. 又跳躍曰: 好顆頭砍下, 莫詰其故, 而舉措凶且悖矣.”

80) 이러한 성격을 미루어 볼 때, ①~⑦까지 일기부 내 56일 가운데 ①에서 3일, ②에서 2일, ③에서 1일, ④에서 4일, ⑤에서 3일, ⑥에서 4일, ⑦에서 2일 등 19일간의 일기문에서 보이는 구성 전략에 대한 후속 논의가 요망된다.

81)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漠北行程錄」, “念人間最苦之事, 莫苦於別離. 別離之苦, 莫苦於生別離. 彼訣別於一生一死之際者, 無足言苦. (….) 無足言苦, 苦莫苦於一行一留之時. 其別離之時, 地得其苦. (….) 今張福親非父子, 義非主臣, 情非男婦, 交非朋友. 而其生離之苦如此, 則亦非獨江海河梁爲之地也. 異國異鄉無非別地?”

이와 관련하여 해명하는 내용이다. 표면적이면서 현실적으로는 청과 교류를 해야 하고, 이면적이면서 이상적으로는 명을 숭상하고 있는 조선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연호를 써야 옳은가를 문제제기하고 있다. 서문 전체가 문답 형식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③에서는 ‘천하의 장관’을 두고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음을 한탄하며, 유학이나 불교학, 서학처럼 ‘천하의 장관’을 개방적으로 인식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서학을 하는 쪽에서 유학이나 불교학의 폐단을 나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다가 결론을 짓지 못했다. 전체 25편으로 구성된 『열하일기』 중 13편에 서문이 있는데, 유일하게 미완성된 서문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⑤에서는 청의 대외통치술을 상징하는 장소인 ‘열하’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청나라 황제가 몽고를 제압하고 막으려는 의도에서 열하에 피서산장을 건립하였으나, 당대에 이르러서는 사냥이나 즐기는 휴양지로서 구실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열하일기』 일기부의 구성 체계를 검토한 결과, 유기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기문학이나 기행문학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일기문학이나 기행문학 장르를 선택하여 박지원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기에는 미흡하였기에 잡기나 필담, 우언 등을 삽입하다가 북경이나 열하에 체류하는 동안 대청 외교의 실상, 천하 정세의 동향, 공연 문화의 흥성(興盛), 황도(皇都)에서 본 중화 문물제도의 계승 양상, 대내외 문화교류의 양상 등 새로운 문제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열하일기』 저술 방향을 잡록 장르로 선회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열하일기』는 일기부를 통해 잡기부와 필담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게 된 글인지를 독자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특징이 있다. 8월 7일자에서 잡기를 쓰게 된 내력을 소개하는 대목과 8월 11일자에서 잡기와 필담을 쓰게 된 내력, 8월 13일자에서 필담을 쓰게 된 내력을 소개하는 대목을 일례로 들어 확인해 보자.

술을 사서 조금 마시고는 즉시 만리장성 밖으로 나갔다. (...)

다시 작은 고개를 오르니 새벽의 꺼져 가는 달은 이미 스러져 내려앉았고, 계곡의 흐르는 물은 더욱 가깝게 들리며, 여기저기 어지럽게 둘러선 산들은 수심으로 가득찬 것 같다. 언덕의 모습은 모두 호랑이가 엮드려 있는 것 같고, 산굽이 으스스한 곳에는 도적들이 숨어 있는

것 같다. 때마침 불어오는 쓸쓸한 긴 바람에 소스라쳐 머리카락이 스산하게 흐트러진다. ㉠ 이때의 느낌을 적은 글이 ‘산장잡기’편에 「아출고북구기」라는 제목으로 따로 있다.

물가에 도착하니 길은 끊어지고 강물은 넓고 아득하여 어디로 향해서 갈 곳이 없다. (...) 무릇 강물 하나를 아홉 번이나 건넜는데, 물속의 돌들은 이끼가 끼어 미끄럽고 물은 말의 배까지 차올랐다. (...)

㉡ 이때의 느낌을 적은 ‘하룻밤에 강물을 아홉 번 건넌 이야기’라는 뜻의 「일야구도하기」란 글이 ‘산장잡기’편에 따로 실려 있다. 82)

사신이 비복들을 문밖에 떨어뜨려 놓고 들어가며 함부로 난입하지 말라고 엄하게 단속을 시켰는데, 잠시 뒤에 모두들 대 위로 올라왔다. 우리 역관과 통관이 잠깐 놀라 다시 내려가라고 꾸짖으니, 그들은 자기들이 난입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도리어 저항하면서 안내해 주어 대에 올랐다고 변명한다. ㉢ 이때의 일을 기록한 ‘찰십륙포’와 ‘반선시말’이란 글이 별도로 있다. (...) 태학관에 돌아오니 중국 사대부들은 모두 내가 반선을 만난 것을 영광으로 여겨서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 지정의 처소에서 술을 약간 마셨다. ㉣ 이날 밤에 달빛이 더욱 밝았다. 이때 주고받은 이야기는 ‘황교문답’편에 신는다. 83)

이날 밤, 달빛이 더욱 밝았다. 나는 기공의 손을 잡고 명륜당에 나가 난간 아래에서 달빛을 밟고 걸었다. 내가 달을 가리키며 물었다. (...)

기공은 내 손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방에는 이미 촛불 네 자루를 켜고, 큰 탁자에는 음식을 성대하게 차려 놓았으니 오로지 나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 한참 뒤에는 모두 치우고 가져가더니, 채소와 과일 두 그릇과 소주 한 주전자를 다시 차려서 내왔다. 술을 조금씩 따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 이때의 이야기는 ‘황교문답’편에 실려 있다.

담이 두 번이나 회를 치고서야 이야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며 잠들 수가 없었는데, 하인들이 벌써 일어나라고 깨운다. 84)

82)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漠北行程錄」, “沽酒小飲, 卽出長城 (...) 又登一嶺, 殘月已墜, 河鳴益近, 亂山愁鬱. 岸岸疑虎, 隈隈堪盜. 時有長風蕭然, 毛髮灑淅. 別有夜出古北口記, 在山莊禱記. 既至河邊, 路斷水濶, 茫無去向. (...) 凡一水九渡, 水中石苔滑, 水沒馬腹. (...) 別有一夜九渡河記, 在山莊禱記.”

83)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使臣落留下隸於門外, 嚴飭其毋得闌入, 而少焉盡爲上臺. 我譯及通官大驚, 叱令還出, 則以爲非渠輩所敢闌入, 守門者猶恐我人之不入. 爲導之上臺云, 別有所記, 札什倫布及班禪始末. (...) 及還館中, 中原士大夫, 皆以余得見班禪, 莫不榮羨, 亦莫不極口贊美. (...) 小飲郝志亭所. 是夜月益明. 話載黃教問答.”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과 ㉡ 그리고 ㉢는 일기와 잡기의 관련 양상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와 ㉤는 일기와 필담의 관련 양상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를 통해 「산장잡기(山莊雜記)」나 「찰십륜포(札什倫布)」·「반선시말(班禪始末)」·「황교문답(黃敎問答)」에 수록된 잡기나 필담이 그 자체로 독립된 글이라기보다는 일기부에 속하는 특정 상황과의 관련 아래 이해와 해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⁸⁵⁾ 이를 달리 해석하면, 유기성을 띤 일기 장르나 기행 장르는 박지원이 느끼기에 여정지에서 느낀 감회, 정신적 각성, 사회적 문제의식을 담아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장르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일기부 ⑤~⑦ 사이의 사행 기간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면서, 별도로 편성되어, 일기부 제명과 대등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 잡기부를 세분하여 보자. ①「경개록(傾蓋錄)」 ②「찰십륜포(札什倫布)」 ③「반선시말(班禪始末)」 ④「행재잡록(行在雜錄)」 ⑤「심세편(審勢編)」 ⑥「산장잡기(山莊雜記)」 ⑦「환희기(幻戲記)」 ⑧「피서록(避暑錄)」 ⑨「구외이문(口外異聞)」 ⑩「황도기략(黃圖紀略)」 ⑪「알성퇴술(謁聖退述)」 ⑫「양엽기(盎葉記)」 ⑬「동란섭필(銅蘭涉筆)」 ⑭「옥감야화(玉匣夜話)」 ⑮「금료소초(金蓼小抄)」로 구분된다.

①은 박지원이 열하에서 체류 중 사권 청나라 관리와 한족 선비 10인과 1명의 사내종 왕삼빈을 소개한 잡기이다. 특이한 사항은 왕삼빈(王三賓)에 관한 기록이다. 박지원은 그를 복건 사람으로 나이는 스물다섯이며, 윤형산(尹亨山)의 옛 종이거나 또는 기려천(奇麗川)의 종으로 보고, 글을 잘 알며 그림에도 명수라고 소개했다. 40여 종의 이본 가운데 유일하게 충남대본에서 윤형산과 왕삼빈, 기려천과 왕삼빈이 동성애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다루었다.

②는 박지원이 열하에서 체류 중 조선 사신들이 청나라 건륭 황제의 명으로 열하의 티베트 불교사원 타시름포사에 머물고 있는 티베트 지도자 관첸 라마를 알현하

84)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是夜月益明. 余携奇公出明倫堂, 步月欄干下. 余指月而問曰 (….) 奇公携余入其炕. 已張四枝燭, 大卓設饌甚盛, 爲余專設也.(…) 良久盡撤去, 復設蔬菓各二器, 燒酒一注子. 細酌穩話, 話載黃敎問答. 鷄已二唱, 乃罷還寓, 轉輾不能寐. 而下隸已請起寢矣.”

85) 다만, 잡기부 가운데 「양엽기(盎葉記)」, 「금료소초(金蓼小抄)」 등은 삼화성이 두드러진다.

게 된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잡기이다. ③은 박지원이 열하와 북경에서 체류 중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 판첸 라마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기록한 잡기이다.

②와 ③은 「황교문답(黃敎問答)」과 함께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⁸⁶⁾ ②에서는 판첸 라마가 머물고 있는 사원을 제목으로 삼고, ③에서는 판첸 라마에 관한 전언(傳言)을 기록하고 있으며, 「황교문답(黃敎問答)」에서 티베트 불교에 관한 한족 선비와의 문답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②와 ③, 그리고 「황교문답(黃敎問答)」은 박지원이 티베트 불교 사원, 티베트 불교의 수장(首長), 티베트 불교 등 해당 종교에 관한 순수한 호기심의 발로에서 창작했다기보다는 청나라 황제의 천하통치술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④나 ⑤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④는 박지원이 열하 체류 중 피서산장에서 조선 사행과 관련하여 청나라 예부에서 작성한 공문들을 검토하며 자신의 견해를 밝힌 잡기이다. ⑤는 박지원이 귀국한 후에 중국의 실상을 통찰하는 방법과 청나라 통치술에 관해 논한 잡기이다. 본래는 필담인 「망양록」, 「곡정필담」이 지닌 성격을 독자에게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한 범례(凡例)로 집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와 ⑤는 박지원의 경세의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요하므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후술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다.

⑥은 박지원이 북경에 체류 중 견문한 내용, 북경에서 열하로 가면서 견문한 내용, 열하에서 체류 중 견문한 내용들을 9개의 항목으로 구성한 잡기이다. 「상기(象記)」는 북경 선무문(宣武門) 안에 있는 상방(象房)에서 처음 본 코끼리에 관한 소감을 기록한 글이다.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口記)>와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는 북경과 열하 사이에 있는 고북구를 통과하는 도중 감회를 기록한 글이다. <만국진공기(萬國進貢記)>는 청나라 황제의 생신을 축하하여 각국에서 보낸 진상품에 관한 기

86) 이강엽은 「찰십륜포」, 「반선시말」, 「황교문답」에 관한 개별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연구를 수행했다. 「찰십륜포」에서 용과 황금으로 된 사원에 대한 사실적인 묘를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반선시말」에서 청나라 황제에 의해 후대를 받고 있는 판첸 라마에 관한 왕성의 전언을 수집한 뒤 독자를 혼란스럽게 했다가, 「황교문답」에서 티베트 불교를 숭상하는 학성, 티베트 불교를 배척하는 추사시와 기풍액, 부분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인정하는 파로회회도와 윤가진 등과의 문답을 통해, 청나라 황제가 길으로는 판첸 라마를 숭앙하고, 속으로는 티베트 불교의 힘을 빌려 몽고를 견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짜임새라고 했다. 이강엽, 「「찰십륜포」 연작 연구」, 『동방학지』12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pp.165-198 참조.

록이다. <승귀선인행우기(乘龜仙人行雨記)>, <만년춘등기(萬年春燈記)>, <매화포기(梅花砲記)>, <희본명목기(戲本名目記)>는 열하에서 체류 중 8월 13일, 청나라 황제의 생신 축하 행사에서 본 여러 광경을 기록한 글이다. <납취조기(蠟嘴鳥記)>는 조련자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 재주를 부리는 밀화부리 또는 고지새에 관한 기록이다. 명·청 전통연희 가운데 하나로 박지원이 북경 또는 열하에서 체류한 시기에 연희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9편의 잡기(雜記) 가운데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口記)>⁸⁷⁾와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그리고 <상기(象記)>⁸⁸⁾는 선행 연구자들로부터 문학성을 평가받아 다른 기문(記文)에 비해 개별 작품론으로 논의가 간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가의 추상적인 사유 방식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형상화한 방식이 독창적이기 때문이다.

⑦은 박지원이 열하 체류 중에 구경한 중국의 진기한 마술과 연희를 기록한 잡기이다. 17종의 마술과 2종의 연희, 그리고 1종의 연출된 일화(逸話)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마술 공연 문화를 날마다 놀이문화로 즐기게 하는 청나라 천자의 포용력과 통치술을 긍정하는 의중을 드러내기도 하고, 마술문화의 공연 주체와 이를 수용하는 관객의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후술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다.

⑧은 박지원이 열하의 피서산장을 유람하는 겨울에 적었다는 뜻으로 한시에 관한 이야기(詩話)를 56개 항목으로 구성한 잡기이다. ⑨는 만리장성의 관문인 고북구와 열하 사이를 오가며 견문한 내용들을 60개의 항목으로 구성한 잡기이다. ⑩은 박지원이 북경 체류 중 자금성을 중심으로 청 황제가 거주하는 북경의 명승지들을 기록하여 39개 항목으로 구성한 잡기이다. ⑪은 박지원이 북경 체류 중 북경의 국자감을 비롯하여, ‘순천학부’에서 ‘조선관’까지 10개 항목으로 구성한 잡기이다. ⑫는 박지원이 북

87) 이동환과 김도련은 이 작품에 나타난 박지원의 사상성과 예술성에, 이승수와 정길수는 작품의 구조와 미감, 동시대 인물의 비평과 작품의 개작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했다. 정재철, 『한국한문학 연구의 몇 가지 쟁점』, 『동방한문학』57, 동방한문학회, 2013, pp.29-36 참조.

88) 이강엽은 허봉의 『조천기(朝天記)』, 인평대군의 『연도기행(燕途紀行)』, 김창업의 『연행일기(燕行日記)』, 홍대용의 『연기(燕記)』 등에 실린 코끼리 관련 기사(記事)와 『열하일기』 내의 <상방(象房)>과 <상기(象記)>를 비교 검토하여, 「상기」라는 명문(名文)이 탄생하게 된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강엽, 「연행록(燕行錄)의 코끼리 기사(記事)와 박지원(朴趾源)의 「상기(象記)」」, 『韓國漢文學研究』48, 한국한문학회, 2011, pp.359-390 참조.

경 체류 중 북경의 사찰과 사원들을 소개하여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잡기이다. ⑬은 박지원이 북경 체류 중 자신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외교, 문물 교류, 제도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서와 85개 항목으로 구성된 잡기이다.

⑧~⑬은 『열하일기』 연구사에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한 영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문이나 후지가 달려있지 않은 경우, 소표제(小標題)가 없는 경우, 본문의 항목별 체계화가 미흡한 경우, 단순한 사실을 언급하고 마는 경우, 화제에 따른 견문이나 감상평이 소략한 경우 등 여러 연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일기부에서 보이는 유기적인 질서, 잡기부 ②~④에서 보이는 연쇄적인 질서와는 달리 ⑧~⑬에서 두드러진 삽화적 질서 또한 문학 작품의 구조를 이루는 성격 가운데 하나이다. ⑧~⑬ 가운데 간략한 서문은 달려 있으나 후지와 소표제가 없으며, 가장 많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⑬을 택하여, 후술을 통해 대외 문화 교류에 관한 성찰을 통한 박지원의 문화의식 표출이라는 주제를 도출하기로 한다.

⑭는 열하에서 북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갑이라는 곳에서 동행한 일행들과 밤에 나눈 이야기를 기록한 잡기이다. 일곱 개의 일화 중 일곱 번째 일화로 박지원이 한 이야기가 <허생전>이고, 후지(後識)가 있다. <허생전>은 일기부 「도강록(渡江錄)」, 「성경잡지(盛京雜識)」, 「일신수필(駟汎隨筆)」 등에서 보이는 이용후생 사상과 잡기부 「심세편(審勢編)」에서 보이는 천하대세 통찰론을 허구적 인물인 허생의 행적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으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⁸⁹⁾

89) 두창구, 「燕巖 研究史에 대한 考察」, 『關大論文集』 제19집, 관동대학교, 1991, 80~82면. 정규복, 「연암소설의 연구사」, 『한국 고소설사의 연구』, 보고사, 2010. pp.173~191. 국문학 연구사 초기, 김태준의 『朝鮮小說史』에서는 <허생전>이 “『磻溪隨錄』과 『星湖僿說』 같은 實學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으로 조선 농촌의 구제와 미래사회의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儒生도 商賈와 實業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은 연암의 독특한 평등사상의 발로”라고 평가했다. 김태준, 박희병 교주,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p.173. ; 연암소설에 가장 천착한 학자는 이가원이다. 이가원은 『조선문학사』에서 연암 소설 가운데 가장 得意作으로 꼽고 “상업경제 사상을 고취하고, 이상국을 건설하며, 북벌론을 배격하면서, 북학사상을 提高한 작품이라 好評하였다. 이가원, 『조선문학사』 中冊, 태학사, 1997, pp.1209~1210. 이가원은 일찍이 연암 소설을 대상으로 민족주의 사관과 실증주의 방법을 운용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가원, 『연암소설 연구』, 을유문화사, 1954.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에서 주인공인 허생은 실학하는 선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허생이 “세상을 구할 방책을 내놓을 수는 없었으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그쳤을 뿐이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박지원이 많은 생각을 하기만 하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했다.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 제3권, 지식산업사, 2005, p.502. ; 정성훈, 「연암

⑮는 박지원이 북경에서 체류 중 의서(醫書)에서 뽑은 의약 비방을 소개한 잡기이다. 서(序)와 의약 처방을 중심으로 청나라 문인 왕사정(王士禎: 1634~1711)의 『향조필기(香祖筆記)』에서 뽑은 54개 항목의 본문과 박지원 자신의 경험방 7개 항목의 부(附)로 구성된 잡기이다.⁹⁰⁾

끝으로 일기부 ⑤~⑦ 사이의 기간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면서 별도로 편성되어, 일기부 제명과 대등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 필담부를 세분하여 보자. ① 「황교문답(黃敎問答)」 ② 「망양록(忘羊錄)」 ③ 「곡정필담(鵲汀筆談)」 ④ 「양메시화(楊梅詩話)」로 구분된다.

①은 박지원이 열하 체류 중 티베트 불교에 관해 청나라 관리나 한족 선비들과 나눈 대화를 적은 필담이다. 지정(志亭) 학성(郝成), 곡정(鵲汀) 왕민호(王民皞), 추사시(鄒舍是), 몽골인 부재(孚齋) 파로회회도(破老回回圖), 형산(亭山) 윤가진(尹嘉詮), 만주인 여천(麗川) 기풍액(奇豐額) 등이 필담한 이들이다.

②는 박지원이 열하에서 체류 중 사권 청나라 관리 및 한족 선비들과 고급 음악에 관해 나눈 대화를 기록한 필담이다. ③은 박지원이 열하에서 체류 중 사권 한족 선비 곡정 왕민호와 함께 자전설, 서교(西敎), 금서 정책 등 여러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눈 내용을 적은 필담이다. 필담부에 속하는 ①~④ 가운데 「심세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②와 ③을 선택해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후술을 통해 비교하고, 필담 이면에 담긴 천하대세의 통찰이라는 주제의식을 도출하기로 한다.

④는 박지원이 열하에서 북경으로 돌아온 뒤 중국의 한족 선비 유세기(俞世琦), 능야(凌野), 고역생(高穧生), 초팽령(初彭齡), 왕성(王晟), 풍병건(馮秉健) 등과 만나 대화를 나눈 내용을 적은 필담이다. 현전하는 『열하일기』에는 없는 일편(逸篇) 가운데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타난 공간 양상과 그 의미, 『인문학 연구』제49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pp.64~65 각주 2번에서 재인용.

90) 연암 박지원의 의학적 지식과 관심사가 드러난 「金蓼小抄」과 새로 발굴된 『익감(翼鑑)』에 관한 연구 성과로는 현재까지 소논문 2편이 제출된 바 있다. 박상영·권오민·오준호, 『熱河日記』所載「金蓼小抄」翻譯에 관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25,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12, pp. 51~68에서 이가원 교수와 김철조 교수가 번역한 「金蓼小抄」를 검토하고, 한의학 전공자의 입장에서 재번역한 뒤, 기존 번역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을 도표로 제시하였다. ; 박상영, 「연암 저작 추정서 『翼鑑』에 관하여」, 『한국의사학회지』제27권 제2호, 한국 의사학회, 2014, pp. 121~126에서는 박지원이 연암협에 거처하던 1777년 12월에 저술한 작품으로 추정되는 『익감』의 서문을 번역하고, 본문의 내용을 개괄했다.

하나이다.⁹¹⁾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박지원은 『열하일기』의 일기부에서 여정에 따라 날
 짜별로 당일에 주목할 만한 사건을 중심으로 인과 관계와 선후 관계가 긴밀하게 호응
 하고 있는 추보식 구성 방식에 입각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날짜의
 일기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항은 잡기의 형식과 필담의 형식으로 독립시켜 일기부
 편중 또는 편말에 배치하거나, 별도의 제명을 붙여 잡기부 편명이나 필담부 편명을
 지닌 독립적인 편제 방식으로 변용하여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열하일기』의 장르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일기부만 별도로 떼어내
 어 보면 일기부에 보이는 유기적인 질서를 근거로 하여 『열하일기』는 일기문학, 기
 행문학, 또는 기행일기 문학이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박지원의 문예성과 사상성은
 일기부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박지원의 문예성과 사상성은 일기부 편중
 또는 편말에 배치된 잡기나 필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별도의 제명이 붙은 잡기
 부나 필담부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잡기부나 필담부에서 보이는 연
 쇠적인 질서와 삽화적인 질서를 근거로 하여 『열하일기』를 잡록이라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부연하면, 『열하일기』의 구성 체계를 검토한 결과 박지원은 인
 과 관계와 선후 관계로 잘 짜인 유기적 구성 방식을 선호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지원
 이 유기적 구성 방식을 선호했다면 『열하일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특정 작품의
 작가를 둘러싼 논란, 중화와 이적의 관계를 바라보는 박지원의 화이관을 둘러싼 논란
 등이 벌어지는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박지원은 선후 관계만 고려한
 연쇄적인 구성, 선후 관계마저 고려하지 않은 삽화적인 구성 방식을 활용해서 자신의
 문예성과 사상성을 드러내었다. 단락과 단락의 관계가 연쇄적이기만 하거나 삽화적인
 일화를 열거하는 구성 방식은 오늘날 박지원의 문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곤
 혹스러워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91) 『열하일기』에는 없는 일편(逸篇)에 관한 연구로는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
 베개, 2013, pp181-221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김명호는 pp185-194에서 현전하는 「양매시
 화」를 분석한 결과, 「양매시화」가 『열하일기』에 하나의 독립된 편으로 들어간다면, 다른 편
 과 중복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내용상 중복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
 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장차 『열하일기보유』와 같은 관련된 자료들이 나타난다면 수정될
 여지가 있는 잠정적인 결론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열하일기』는 「도강록」에서 「금료소초
 」까지 일기부, 잡록부, 필담부 형식으로 25편의 제명이 달린 텍스트로 존재한다.

2) 잡록 성격과 글쓰기 방식

『열하일기』가 탄생하게 된 1780년 당시, 경국제세(經國濟世)를 담고 있는 고문 글쓰기와 함께 공존하는 글쓰기에는 일상의 신변잡기라 취급받는 패관소품(裨官小品)이 있었다. 조정의 관료라면 진지한 문제의식을 품고 경서(經書)인 대학(大學)에서 제시하는 수신(修身)과 제가(齊家)를 바탕으로 내치(內治)를 실행하며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를 위한 고문 글쓰기를 지향해 외치(外治)를 이루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16세기 말~17세기 초부터 박지원이 활동하던 18세기 말~19세기 초까지 소설과 소품이 유행하였던 터라 조선 사대부들은 개성적인 글쓰기의 유희에 매료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⁹²⁾

박지원 또한 『방경각외전』을 쓰던 2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고문의 문제의식을 개성적인 글쓰기로 풀어내는 솜씨로 문명(文名)을 날린 터였다. 그는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를 병용하거나 융합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었다. 40대 중반에 쓴 『열하일기』 또한 이러한 솜씨를 더욱 다채롭게 구성하여 독창적인 글쓰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절에서는 『열하일기』에 나타난 박지원의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 활용 방식을 연결하여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의 자유자재한 활용의 바탕에는 잡록 장르의 선택이라는 이면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논의하고자 한다.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의 이본들을 보면, 『행재잡록』, 『잡록』 등의 이름을 달고 있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잡록적 성격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것을 박지원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박지원은 1797년부터 1800년까지 면천군수(沔川郡守)로 재직할 시기에 『면양잡록(沔陽雜錄)』⁹³⁾이라 제명한 저서를 남겼

92) 18세기 후반 정조대 문체와 관련된 고문 글쓰기 정책과 패관소품 글쓰기의 유행에 관한 연구로는 김철조, 정민, 김명호, 강혜선, 안대희의 논저를 참조.

김철조, 「연암체의 성립과 정조의 문체반정」, 성균관대 석사학위, 1981.

정민, 『조선후기 고문론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pp.263-268.

안대희 엮음,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강혜선, 「정조의 문체반정과 京華文化」, 『한국실학연구』23, 한국실학학회, 2012, pp.89-121.

93) 김문식, 「연암 박지원의 목민서, 『七事考』」,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다. 여기에 수록된 글의 종류와 내용도 일괄하여 무엇이라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다. 상소(上疏), 기문(記文), 서간(書簡), 헌사(獻辭), 공문(公文), 소초(小抄), 서(序), 전(傳), 기(記), 의(議), 필(筆), 시집(詩集) 등 공적인 성격의 글과 사적인 성격의 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자 자신이 지은 글, 남의 글을 수정하여 재판집한 글, 남의 글을 전재(全載)한 글, 남의 글을 초록(抄錄)한 글 등등 수록 방식도 다양하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박지원이 잡록의 어떠한 특성에 주목하고 잡록이란 장르를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를 박지원이 저서명으로 삼고 있는 『면양잡록(沔陽雜錄)』과 『행재잡록』에서 얻어야 마땅하다. 두 저서에 수록되어 있는 글의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볼 때 박지원이 사용하는 ‘잡록’이라는 장르적 개념 속에는 글의 다양성(多樣性)·포괄성(包括性)·개방성(開放性)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면양잡록(沔陽雜錄)』에서는 상소에서 시집까지를 포괄하고 자신의 글과 남의 글의 경계를 허물어 잡록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이 사용하는 잡록이라는 개념에는 단순히 둘 이상의 성격이 다른 글을 섞어서 기록한다는 의미 이외에 글의 다양성(多樣性)·포괄성(包括性)·개방성(開放性)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행재잡록』 곧 『열하일기』에서 연행 중 일어난 사건을 적은 기사(記事), 연행 중 동행했던 이들과의 대화를 적은 기담(記談), 연행 중 동행했던 이들에게 자신이 들려주거나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적은 기담(記譚), 연행 중 만난 청나라 사람들과 글로 나눈 대화인 필담(筆談), 연행 중 특이하게 꾸 꾸 꿈을 적은 기몽(記夢), 연행 중 만난 청나라 한족 상인이 준 편지를 적은 기필(記筆)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진지한 문제의식을 품고 경서(經書)에서 제시하는 경세의식을 주로 나타내는 고문 글쓰기와 특정 사물에서 얻은 감회를 개성적인 필치로 표현하여 문예의식을 주로 나타내는 폐관소품체의 경계를 허물어 다양하고 개방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하는 자신의 글을 잡록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본래 비천(卑賤)하거나 품격(品格)이 낮다는 의미가 ‘잡록(雜錄)’이란 개념에 내포되어 있었지만 박지

pppp.21-41 참조.

원은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버리고 ‘잡록’이란 서로 다른 것들 간의 상호 결합을 통한 다양성의 창출, 포괄성의 확보, 개방성의 지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것으로 보고 잡록 장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순잡(純雜)·정사(正邪)·아속(雅俗)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논의하면 잡록은 순정(純正)하고 아정(雅正)한 성격을 지닌 문학 글쓰기의 범주 밖에 있었다. 정조(正祖)는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가 명백히 다르고 선비라면 고문 글쓰기를 지향하고 패관소품 글쓰기를 지양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서로 성격이 다른 글이 섞인 잡록 장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명문(名文)으로 검증된 당·송 팔대가의 진지한 문제의식이 담긴 고문과 개성적인 문예의식이 두드러진 명·청 패관소품이 섞이면 고문인가? 정조가 내린 판단은 섞일 수도 없고 섞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섞여있는 글이라면 그것은 패관소품이지 고문일 수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일찍이 여러 각신들에게 하교하기를,

“문장에는 도(道)가 있고 술(術)이 있는바, 도는 바르지 않아서는 안 되고 술은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문장을 배우는 자는 응당 육경(六經)을 종주(宗主)로 하고 자(子)·사(史)를 우익(羽翼)으로 하여 위아래를 포괄하고 지금과 옛날을 널리 통달하되, 마지막에는 주자(朱子)의 글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도 근세에 문장을 하는 선비들은 (...) 패관 소설의 자구(字句)를 표절하는가 하면 또 명(明)·청(淸) 제자(諸子)에 나아가 기벽함을 답습한다. (...) 이 때문에 세도(世道)가 날로 각박해지고 사풍(土風)이 날로 경박해지고 있다. (...) 바로잡을 방법을 알지 못하겠다.⁹⁴⁾

94) 正祖, 『弘齋全書』 卷百六十三, 「日得錄」 三, “嘗教諸閣臣曰: 文章有道有術, 道不可以不正, 術不可以不慎. 學文者, 當宗主六經, 羽翼子史, 包括上下, 博極今古, 而卒之會極於朱子書. (...) 獨怪夫近世爲文之士, (...) 剽竊稗官小說之字句, 又就明清諸子, 蹈襲奇僻. (...) 以是之故, 世道日就澆漓, 土風日趨浮薄. (...) 而莫知救正之術也.”; 정조는 당시 박지원·이덕무·박제가 등을 패관소품을 구사하는 문장가 정도로 여겼으며, 특히 박제가는 통찰을 지닌 사회개혁가로서의 경세가가 아닌 자신의 언설을 기록하는 하급관리인 정도로 취급했다. 正祖, 『弘齋全書』 卷百六十五, 「日得錄」 五, “상이 이르기를, “이덕무(李德懋), 박제가(朴齊家) 무리는 문체가 전적으로 패관(稗官)과 소품(小品)에서 나왔다. 이들을 내각(內閣)에 두었다고 해서 내가 그 문장을 좋아하는 줄로 아는데, 이들의 처지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로써 스스로 드러내도록 하려는 것일 뿐이니, 나는 실로 이들을 배우로서 기른다.(李德懋、朴齊家輩文體, 全出於稗官小品. 以予置此輩於內閣, 意予好其文, 而此輩處地異他, 故欲以此自標, 予實俳畜之.)”

인용문에 따르면 글쓰기에 대한 정조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바른 도(道)와 삼가는 술(術)이 문장 속에 배어 있으면 순정(純正)하고 아정(雅正)한 문학이다. 경(經)·자(子)·사(史)에 바탕을 두고 고금을 통찰하여 논하는 글이나 주자의 문학과 사상을 철저히 이해한 뒤에 쓴 글도 마찬가지이다. 당대 잡되고 사특(邪慝)하며 속된 문학으로는 패관 소설과 명·청대 문학을 들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문학적 능력이 우수한 선비들로부터 고평(高評)을 받아 이미 검증된 동아시아 정통 한문학의 규범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개성적인 문예의식이 두드러지며 당대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글쓰기는 기벽(奇癖)을 추구하는 선비들의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고 취급하는 것이다.

고문과 패관소품이 섞인 『열하일기』를 잡록 장르라 하면 잡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하고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은 정조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해야 할 성질이다. 신분의 존비(尊卑)를 구분하고 남녀의 내외(內外)를 구분하고 민족의 화이(華夷)를 구분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측에서 보았을 때 기사(記事), 기담(記談), 기담(記譚), 필담(筆談), 기몽(記夢), 기필(記筆) 등이 섞인 글은 순정하고 아정한 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박지원은 정조와 상반된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일화를 논거로 들어 보자.

이씨의 자제인 낙서(洛瑞) 이서구(李書九)는 나이가 16세로 나를 따라 글을 배운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다. 심령(心靈)이 일찍 트이고 혜식(慧識)이 구슬과 같았다. 일찍이 『녹천관집(綠天館集)』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질문하기를,

“아, 제가 글을 지은 지가 겨우 몇 해밖에 되지 않았습시다. 남들의 노여움을 산 적이 많았습니다. 한 마디라도 조금 새롭거나 한 글자라도 기이한 것이 나오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옛 글에도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 발끈 화를 내며 ‘어찌 감히 그런 글을 짓느냐!’고 나무랍니다. 아, 옛글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제가 어찌 다시 쓸 필요가 있었습니까. 선생님께서 판정해 주십시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손을 모아 이마에 얹고 세 번 절한 다음 꿇어앉아 말하였다.

“네 말이 매우 올바르게구나. 가히 끊어진 학문을 일으킬 만하다. 창힐(蒼頡)이 글자를 만

들 때 어떤 옛것에서 모방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안연(顔淵)이 배우기를 좋아했지만 유독 저서가 없었다. 만약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창힐이 글자를 만들 때를 생각하고, 안연이 표현하지 못한 취지를 저술한다면 글이 비로소 올바르게 될 것이다.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남들에게 노여움을 받으면 공경한 태도로 ‘널리 배우지 못하여 옛글을 상고해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사과하거라. 그래도 힐문이 그치지 않고 노여움이 풀리지 않거든, 조심스러운 태도로 ‘은고(殷誥)와 주아(周雅)는 하(夏) · 은(殷) · 주(周) 삼대(三代) 당시에 유행하던 문장이요, 승상(丞相) 이사(李斯)와 우군(右軍) 왕희지(王羲之)의 글씨는 진(秦) 나라와 진(晉) 나라에서 유행하던 속필(俗筆)이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려무나.”⁹⁵⁾

패관소품 글쓰기를 한 이서구를 기준으로 이서구를 나무라는 쪽과 이서구를 칭찬하는 쪽이 대립되어 나타나고 있다. 나무라는 쪽은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의 구분이 있다는 입장이고, 칭찬하는 쪽은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는 상대적인 구분일 뿐 가치의 우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는 고문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 글이 당대에는 시문(時文)이자 속필(俗筆)이며 그렇다면 이서구의 글이 후대에는 고문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박지원은 시문이자 속필인 문학도 시대가 달라지면 순정하고 아정한 고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이와 함께 박지원이 ‘이문지희(以文爲戲)’ 방식으로 ‘이문지전(以文爲戰)’을 한 선례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아! 명색이 선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자가 몸소 요순(堯舜)과 같은 임금이 교화를 펴는 시대를 만나고도, 물줄기가 모여 강을 이루듯이 화목하고 평온한 음향을 발하고, 서경(書經)·시경(詩經)과 같은 저작을 본받아 임금의 정책(政策)을 아름답게 표현함으로써 국가의 융성을 드날리지 못하니 이는 진실로 선비의 수치입니다. 더구나 나 같은 자는 중년(中年) 이래로 불우하게 지내다 보니 자중하지 아니하고 글로써 장난거리를 삼아, 때때로 곤궁한 시름과 따분한 심정을 드러냈으니 모두 조잡하고 실없는 말이요, 스스로 배우와 같이 굴면서 남에게 웃음

95) 朴趾源, 『燕巖集』 卷之七 別集 『鍾北小選』, 「綠天館集序」, “李氏子洛瑞年十六, 從不佞學有年矣. 心靈夙開, 慧識如珠. 嘗携其綠天之稿, 質于不佞曰: 嗟乎, 余之爲文纔數歲矣. 其犯人之怒多矣. 片言稍新, 隻字涉奇, 則輒問: 古有是乎? 否則怫然于色曰: 安敢乃爾. 噫, 於古有之, 我何更爲, 願夫子有以定之也. 不佞攢手加額, 三拜以跪曰: 此言甚正. 可興絕學. 蒼頡造字, 倣於何古. 顏淵好學, 獨無著書. 苟使好古者, 思蒼頡造字之時, 著顏子未發之旨, 文始正矣. 吾子年少耳, 逢人之怒, 敬而謝之曰: 不能博學, 未攷於古矣. 問猶不止, 怒猶未解, 噉噉然答曰: 殷誥周雅, 三代之時文, 丞相右軍, 秦晉之俗筆.”

거리를 제공했으니 진실로 이미 천박하고 누추하였소이다. 게다가 본성마저 게으르고 산만해서 수습하고 단속할 줄 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로(畫蘆)·조충(雕蟲) 따위의 잔재주가 이미 자신을 그르치고 또한 남까지 그르쳤으며, 부부(覆瓿)·호룡(糊籠)에나 알맞은 글로 하여금 혹은 잘못된 내용이 전파됨에 따라 더욱 잘못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차츰차츰 패관소품(裨官小品)으로 빠져 든 것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이요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위항(委巷)에서 흠모를 받게 된 것도 그러길 바라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문풍(文風)이 이로 말미암아 진작되지 못하고 선비의 풍습이 이로 말미암아 날로 퇴폐하여진다면, 이는 진실로 임금의 교화를 헤치는 재앙스러운 백성이요 문단의 폐물입니다. 현명한 군주가 통치하는 시대에 형벌을 면함만도 다행이라 하겠지요.⁹⁶⁾

『열하일기』를 집필한 뒤에 남공철(南公轍: 1760~1840)로부터 정조의 명(命)인 ‘순정지문(純正之文)’을 지어 올리라는 소식을 듣자 패관소품에 빠진 자신을 ‘재민(災民)’이자, ‘문원지기물(文苑之棄物)’이라 규정하고 정조가 다스리는 시대를 ‘요순지화(堯舜之化)’라 한 것이 박지원의 진심은 아니다.⁹⁷⁾ 시대가 달라지면 잡록 장르를 선택한 박지원과 순정하고 아정한 글을 지향한 정조의 글쓰기 관점에 대한 평가 또한 역전될 가능성을 지닌다.

『열하일기』에 나타난 특징적인 면모 가운데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경세의식을 담은 고문 글쓰기와 개인의 신변을 둘러싼 개성적인 특징을 담은 패관소품 글쓰기가 혼용되어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열하일기』에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

96) 朴趾源, 『燕巖集』 卷之二, 『煙湘閣選本』, 「答南直閣公轍書」, “噫! 士之生斯世者, 躬逢堯舜之化, 不能振溷濁和平之響, 追典謨大雅之作, 黼芾皇猷, 以鳴國家之盛, 固士之恥也. 況如僕者, 中年以來, 落拓潦倒, 不自貴重, 以文爲戲, 有時窮愁無聊之發, 無非駁雜無實之語, 自同俳優資人諧笑, 固已賤且陋矣. 性又懶散, 不善收檢, 未悟雕蟲畫蘆之技, 既自誤而人誤, 致令覆瓿糊籠之資, 或以訛而傳訛. 駁尋入裨官小品, 則莫知爲而爲, 轉輒爲委巷所慕, 則不期然而然. 文風由是而不振, 士習由是而日頹, 則是固傷化之災民, 文苑之棄物也. 其得免明時之憲章, 亦云幸矣.”

97) 박지원은 「소단적치인」에서 ‘이문지희(以文爲戲)’를 통해 ‘이문지전(以文爲戰)’을 구현한 <호질>이나 <허생전>의 창작 의도를 밝히는 데에 논거가 되는 창작방법론을 제시했다. 글을 짓는 것은 전투와 같다면, 작가의 의도를 숨기고, 상대를 설득하며, 당대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한 주제의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구(字句)의 아속(雅俗)과 편장(篇章)의 고하(高下)를 넘나드는 합변(合變)의 기틀과 제승(制勝)의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朴趾源, 『燕巖集』 卷之二, 『煙湘閣選本』, 「騷壇赤幟引」, “글을 잘 짓는 자는 아마 병법을 잘 알 것이다. (...) 대저 자구(字句)가 우아한지 속된지나 평하고 편장(篇章)의 우열이나 논하는 자들은 모두 변통의 임기응변과 승리의 임시방편을 모르는 자들이다.(善爲文者, 其知兵乎. (...) 彼評字句之雅俗, 論篇章之高下者, 皆不識合變之機, 而制勝之權者也.)”

기가 혼용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다양성(多樣性)·포괄성(包括性)·개방성(開放性)을 특징으로 하는 잡록 장르를 박지원이 선택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정통 한문학 장르의 선택만으로는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를 자유자재로 혼용해내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열하일기』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도강록(渡江錄)」과 「성경잡지(盛京雜識)」를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 방법으로 ㉠ 경세적인 글쓰기가 두드러진 경우, ㉡ 경세적인 글쓰기와 개성적인 글쓰기가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를 맺으며 나타나는 경우, ㉢ 개성적인 글쓰기가 두드러진 경우로 구분이 가능하다. 필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차적 질서에 따라 논의하는 방법과 병용하여 다루기로 한다.

먼저 「도강록」 서문을 보자. 박지원은 조선과 명·청의 삼국 관계사를 거론하며, 조선 중화주의 의식과 약소국으로서의 조선의 위상을 언급했다.

청나라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 그 주인이 되니 훌륭한 전통 문화 제도가 변하여 오랑캐 문화로 바뀌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수천 리의 우리나라는 압록강을 경계로 나라를 다스리며 홀로 과거의 문화 제도를 지키고 있다. 이는 명나라 왕실이 오히려 압록강 동쪽에 존재함을 밝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힘이 약해서 비록 저 오랑캐를 물리쳐 중원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전통 문화 제도를 밝히고 회복할 수야 없겠다. 하지만 모두가 숭정이라는 연호라도 능히 존송하여 중국을 보존하려는 까닭이다.⁹⁸⁾

명나라라는 중화 문명이 청나라라는 이적 문화로 인해 중국의 가치가 낮아졌다. 반면 명나라의 중화 문명을 이적의 문화를 지닌 조선이 받아들여 계승하고 있으니 조선의 가치가 높아졌다. 이러한 관점을 표면에 내세워 조선 중화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조선 사대부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청나라와 승패를 나누는 다툼을 벌여 명나라의 중화 문명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조선의 상황이 안타깝다. 이러한 관점을 내세워 약소국으로서의 열등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문면에 나타난 구절로만 보면, 박지원의 문화적 중화주의 시각은 그의 여러 의

98)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渡江錄」, “清人入主中國, 而先王之制度變而爲胡. 環東數千里畫江而爲國, 獨守先王之制度. 是明明室猶存於鴨水以東也. 雖力不足以攘除戎狄肅清中原. 以光復先王之舊, 然皆能尊崇禎, 以存中國也.”

식 층위 가운데 하나로, 노론 사대부 일반이 지닌 중국관과 변별성이 없어 보인다.

반면 이적 문화의 땅 청나라에 당도한 후부터 박지원은 조선 중화주의자로서의 자부심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표명했다.

점포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단정하고 반듯하게 진열되어 있고, 한 가지 일도 구차하거나 미봉으로 한 법이 없으며, 한 가지 물건도 빼뚱고 난잡한 모양이 없다. 비록 소외양간, 돼지우리라도 널찍하고 곧아서 법도가 있지 않은 것이 없고, 장작더미나 거름 구덩이까지도 모두 정밀하고 고와서 마치 그림과 같았다.⁹⁹⁾

글을 짓고 쓴 사람도 만주인인데 문장과 글씨가 형편없다. 다만, 비석을 만든 제도가 매우 아름답고 공력이나 비용이 매우 적게 들어서 비석을 만드는 모범이 될 만했다.¹⁰⁰⁾

음력 6월 27일자에서는 책문에 있는 한 점포에 들어가 제도를 살펴보다니, 점포의 제도가 단정하고 반듯하며 한 가지 물건도 난잡한 모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외양간이나 돼지우리, 장작더미나 거름 구덩이까지도 정밀하고 고운 모습을 보고는 의식 전환의 단초를 내비쳤다. 청나라에 대한 멸시감으로 가득한 조선 중화주의 의식을 지닌 선비답지 않게, 허름한 점포의 제도에 감탄하며 이용(利用)이라 할 만하며 이용을 한 연후라야 후생(厚生)을 할 수 있고 후생을 한 연후라야 정덕을 할 수 있다는 자각을 드러냈다. 같은 날, 봉황산 관광을 하면서 발견한 만주인의 푸른 비석 두 기를 살필 적에도 만주인의 문장과 글씨에 대해서는 혹평을 하면서도 비석 만드는 솜씨가 매우 아름답고 모범이 될 만하다며 공백한 변방 민가에서 세운 비석인데도 정교하고 고아(古雅)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므로 벽돌 하나의 견고함은 진실로 돌만 같지 못하지만 돌 하나이 견고함은 또한 만개의 벽돌이 아교처럼 붙은 것에는 따라갈 수 없는 걸세. 이것이 벽돌과 돌의 이롭고 해로운과 편리함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까닭이네.”

99)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渡江錄」, “周視鋪置, 皆整飭端方, 無一事苟且彌縫之法, 無一物委頓雜亂之形. 雖牛欄豚柵, 莫不疎直有度, 柴堆糞厫, 亦皆精麗如畫.”

100)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渡江錄」, “撰書者, 亦俱滿州人, 文與筆俱拙. 但碑制極佳, 功費甚省, 此可爲法.”

정 진사는 말 위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금방이라고 꼬꾸라질 것 같은데, 즐고 있는 지가 오래되었다. 내가 부채로 정진사의 옆구리를 찌르며,

“아,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듣지 않고 즐고 있는 게요?”¹⁰¹⁾

음력 6월 28일자에서는 봉성 가는 길에 민가의 재료와 구조를 세세히 살피더니 벽돌 쌓는 법, 기와 이는 법이 본받을 만하다고 하고, 정 진사와 대화를 나누며 봉황 성 쌓는 제도를 화제로 삼아 벽돌의 이점을 장황하게 역설했다. 조선의 돌로 쌓은 성은 겉보기와는 달리 속으로는 위태롭다. 반면 청나라의 벽돌로 쌓은 성은 견고하고 굳센 장점이 있다. 이런 요지로 벽돌의 이점을 강조하는 대목은 이용후생의 경세의식이 드러난 고문 글쓰기 사례이다.

그런데 고문 글쓰기는 주제의식의 진지함으로 인해 독자를 긴장하게 하고 글이 지루해지는 단점이 있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면서 독자의 긴장을 이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이내 유머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머가 들어간 소품 글쓰기로 전환한다. 박제가와 벽돌의 이롭고 편리함에 대해 의논한 추억을 진지하게 정 진사에게 들려주는 장면이다. 박지원의 이야기를 듣다 꾸벅 조는 정 진사를 보고는 야단을 치자, 정 진사는 “제가 이미 죄다 들었소이다.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잡지는 거만 못하다.”¹⁰²⁾ 라는 너스레를 떨자 어이없어 골이 나서 한 대 패주려다 함께 웃고 말았다는 식의 서술을 예증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신변잡기를 다룬 소품 글쓰기 표현은 사대부의 위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긴 후대 개작자들에 의해 수정되거나 간혹 삭제되기도 했다. 그 사례로는 『열하일기』의 이본인 박영철본의 경우, 음력 7월 1일자에서 두 대목을 들 수 있다. 정 진사, 변 군, 박래원, 조학동 등과 어울려 투전판을 벌이는 모양을 지켜보던 박지원이 벽 사이로 들리는 부인의 말소리를 듣고는 부엌으로 나섰다. 일제본의 경우에는, 박지원이 일부러 재를 뒤적거리는 척하며 부인을 걸눈질로 훑쳐보았다고 했다.

101)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渡江錄」, “(…) 故一甗之堅, 誠不如石, 而一石之堅, 又不及萬甗之膠. 此其甗與石之利害便否, 所以易辨也. 鄭於馬上僵僕欲墮, 蓋睡已久矣. 余以扇搯其脅大罵曰: 長者爲語, 何睡不聽也.”

102)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渡江錄」, “鄭笑曰: 吾已盡聽之. 甗不如石, 石不如睡也. 余忿欲毆之, 相與大笑.”

박영철본에서는 ‘결눈질로 흠쳐보았다’는 구절을 ‘복식 제도를 구경하였다’는 식으로 점잖게 수정했다. 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털이 뽑힌 닭 묘사 장면도 일재본에서는 드러내었다. 박영철본에서는 전염병에 걸린 ‘입으로는 고름을 토하고 목에서는 가래 소리가 나’는 닭 묘사는 삭제했다.¹⁰³⁾

음력 7월 2일자 일기에서는 박지원은 마을 어귀에서 발견한 벽돌 가마에 주목했다. 조선의 가마는 벽돌이 없어 나무를 받치고 진흙으로 쌓아 소나무 장작을 태워서 가마를 굳히는 반면에 중국의 가마는 벽돌로 쌓고 회로 봉하여 드는 비용 면에서나, 구조적 측면에서 배울 만하다고 기록했다. 음력 7월 5일자에서도 Kang 제도를 관찰하면서, 부뚜막이며 굴뚝 만드는 법을 조선온돌방의 그것과 견주더니, 변계암과의 대화 장면을 통해 온돌방 구들 놓는 법의 여섯 가지 단점과 Kang 제도의 구들 놓는 법이 지닌 장점을 역설했다.

반면 음력 7월 8일자에서는 개성적인 정감을 드러내는 소품 글쓰기를 시도했다. 박지원이 정 진사와 드넓은 요동 벌판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감회를 드러낸 <호곡장> 대목이 그것이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으며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¹⁰⁴⁾

박지원은 갑자기 말을 세우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며 감탄했다. 정 진사가 특 트인 벌판에서 별안간 통곡할 만하다고 한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박지원은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 가운데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 상태이든 지극함에 도달하면 울음을 터트리는 법¹⁰⁵⁾이라 했다.

103) 박지원, 『열하일기』1, 김철조 옮김, 돌베개, 2009, pp96-97 각주 89번과 90번 참조.

104)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渡江錄」, “吾今日始知人生本無依附, 只得頂天踏地而行矣. 立馬四顧, 不覺舉手加額曰: 好哭場, 可以哭矣!”

105)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渡江錄」, “人但知七情之中, 惟哀發哭, 不知七情都可以哭. 喜極則可以哭矣; 怒極則可以哭矣; 樂極則可以哭矣; 愛極則可以哭矣; 惡極則可以哭矣; 欲極則可以哭矣.”

정진사가 박지원더러 지금은 어떤 감정이 지극해서 나오는 통곡소리인가 되물으니, 박지원은 처음 태어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갓난아기가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처음으로 부모와 친척을 보며 즐겁고 기뻐서 우는 것처럼,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혔으며 좁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나와 마음이 탁트였을 때 느끼는 기쁨 마음에서 우어나오는 통곡 소리¹⁰⁶⁾라 했다.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거나, 황해도 장연에 있는 금모래사장에서도나 느낄 법한 것¹⁰⁷⁾이라 했다.

이와 같이 개성적인 정감을 드러내는 소품 글쓰기를 통해 표현한 박지원의 경세 의식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캄캄하고, 막혔으며 좁은 곳’과 ‘넓은 곳’의 대립 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인·북인·노론·소론의 사색봉당과 사농공상의 신분이 엄격한 유교사회에서 벗어나 생전 보지 못한 풍광과 문물제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개방적인 장소로 향하는 자신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둘째, 「도강록」 서문과 관련지어 의미를 재구성해 볼 수 있다. 매번 청나라를 오가면서도 완고한 조선중화주의 이념에 사로잡혀 청나라의 실상을 외면하는 어느 조선의 사대부들과는 다르게, 강성하고 풍요로운 적국 청나라의 실상을 세밀하게 고찰하여 조선의 사대부들이 접해보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들로부터 얻은 지극한 깨달음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다.

셋째, ‘박지원의 심정’을 ‘갓난아이의 심정’으로 비유한 것에 주목하면, 선입견과 편견으로 청나라의 실체를 보지 않고 실상 그대로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무엇보다도 중시하여 청나라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 얻는 경륜을 논쟁적인 글쓰기를 통해 실천하겠다는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¹⁰⁸⁾

10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渡江錄」, “兒胞居胎, 處蒙冥沌塞, 纏糾逼窄, 一朝進出寥廓, 展手伸脚, 心意空闊, 如何不發出眞聲盡情一洩哉. 故當法嬰兒聲無假做.”

107)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渡江錄」, “登毗盧絕頂, 望見東海, 可作一場. 行長湍金沙, 可作一場. 今臨遼野, 自此至山海關一千二百里, 四面都無一點山, 乾端坤倪, 如黏膠線縫, 古雨今雲, 只是蒼蒼, 可作一場.”

108) 여기서 논쟁적인 글쓰기란 ‘법고’와 ‘창신’을 지양하여, 그 경계에 서서 진실을 담고자 하는 글쓰기를 가리킨다. 박지원은 일찍이 박제가가 쓴 시집을 받고 박제가를 위해 서문을 써주며, 자신의 문장론을 표명한 바 있다. 변통[變]과 전아[典]를 아우른 글이야 말로 참신한 글이 지닌 폐단과 권위가 있는 글이 지닌 폐단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겼다. 朴趾源, 『燕巖集』 卷之一 『煙湘閣選本』, 「楚亭集序」, “법고자는 옛 자취에만 얽매이

한편 박지원은 요동성과 관제묘를 방문하여 견문한 바를 별도의 기(記)를 통해 정리했다. <구요동기>에서는 명나라 말기 후금의 침략을 막는 공적을 세웠으나 반역의 누명을 쓰고 죽은 명장을 떠올리며, 인재를 못 알아보고 버린 사례를 미루어 자멸한 것이라 평가했다. 관운장, 장비, 조자룡의 상을 각각 모신 관제묘를 구경한 내력을 적은 <관제묘기>에서는 사당 안에서 연희패들이 재주를 부리며 노는 장면을 통해 경건해야 할 장소가 유희 공간으로 변질된 중국의 실상을 보여주려 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강록」은 일기부의 비중이 크고, 잡기의 비중이 적다. <구요동기>나 <관제묘기> 등과 같은 성격의 잡기는 동시대 다른 연행록에서 흔하게 발견되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더 이상 비중을 두어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도강록」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경잡지(盛京雜識)」는 1780년 음력 7월 10일부터 7월 14일, 십리하에서 출발하여 심양에서 머물다가 소혹산까지 날짜별로 여정과 견문을 기록하고 있다. 일기와 잡기, 그리고 필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기>필담>잡기 순으로 비중이 있다. 「도강록」에서와는 달리 서문을 달지 않았다. 「도강록」에서는 일기에 주목하여 경세의식이 담긴 패관소품 글쓰기를 고찰한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필담에 주목하여 박지원의 경세의식을 고찰하기로 한다. 박지원은 이 필담에 청나라의 한족 상인의 의식과 생활상을 담아내려 했기 때문이다.

박지원은 음력 7월 10일과 음력 7월 11일 밤에 나눈 필담을 <속재필담>, <상루필담>이라 제명을 달았다. 음력 7월 10일자 일기에서는 십리하에서 심양까지 여정이다. 심양에 도착한 뒤 찾은 예속재와 가상루에서 한족 상인들과 필담이 이루어졌다. 예속재는 골동품을 파는 점포이고, 가상루는 비단을 파는 점포이다.

예속재라는 상호를 가진 골동품 파는 점포에 들어갔더니 수재 다섯 명이 동업을 하여 점포를 개업했다고 했다. 모두들 나이가 젊고 자태가 아름다웠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들과 예속재에서 밤에 나눈 이야기는 「속재필담」에 모두 실었다.

또 한 점포에 들어갔더니 모두 먼 지방의 선비들이 비단 가게를 새로 개업한 곳이다. 점포의 이름은 가상루였다. 선비들은 모두 여섯 명인데 의복과 모자가 화려하며 행동거지와 눈

는 것이 병통이고, 창신자는 상도(常道)에서 벗어나는 게 걱정거리이다. 진실로 ‘범고’하면 서도 변통할 줄 알고 ‘창신’하면서도 능히 전아하다면, 요즈음의 글이 바로 옛글인 것이다. (法古者, 病泥跡. 翦新者, 患不經. 苟能法古而知變, 翦新而能典, 今之文, 猶古之文也.)”

초리가 단아하고 선량했다. 여기서도 예속재에 함께 모여서 밤에 이야기하자고 약속했다.¹⁰⁹⁾

두 필답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첫째, 사행단 일원 가운데 한족 상인을 만나기 위해 적극적인 교류 의지를 보이는 인물은 박지원뿐이라는 점이다. 박지원은 「도강록」 서문에서 명의 중화 문명을 조선이 계승하고 있다고 해서 조선 중화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과 승패를 나누는 다툼을 벌여 명의 중화 문명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약소국으로서의 열등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도강록」 서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족 상인들과의 필답에서는 조선 중화주의자로서의 우월감도 약소국 선비로서의 열등감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한족 상인들의 생업과 삶의 애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둘째, 필답에 참여한 인물의 성명, 나이, 출생지, 간단한 이력을 소개한 뒤 필답 내용, 필답을 나눈 장소에서 벌어지는 상황까지 세밀하게 표현하여 독자로 하여금 생생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속재필답>에서 필답에 참여한 인원인 전사가(田仕可), 이구몽(李龜蒙), 목춘(穆春), 은백고(溫伯高), 오복(吳復), 비치(費穉), 배관(裴寬)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 전사가가 박지원에게 골동품의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하는 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했다. 박지원은 이날 전사가에게 골동품 목록표 작성을 부탁하기도 했다. 「상루필답」에서 필답을 나눈 참석자는 전사가, 이구몽, 배관, 비치, 은백고, 목춘, 오복, 마횡(馬鑠) 등이었다.

셋째, 주로 필답을 나눈 비치, 전사가, 이구몽 가운데 특히 이구몽과의 필답 내용이 가장 상세하다. 박지원은 한족 상인에 대한 자부심과 한족 관리나 유생, 그리고 선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전사가를 주목해 보자. 박지원은 전날 전사가에게 부탁한 일은 어찌 되었냐고 하자, 전사는 심양을 떠나는 날 짐포에 들르면 해결되리라¹¹⁰⁾ 했다. 박지원의 부탁이란 골동품 목록표이다. 전사

109)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盛京雜識」, “入一收賣古董舖子, 舖名藝粟齋, 有秀才五人, 伴居開舖. 皆年少美姿容. 約更來齋中夜話. 俱載藝粟筆談. 又入一舖, 皆遠地土人, 新開錦緞舖. 舖名歌商樓. 共有六人, 衣帽鮮華, 動止視瞻, 俱是端吉. 又約同會藝粟夜話.”

110)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盛京雜識」, <商樓筆談> “余問田抱關曰: 古董名目, 已爲開錄否? 田生曰: (….) 暫於舖前停轡, 恭當親手交付從者, 誓不遲誤.”

가는 연경에 아는 한족 관인까지 소개해주는 편지도 건네 박지원에게 호의를 베푼 한
 족 상인으로 호의를 베푼 이유는 중국인에 대한 평가가 가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데
 에 있었다. 박지원은 한족 상인들에게 고송괴석(古松怪石)을 그려 보이기도 하고, 먼
 타향으로 건너와 장사를 하고 있으니 고향 생각은 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
 자 이구몽이 나서며 장사꾼의 처지나 벼슬아치의 처지나 괴롭기는 마찬가지라며 청
 조정 아래 한족 벼슬아치 노릇이 쉽지 않음을 암시했다. 한편 점포를 열어 상업 활동
 을 하는 일을 두고 남들은 하루 인생이라 여기지만 장사는 하늘과 땅이 극락세계와
 지상낙원을 열어준 일이라고 하며 농사일과 벼슬아치의 괴로움보다 훨씬 낫다는 견
 해도 내비쳤다.

넷째, 박제가 『북학의』¹¹¹⁾에서 상업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민생의 안정과 국
 가 재정의 확보를 말하기 기법으로 전개한 반면, 박지원은 「상루필담」의 구성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청 지배 아래 한족 상인의 필담 구사 능력, 관리로서의 입신양명의
 길이 막혔을 때 상업에 종사함으로써 나름의 자부심과 고락을 느끼며 당당하게 살아
 가는 있는 면모를 보여주기 기법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노

111) 박지원의 제자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1750~1805)의 『북학의』는 1778년 봄에 사행단
 일원으로 북경에 다녀온 뒤, 그 해 9월 얻은 견문을 바탕으로 조선에서 시행할 만한 경제
 정책을 담고 있는 저서이다. 그런데 실제 『북학의』는 내편과 외편, 그리고 진상본으로 구성
 되어 있어 거듭된 개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편에 1786년 음력 1월 22일에
 정조에게 올리는 「병오소회」가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798년 정조가 농업을 권장하
 여 농서를 구하는 윤음을 반포하자, 내편과 외편을 재편집하고, 새로운 논설을 추가하여 27
 개 항목에 49조목으로 구성하여 진상본을 별도로 만들기도 했다. 『북학의』 내편은 기사체
 (記事體) 항목으로만 일관되어 있는 반면에 외편은 기사체 항목에 논(論)과 변(辯), 그리고
 소회(所懷)로 구성되어 있다. 문체를 견주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다채롭고, 정보를 전달
 하는 글 위주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세워 주장을 펼치는 글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
 다. 또한, 내편은 「수레」, 「배」, 「장사」 등 주로 상공업과 관련된 기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에 반해, 외편은 「밭」, 「거름」, 「뽕과 과일」 등 농업과 관련된 기사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북학의』는 1778년부터 1798년까지 2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성과를 대상으로 하고,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북학의』와 『정유각집』의 번역문과 원
 문은 안대희와 정민이 번역 및 역주한 책을 기준으로 하고, 이익성의 번역과 국사편찬위원
 회에서 간행한 『북학의』 원문을 참조한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정유각집』 원문은 한
 국고전번역원의 DB와 『정유집 (附) 북학의』 원문은 한국사데이터 DB를 이용하였다.

박제가, 『북학의』, 안대희 완역 및 역주, 돌베개, 2013.

박제가, 『정유각집』 상·중·하, 정민 외 완역 및 역주, 돌베개, 2010.

박제가, 『북학의』, 이익성 역, 을유문화사, 1994.

朴齊家, 『貞蕤集 (附) 北學議』, 韓國史料叢書 12, 國史編纂委員會: 探求堂, 1971.

朴齊家, 『貞蕤閣集』 (<http://www.itkc.or.kr/itkc/>)

朴齊家, 『貞蕤集 (附) 北學議』 (<http://db.history.go.kr/>)

론 경화사족으로서의 박지원의 면모보다 필답이라는 수단을 매개로 동아시아의 동질성과 다양성을 형상화한 지식인으로서의 박지원의 면모를 부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박지원과 박제가의 동일한 주제에 대한 표현 방법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북학의』 「장사」 항목이다.

우리나라는 풍속이 길치레를 숭상하여 꺼리는 것이 많다. 사대부라면 빌어먹을지언정 들에 나가 농사짓는 일을 하지 않는다. 어찌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배짊방이를 걸치고 꿩랭이를 쓴 채 물건을 사라고 외치며 장터를 돌아다니거나, 떡통과 칼과 끌을 가지고 다니면서 남의 집에 푼팍이하며 먹고살면 부끄러운 짓을 한다고 비웃으며 혼사를 끊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집안에 동전 한 푼 없는 자라도 다 성장을 차려입고 차양 높은 갖에다 넓은 소매를 하고서 나라 안을 쏘다니며 큰소리만 친다.¹¹²⁾

박제가는 『북학의』 「장사」 항목에서 말하기 기법을 통해 비판적 어조를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조선과 청나라의 차이’라는 주제를 놓고, 박지원은 이구몽과의 필답 형식으로 보여주기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허생전> 서두 장면에서도 조선 유식 양반의 허위의식을 허생과 아내의 대화 장면¹¹³⁾ 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박지원이 소설적 형상화를 통해 드러내고, 박제가는 정조에게 소회를 올리는 방식으로 편 주장인 ‘유식 양반을 유상(儒商)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정조대 시대적 과제로서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박지원과 박제가가 활동한 시기에 관료 정원은 어느 정도나 되고, 예비 관료의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112) 朴齊家, 『北學議』, 「商賈」, “我國之俗, 尙虛文而多顧忌, 士大夫寧遊食而無所事農在於野. 或無人知之者, 其有短襦弱欄, 呼賣買而過於市, 與夫持繩墨, 挾馬鑿, 以傭食於人家, 則其不慚笑, 而絕其婚姻者, 幾希矣. 故雖家無文之錢者, 率皆修飾邊幅, 峨冠闊袖, 以遊辭於國中.”

113)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玉匣夜話」, “一日妻甚饑, 泣曰: 子平生不赴舉, 讀書何爲? 許生笑曰: 吾讀書未熟. 妻曰: 不有工乎? 生曰: 工未素學奈何. 妻曰: 不有商乎? 生曰: 商無本錢奈何. 其妻恚且罵曰: 晝夜讀書, 只學奈何. 不工不商, 何不盜賊? 許生掩卷起曰: 惜乎. 吾讀書本期十年, 今七年矣.”

동시대 인물인 홍대용이 남긴 「계방일기」를 통해 조선 관료의 정원수를 가늠할 수 있다. 홍대용은 1775년(영조 51) 음력 4월 9일에 당시 세자였던 정조의 교육을 담당하던 춘방과 함께 호위를 맡은 계방의 직위를 맡고 있었다. 이날 화제는 청나라 관료의 규모였다. 당시 세자였던 정조는 청나라 관료 규모를 알 수 있는 저서인 『북경전신편람』을 계방 홍대용에게 보이며,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대용은 청나라의 관직 제도는 명나라의 제도를 따른 것으로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세자가 청의 관직 수요가 생각보다 적다면서 의문을 표하자, 홍대용은 조선보다 열 배가 넘는다면 많은 편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세자는 우리나라와 견주면 많은 편이나, 청나라의 규모에 비해 관료가 적은 것 아니냐면서 화제를 돌려 세자는 춘방과 계방에게 우리나라의 내직과 외직 관료의 정원수를 물었다. 이를 아는 사람이 없자, 세자는 관안(官案)을 가져오게 하여 춘방에게 내안을 헤아리게 하고, 계방 홍대용에게 외안을 헤아리게 했다. 그 결과 경관(京官)은 900명이었고, 지방관은 670명이었다.¹¹⁴⁾

이를 근거로 하면, 당대 내·외직 관료 정원은 1,570여 명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료가 되고자 희망하는 예비 관료의 정원은 어느 정도나 될까? 1800년(정조 24년) 음력 3월 21일과 22일에 치러진 정시 초시와 인일제 시험 사례에서 이러한 궁금증을 풀 수 있다.

첫 날에는 문과 시험이 중추부에서 광화문까지, 대성전에서 향교까지, 식당교에서 벽송정까지 세 장소에서 참가 인원은 111,838명이었고, 받아들인 시권은 38,614장이었다. 무과는 훈련원, 모화관, 남소영 등 세 장소에서 참가 35,891명이었다. 다음 날, 춘당대에서 치른 시험에서는 참가 인원이 103,579명이었고, 받아들인 시권(試券)은 32,884장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과 지방에서 장원한 각각 한 사람씩만 정조의 특명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똑같은 자격을 내려 주었고, 100명이 초시 합격자가 되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이 2211명 중 10명, 경기(京畿)가 3586명 중 10명, 해서

114) 洪大容, 『湛軒書』 內集 권2, 「桂坊日記」, “出北京搢紳便覽示之曰: 桂坊曾見此乎? 臣曰: 見之. 其官制, 蓋因明制, 天下大規模, 略可見矣. 令曰: 官額何如是少耶. 臣曰: 臣猶以爲多也. 比我國宜不啻十倍. 令曰: 比我國雖多, 以天下之大則未見其多也. 我國內外官額, 合爲幾許? 皆對以未詳. 令夾侍持官案來. 令春坊考內案, 爲九百餘員. 令臣考外案, 爲六百七十餘員. 合爲一千五百餘員. 臣曰: 臣誠不意員數之至此多也. 無或乎經費之不足也. 令曰: 眞多冗官也. 臣曰: 北京稱千官. 我國稱百官. 未知何故增羨至此也. 令曰: 我國亦合稱千官也.”

(海西)가 3111명 중 8명, 관서(關西)가 3173명 중 8명, 호서(湖西)가 6096명 중 11명, 관동(關東)이 1025명 중 7명, 호남(湖南)이 4700명 중 11명, 영남(嶺南)이 5231명 중 11명, 북관(北關)은 1025명 중 8명, 화성(華城)이 368명 중 5명, 광주(廣州)가 356명 중 3명, 송도(松都)가 210명 중 3명, 강도(江都)가 90명 중 3명, 제주(濟州)가 3명 중 2명이었다. 받아들인 시권에 거주지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766명이었다.¹¹⁵⁾

두 논거를 활용하여 추론하면, 1775년에서 1800년 사이에는 1,570여 명 정도 규모의 내·외직 관료 정원에 들기 위해 예비관료군 사족(士族)은 최대 111,838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박지원은 이들을 아내에게 면박당하는 허생의 모습으로 희화화하고, 박제가는 이들을 유식층(遊食層)으로 ‘좀벌레’에 비유하고 있었다. 1,570여 명 정도 규모의 관료 정원으로는 조정에서 나날이 늘어나는 최대 111,838명 정도 규모의 선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료가 되지 못한 선비는 상인이나 장인이 될 수도 없어 놀고먹는 부류로 전락하여 국가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다섯째, 경세이식을 담는 방식이 반드시 고문 글쓰기일 수는 없고, 개성적으로 담

115) 『正祖實錄』 정조 24년 3월 21일, “文一所, 設於禮曹, 通中樞府, 北至於光化門外, 南至于京兆府前路. 設布爲城, 入門三萬二千五百九十八人, 收券一萬三千七百三十七張. 二所, 設於丕闡堂, 東至于大成殿門外, 南至于香橋. 入門三萬九千八百七十人, 收券一萬五百二十二張. 三所, 設於明倫堂, 東至于食堂橋, 北至于碧松亭, 與二所竝用布城, 入門三萬九千三百七十人, 收一萬四千三百五十七張. 三所入門, 合十一萬一千八百三十八人, 券三萬八千六百十四張. 武一所, 設於訓練院, 入門一萬一千五百九十一人, 二所, 設於慕華館, 入門一萬五十人, 三所, 設於南小營, 入門一萬四千二百五十人. 三所入門合三萬五千八百九十一人.” ; 『正祖實錄』 정조 24년 3월 22일 “入門十萬三千五百七十九人, 收券三萬二千八百八十四張.” ; 正祖, 『弘齋全書』 卷七, 「詩」 三, <御春塘臺, 設人日製有唵> “京二千二百一十一, 京畿三千五百八十六, 海西三千一百一十一, 關西三千一百七十三, 湖西六千九十六, 關東一千二十五, 湖南四千七百, 嶺南五千二百三十一, 北關如關東, 華城三百六十八, 廣州三百五十六, 松都二百十, 江都九十, 濟州三. 不書居住者七百六十有六, 可謂壯矣. 以鎬京辟廱自西自東自南自北, 揭賦題, 將於京鄉, 取壯元各一人賜第. 其次三下一百人, 付初試. 京十畿十, 海西關西各八, 湖西十一, 關東七, 湖南嶺南各十一, 北關八, 華城五, 廣州松都江都各三, 濟州二.” ; 참고로, 정시 초시와 인일제 시험이 있기 바로 전 해인 1799년 조정에서 정조에게 올린 공식적인 전국의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日省錄』 정조 23년 12월 30일 7번째 기사, “경조(京兆)가 서울과 지방의 호구(戶口)와 백성의 수를 바꿨다. (...) 이상 원호가 4만 4990호이고, 남자는 9만 8233구, 여자는 9만 4429구이다. (...) 이상 팔도 원호가 170만 5459호이고, 남자는 354만 22구이고 여자는 367만 365구이다.(京兆獻今年民數, (...) 五部都元戶, 四萬四千九百九十戶, 男九萬八千二百三十三口, 女九萬四千四百二十九口. (...) 八道都元戶, 一百七十萬五千四百五十九戶, 男三百五十四萬二十二口, 女三百六十七萬三百六十五口.)” 오부(五部)와 팔도를 도합하면, 원호가 175만 0449호이고, 남자는 363만 8255구, 여자는 376만 4794구이다.

아내는 패관소품 글쓰기를 통해서도 조·청의 총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두 필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사·농·공·상의 사민(四民)으로 비록 분업을 하고 있으나 귀천은 없다고 하던데, 혼인을 하거나 벼슬하는 데에 무슨 구애되는 점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동야 이구몽이

“우리나라에서는 벼슬아치들이 장사치나 장인바치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해 벼슬하는 길을 가장 깨끗하다고 여깁니다. 학문을 귀히 여기고 장사를 천히 보며, 농업을 숭상하고, 상업 을 억누르려는 까닭입니다. 우리야 모두 집안 대대로 장사를 해 왔으니 선비 집안과는 혼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 쌀말이나 재물을 실어 보내서 생원이라도 잠시 얻어걸린다 해도 지방 의 생원에게 중앙에 나가 과거 시험 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¹¹⁶⁾

박지원이 중국은 사민의 직분은 있으나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혼인을 하거나 관리가 되는 데에 장애가 없느냐고 묻자, 이구몽이 다시 나서 직분이 다르면 통혼이 어렵고 중국에서도 학문과 농업을 귀하게 여기며 상업을 천하게 여겨 지방 생원 노릇은 할 수 있으나 중앙 관리가 되는 길은 막혀 있다¹¹⁷⁾고 했다. 박지원이 한족 상인 이구몽에게 중국은 사민의 직분은 있으나,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혼인을 하거나 관리가 되는 데에 장애가 없느냐고 물은 까닭은 바로 조선은 가난한 선비가 생업에 종사할 경우 혼인이나 관리가 되는 데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답변에서 이구몽은 생원이 되면 가문은 빛나지만 이웃이 괴롭힘을 당해 해를 입고 벼슬살이 하는 상승 선비나 학관을 열어 학도를 가르치는 중등 선비가 못되고 남에게 손을 벌리는 하등선비로 전락하면 세상에서 가장 염증이 나는 사람이 되고 만다¹¹⁸⁾고 했다. 한족 상인의 현실비관적인 안목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

11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盛京雜識」, <商樓筆談> “中國四民, 雖各分業, 卻無貴賤, 婚嫁仕宦, 不相拘礙否? 東野曰: 我朝有禁, 仕宦家不得與商工通婚, 以清仕路. 所以貴道賤利, 崇本抑末. 吾輩俱是家世做買賣的, 未得士家爲婚. 雖納貲輸米權補生員, 亦不許鄉貢爲舉人.”

117)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盛京雜識」, <商樓筆談> “余曰: 中國四民, 雖各分業, 卻無貴賤, 婚嫁仕宦, 不相拘礙否? 東野曰: 我朝有禁, 仕宦家不得與商工通婚, 以清仕路, 所以貴道賤利, 崇本抑末. (...) 雖納貲輸米權補生員, 亦不許鄉貢爲舉人.”

118)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盛京雜識」, <商樓筆談> “士流亦有三等, 上等仕而仰祿, 中等就館聚徒, 最下干求假貸. 諺所謂做個求人面不成, 生涯都絕.”

수 있다.

끝으로 박지원의 개성적인 글쓰기가 두드러진 경우를 논의하기로 한다. 「성경잡지」에서 꽤관소품 글쓰기가 두드러진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곳은 ‘기상새설 일화’를 보여주는 음력 7월 13일자와 7월 14일자 기록이다. 박지원은 음력 7월 13일 신민둔 시장에 들어가자, 스스럼없이 한 전당포로 들어섰다. 상점 주인이 종이를 들고 와서 좋은 글귀를 하나 부탁했다. 박지원은 전에 들른 심양 시장에서 점포마다 ‘기상새설(欺霜賽雪)’이란 글자가 걸린 걸 많이 접한 터라 송나라 서예가 필체를 본떠 상점 주인에게 건넸다. 주인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박지원은 무안해하며 나서고 말았다. 다음날, 소혹산에 당도해 한 점포에 들른 박지원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제 전당포에서 쓴 ‘기상새설’이란 네 글자를 점포 주인이 왜 그런지 기뻐하지 않았던 터라, 오늘은 마땅히 전날의 수치를 설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집에는 점포 위에 걸 만한 현판 글씨가 필요하지 않소?”

하고 물었더니 점포 주인들이 일제히,

“아주, 아주 좋지요.”¹¹⁹⁾

전날 무안을 양갓음 하느라고, 더욱 공을 들여 현판 글씨로 ‘기상새설’이라 써주었다. 그러자 상점 주인이 ‘기상새설’은 밀가루 가게에서 자기네 가루가 서리보다 곱고 눈보다 하얗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 다는 현판 글씨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여긴 부인네 머리 장식품을 파는 가게¹²⁰⁾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그제야 박지원은 속으로 부끄러웠지만 시치미를 떼고 시험삼아 써보았을 뿐이라면서, 다시 ‘부가당(副珈堂)’이라는 글씨를 써보였다. 『시경(詩經)』에 나오는 ‘부계육가(副笄六珈)’라는 글귀에서 딴 것으로 ‘비녀를 질러 온갖 장식을 하는 가게’¹²¹⁾라는 뜻이었다. 박지원의 입장에서 보면,

119)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盛京雜識」, “余念昨日當舖所書‘欺霜賽雪’四字, 舖主怎地不悅, 吾當爲前日雪耻也. 遂謂舖主曰: 主人家要得舖首佳題麼? 舖主們齊道此特尤好.”

120)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盛京雜識」, “霍生曰: 俺舖專一收賣婦人的首飾, 不是麪家.”

121)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盛京雜識」, “遂書副珈堂三字, 諸人尤叫歡不絕. 霍生問: 此號何義? 余曰: 今貴舖是收賣婦人的首飾, 詩所稱副笄六珈者是也.”

집필 당시에는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기상세설’이 의미하는 바를 끝까지 숨겼다가 맨 끝에 드러내어 독자가 흥미롭게 긴장감을 지닌 채로 읽도록 유도했다. 일기체 형식의 연행록에서 사소한 일화의 나열로 지루해질 것을 우려한 박지원의 작가적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일화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개인의 정감이나 해학성이 두드러진 표현 이면에는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의 구분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극복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었다. 또한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보여준 글쓰기는 정조대 고문 글쓰기 위주의 문예 정책에 맞서 패관소품 글쓰기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의 구분을 허물고 패관소품 글쓰기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박지원이 잡록이라는 장르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상층 문인들의 규범 문학 장르만으로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를 자유자재로 혼용해내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글의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볼 때 다양성(多樣性)·포괄성(包括性)·개방성(開放性)을 특징으로 하는 장르가 잡록이기 때문이다.

2. 『열하일기』의 주제 의식

1) 외교의 실상 탐색

『열하일기』의 특징은 조선중화주의 의식이 투철한 사신들의 외교 능력을 의심하며 대외 관계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미숙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절에서는 박지원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검토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박지원이 정사(正使) 박명원(朴明源)의 자제군관 자격으로 청으로 향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려 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도강록(渡江錄)」 6월 24일자에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나는 수역인 홍명복 군에게,

“자네, 도를 아는가?

(…)

“무릇 천하 인민의 뉘뉘한 윤리와 사물의 법칙은 마치 강물이 언덕과 서로 만나는 피차의 중간과 같은 걸세.”

(…)

“그러므로 그 즘음에 잘 처신함은 오직 도를 아는 사람만이 능히 할 수 있으니, 정나라 자산이란 사람이……”

배가 벌써 건너편 언덕에 닿았다.¹²²⁾

박지원은 수역인 홍명복에게 천하 인민의 뉘뉘한 윤리와 사물의 법칙에 관해 물으며, 정(鄭)나라 자산(子産)이란 정치인을 언급했다. 박지원이 도를 잘 아는 사람으로 꼽은 정나라 자산에 관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생략되어 있으므로 독자가 스스

122)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渡江錄」, “余謂洪君命福首譯曰: 君知道乎? (…)
凡天下民彝物則, 如水之際岸. (…)
故善處其際, 惟知道者能之. 鄭之子産. 船已泊岸.”

로 헤아려야 한다. 대외 외교 활동에 나서는 시점에서 한 발언이므로 이와 관련된 논거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의미를 재구성한다.

자산은 정치를 행하는데 있어 외교에 능한 자를 골라서 썼다. 풍간자는 대사(大事)에 결단력이 있었다. 자대숙은 아름답고 빼어난 글 솜씨를 지니고 있었다. 공손희는 주변국의 사정에 밝아서 외국 사대부들의 문벌, 지위, 귀천, 재능의 유무 등을 잘 분별해 응대하는 말을 잘 했다. 비심은 계책을 잘 세우는데, 야외에서 세운 계책을 들어맞고, 읍내에서 세운 계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나라에서 여러 나라와 외교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자산은 주변국에 관한 동향을 자우에게 묻고, 또 사신과 응대할 이야기거리들을 준비하게 했다. 비심과 함께 수레를 타고 야외로 나가 계책을 세운 뒤 풍간자에게 알려 이를 결정하게 했다. 일이 성사되면 곧 자대숙에게 주어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빈객들을 응대하게 했다.¹²³⁾

정(鄭)나라 자산(子產)은 재상이 되어 20년 넘게 국내 정치를 혁신하는 데 힘쓰는 한편, 대외적으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어내어 실용적인 외교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박지원이 당대 강대국이었던 진(晉)과 초(楚) 사이에서 정나라 재상 자산이 줄타기 외교를 통해 나라를 지킨 공적을 세운 사실을 유념하고 한 발언으로 판단된다. 박지원은 자신과 자산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은 비록 자제군관 자격으로 사행에 나서고 있지만 당대 강대국이었던 청나라와 약소국이었던 조선 사이를 오가면서 천하 인민의 뉘그러한 윤리와 사물의 법칙을 밝히려는 마음가짐을 품으며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외교 활동을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강록(渡江錄)」 6월 27일자, 책문(柵門) 인근에서 박지원은 예단(禮單)을 분배하는 문제로 상관사(上判事) 마두(馬頭) 득룡이 청인들과의 분쟁을 잘 해결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123) 『春秋左傳』, 「襄公 三十一年」, “子產之從政也, 擇能而使之. 馮簡子能斷大事. 子大叔美秀而文. 公孫揮能知四國之爲, 而辨於其大夫之族姓, 班位貴賤能否, 而又善爲辭令. 裨諶能謀, 謀於野則獲, 謀於邑則否. 鄭國將有諸侯之事, 子產乃問四國之爲於子羽, 且使多爲辭令. 與裨諶乘以適野, 使謀可否, 而告馮簡子使斷之. 事成, 乃授子大叔使行之, 以應對賓客.”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홈페이지(<http://ctext.org/zh>)에서 2016년 1월 1일 오전 2시 24분에 검색.

시냇가에서 떠들썩하니 다투는 소리가 나는데, 말하는 소리가 새 소리인지 벌레 소리인지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달려가 보니 득룡이 되놈들과 예물이 많으니 적으니 하면서 다투고 있었다.

(…)

금년에 이렇게 주면 명년에는 그것이 전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투게 된다. 사신들은 이런 이치도 모르고 항상 책문에 들기에만 급급하여 역관에게 맡겨 재촉한다. 역관은 마두에게 맡겨 재촉하니, 그 폐단이 유래된 지 오래되었다.

(…)

못 되놈들은 깃소리도 내지 않고 숙연히 받아 갔다. 조군은

“득룡은 정말 알아주는 수완가입니다. 그가 지난해에 털목도리, 칼 주머니 등을 잃어버린 일이 없었는데도 공연히 야료를 부려 한 놈을 욕하고 꺾어 놓아서, 나머지 무리는 기세가 수그러들어 모두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물러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흘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아 책문에 들어갈 기약이 없게 된답니다.”¹²⁴⁾

득룡은 열네 살 때부터 북경을 출입하기 시작해 삼십여 차례 사행을 다녀온 경력이 있어 사행에서 벌어지는 대소사를 잘 처리하는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박지원은 득룡의 수완에 감탄하여 실감나게 분쟁 해결 과정을 형상화하는 한편, 예단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사행 때마다 벌어지는 폐단의 책임을 사신들에게 물었다. 사신들은 항상 책문에 들기에 급급하고, 예단 문제를 역관에게 맡겨 재촉하고, 역관은 마두에게 맡겨 재촉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박지원이 외교 실무에 밝은 득룡의 문제해결 능력을 형상화하는 데에 힘쓴 까닭은 무엇일까? 만약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경우 정사(正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은 역관에게 기대고 역관들은 마두에게 기대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이 사행에 임하는 태도와는 상반되게 당시 사신들이 대청 사행에 임하는

124)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一 別集 『熱河日記』, 「渡江錄」, “溪邊有喧譁爭辨之聲, 而語音啾啾, 莫識一句. 急往觀之, 得龍方與群胡, 爭禮物多寡也. (….) 今歲如此, 則明年已成前例, 故必爭之. 使臣不知此理, 常急於入柵, 必促任譯. 任譯又促馬頭, 其弊原久矣. (….) 群胡不做一聲, 肅然受去. 趙君曰: 得龍能則能矣. 彼往歲元無失, 揮項刀囊等事, 公然惹鬧, 罵折一人, 衆人自沮, 皆面面相顧, 無聊卻立. 若不如此, 雖三日不決, 無入柵之期矣.”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은 「일신수필(駟汎隨筆)」 7월 15일자에 드러나고 있다.

이때 일등 선비는 씩씩하고 근심 섞인 표정으로 얼굴빛이 변하며 이렇게 말했다.

“도무지 아무것도 불만한 것이 없었다. 어째서 불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느냐고? 황제가 머리를 깎아 변발을 했고, 장상과 대신, 백관들이 변발을 했고, 만백성이 변발을 했으니 (….) 한번 머리를 깎고 변발을 했다면 이견 되놈인 것이다. 되놈이라면 개돼지이다. 개돼지에게 무슨 불만한 것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바로 으뜸가는 의리이다.¹²⁵⁾

박지원은 존화양이(尊華攘夷)에 따른 춘추대일통(春秋大一統)의 의리(義理)에 투철한 사신들을 일컬어 ‘일등 선비’라는 반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변발을 한 사람이라면 이적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황제, 장상, 대신, 백관, 만백성이 변발을 했다는 소전제를 들었다. 따라서 위로는 황제부터 아래로는 만백성에 이르기까지 이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존화양이(尊華攘夷)에 따른 춘추대일통(春秋大一統)의 의리(義理)에 투철한 조선중화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는 연역 추론의 사고방식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다.

존화양이(尊華攘夷)에 따른 춘추대일통(春秋大一統)의 의리(義理)에 투철한 사신들의 사고의 밑바탕에는 이적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고가 견지되고 있는 것도 발견된다. ‘사람의 성품과 다른 생명체의 성품은 다르다’는 입장과 ‘중화와 이적은 다르다’는 입장을 동일시하고 있어 인물성인이이론(人物性因理異論)과 화이지분론(華夷之分論)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대용이 『의산문답』 문답부에서 실용을 통해 인물성인기동론(人物性因氣同論)과 화이일론(華夷一論)으로 반박하고 있는 구절을 상기해 보면 일등선비의 논리는 곧 홍대용과 박지원이 공통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논리였던 셈이다.

박지원이 「성경잡지(盛京雜識)」에서 청나라 상인과의 필담을 통해 청나라 상인의

125)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駟汎隨筆」, “上土則愀然變色, 易容而言曰: 都無可觀. 何謂都無可觀? 曰: 皇帝也薙髮, 將相大臣百執事也薙髮, 士庶人也薙髮, (….) 一薙髮則胡虜也. 胡虜則犬羊也. 吾於犬羊也何觀焉? 此乃第一等義理也.”

생활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일신수필(駟汎隨筆)」에서 청나라의 수레제도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적극적인 대청(對淸) 외교(外交) 활동을 통해 외국의 실상을 탐구하여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정신으로 자국의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예단 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신들이 책문에 들기에 급급하고 예단 문제를 역관에게 맡기고 역관은 마두에게 맡기는 태도와는 선명하게 대비되는 면모라고 할 수 있다.

두 달 간의 긴 여정 끝에 열하에 당도한 뒤 본격적인 외교 활동이 시작되는 대목인 「태학유관록(太學留館錄)」 8월 9일자에 한족 선비 윤가진(尹嘉鎰)과의 첫 만남 장면도 주목할 만하다. 형산(亨山) 윤가진은 종삼품(從三品)통봉대부(通奉大夫) 대리시경(大理寺卿)을 지낸 후 은퇴한 70세 노인으로서 직례성(直隸省) 박야(朴野) 출신이며 황제의 큰 총애를 받았던 전직 관료이다. 박지원 자신과 수인사(修人事)를 나눈 후에 자신을 따라와 조선 사신들과 만나고자 하지만 윤가진은 조선 사신들과 만나려는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벼슬을 하는지 상세히 살피지도 않을 것이고, 필경 관대하게 맞이할 리도 없는 것이다. 설령 만나 보더라도 반드시 사람대접을 안 하고 개나 돼지 같은 축생으로 대우할 것이며, 나에게도 쓸데없는 것을 했다며 싱거운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윤공은 발걸음을 멈추고 뜰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일이 아주 난처하게 되었다.

내가 정사의 방에 들어가서 고하니 정사는,
 “혼자 만나는 일은 온당치 않을 터이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

윤공은 즉시,
 “웁습니다.”

하고 읊을 하고 나가는데, 안색을 살피니 자못 겸연쩍어 하는 표정이다. 훌쩍 가마를 타고 가는데, 장엄하고 휘황찬란한 것이 정말 귀한 사람이 타는 가마이다. 따르는 사람 십여 명은 모두 좋은 의복을 입고 수놓은 말안장에 앉아 가마를 에워싸고 가는데, 향냄새가 바람결에 진하게 풍겨 온다.¹²⁶⁾

12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何等官階, 而必無款接之理. 雖相接, 必以犬羊待之, 亦必以我爲不緊矣. 尹公住躡而庭立, 事甚難處. 余入告正使, 正使曰: 事不當獨見, 將若之何? (….) 尹公卽曰: 是也. 一揖而出, 察其色, 似愜然者. 飄然乘輶而去,

사신들은 외교 능력을 활용하여 상대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적대 관계를 맺고 있던 대외 관계의 실상을 파악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박지원은 이러한 현실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사신들은 박지원의 입장과는 달리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조선 중화주의 관념이 투철한 사신들이 이적의 나라에 가서 볼 만한 것도 배울 만한 것도 전혀 없다는 선입견을 견지하다보니 윤가전과 같은 학술과 문예, 정치적 실무능력을 갖춘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청나라의 사정을 탐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사신들이 상대국과의 외교 활동을 통해 국제정세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도강록(渡江錄)」과 「성경잡지(盛京雜識)」, 그리고 「일신수필(駟汎隨筆)」에 나타난 박지원의 문제의식은 「행재잡록」에도 잘 드러나 있다. 북경에서 출발하여 열하에 도착한 뒤 청조 예부와 조선 사신 사이에 오가는 문건들을 정리하고 박지원 나름의 견해를 보탠 글이 잡록부에 속하는 「행재잡록」이다. 문서 장부 가운데 조선 사신이 예부(禮部)에 올리는 원본과 예부에서 받아 그것을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 장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사례에 대해 의견을 단 대목을 보면, 「황교문답(黃敎問答)」, 「반선시말(班禪始末)」, 「찰십륜포(札什倫布)」를 통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티베트 불교와 승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노출하며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 연유는 만약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함이었다고 헤아릴 수 있다. 박지원이 우려한 점이 무엇이었는지는 인용 구절의 밑줄에 있다.

사신이 반선을 만나 본 일은 내가 ‘찰십륜포’편에서 이미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이제 예부에서 황제에게 아뢴 글을 보면, 사신이 액이덕니에게 절을 하고 뵈었다거나, 사신들에게 물건을 하사하였을 때 사신들이 즉각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했다고 한 것들은 모두 허황된 거짓말이다. (...) 사신은 북경으로 돌아와서 반서에게서 받은 물건을 역관들에게 다 주었고, 역관들도 이를 똥이나 오물처럼 자신을 더럽힌다고 여기고 은자 90냥에 팔아서 일행의 마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은자를 가지고는 술 한 잔도 사서 마시지 않았다.¹²⁷⁾

其輜裝嚴輝煌，眞貴者所乘也。從者十餘人，皆袷服繡鞍，簇擁而去，香風馥郁。”

127)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三 別集 『熱河日記』, 「行在雜錄」, “使臣見班禪事, 余具載之, ‘札什

박지원은 조선의 사신이 청 황제의 명으로 판첸라마를 역지로 알현하였지만, 고개를 숙였다거나 하사품을 공손히 받으며 머리를 조아렸다가 하는 일은 없었다고 했다. 판첸라마가 조선사신에게 준 선문목록 문건 아래에도 박지원은 의견을 달았다. 사신은 역관에게 줘버렸고, 역관은 은자 90냥에 팔아 일행의 마두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했다. 박지원의 이러한 반응은 조선 사신들이 귀국한 뒤에 조정에서 판첸라마 알현 사건을 알고, 문제시할 것을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기조(基調)를 지닌 조선에서 청 황제가 스승으로 삼은 판첸라마 알현 사건을 고운 시각으로 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박지원은 조선 사신측이 역관을 통해 문건 내용을 몰래 고친 일을 따지게 하면, 예부에서 보기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진 것을 수정해주는 것에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따지려드는 까닭을 물으며 오히려 나무라는 경우도 보았다. 청 조 예부에서 황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문서를 함부로 고치는 일에 분개했다. 이는 청 황제를 속이는 죄를 저지르는 일이면서, 조선을 멸시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다.

저들에게 조정되고 농간을 당하는 것이 지금은 그저 돌아가는 날짜가 잠시 지체된다든지 문서가 약간 뒤로 밀린다든지 하는 일에 불과하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위급한 일이 생겨 대국에 사신으로 가게 되면, 대국의 사신 대접이 항상 지금과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신은 단지 숙소에 깊이 앉아 있는 외국의 사신에 불과할 것이니 장차 누구를 믿을 것인가?¹²⁸⁾

박지원은 황제⇔예부⇔통관⇔역관⇔사신으로 연결된 외교문서 전달체계에서 통관과 역관의 수중에 사신이 돌아날 우려가 있다고 여겼다. 외교문서 전달 기간이 늦

倫布記', 及見禮部奏聞. 其稱拜見'額爾德尼', 給與使臣等物件, 該使臣等即當叩謝云者, 皆妄也. (….) 使臣既還北京, 以其幣物盡給譯官, 諸譯亦視同糞穢, 若將浼焉, 售銀九十兩, 散之一行馬頭輩. 而不以此銀, 沽飲一盃酒.”

128)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三 別集 『熱河日記』, 「行在雜錄」, “今其所被操縱, 不過回期之暫滯, 文書之差退而已. 萬一有事且急, 而大國之所以慰接使臣者, 未保其恒如前日. 則深坐館中者, 不過外國之陪臣耳, 將誰恃乎?”

취지느냐 빨라지느냐 하는 사안은 통관이나 역관 사이에 오가는 뇌물 수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례를 보았기 때문이다.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사신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통관이나 역관이 농간이라도 부린다면 사신이 숙소에서 우두커니 앉아 역관의 입만 바라보는 일이라도 생길까 우려했다. 이는 사신이 역관 못지않게 한문 구사 능력 이외에 중국어 또는 만주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했다. 하지만 조선 사신은 이러한 능력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청나라가 세워진 지 140여 년이 지났지만, 조선 사대부는 여전히 중국을 오랑캐 나라로 여겨, 사신의 임무를 띠고 가는 경우 외교 문서를 수수하는 일이나 청나라 정세의 허실을 파악해야 하는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¹²⁹⁾이라 했다. 만약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정사(正使)· 부사(副使)· 서장관(書狀官)이 역관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¹³⁰⁾고 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박지원은 조선중화주의 의식이 투철한 사신들이 통념에 사로잡혀 실상을 보지 못하는 현실에 맞서 청나라 자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포부를 품었다. 사신들과 대비되는 인물로 득룡을 부각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청나라 상인의 생활이나 청나라 문물제도를 탐구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열하에 머물 때에는 외교 문서를 탐구 대상으로 삼아 외교 체계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러한 면모는 대청 외교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탐구의 노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천하 정세의 흐름 탐구

『열하일기』를 통해 박지원이 열하 체험에서 얻은 문제의식은 무엇일까? 박지원

129)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三 別集 『熱河日記』, 「行在雜錄」, “清興百四十餘年, 我東士大夫夷中國而恥之, 雖勉奉使, 而其文書之去來, 事情之虛實, 一切委之於譯官.”

130)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三 別集 『熱河日記』, 「行在雜錄」, “如有一朝之虞, 則三使者其將默然相視, 而徒仰任譯之口而已哉. 爲使者不可以不講.”

은 청나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 정세의 흐름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자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필수요건이라는 점을 문제제기 하고 있다. 그는 자국과 교섭이 이루어지는 주변국의 관계는 선후와 표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청과 주변국의 관계가 당장 우호 관계라 하더라도 상황이 변하여 적대 관계로 변화할 수 있고, 우호 관계 이면에 자리 잡은 갈등의 요소가 무엇인지 헤아리는 데에 힘썼다. 이 절에서는 박지원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검토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이 청과 주변국, 조선과 청의 관계가 당장 우호 관계라 하더라도 상황이 변하여 적대 관계로 변화할 수 있고, 우호 관계 이면에 자리 잡은 갈등의 요소가 무엇인지 헤아리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태학유관록(太學留館錄)」 8월 10일자 한 구절을 주목해 보자.

㉔ 군기처 대신이 황제의 명을 받들고 와서 전한다.

“서번의 성승을 가서 만나보겠느냐?”

(…)

사신들이 서로 상의를 하는데 누구는,

“가서 만나면 결국 더 난처한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누구는,

“예부에 글을 올려서 이치를 한번 따져 봅시다.”¹³¹⁾

그것은 박지원이 열하에서 체류 중 조선 사신들이 청나라 건륭 황제의 명으로 열하의 티베트 불교사원 타시름포사에 머물고 있는 티베트 지도자 관첸 라마를 알현하게 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사신들에게 명한 청나라 건륭 황제의 요구는 사신들은 물론 박지원에게도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지원은 황제의 명을 위기로 여기지 않고 지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꾸었다. 당혹스러워하는 사신과 달리 박지원은 이 사건을 접하고 난 뒤 기발한 착상을 하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다.

131)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軍機大臣奉皇旨來傳曰: 西番聖僧欲往見乎? (….) 使臣相議, 或曰: 往見終涉重難. 或曰: 呈文禮部, 據理爭之.”

㉔ ‘이건 아주 좋은 기회인데.’ (….) ‘아주 재미있는 문제야. 지금 만약 사신이 황제의 말을 거부한다는 상소를 올린다면 의롭다는 명성이 천하에 올릴 것이고 나라를 크게 빛낼 일이 지.’ (….) ‘황제가 군대를 내어 조선을 칠 것인가? 아니지. 이건 사신이 저지른 죄이지. 어떻게 그 나라에 대고 화풀이를 하겠는가? 결국 사신들은 저 멀리 운남과 귀주 쪽으로 귀양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테지. 내가 의리상 혼자 조선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서촉이나 강남의 땅을 내 장차 밟게 되리라. (….)’

나는 마음속으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곧바로 달려서 밖으로 나왔다.¹³²⁾

㉓와 ㉔를 읽으면서 발견한 바를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조선 사신들이 청나라 황제의 명에 의해 이단의 종교인 티베트 불교의 수장을 만나 알현을 해야 하는 상황은 귀국 후 왕에게 추궁을 들을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㉓에서 사신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㉔에 형상화되어 있는 박지원의 의식은 사신들의 면모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사신들에게 닥친 일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한가롭게 공상에 빠진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긴박한 상황과 한가로운 의식이 서로 어긋나게 설정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작가의 수법에서 작가의 의도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조선 사신들이 청 황제의 명에 항명(抗命)을 하면, 청이 조선을 공격할 수 있다. 조선을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니 조선 사신들을 귀양 보낼 수 있다. 조선 사신들이 귀양을 가면, 의리상 자신도 귀양을 따라갈 것이다. 자신이 가는 귀양은 귀양이 아니다. 평생 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떠나는 한가로운 유람이다. 청 황제의 명은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다. 청 황제의 명과 조선 사신들의 항명 사이 대결은 ‘좋은 기회’이며, ‘재미있는 문제’이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밖으로 뛰쳐나갈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한가로운 박지원의 공상을 읽어나가는 동안 독자는 조선 사신들의 긴박한 상황에 몰입되지 않고 일정한 거리감이 생기면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박지원의 이러한 수법은 조선 사신들에게 닥친 긴박한 상황에 독자가 감정이입 되어 조선 사신과

132)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此好機會也. (….) 好題目也. 是時使臣, 若復呈一疏, 則義聲動天下, 大光國矣. (….) 加兵乎? 曰: 此使臣之罪也. 豈可移怒於其國乎? 使臣瀆黔雲貴不可已也. 吾義不可獨還蜀, 江南地吾其踐兮. (….) 余暗喜不自勝, 直走出外.”

동일시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조선 사신들에게 닥친 상황과 박지원의 한가로운 의식이 어긋나는 것 자체가 조선 사신들과 박지원의 의식적 대결을 보여준다. 앞 절에서도 다룬 것처럼 사신들과 박지원의 관계는 표리가 다른 점이 주목된다. 이들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로 사회적인 유대감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박지원이 설정한 바에 의하면, 일등선비와 삼등선비로 갈등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열하일기』 일기부에서 등장하는 사신들의 행적에 관한 서술 비중은 매우 낮게 처리되어 있으며,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에 관해 심도 있는 관심을 보이는 박지원과는 매우 다른 면모를 보인다. 그 근처에는 명을 숭상하고 청을 배격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황제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적의 나라는 윤리적으로 존중의 대상이 아니며, 이성적으로는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반면 『열하일기』 일기부에서 등장하는 박지원의 행적에 관한 서술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박지원은 사신들과는 달리 의주에서 북경으로 가는 도중에 점차적으로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 깨달음을 얻어가는 여정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북경과 열하에서의 체류 기간에는 청나라 시정문화를 체험하기도 하고, 청나라 관리나 한족 선비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술문화의 동향을 캐려 애를 쓰는 면모를 보인다. 따라서 조선 사신들과 박지원의 대립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 중화주의 의식과 조선 현실개혁 의식의 갈등을 암시하고 있다.

판첸 라마와의 만남을 주선한 황제의 명(命)으로 박지원은 어떤 이득을 얻게 되었을까? 첫째, 박지원은 판첸 라마와의 만남을 주선한 황제의 명(命) 덕에 열하와 북경에서 체류 중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 판첸 라마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받았다. 둘째, 박지원은 판첸 라마와의 만남을 주선한 황제의 명(命) 덕에 티베트 불교 사원을 방문하고 난 뒤에는 만주족 관료와 한족 선비들의 이목을 끄는 인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셋째, 박지원은 판첸 라마와의 만남을 주선한 황제의 명(命) 덕에 지정(志亭) 학성(赫成), 곡정(鵠汀) 왕민호(王民皐), 추사시(鄒舍是), 몽골인

부재(孚齋) 파로회회도(破老回回圖), 형산(亭山) 윤가전(尹嘉詮), 만주인 여천(麗川) 기풍액(奇豐額) 등과 필담을 통해 청나라 황제의 천하통치술을 간파하고, 박지원의 천하의 형세를 보는 안목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세 번째 이득이 특히 가치가 있으며 동행했던 조선 사신들이 성취하지 못한 면모이다.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의 경제의식을 잘 드러내면서, 고문 글쓰기의 정점에 해당하는 대목은 「심세편」이다. 「심세편」은 필담부 성격을 지닌 「망양록(忘羊錄)」과 「곡정필담(鵠汀筆談)」 집필을 마치고 쓴 글로, 국제 정세의 동향과 그 본질을 간파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망양록」과 「곡정필담」이라는 필담부는 홍대용의 『회우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된 조·청 문인들의 우정의 장을 마련한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박지원은 청조 황실의 기만적인 통치술과 청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흐름을 간파하려는 의중을 지니고 한족 사대부들을 만났다. 겉으로 드러낸 질문 자체보다는 해당 질문을 통해, 청조 아래 살고 있는 한족 사대부들을 통해 청조 황실의 기만적인 통치술과 청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흐름을 간파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박지원이 한족 사대부에게 던지는 질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이제 「심세편」을 분석해 보자.

연암씨는 말한다. 중국을 유람하는 사람에겐 다섯 가지 망령된 생각이 있다.

(…)

중국의 선비들에게는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

우리나라 사람의 다섯 가지 망령은 실상 중국인에 대한 자기모멸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모멸은 실상 중국인 사대부의 죄가 아니다. 중국인들이 본래 가진 세 가지 어려운 일 역시 우리나라 사람의 처지에서 멸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¹³³⁾

앞머리에서는 열거식 구성으로 청나라 연행을 다니는 사신단 일행이 지니고 있

133)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審勢編」, “燕巖氏曰: 遊中國者有五妄. (….) 中州之士有三難. (….) 東人有五妄, 實由中土之自侮. 然其自侮之實, 亦非中土之罪. 而其固有之三難, 又非東人之所可得侮之也.”

는 통상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적했다. 박지원은 조선에서나 통하는 명문세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문벌의식으로 청나라에서 거들먹거리는 언행을 일삼는 사신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사나 부사 그리고 서장관으로서 청나라 관리와 대면하는 경우, 공식 석상에서 조차 절하고 읍하는 예법을 부끄럽게 여겨 집권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신으로 가서 교류를 할 적에 운치 없는 시문을 한 편 짓고는 자아도취에 빠져 청나라에는 시문이 없다고 흰소리 치는 모양새도 보기에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조선중화주의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 우월감에서 비롯한 태도를 ‘망령’이라 비판했다. 청나라의 예법이나 풍습, 문물제도는 조선은 물론 청나라 주변의 나라들보다 나은 형편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나라에서 뽑내는 사신들의 외교 실태의 폐단을 나무랐다.

조선 사신들이 어쩌다 중국 인사들과 만나 황실의 은택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 조선 사신들은 청나라 치하 한족 사대부들은 현실을 비분강개하는 인사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 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것이다. 강희제를 기준으로 중국 땅의 사대부 인사들은 그 이전은 명의 유민이고, 그 이후로는 청 황실의 신하이며, 백성들이 건륭제 치하의 왕조에 충절을 다하고 법제를 준수하여 받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았다. 그러고는 청나라 한족 사대부들이 자국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난신적자(亂臣賊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을 말했다.

만주족이 지배하는 청 황실 아래 한족 선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들었다. 과거에 급제하고 난 뒤 경서와 사서를 사건에 따라 변증하고, 제자백가와 여러 학파의 본말을 섭렵하여 재빨리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예의에 밝고 의젓한 자세로 외국의 사신을 응대하여 대국의 체면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대인이든 소인이든, 수도에 살든 변방에 살든 자국의 법을 두려워하고 관료로서 살아가는 태도가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하기에 제도가 한결같고 직분에 맞게 제 할 일을 해내야 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들었다. 따라서 조선 사신단 일행이 청나라 선비들에 대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청나라 선비들을 함부로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박지원은 열하에서 청나라의 많은 사대부와 교류를 통해 평소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을 알아내기는 했으나, 당대 정치의 잘잘못과 민심의 향배를 낚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당대 정치의 잘잘못과 민심의 향배를 캐내려 한다면, 청나라 사대부를 대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 하는데 그 나라 예법으로 그 나라 정치를, 그 나라 음악으로 그 나라 도덕을 알 수 있다는 맹자의 말을 소견논거로 삼아 자신이 구사한 방법을 소개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면 반드시 대국의 명성과 교리를 곡진하게 찬미함으로써 먼저 그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고, 중국과 외국이 한 몸이나 다름없음을 부지런히 보여 주어 혐의를 받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한편으로, 예악의 문제에 뜻을 두어서 스스로 전아하게 보이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역대의 역사 사실을 거론하되 최근 사정에 대해서는 다그치지 말아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을 청하여 마음 놓고 이야기를 터놓도록 유도하고, 길으로는 잘 모르는 것처럼 가장해서 그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다면, 그들의 눈썹 한 번 움직이는 데서도 진위를 볼 수 있을 것이요,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실정을 능히 탐지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종이와 먹을 떠나서 그들의 정보와 소식을 대략이나마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이다.¹³⁴⁾

첫째, 청나라 선비들은 학문을 귀하게 여겨 경전과 역사서를 인용하여 얘기하길 좋아하니, 그러한 화제를 서두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라고 했다. 둘째, 대국 청나라의 명성과 교화를 찬미하여 그들이 경계심을 지니지 않도록 보이고, 청과 조선이 한 몸이라 다름없음을 보여 부정적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다. 셋째,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을 청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잘 모르는 척해서, 그들이 이를 답답하게 여겨 가르치고 싶다는 심정이 들도록 만들라고 했다.

박지원이 구사한 대청(對淸) 외교 방법론은 「망양록」과 「곡정필담」의 검토를 통

134)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審勢編」, “故將要得其歡心, 必曲贊大國之聲教, 先安其心, 勤示中外之一體, 務遠其嫌. 一則寄意禮樂, 自附典雅, 一則揚挖歷代, 毋逼近境. 遜志願學, 導之縱談, 陽若未曉, 使鬱其心, 則眉睫之間, 誠僞可見, 談笑之際, 情實可探. 此余所以畧得其影響於紙墨之外也.”

해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망양록」과 「곡정필담」은 열하에서 만난 청나라 한족 사대부와와의 교류내용을 담아낸 필담부이다. 우선 그들에 관한 기본 사항을 별도로 정리해 「경개록(傾蓋錄)」이라 제명하였다. 「경개록」 서문에서 박지원은 “나이가 들어 만나도 젊어서 만난 듯 새롭고, 잠시 지나다 만난 사이라도 오랜 친구 같다.”¹³⁵⁾는 글귀를 따 제명을 달았다. 예전 북방 소수민족이 나라를 세운 내력이 있는 열하에서 교류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던 터에, 사신 일행이 묵고 있는 태학에서 청의 황제 건륭제의 생신 축하 반열에 참여하기 위해 참석한 청나라 사대부들과 초대하고 초대받는 주객이 되어 6일 동안 함께 하게 된 내력도 밝혔다.

청나라 사대부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람은 왕민호(王民皐)와 윤가전(尹嘉銓)이다. 이들은 필담부인 「망양록」과 「곡정필담」에서 필담의 중심인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개록」에서 박지원은, 왕민호는 강소성 사람으로 연령은 54세이며 순박하고 질박하며 꾸밈이 없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윤가전은 하북성 사람으로 연령은 70세이며, 대범하고 소탈하여 성품이 까다롭지 않고 화합을 즐기는 사람¹³⁶⁾이라 했다.

「망양록」은 박지원과 왕민호, 그리고 윤가전이 ‘음악의 고금 변천’을 화제로 밤새 필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문에서 윤가전이 양고기를 음식으로 차려놓고 먹는 일을 잊을 정도로, 왕민호·박지원 등이 이날 나눈 이야기에 심취했음¹³⁷⁾을 밝혔다. 박지원이 왕민호와 윤가전에게 질문한 내용을 정리하면, 화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 파악할 수 있다. 주로 박지원이 질문하고, 왕민호와 윤가전이 대답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화제의 집중도가 높은 편인데, ‘고금 음악의 변천’이라는 주제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필담이 이루어졌다. 화제의 진행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망양록」의 처음, 중간, 끝에서 뽑아 박지원의 질문을 중심으로 각각 두 가지씩 모두 여섯 가지 질문만을 드러내어 보이기로 한다. 박지원이 왕민호와 윤가전에게 했던 30개 정도의 질문을

135)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三 別集 『熱河日記』, 「傾蓋錄」, “古語有之, 白頭如新, 傾蓋如舊.”

13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三 別集 『熱河日記』, 「傾蓋錄」, “王民皐, 江蘇人也. 時年五十四, 爲人淳質少文. (….) 尹嘉銓直隸, 博野人也. (….) 時年七十, (….) 大率簡易和樂人也.”

137)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三 別集 『熱河日記』, 「忘羊錄」, “余曰; (….) 今鄙人得聞大雅之論, 已忘全羊. 尹公曰: 所謂臧穀俱忘. 相與大笑. 遂次其筆語, 爲忘羊錄.”

제시하면 번다하기 때문이다.

㉠ 시대마다 음악이 달라지고 풍류가 변천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138)

㉡ 넓고 크며 웅장하고 깊은 궁음(宮音)은 선(善)한 것이고, 낮고 슬픈 상음(商音)이나 빠른 치음(徵音)은 선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139)

㉢ 천자의 가운데손가락 만한 율관을 땅에 묻어 기후를 점쳤다는데 그 이치는 무엇입니까?140)

㉣ 당 현종이 즐겼다는 『예상우의곡』은 근래 들을 수 있는 『서상기』와 같은 잡극인가요?141)

㉤ 좋은 시절이 돌아오면, 진·한 이래로 쇠퇴한 옛 음악을 회복하여 정악(正樂)을 바르게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요?142)

㉥ 지금 청나라에서는 학문적으로 주자와 육상산 가운데 누구를 더 숭상하나요?143)

「망양록」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박지원의 대청(對淸) 외교 방법론을 총괄해 보자. 박지원의 마지막 질문인 ㉥)를 제외한 박지원의 질문 항목㉠~㉣)는 고금(古今) 악론(樂論)이 중심 화제이다. 박지원은 왕민호(王民皐)와 윤가전(尹嘉銓)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만한 고금 악론을 화제로 꺼내, 자신에 대한 그들의 경계심을 풀게 한 뒤, 대국(大國)의 명성과 교화를 찬미하여 부정적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힘썼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을 청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잘 모르는 척해서 왕민호(王民皐)와 윤가전(尹嘉銓)이 이를 답답하게 여겨 가르치고 싶다는 심정이 들도록 만들었다.

다음은 필답부 「곡정필답」을 보자. 화제의 진행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곡정필답」에서도 주요 질문만을 선별하여 드러내어 보이는 방식을 취한다. 박지원과 왕민호

138)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三 別集 『熱河日記』, 「忘羊錄」, “而代各殊樂, 風雅變遷者何也?”

139)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三 別集 『熱河日記』, 「忘羊錄」, “如宮音之廣大雄深者, 是善也. 如商音之嘒煞, 徵音之標疾, 是不善也?”

140)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三 別集 『熱河日記』, 「忘羊錄」, “舊說以天子中指寸爲律, 埋之土中, 以候氣, 此理如何?”

141)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三 別集 『熱河日記』, 「忘羊錄」, “霓裳羽衣曲, 如近日所觀西廂雜劇耶?”

142)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三 別集 『熱河日記』, 「忘羊錄」, “秦漢以來, 非但難復古樂. 雖時運好還, 亦無作樂之人乎?”

143)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三 別集 『熱河日記』, 「忘羊錄」, “卽今海內學問, 朱、陸何尙?”

가 서로 질의한 사항을 모두 제시하면 번다하기 때문이다.

㉠ 박지원 : 낮에는 만물이 빛을 비추다가 밤이 되면 킁킁해져 어둡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¹⁴⁴⁾

㉡ 왕민호 : 만약 달 안에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는 어떨까요?¹⁴⁵⁾

㉢ 왕민호 : 천원지방 학설은 우리 유가에서 묵숨처럼 여기는 것인데, 요즘 지구설을 내세운 서양인이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어느 학설을 따르고 있는가요?¹⁴⁶⁾

㉣ 왕민호 : 홍대용 선생은 천문에 밝다고 하니, 점도 칠 수 있습니까?¹⁴⁷⁾

㉤ 박지원 : 청나라의 금서 목록은 어떻게 됩니까?¹⁴⁸⁾

㉥ 박지원 : 명나라 영락(1403~1424) 때 『영락대전』으로 사람을 기만하더니, 지금 『도서집성』이나 『사고전서』 등도 이런 의도로 만든 것인가요?¹⁴⁹⁾

「망양록」과 비교한 결과, 「곡정필답」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주로 박지원이 질문하고 왕민호와 윤가전이 대답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망양록」과는 달리, 「곡정필답」은 주로 박지원과 왕민호의 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일방적인 질문보다는 상호 관심사에 대해 비교적 대등한 비중으로 변모하였다. ‘고금 음악의 변천’이라는 주제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던 단일한 화제에서 벗어나서, 보다 다양한 화제로 필답이 진행되고 있다.

박지원은 청나라 정치의 잘잘못과 민심의 향배 가늠을 위해 한족 사대부를 대상으로 필답을 나누면서, 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대외관계에 관한 천하대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청나라 민주족이 중국을 통치하고 나서부터는 청 황실은 중국의 한족 사대

144)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鵠汀筆談」, “余曰: 晝則萬物照耀, 夜則羣品黯黑, 何也?”

145)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鵠汀筆談」, “鵠汀曰: 月中若有世界, 世界如何?”

14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鵠汀筆談」, “鵠汀曰: 吾儒近世頗信地球之說. 夫方圓動靜, 吾儒命脈, 而泰西人亂之. 先生何從也?”

147)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鵠汀筆談」, “鵠汀曰: 洪湛軒先生, 頗能曉占乾象否?”

148)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鵠汀筆談」, “余問: 禁書題目?”

149)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鵠汀筆談」, “余曰: 永樂時蒐訪天下群書, 爲永樂大全等書, 賺人頭白, 無暇閒筆, 今集成等書, 並是此意否?”

부들이 학문의 종주(宗主)로 삼고 있는 인물과 종주로 여기는 학문을 배우는 이들의 수효를 몰래 살폈다고 했다. 청 황실은 한족 사대부들의 다수가 주자를 종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자를 공자의 제자인 십여 철인의 반열로 올려 제사지내며, 청 황실은 주자학을 가학(家學)으로 천명하는 술수를 부렸다고 했다. 그러자 한족 사대부들은 이를 기뻐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형식화된 주자학의 위세를 빌려 현실에 영합해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경향이 나타났다¹⁵⁰⁾고 했다.

둘째, 청 황실이 주자학을 떠받드는 의도는 한족 사대부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만주족 황실을 이적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¹⁵¹⁾고 했다. 강희제(康熙帝) 때의 『도서집성』이나 건륭제(乾隆帝) 때의 『사고전서』 사업 또한 그러한 우민화(愚民化) 정책의 일환이며, 앞에서는 목을 억누르고 뒤에서는 등을 쓰다듬는 의도가 있다¹⁵²⁾고 했다. 그런데도 한족 사대부들은 형식적이고, 자잘한 학문에 허우적거리면서도 이런 불순한 의도를 눈치 채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탄식했다.

박지원은 청나라 만주족 황실이 중화의 예절과 문화를 숭상하는 한편, 만주족의 독자적인 풍습과 문화를 버리지 않는 까닭은 지리적 중화권 주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나, 새로운 중화의 주인이 등장하고 본래의 지역으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청나라 만주족 황실이 한족에게 황실이 규정한 법을 강요하는 까닭은 문자와 도량형을 만들고, 제도 마련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주체가 황제의 역할이므로 청조의 신하가 되려는 사람은 황제가 마련한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또한 청나라 황제들이 강소성(江蘇省)과 절강성(浙江省)을 여러 차례 순회한 까닭은 반역의 기운이 가장 성한 곳이기 때문이라 하고, 열하에 궁궐을 짓고 몽골군을

150)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審勢編」, “及清人入主中國, 陰察學術宗主之所在, 與夫當時趨向之衆寡, 於是從衆而力主之. 陞享朱子於十哲之列, 而號於天下曰朱子之道, 卽吾帝室之家學也. 遂天下洽然悅服者有之, 緣飾希世者有之.”

151)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審勢編」, “彼豈眞識朱子之學而得其正也. (….) 此其意徒審中國之大勢而先據之, 鉗天下之口而莫敢號我以夷狄也.”

152)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審勢編」, “(….) 爲圖書集成、四庫全書, 率天下而唱之曰: 此紫陽之緒言, 而考亭之遺旨也. 其所以動遵朱子者, 非他也. 騎天下士大夫之項, 扼其咽而撫其背.”

주둔시켜 이이제이(以夷制夷) 방책을 마련한 까닭이나, 라마교를 숭상하는 티베트 지역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 라마교를 숭상하고, 그 나라 종교지도자를 맞아 대우하는 까닭은 모두 이웃 나라를 제약하는 통치술¹⁵³⁾이라 간파했다. 이러한 청조의 통치술은 선악(善惡)이라는 가치판단을 적용하면 ‘악’이지만, 현우(賢愚)라는 가치판단을 적용하면 ‘현’이기도 하다.

박지원은 청나라 만주족 황실의 통치술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땅 한족 회유책이라 보았다. 일반 백성들은 세금을 감면해주어 불만을 누그러뜨린다. 사대부 지식인들은 주자의 학문을 국학으로 삼아 불만이 있는 선비라 할지라도 곁으로 대놓고 불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술책을 써서 문약(文弱)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둔다. 이렇게 추정하며, 대내외 불만 세력을 억제하는 청조의 통치술에 대해 기만적인 처사라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러한 청조 황실의 기만적인 통치술에 불만을 품은 오늘날 한족 사대부 가운데 간혹 주자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까닭은 비판의 목적인 주자학을 낮추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자학을 숭상하는 청조 황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조선의 사신들이 한족 사대부를 만나 주자학에 관한 비판적인 말을 듣는다면, 이러한 의중을 파악해야 할 것¹⁵⁴⁾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심세편」은 글의 처음과 끝의 호응 관계를 유념해두고 예상독자를 헤아려보면 해마다 청나라를 왕래하는 선비들을 대상으로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나라 조정을 의식적 대결 상대로 설정하고, 한족 선비들을 우호적 상대로 규정하여 외교 방법의 혁신안을 모색하려는 박지원의 집필 의도가 파악된다.

여기서 박제가와 박지원이 청나라 조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제는 청나라 조정과 조선 조정의 우호적 외교 관계를 기반으

153)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審勢編」, “東南開明, 必先天下而有事情, 喜輕浮而好議論, 則康熙六巡淮瀾, 所以陰沮豪傑之心. 而今皇帝踵而五巡矣. 天下之患, 常在北虜, 則迨其賓服. 自康熙時, 築宮於熱河, 宿留蒙古之重兵, 不煩中國而以胡備胡. 如此則兵費省而邊防壯, 今皇帝身自統禦而居守之矣. 西藩强悍而甚畏黃教, 則皇帝循其俗而躬自崇奉, 迎其法師, 盛飾宮室, 以悅其心, 分封名王, 以析其勢. 此清人所以制四方之術也.”

154)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審勢編」, “故中土之士, 往往駁朱而不少顧憚, 如毛奇齡者, 或有謂之朱子之忠臣, 或又謂之有衛道之功, 或有謂之恩家作怨, 此等皆足以見其微意也.”

로 해상 무역을 개척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재 국가의 큰 폐단은 한마디로 가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을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중국과 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정에서 사신 한 사람을 파견하여 중국 예부에 이러한 자문을 보내십시오. 가진 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없는 것을 얻고자 무역하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법입니다. 일본과 유구, 안남, 서양의 무리가 모두 만·절강성·교주·광주 등지에서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뱃길을 통하여 상인들이 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반드시 아침에 요청하면 저녁에는 허가를 내줄 것입니다.¹⁵⁵⁾

박제기는 해외 통상을 위한 실행 단계로 첫째, 통상국의 선정 문제를 들었다. 중국, 안남, 유구, 일본, 서양 각국 가운데 우선적으로 중국을 택하고, 통상 무역을 통해 국력이 커지고 백성들의 생업이 안정되면 차례대로 그 이외의 나라들과도 통상을 맺자고 했다. 둘째, 교역을 넓히기 위해 청 조정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 문제를 들었다. 안남, 유구, 일본, 서양 각국이 중국의 민 지방, 절강 지방, 교주 지방, 광주 지방 등지에서 교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선이 청 조정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했다. 여러 나라 가운데 유독 조선만 의심을 살 염려가 있을 리 없다는 논리였다. 셋째, 해외 통상을 위한 선박 제조의 문제이다. 국내 선박 제조 기술에 탁월한 장인들과 함께 중국 선박 제조 기술을 활용하자고 했다. 특히, 중국의 선박 제조 기술은 배울 만하므로 조선 연안에 출몰하는 중국 상선을 해마다 10여 척씩 초청하여 빈객의 예로 대우하자고 했다.

그런데 『북학의』 외편 「강남 절강 상선과 통상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항목과 약간 차이가 나는 진상본 『북학의』 「강남 절강 상선과 통상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항목에서는 중국과의 통상 무역을 통해 국력이 커지고 백성들의 생업이 안정되면 차례대로 그 밖의 나라와도 통상을 맺자는 구절을 삭제하고 대신 강남 지방이나 절강

155) 朴齊家, 『北學議』 外篇, 「丙午正月二十二日 典設司 別提 朴齊家 所懷」, “當今國之大弊。曰貧何以揀貧? 曰通中國而已矣。今朝廷馳一介之使, 咨於中國之禮部曰; 貨遷有無, 天下之通義也。日本琉球安南西洋之屬, 皆得交市於閩浙交廣之間。願得以水路通商賈, 比諸外國焉。彼必朝請而夕許之矣。”

지방과 통상하기에 앞서 요양 지방의 상선과 통상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1778년에 구상했던 정책안이 1798년이 될 때까지 20여 년 동안 그 어떤 개혁의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조선과 해외 통상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여 해외 통상안의 수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박지원은 조·청 관계에 관한 관점이 박제가와 달랐다. 청나라 조정과 조선 조정의 우호적 외교 관계는 한시적인 것일 뿐이다. 조·청 사이에 우호성이란 자국의 이해 여부에 따른 청나라 조정의 대외 통치술의 일환이기에 결국 대외적 긴장 상황의 조성으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적대 관계를 바꾸어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기반으로 조선 사신의 외교 능력을 배양하여 동아시아의 복잡하고 미묘한 국제 관계를 통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박지원은 청나라 한족 사대부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청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흐름을 면밀하게 파악하려 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존재했던 사신들의 안일한 외교 전술에 일침을 가하고, 끊임없이 변모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자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향과 외교 방법론을 모색하려 했던 박지원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국과 인접한 나라의 관계 설정은 우호 관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우호 관계 이면에 자리 잡은 긴장 관계와 숨은 의도를 읽어낼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박지원의 대외인식을 헤아릴 수 있었다. 외교의 실상을 찾기 위한 박지원의 노정과 천하정세의 흐름 파악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박지원의 의식은 표리 관계를 맺고 있는 주제의식으로 보인다.

3) 외국의 공연 문화 탐구

『열하일기』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대목이 성격이 다양한 잡기부이다. 특히 북경과 열하에 체류하면서 작성한 잡기부인 「산장잡기」, 「환희기」, 「피서록」, 「구외이문」, 「황도기략」, 「양성퇴술」, 「양엽기」, 「동란섭필」, 「금료소초」 등은 『열하일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열하일기』 연구에서 방치되다시피 해왔다. 연쇄적 질서와 삽화적 질서로 이루어져 있어 일관된 체계를 잡아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미시 담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박지원이 북경과 열하에 체류하면서 작성한 여러 잡기 가운데 제재(題材)의 특이성이 돋보이는, 공연 문화에 관한 탐구정신을 표명하고 있는 구절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청나라 공연 문화에 관한 관심은 「일신수필」 7월 15일자에 나타나고 있다. 박지원은 의주에서 북경으로 향하던 중간의 위치에 있는 구광녕(舊廣寧)성 밖의 관운장(關雲長) 사당을 지나게 되었다. “사당 문 밖에는 연극하는 무대가 있는데 무척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생겼다. 군중이 모여 한창 연극을 하고 있었으나 갈 길이 바빠 구경할 수가 없었다.”¹⁵⁶⁾라고 했다. 같은 날, 「연희 무대(戲臺)」에서는 연극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연극 무대를 살핀 기록을 남겼다. 천 명 가량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객석의 규모며, 화려한 무대장치를 박지원은 주의 깊게 보았다.

또한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서는 반드시 음력 정월 대보름인 상원과 칠월 보름 백중날인 중원에 이 샷자리 무대를 설치하여 온갖 연희를 놀린다.”¹⁵⁷⁾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고가포(古家舖)를 지날 때 “마주친 수레만 해도 수백 대인데 모두 촌 아낙네들이 소혹산 연희장의 연희를 보고 날이 저물어 파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¹⁵⁸⁾라고 회상하기도 하여 연희 시기, 연희 인기 등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일신수필」 7월 23일자에서는 마상재(馬上才) 연희에 주목하고 있다. “여자 세 명이 모두 준마를 타고 말 위에서 재주를 놀았다. 그 중에서 열세 살짜리 계집애가 더욱 재바르고 말을 잘 탔다. 모두 머리에는 초립을 썼는데, 좌우칠보(左右七步), 도괘(倒掛), 시괘(尸掛) 등 말 타는 기술이, 마치 눈발이 날리듯 나비가 춤추듯 빠르고 부드러웠다.”¹⁵⁹⁾라고 했다. 좌우칠보는 안장 앞을 두 손으로 잡고 몸을 펴서 말 등에 얹

15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駟汎隨筆」, “廟門外戲臺高深華侈. 方群聚演劇, 而行忙不得觀.”

157)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駟汎隨筆」, “小小村坊無廟堂處, 則必趁上元中元設此簞臺, 以演諸戲.”

158)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駟汎隨筆」, “閱數百車, 皆村婦之觀小黑山場戲, 日暮罷歸者.”

159)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駟汎隨筆」, “有女子三個, 皆騎駿馬. 爲馬上才. 其中十三歲女子, 尤躡捷善馳. 皆頭戴草笠, 其左右七步, 倒掛尸掛等法, 如飄雪舞蝶.”

드리는 재주로 배를 말 등이나 안장에 닿지 않게 하면서 몸을 말 왼쪽으로 옮긴 후 발을 땅에 댈 듯이 몸을 낮추었다가 다시 들어 말 등을 넘어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에서도 발을 내렸다가 왼쪽으로 넘어가는 동작을 여러 번 거듭하는 동작이다. 도패는 말 뒤로 오르거나 두 손으로 등자 가죽을 잡고 어깨를 안장에 붙이면서 물구나무를 서는 동작이다. 시패는 말을 타고 두 발을 등자에 건 채 뒤로 누워 머리를 말 엉덩이 쪽으로 가져가 한 손으로 말꼬리를 잡는 동작이다. 시정(市井)의 공연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사실은 박지원이 청나라 시정의 공연 문화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방증한다.

「관내정사」 7월 30일자에는 북경 근처 한 점포에서 연회를 본 사례를 기록하였다. “길옆에는 대나무자리를 이어 차양을 치고 곳곳에 연회마당을 베풀고 있다. 『삼국지』를 연회하는 자도 있고 『수호지』를 연회한 자도 있으며 『서상기』를 연회하는 자도 있는데 높은 음으로 노래하고 온갖 악기들이 함께 연주한다.”¹⁶⁰⁾라고 했다. 박지원이 탐독으로만 그쳤던 소설을 북경 인근에서 직접 연회 공연으로 접하며 감회가 남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열하에 머문 시기를 기록한 「태학유관록」 8월 12일자에는, 밤을 새워 한족 선비들과 필담을 나누어 몸이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짝 하나는 닫히고 하나는 열려 있기에 조금 들어가서 보려고 했더니 군졸 여러 명이 못 들어가게 막으며 단지 멀리 문밖에서 구경하는 것을 허락했다.”¹⁶¹⁾라며 연회를 구경한 사연을 기록하고 있다. “걸상을 던고 서 있는 내 모습이, 물오리가 햇대에 서있는 것 같아서 오래 서 있기가 어렵다.”¹⁶²⁾라며 불편한 자세로 연회를 감상하고 있는 자신을 햇대에 선 ‘물오리’에 비유하여 독자를 웃기려고 일부러 익살도 부렸다.

박지원은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흘간 청나라 황제의 생신 축하 행사에서 펼쳐진 구구대경(九九大慶)¹⁶³⁾ 공연 가운데 인상 깊었던 장면을 중심으로 <승귀선인

160)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道傍連簾蔽陽, 處處設戲. 有演三國誌者, 有演水滸傳者, 有演西廂記者, 高聲唱詞彈吹.”

161)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門扉一掩一開, 余畧欲入立, 則有軍卒數人禁之, 只許門外張望.”

162)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所立凳子, 如梟乘架, 難久立矣.”

163) 熊靜, 「清代內府 “九九大慶” 戲 研究 : 以北京大學圖書館藏《九九大慶》爲例」, 『東北アジア

행우기(乘龜仙人行雨記)>, <만년춘등기(萬年春燈記)>, <매화포기(梅花砲記)>, <희본명목기(戲本名目記)>, <납취조기(蠟嘴鳥記)> 등 잡기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청나라 공연 문화에 관한 깊은 관심에도 짧은 기간 내에 시정 공연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내 평생 기이하고 괴상한 볼거리를 열하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이름을 알지 못했고, 문자로 능히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모두 빼고 기록하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다.”¹⁶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완성도 높은 기록물도 있다. 그것은 「환희기(幻戲記)」이다. 「환희기(幻戲記)」는 청나라에 흔하고, 조선에서는 드문 환희 문화에 대한 박지원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환희기」는 박지원이 북경에 체류할 때 홍려사(鴻臚寺) 소경(少卿) 조광련(趙光連)과 함께 마술 공연을 구경하고, 20종의 마술을 기록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⁶⁵⁾ 하지만 엄밀히 검토하면 17종의 마술과 2종의 연희, 그리고 1종의 연출된 일화(逸話)에 관한 기록이다. 유교를 숭양하는 사대부라면, 괴력난신(怪力亂神)이라 할 기이한 행위에 대해 꺼려 마술 문화를 접했다더라도 기록으로 자세하게 남기려는 생각은 않았을 터이다. 그런데도 박지원은 이에 개의치 않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마술 공연을 상세하게 관찰한 점이 돋보인다.

박지원은 청나라에서는 활성화되어 있고, 조선에서는 희소한 마술 문화에 매력을 느끼며, 이를 경험한 적이 없는 조선 사람들에게 입히게 할 목적으로 기록했다¹⁶⁶⁾고 서문에서 밝혔다. 마술 종목에 제목을 달지 않고, 마술하는 장면을 있는 그대로 기술

研究』16, 東北大學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12, pp.261-278에서 구구대경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pp.271-272에서 박지원의 <희본명목기>를 논거로 삼고 있어 참조할 필요가 있다.

164)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山莊雜記」, “平生詭異之觀, 無逾在熱河時. 然多不識其名, 文字之所不能形者, 皆闕不錄, 可恨也哉.”

165) 임기중, 「연행록의 환희기」,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2, pp.156-218에서 각종 연행록에 기록된 환희기를 시대별로 정리한 바 있고, 임준철, 「박지원 「幻戲記」의 幻術 考證과 분석」, 『민족문화 연구』 제57집, 민족문화연구원, 2012, pp.569-613에서 박지원의 「환희기」에 기록된 환술 종목에 대한 고증을 통해,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실증적으로 구명했다. 특히, 「환희기」 본문 속 19번째 종목은 현전하는 가장 방대한 환술총집인 『아환휘편(鵝幻彙編)』에서도 유사종목을 찾을 수 없어, 박지원이 환술내용 자체를 상당한 정도로 부연하고, 윤색을 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16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幻戲記」, “遂記其所觀諸幻共二十則, 將以示吾東之未見此戲者.”

하기도 하고, 윤색(潤色)을 가하기도 하여 나름의 견해를 붙여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한 것도 있다.

본 절에서는 논의의 편의(便宜)를 위해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이고, 본래 없는 제목을 만들어 달아, 박지원이 기록한 마술 공연의 성격을 파악하여 마술 문화 기록의 양상을 정리하는 방법을 취한다. 논의하는 순서는 먼저, 박지원이 소개하고 있는 마술의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소재목을 붙여 소개한다. 이어서 마술의 특징을 추출하여 앞에서 다룬 마술과 비교하고, 마술 종목에 따른 공연자와 관객의 상호 관련성을 논의한다. 끝으로, 관객인 박지원의 소감을 중심으로 그가 마술문화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 (1) <어떤 물건을 크게 만들었다 작게 만들었다 하기>
- (2) <물에 푼 종이, 다시 종으로 만들기>
- (3) <밧줄에 묶인 손 풀어내기>
- (4) <계란을 통째로 삼켜 컷구멍이나 눈에서 뱉어내기>
- (5) <칼을 통째로 삼켰다가 뱉어내기>
- (6) <종이를 삼켜 청개구리로 변신시키기>
- (7) <빈 보자기에서 새를 만들어 날려 보내기>
- (8) <물병 속에 물을 솟구치게 했다가 본래 물의 양으로 조절하기>
- (9) <두 개의 금 고리를 자유자재로 떼었다 붙였다 하기>
- (10) <돌에서 술을 뱉어내 구경꾼에게 베풀어 주기>
- (11) <빈과를 구경꾼에게 먹이고 말뚝으로 토해내게 하기>
- (12) <바늘과 실을 입과 귀로 쑤셔 넣고 실 꿰인 바늘로 만들기>
- (13) <빈 대접 속에서 은화가 생겨나게 하기>
- (14) <소발 속에 은행을 여러 다른 물건으로 변신시키기>
- (15) <쟁반 여러 개를 뗏가지 끝이나 입 위에 올려 돌리게 하기>
- (16) <뱃씨를 삼키고는 연기나 불로 뱉어내게 하기>
- (17) <탁자 위 호리병을 사라지게 만든 뒤 한 구경꾼에게서 찾아내기>

(18) <복숭아 하나로 긴 세월을 표현하기>

(19) <유리거울 속에 인물로 인생의 이치 표현하기>

(20) <접시에 담긴 대추 고의로 떨어뜨려 구경꾼 웃기고 공연 끝내기>

(1)은 엄지와 검지를 서로 비비어 좁쌀 크기 물건을 만들면서부터 마술이 시작되었으니 **생성(Production)**의 특징이 있고, 계속 비비자 크기의 변화가 생겼으니 **변형(change)**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2)는 여러 권의 책을 찢어 물동이에 집어넣고 휘휘 저어 풀어낸 다음,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것처럼 수백 발의 종이를 뽑아내었으니 **복구(Restoration)**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3)은 기둥에 손이 묶인 뒤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풀어내었으니 **탈출(Escape)**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4)는 계란 두 개를 입으로 삼켰다가 콧구멍에서 뽑아내거나, 한쪽 눈으로 넣었다가 맞은 편 콧구멍으로 뽑아냈으니 **소멸(Vanishing)**과 **이동(Movement)**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5)는 긴 칼을 공중에 던져 입으로 받아내고, 그 칼을 뱃속까지 찢러 넣었다가 다시 뽑아내었으니, 환희 곧 마술 종목으로 보이기보다는 연희(演戲) 곧 곡예나 서커스 종목으로 보인다.

(6)은 구경꾼 가운데 아이 한 명을 불러다가 종이를 뭉쳐 아이더러 삼키게 하고는 청개구리 여러 마리로 바꾸었으니 (1)과 같이 **변형(Change)**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1)에서는 마술사가 주도하는 마술이었다면, (6)은 구경꾼과 함께 하는 마술이라서 마술 공연자와 관객의 정서적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효과를 준 것으로 보인다.

(7)은 탁자 위에 빈 보자기를 놓더니, 잠시 뒤에 빈 보자기에서 새가 나타나게 한 뒤, 새를 날려 보냈으니 **생성(Production)**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1)이나 (4)에서 사용한 물건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날짐승을 이용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놀라움과 함께 나는 새를 보고 흐뭇한 마음이 생기도록 했다는 점에서 (1)이나 (4)에서 보

이는 생성(Production)의 특징보다 더욱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7)이 (1)이나 (4)보다 관객의 만족도가 더 높은 마술 종목으로 보인다.

(8)은 물이 가득 담긴 주석으로 만든 병 바닥을 대젓가락으로 뚫어 물이 새어나 오게 한 다음, 주문을 외워 병에 담긴 물이 공중으로 솟구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잠시 뒤에 병에 담긴 물은 양적으로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물을 솟구치게 만들었다고 했으니 **공중부양(Levitation)**의 특징과 본래 상태를 돌아오게 했으니 **복구(Restoration)**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새로운 특징을 지닌 마술을 소개하면서 변화를 주고, (2)와 같은 특징을 지닌 마술을 결합해 반복의 효과를 노렸다.

(9)는 금으로 만든 고리 두 개를 가지고 공중에 던져 잇기도 하고 떼어내기도 했으니 **연결(Connection)**과 **복구(Restoration)**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새로운 특징을 지닌 마술을 소개하면서 변화를 주고, (2)나 (8)과 같은 특징을 지닌 마술을 결합해 반복의 효과를 노렸다.

(10)은 자줏빛 돌을 칼끝으로 찢러 소주가 흘러나오게 하고, 청나라 여러 名酒가 흘러나오게도 하여 구경꾼에게 마시게 하였으니 (1)과 같은 **생성(Production)**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1)에서는 마술사가 보여주기만 하는 마술이었다면, (10)은 구경꾼에게 술을 나누어주기도 하였으니 보는 데서 오는 놀라움과 맛을 느끼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동시에 충족하는 마술이라서 (6)과 같이 마술 공연자와 관객의 정서적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효과를 준 것으로 보인다.

(11)은 빈 보자기에서 빈과(蘋科) 세 개를 만들어내고는 그것을 구경꾼에게 나누어 먹였다. 잠시 뒤에 빈과를 말뚝으로 변신시켜 다시 토해내게 하였으니, **생성(Production)**의 특징과 **변형(Change)**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빈과를 구경꾼에게 먹게 한다는 점에서 (10)과 같다 하지만, 말뚝으로 변신시켜 토해내게 하는 **반전(反轉)**이 있다. (11)은 구경꾼에게 빈과 맛을 느끼게 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뒤집는 수법으로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는 마술이다. 따라서 (6)이나 (10)과 같이 마술 공연자와 관객의 정서적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효과를 준 것으로 보인다.

(12)는 바늘은 삼키고, 실은 꿰구멍으로 집어넣어 실이 꿰어진 바늘을 꿰구멍에서 나오게 하였으니, (9)와 같이 **연결(Connection)**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9)에서

는 형태와 성질이 같은 고리의 연결이었다. 하지만 (12)에서 형태와 성질이 다르고,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지닌 일상적이고, 친근한 생활 소재 ‘바늘’과 ‘실’을 선택해서 연결한 점에서 (9)의 마술 종목과 차이가 있다.

(13)은 빈 대접을 보여주고 접시로 덮고는 주문을 외우니 은이 생겼다. 다시 주문을 외워서 은을 은화로 변신하게 했으니, (11)과 같이 **생성(Production)**의 특징과 **변형(Change)**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11)은 빈과라는 과일을 마술 도구로 삼은 반면, (13)에서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화폐를 마술 도구로 삼고 있어, 마술의 특징은 반복하고 있지만 마술 도구에서 변화를 주었다.

(14)는 은행(銀杏) 한 소반 위에 큰 향아리를 덮고는 주문을 외우다가 열어 보이는 패턴의 행동을 반복하니, 은행이 산사(山査)로, 두구(荳蔻)로, 오얏으로, 염주(念珠)로, 한 쌍의 금붕어로 변신했다고 했으니, (13)과 같이 **변형(Change)**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13)의 변형 반복 횟수보다 (14)의 변형 반복 횟수가 더 늘었을 뿐만 아니라 한약재류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거쳐 살아있는 물고기를 도달점으로 했으니, 변형의 질적 변화의 폭도 크게 달라졌다.

(15)는 쟁반을 뽀족한 대가지에 얹고 돌리거나, 대가지를 입에 물고 쟁반을 돌리는 행위이니 이것도 (5)와 같이 환희 곧 마술 종목으로 보이기보다는 연희 곧 곡예나 서커스 종목으로 보인다.

(16)은 벼 알갱이를 먹고, 얼마 후에 겨를 토해내었다. 겨가 다 나오니 연기를 품어내고, 붉은 불을 입에서 토해냈다고 했으니, (4)와 같이 **소멸**의 특징과 (1)이나 (6)과 같이 **변형(Change)**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1)에서는 크기의 변화만 있었으나, (16)은 (6)과 같이 다른 형태로 변화를 가하고 있다. (6)과 같이 관객의 동참을 필수로 하지는 않지만, (16)은 (6)보다 위험도가 높은 종목이므로 관객이 몰입하는 정도는 더욱 높다.

(17)은 탁자 위에 병(瓶)을 놓고, 사라지게 한 다음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 품속에서 병을 찾았으니 (4)와 같이 **소멸(Vanishing)**과 **이동(Movement)**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4)에서는 마술 공연자가 홀로 시연을 하여 보여주었지만, (17)은 관객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에 (6)·(10)·(11)과 같이 마술 공연자와 관객의 정서적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18)은 유리 접시에 놓인 복숭아에서 갑자기 가지가 돋고 잎이 붙었으며 가지 끝에 꽃이 피었다고 했으니 (1), (6), (16)과 같이 **변형(Change)**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복숭아 한 개를 베어 먹고 그 씨를 땅에 심고 나서 또 다른 복숭아 한 개를 절반도 못 먹었는데, 땅에 심은 복숭아나무는 벌써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고 했으니, 변형의 특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객의 경이감을 자아내게 했다. 이와 동시에 잠깐 회장으로 탁자를 가렸다가 조금 후에 걸으니 젊은 사람 여럿이 나타났다고 하여 (1),(10),(11)과 같이 **생성(Production)**의 특징을 보이더니, 복숭아나무의 변화에 따라 검은 머리가 백발로 변해갔다고 했으니 변형(Change)이라는 특징을 다시 반복하는 마술이다. 따라서 (18)은 한 번의 **생성(Production)**이라는 특징과 세 번의 **변형**이라는 특징을 결합한 마술 종목으로 보인다.

(19)는 탁자 위에 큰 유리 거울을 놓고, 거울 문을 열어 구경꾼에게 어떤 광경을 두 차례 보여주어 그 변화상의 차이로 구경꾼을 놀라게 하는 마술이다. 한 번은 많은 재물을 지니고, 미녀를 거느린 부자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재물과 미녀를 잃은 부자가 누워 있는 광경이다. 여기서 부자의 두 허벅지가 수레바퀴로 변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구경꾼이 겁을 내어 달아나게 만들었다고 했으니 (1)·(6)·(16)·(18)과 같이 **변형(Change)**의 특징을 보이는 마술이다.

(19)에서 마술사는 관객에서 거울 속 장면을 본보기로 삼아, **염량세태(炎涼世態)**의 세상이기는 하지만 남들에게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message)도 전달했다. 그 근거¹⁶⁷⁾는 셋이다. 사람은 부유했다가 가난해지며, 젊었다가 늙어가고, 세상의 이치는 죽는 사람이 있으면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 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살이에서, 사람이 지닌 몸뚱이와 사람이 지닌 소유물은 이내 사라지는 것들이라 했다. 사람은 세상과 인연을 맺어 기(氣)를 따라 잠시 세상에 머물다 가는 존재라 했다.

(20)은 큰 동이를 탁자 위에 놓고 붉은 옷감으로 덮더니, 어떤 마술을 보여줄 것

167)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幻戲記」, “昨富今貧, 俄壯倏老, 夢中說夢, 方死方生, (….) 孰眞孰假, 寄語世間, 善心善男, 菩薩兄弟, 幻界夢身, 泡金電帛, 結大因緣, 隨氣暫住.”

처럼 시늉하다가, 품속에서 접시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서 붉은 대추가 흩어지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러한 상황에 구경꾼들이 웃고 마술 공연자도 함께 웃자, 마술 공연자는 그릇과 도구를 주워 담아 이내 공연을 마쳤다고 했으니 공연을 마치기 위한 연출이다. 관객 몰입도 면에서 볼 때 (19)에서 절정을 보인 공연은 (20)에서 그동안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환희기」 서문(序文)에서는 조선에서와는 달리 이러한 마술 공연 문화를 날마다 놀이문화로 즐기게 하는 청나라 천자의 포용력과 통치술¹⁶⁸⁾을 긍정하기도 했다. 환희기 후지(後識)에서 박지원은 흥려시 소경 조광련과 공연 소감을 나누었는데, 마술문화의 공연 주체와 이를 수용하는 관객의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¹⁶⁹⁾ 박지원은 공연자가 마술로 관객을 속이는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관객이 스스로 자신에게 속은 것¹⁷⁰⁾이라는 견해를 폈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1489~1546)과 관련된 장님 일화를 들었다. 그 일화

168)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幻戲記」, “故日令人以戲觀之, 雖婦人孺子, 知其爲幻術, 而無足以驚心駭目. 此王者所以御世之術也哉.”

169) 임준철, 「연행록 幻術記事를 구성하는 세 가지 층위와 幻史」, 『한국한문학연구』51, 한국한문학회, 2013, pp.487-533에서는 연행록의 환술기사 분석을 통해 마술문화를 보는 세 가지 시각을 구분하였다. (가) 불교·도교·천주교 등 유교가 아닌 다른 종교와 관련된 공연 문화이다. (나) 사람들을 속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공연 문화이다. (다) 상하 백성이 즐길 수 있는 공연 문화이다. 조선시대에는 (가)나 (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8세기에 이르러 (다)의 시각이 생성되었다고 했다. 홍대용은 원리 탐구에 초점을 둔 반면, 박지원은 일정한 가치가 있는 공연문화의 대상으로 여겨 幻影에 관한 논의를 편 차이가 있다고 했다. 홍대용이 원리 탐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연기』의 「환술」 항목에 있다. 원리 탐구 정신이 나타나는 해당 구절에 밑줄을 긋고, 진하게 표시하기로 한다. 洪大容, 『湛軒書』 外集 권10, 『燕記』, 「幻術」, “譯官 한 사람이 4종의 戲具를 구해 와서 이르기를, 이것은 親王家의 물건이라 하였다. 하나는, 호지(糊紙)로 다섯 층계를 만들어 층계마다 한 치쯤 되게 해놓고 여기에 세 치 크기의 작은 假童이 채색 옷에 머리는 두 갈래로 따고 허리는 뼈가 없는 것처럼 구부렸다 폈다 마음대로 하였다. (...) **허리에다 수은(水銀)을 넣어서 아래위로 오르내리도록 만든 모양인데** 줄렬한 껍이긴 하지만 역시 한바탕 웃겨 주는 것이다. 하나는 구리를 녹여 만든 노선(老仙)의 상이다. (...) 하나는 태평거(太平車)이다. (...) 하나는 자그마한 배이다. (...) 이 세 가지는 모두 양장(羊腸)같이 꼬부라진 **태엽과 튼니바퀴가 그 속에 장치되어 있어** 몇 바퀴 돌면 그치게 된다. 이럴 때는 곧 **쇠순가락을 밑구멍으로 집어넣어 돌려 감아** 두면 여전히 걸어가고 달리게 된다.(一譯得四種戲具來, 云是親王家物. 一糊紙爲五級階, 每級爲寸許爲三寸, 小假童彩衣雙鬢, 腰節屈伸, 如無骨. (...) 蓋腰藏水銀, 上下輸瀉, 機數雖拙, 亦供一笑. 一鑄銅爲老仙狀. (...) 一爲太平車. (...) 一爲小舟. (...) 此三種, 皆藏羊腸牙輪於其中, 數周而止. 輒以鐵匙, 由底孔而回籠之, 行走如前也.)

170)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幻戲記」, “今日觀幻, 非幻者能眩之, 實觀者自眩爾.”

를 간추리면, 어떤 사람이 길에서 울며 40년 동안 장님이었을 적에 생활하는 데에 별 불편을 못 느꼈으나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보니 어안이 병병해져 집도 찾질 못 하겠더라는 이야기이다. 그러자 서경덕은 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묘안을 냈다.

“도로 네 눈을 감아라.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논한다면, 이 이야기에서처럼 그 밝음에 믿을 게 못 되는 게 눈이지요.¹⁷¹⁾

박지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재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속일만 해서 속이는 마술 공연자를 탓할 게 아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상하층 관객들을 불러 모아 환희를 펼치는 목적은 관객을 잠시 눈속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와 휴식, 재미와 경이감을 주는 데에 있다. 여러 번 구경하면 재밌지도 놀랍지도 않다. 마술 문화의 주체로 생업을 꾸려가는 공연자들이 사회적으로 특별한 대우나 특혜를 받고 있는 위치도 아니다. 속을 만해서 속고 있는 관객이 속을 만한 데 속지 않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마술 공연 문화 수용자들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연희와 환희는 당시 유랑예인 집단이 주체로 담당하는 공연물이었고 유랑 예인들의 사회적 신분은 최하층에 속했으며 조선의 선비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박지원은 혼하고 하찮은 대상에서 천하의 장관(壯觀)을 발견하는 선비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박지원은 청나라 풍속 가운데 시정(市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행되고 있었던 공연 문화에 주목하고 이를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시정문화에 대한 박지원의 애정 어린 시선을 엿볼 수 있었다.

171)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幻戲記」, “先生曰: 還閉爾眼, 立地汝家. 由是論之, 目之不可恃其明也如此.”

4) 대내외 문화 교류 양상 탐구

『열하일기』의 특색으로 자국의 문화와 타국의 문화 간에 개방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추구한 점을 들 수 있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 교류가 필요하다고 직접 천명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열하일기』를 대상으로 검토하면 자국에는 드문 외국 문화 사례, 자국의 문화가 외국에 전해지고 있는 사례, 외국 문화가 자국에 전해지고 있는 사례 등을 찾아 기록한 분량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례들은 심적론(審敵論)이라 할 「심세편」의 관점과는 차별화된 관점이 한 의식의 층위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긴장 관계와는 별도로 자국과 외국의 문화 교류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교류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 인식되었으며, 장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통찰이 담겨 있다. 본 절에서는 박지원이 북경과 열하에 체류하면서 작성한 여러 잡기 가운데 제재(題材)의 다양성이 돋보이는 대목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박지원은 문인이자 학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문인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되어 있으나 대상에 대한 탐구 정신이 충만한 학자로서의 면모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이해가 덜한 편이다. 「일신수필」 서문에서 그는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 한갓 남이 말하는 내용만 듣고 의존하는 사람과는 함께 학문을 할 수 없다. 평생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쓰고 헤아려도 도달할 수 없는 학문의 세계임에라!”¹⁷²⁾라고 탄식했다. 학문의 세계가 깊고 넓다는 사실을 들기 위해 세 가지 보기를 들어 설득력을 높이고자 했다. 공자가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긴 사례, 석가가十方世界(十方世界)를 평등하게 본 사례, 서양인이 상선을 타고 지구 곳곳을 탐험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 박지원 자신이 직접 대외체험을 통해 얻은 대외 인식의 확대와 심화 과정의 성과를 저술을 통해 독자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려 할 때 과연 조선의 선비들이 공감해주고 믿어줄 것인가 의문을 품으며 한 말이라 판단된다.

박지원은 자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보다는 대상에 관한 형상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상기(象記)>에서도 박지원은 대상에 관한

172)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駙汎隨筆」, “徒憑口耳者, 不足與語學問也. 況平生情量之所未到乎!”

인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코끼리를 제재로 삼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하늘이 킁킁하고 뽀얗게 자욱한 속에서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는 것이지.”¹⁷³⁾라고 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無), 유교에서 말하는 이(理), 천주교에서 말하는 유일신(唯一神) 등 초월적이고 본질적인 원리가 별도로 있고, 일상 사물과 관련을 맺으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는 엄격히 분리된다는 종교적 사고를 따르지 않았다.

“코끼리가 범을 맞닥뜨리면 코로 때려눕혀 죽사시키니, 그 코로 말한다면 천하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들 자리가 없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섰을 뿐이다.”¹⁷⁴⁾라고 했다. 대유법을 활용하여 코끼리의 코로 개별적인 사물을 가리켰다. 범과의 관계에서 코끼리의 코는 유용한 구실을 발휘하고 있다. 쥐와의 관계에서 코끼리의 코는 쓸모가 없어 무용지물일 뿐이다. 어떤 개별적인 사물이든 다른 사물과의 관계 양상에 따라 유용성과 무용성을 동시에 지니는 양면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개별적이고 다양하며 구체적인 것들의 성격을 양면적인 것의 대립적인 총체인 둘로 총괄해서 파악하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무릇 코끼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동물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은 터에 하물며 천하의 사물은 코끼리보다 만 배나 복잡함이라.”¹⁷⁵⁾라고 했다. 코끼리는 개별적인 사물의 예시이다. 천하의 사물은 개별적인 사물의 총체의 예시이다. 개별적인 사물에 관한 원리와 실상에 다가서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물의 총체에 관한 원리와 실상에 다가서기는 더욱 어려운 과제라고 여겼다. 이를 통해 박지원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해하는 것을 인식의 목표로 삼지 않고 무한의 수효로 펼쳐져 있는 다양한 대상의 구체적인 양상을 실상대로 파악해 제각각의 의의를 발견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박지원은 대내외 문화 교류 양상을 탐구하려

173)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山莊雜記」, “吾未知天於阜靈之中所造者, 果何物耶.”

174)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山莊雜記」, “象遇虎則鼻擊而斃之, 其鼻也天下無敵也. 遇鼠則置鼻無地.”

175)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山莊雜記」, “夫象猶目見, 而其理之不可知者如此, 則又況天下之物萬倍於象者乎.”

했다.

이제 자국의 문화가 외국에 전해지고 있는 사례와 외국 문화가 자국에 전해지고 있는 사례 등을 찾아 기록한 자료들을 찾아 고찰하기로 한다.

우동(尤洞) 회암(梅菴)의 『외국죽지사(外國竹枝詞)』에 실린 조선시를 살펴면서 “그 저서를 대략 살펴봐도 조선의 사정에 대해 아직 많은 오류들이 있는바, 더구나 몇 만 리 멀리 떨어진 해외의 나라들로서 문자만으로 그 지방의 풍속을 통할 수 없음 이야.”¹⁷⁶⁾라고 탄식하며 대내외 문화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현실을 문제제기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자국인이 외국에 어둡게 되고, 외국인 또한 자국의 사정에 어두운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선배들은 대양 중국의 사정에 대하여는 언제나 풍문에 따르고 실정에 어둡다.”¹⁷⁷⁾라고 하며 “우리나라 속담에 무엇이나 물정에 어두운 자를 ‘몽롱춘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춘추』를 말하기 좋아하지마는 몽롱하기¹⁷⁸⁾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그러니 어찌서 만주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¹⁷⁹⁾라고 반문했다. “우리나라를 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유구나 서양국 같이 알고 있었다.”¹⁸⁰⁾라며 외국 사정에 어두운 것은 중국 인사들도 마찬가지라 했다.

그래서 박지원의 「피서록(避暑錄)」을 보면, 허난설현의 시가 중국인이 편찬한 시집 『열조시집(列朝詩集)』이나 『명시중(明詩綜)』에 실렸는데 당호(堂號)인 난설현(蘭雪軒)이 자인 ‘경번(景樊)’으로 잘못 알려진 사례, 왕어양(王漁洋)이 편찬한 『감구집(感舊集)』에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한시가 실린 사례, 홍대용과 반정균, 박제가와 임고 등이 교류한 사례 등을 들어 자국의 문화가 외국 문화에 소개된 사실을 고찰하기에 힘썼다.

또한 유구(琉球)의 증산왕(中山王) 시절, “상령(尙寧)은 여러 번 문안 편지와 예

17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避暑錄」, “著其大概, 而觀其所述朝鮮事, 尙多舛謬, 況四海外萬里之遠, 而無文字可以通其土俗哉.”

177)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避暑錄」, “我東先輩每於中州事, 率因風聞而不詳實蹟.”

178)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避暑錄」, “吾東諺, 凡事物之亂昧者, 稱朦朧春秋, 東人喜談春秋而朦朧, 若是類者多.”

179)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避暑錄」, “豈不爲滿人之所笑也?”

180)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避暑錄」, “眞以我東, 爲絕洋外國, 如琉球歐邏, 中州人有時鹵莽如此.”

물을 바쳐 해마다 사신이 왔는데 갑신년 이후에는 다시 문안 왕래가 없어졌다.”¹⁸¹⁾라고 하면서 유구와 조선 사이에 교류가 끊어진 사례를 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유구와의 대외 교류가 없어지게 된 갑신년 사건이란 유구 왕세자가 제 아버를 구하기 위해 보물을 준비해 일본으로 가던 중 제주에 표류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제주목사는 유구 왕세자를 죽이고, 배에 실린 보물을 훔친 악행을 저질렀다. 박지원은 “이 이야기가 참말이라고 하자. 목사의 죄는 목을 베어 조리를 돌린다 치더라도 속죄가 못 될 값에 그 지손들이 어떻게 길이 부귀를 누릴 수야 있을 것인가.”¹⁸²⁾라고 비판하면서 대외교류의 인도적 국제 질서가 무너진 사례로 꼽기도 했다.¹⁸³⁾

조선과 유구 사이에 교류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끊긴 사례와는 다르게 17세기 초반 병자호란 이후 조선과 청의 외교 관계는 군사적 외압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조선과 청의 정치적 긴장이 표면적으로는 완화되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때 박지원은 조선의 지배층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정치적대의식과 문화적 우월의식으로 인해 명분과 실리를 다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이 문제라고 여겼다.

진실로 법이 훌륭하고 제도가 아름다울진대 장차 오랑캐에게라도 나아가 배워야 하는 법이거늘, 하물며 그 규모의 광대함과 심법(心法)의 정미(精微)함과 제작(制作)의 광원(宏遠)함과 문장(文章)의 찬란함이 아직도 삼대 이래 한, 당, 송, 명의 고유한 옛날의 법을 보존하고 있음에랴

우리를 저들과 비교해 본다면 진실로 한 치의 나은 점도 없다. 그럼에도 단지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에 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 산천은 비린내 노린내 천지라 나무라고, 그 민은 개나 양이라고 욕을 하고, 그 言語는 오랑캐 말이라고 모함하면서,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 배척해 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장차 어디에서 본받아 행하겠는가?¹⁸⁴⁾

181)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避暑錄」, “尙寧, 屢以書幣遞付, 年至使, 甲申以後, 不復通問.”

182)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避暑錄」, “使此果眞也. 牧使之罪, 雖肆市難贖, 其子孫如何長享富貴.”

183) 김수중, 「<유구왕세자의전>의 역사의식과 문학적 상상력」, 『韓國言語文學』88, 한국언어문학회, 2014, pp.81-100에서 사건의 전말에 관해 실증적인 자료를 들어 고찰하고, 문학적 성격과 사건이 지니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인용문에 나타난 박지원의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무엇인가? 조선과 청나라를 견주어 본다면 이적이 된 중화의 땅에 중화의 문물제도가 계승되고 있는 것이 실상이고 조선이 군사적 패배감과 문화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청나라가 지닌 문화적 위상을 낮추어보고 있는 것은 자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박지원은 청나라에 중화의 문물제도가 계승되고 있다는 풍부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야 했는데 그 풍부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황도기략(黃圖紀略)」, 「알성퇴술(謁聖退述)」, 「양엽기(養葉記)」이다.

㉠ “북경성은 앞은 조정이요, 뒤는 저자요, 왼쪽은 종묘요, 오른쪽은 사직이 있으며, 아홉 문이 바르고 아홉 거리가 곧아서 한번 도성이 바르자 천하가 바로잡힘을 볼 수 있었다.”¹⁸⁵⁾

㉡ “내가 얼마 전에 참배한 열하의 태학은 이 태학을 본뜬 것이다. 지금에 두루 공자묘를 구경하고 명나라 옛 제도와 비교하여 생각할 때에 태화전은 비록 조금 모자라는 것 가기도 했으나 제도의 정제된 품은 비슷했다.”¹⁸⁶⁾

㉢ “넉넉히 본받아도 좋을 일은 이곳 서재와 학사들이 텅텅 비어 있다면 응당 먼지에 파묻히고 잡풀이 돋았을 터인데 어디고 씻고 닦아 맑게 정돈하지 않은 데가 없어 탁자들은 가지런하고 문과 창은 밝아 종이를 바른 지는 비록 오래되었으나 하나도 찢어지고 떨어진 데가 없다는 점이다.”¹⁸⁷⁾

㉣ “대국 시험장 제도가 엄격한 점과 고시하는 법이 자세하고도 주의 깊다.”¹⁸⁸⁾

㉤ “근년에 새로 지은 집들이란 대부분 대궐에 있어 외인들로서는 볼 수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 사신이 이르면 때로 끌어들여 마음대로 구경하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내가 유람한

184) 朴趾源, 『燕巖集』 卷之七 別集 『鍾北小選』, 「北學議序」, “苟使法良而制美, 則固將進夷狄而師之, 況其規模之廣大, 心法之精微, 制作之宏遠, 文章之煥爛, 猶存三代以來漢唐宋明固有之故常哉! 以我較彼固無寸長. 而獨以一撮之結, 自賢於天下曰: 今之中國, 非古之中國也. 其山川則罪之以腥羶, 其人民則辱之以犬羊, 其言語則誣之以侏離, 并與其中國固有之良法美制而攘斥之. 則亦將何所倣而行之耶?”

185)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黃圖紀畧」, “大約皇都之制, 前朝而後市, 左廟而右社, 九門正而九衢直, 一正都而天下正矣.”

18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謁聖退述」, “余曩謁熱河太學, 制視京學. 今周瞻廟貌, 想因明舊, 而較之太和殿, 則雖似少異, 然制度之整齊則大同焉.”

187)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謁聖退述」, “亦有足法而可喜者, 今此齋舍虛闕, 想應塵埋草鞠, 而莫不汛治肅清, 架卓齊整, 牕戶明淨, 紙塗雖舊, 而無一綻缺.”

188)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謁聖退述」, “可見大國場屋之簡嚴, 放試之詳謹.”

곳이란 겨우 백분의 일이나 될까.”¹⁸⁹⁾

㉠은 「황도기략(黃圖紀略)」에서 한 발언이다. 「황도기략(黃圖紀略)」은 북경 체류 중 자금성을 중심으로 청 황제가 거주하는 북경의 명승지들을 기록하여 39개 항목으로 구성된 잡기이다. 박지원이 황성의 아홉 문, 관청, 교각, 궁궐, 종교와 사직, 누각과 정자, 저잣거리 등을 답사하고 내린 결론은 천하를 대표하는 수도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은 「알성퇴술(謁聖退述)」에서 한 발언이다. 「알성퇴술(謁聖退述)」은 박지원이 북경 체류 중 북경의 국자감을 비롯하여, ‘순천학부’에서 ‘조선관’까지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잡기이다. 황성에 있는 순천부학(順天府學), 태학(太學), 학사(學舍) 등을 둘러보고는 ㉡에서 명의 교육제도 기관과 청의 교육제도 기관을 비교해 미흡하게나마 유가(儒家)의 도(道)가 계승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에서 여러 선비들이 공자의 도(道)를 공부하는 열기가 청나라에 들어 줄어들었지만 유가의 도를 가르치는 교육 기관이 쇠락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에서 과거 제도가 엄정하면서도 완비되어 있다고 했다.

㉤은 「양엽기(盎葉記)」에서 한 발언이다. 「양엽기(盎葉記)」는 박지원이 북경 체류 중 북경의 사찰과 사원들을 소개하여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잡기이다. 명나라 시절에는 황제가 주도하여 지은 사찰과 궁관(宮觀)이 이백 여 곳 정도였으나 청나라에 들어 대신들과 대상(大商)들이 주도하여 사찰과 궁관을 더욱 많이 짓는 변화를 생겨 종교 문화의 산실(産室)이 더욱 번성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면 「황도기략(黃圖紀略)」, 「알성퇴술(謁聖退述)」, 「양엽기(盎葉記)」 등을 통해 박지원이 자국의 선비들에게 황도(皇都)의 이모저모에 관해 주목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연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청나라가 지닌 문화적 위상이 낮아 문물제도 면에서 배울 만한 점이 없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사실논거들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1403년 영락제 시절부터 건설된 수도의 면모가 1780년 건륭제 시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해서 청 황제가 다스리는 중국도 명 황제가 다스리는 중국과 다르지

189)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盎葉記」, “而比年所勦, 多在內, 外人不得見. 獨我使至, 則有時引納, 恣其縱觀, 然余所遊歷, 僅百分之一.”

않다는 주장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청은 이적의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 수준이 열등하다는 편견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황도(皇都)의 이면저모를 사실논거로 삼아 반론을 제기한 셈이다.

한편 박지원이 대외문화 교류의 실상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 자국과 외국 간의 교류 양상을 외교적 측면, 학술문화적 측면, 문물의 측면 등에서 탐구한 성과는 「동란섭필(銅蘭涉筆)」¹⁹⁰⁾에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첫째, 자국과 직접 교류가 있는 외국과의 외교 관계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에서 벗어나, 다른 여러 나라의 외교 관계, 전대(前代) 나라의 외교사, 문물 교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언급할 『삼한총서(三韓叢書)』의 기획안과 연결해서 추론해 보면, 박지원은 연행을 계기로 자국의 범위에서 벗어나 여러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까지 관심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관심의 정도가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유구사신의 문건>에서는 1776년 유구(琉球: 1429~1879)의 사신이 청조 예부에 올린 문건 전문을 인용하더니 글의 내용이 슬직하고, 표현이 완곡하며 간절하다¹⁹¹⁾는 평을 달았다. 명·청과의 교류를 맺고 있는 베트남과 유구, 통신사를 보내 교류를 맺고 있는 일본 등은 같은 한문문명권으로 ‘필담’이라는 소통 방식을 통해 역사적으로 사신들이 교우 관계를 맺어 여타의 연행록에 수록하고 있는 선례가 있었다. 그러므로 박지원은 유구사신의 문건에도 관심을 쏟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박지원은 청 황실의 통치술이 한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제정세의 실체를 파악

190) 「동란섭필」은 제목조차 달라지 않은 여러 단문(短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한 주제를 선정할 필요도 없고, 글의 완결성과 일관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있다. 분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데에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삽화적 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간에 우리나라의 대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을 중국 서적을 발췌해 인용하고, 단상(斷想)을 밝힌 단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란섭필」에는 소제목이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요 제재를 파악하여 소제목을 달고, 단문의 순차적 전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서문에서는 북경에서 체류할 때 교우 관계를 맺은 한족 사대부 유세기에게 구리로 만든 난초를 빌려 거처하는 방에 두고 방의 편액을 ‘동란재’라 붙였다. 는 내력을 밝혔다.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余訪俞黃圃世琦。(….) 余爲借數日, 兀之所寓東壁下, 扁之曰銅蘭齋.”

191)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乾隆四十一年丙申(1776), (….) 其自叙直而情辭婉切.”

하러 할 때, 여러 나라의 역학관계가 규명이 되어야 실체에 다가설 수 있으므로 유구 사신의 문건 또한 검토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9) <해외 통상>에서는 고려 때 황해도 예성강 포구에 정착한 송(宋)의 상선(商船) 덕에 고려 문물이 번성했으나, 조선 이후 중국과의 해외 통상이 끊겨 해외 정보가 줄었다고 했다. 일본은 중국의 강남 지방과 통상하여, 나가사키에 재화와 서적이 풍성해지는 변화가 생겼다. 겸재당(兼葑堂) 주인 기무라 켄카도(木弘恭: 1736~1802)는 서적 3만 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나라의 유명한 선비들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⁹²⁾ 해외 통상 방안을 모색한 박제가와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인식이다.¹⁹³⁾ 이러한 현실인식을 공유하면서도 박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 기술자를 대우하고 초빙하여, 국내의 선박 장인들로 하여금 외국 선박 제조 기술을 익혀야 한다¹⁹⁴⁾는 견해

192)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高麗時, 宋商船頻年來泊於禮成江, 百貨湊集. (...) 我國不以水道通南貨, 故文獻尤寶賈. (...) 日本通江南, 故明末, 古器書畫書籍藥料輻輳於長崎島. 今兼葑堂主人木氏弘恭, 字世, 有書三萬卷, 多交中國名士云.”

193) 朴齊家, 『北學議』 外篇, 「通江南·浙江商舶議」, “옛날 왜국이 중국과 통상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중개를 통해 연경에서 실을 무역해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중간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한 통상이 매우 이롭지 않은 줄을 깨달은 왜국이 직접 중국과 통상을 하게 되니, 이후로는 왜국이 교역을 맺은 다른 나라가 30여 개 국에 이른다. 왜국 사람들 중에는 중국어를 잘하는 자가 간간이 있어 천대산과 안탕의 기이한 경치를 술술 말하고 있다. 천하의 진귀한 물건과 중국의 고동서화가 나가사키에 폭주하고 있다. 그런 뒤로는 다시는 우리에게 물건을 요청하는 일이 없다.(向者倭之未通中國也, 敷我而貿絲于燕, 我人得以媒其利. 倭知其不甚利也, 直通中國而後已, 異國之交布者, 至三十餘國. 其人往往善漢語, 能說天台瀟瀟之奇. 天下珍怪之物, 中國之古董書畫, 輻輳於長崎島. 竟不復請於我矣.)” ; 『북학의』는 치밀한 논증이 바탕이 된 학술서라기보다는 웅변조에 가까운 사회개혁 비평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단점으로 여겨 저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정조대 시대적 과제를 나름대로 예리하게 포착하고, 참신한 발상을 서둘러 내놓으려는 의욕이 앞서 있었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농본상말이라는 통념의 극복이나, 해외 기술 인재의 초빙론, 해외 인재의 파견론의 구상, 해외통상과 개항지 설치, 선박 제조 기술의 전수 등과 같은 혁신적인 발상 등 국가 개혁 방안을 실행할 권한이 박제자에게 없었다.

194) 박제는 매년 사행단 일원으로 빼어난 인재를 10명씩 파견하여 과학기술을 익히게 하면서, 동시에 천문학, 공학, 의학 등에 밝은 선교사를 초빙하여 이용후생에 이바지하도록 하면, 조선의 낙후된 기술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예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주장이 당대 인사들로부터 반발을 살까싶어 상당히 우려하였다. 朴齊家, 『北學議』 外篇, 「財富論」, “今急選經綸才技之士, 歲十人, 襍於使行稱譯之中. 以一人領之, 如古質正官之例, 以入于中國, 往學其法, 或買其器, 或傳其藝. (...) 凡一人三入, (...) 點之而改選, 如此則十年之內, 中國之技, 可以盡得. ; 朴齊家, 『北學議』 外篇, 「丙午正月二十二日 典設司 別提 朴齊家 所懷」, “하지만 논자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나라 명제(明帝)가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천교에 누를 끼쳤다. 저 구라파는 중국으로부터 9만 리 떨어진 곳으로 천주교라는 이교(異敎)를 숭상한다. 또 인종이 우리와는 정말 다르다. 더구나 그들은 해외의 여러 야만족과도 외교를 맺고 있으므로 그 속마음을 측량할 수 없다. (...) 그러나 저들이 소유한 후생(厚生)에 필요한 도구는 불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소유한 도구에서

를 표명했다. 반면 박지원은 「허생전」을 통해 해외 통상의 필요성을 소설 형식을 빌려 형상화하는 방법을 구사했다.

(26) <소동파의 고려에 관한 인식>에서는 송나라 문인 소동파(蘇東坡: 1037~1101)의 묘지명과 소동파의 『동파지림(東坡志林)』에 나온 고려(高麗: 918~1392) 배척론 구절을 인용했다. 고려가 요(遼: 916~1125)와 금(金: 1115~1234)의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송(宋: 960~1279)만 옹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고려 사대부는 진심으로 중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싶어 했을 것¹⁹⁵⁾이라고 했다. 이렇게 박지원이 고려를 옹호한 것은 필답을 나누던 한쪽 사대부들과 동질감을 높이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조선과 중국의 우호 관계는 오랜 역사적 내력이 있음을 확인시키면서 때론 오해를 빚기도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동파의 고려 배척은 당대 국제 역학 관계의 실상에 어긋난 판단이고, 편견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박지원은 중국에 소개된 자국 문화의 실상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2) <공후(箜篌)>에서는 송나라 때 이방(李昉)이 편찬한 『태평어람(太平御覽)』에서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구절을 찾아 인용하더니 열하나 북경에 머물 때 공후리는 악기를 찾아보려 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¹⁹⁶⁾고 했다. (32) <신라의 토산품>에서는 신라의 대표적인 토산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는데, 대화어아금(大花魚牙錦)·소화어아금(小花魚牙錦)·조하금(朝霞錦)·백칩포(白氈布) 등¹⁹⁷⁾을 들었다.

이러한 자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중국 문헌에 기록된 사항을 검토하여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고, 자국 문화의 실상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리는 방향으로 역

열 가지를 취하고 나머지 한 가지를 금지하는 것이 좋은 계책입니다. 다만 저들에 대한 대우가 적절하지 않으면 불려도 오지 않을까 염려될 뿐입니다.(議者必曰: 漢明迎佛而爲千古之累. 夫歐羅巴者, 距中國九萬里, 崇奉天主異教, 爲類殊別, 且通海外諸蠻, 其心不可測也. (…)) 然厚生之具, 則又佛之所無也. 取其十而禁其一, 計之得者也. 但恐待之失宜, 招之不來耳.)”

195)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 此二條俱載東坡志林, (…)) 俱爲國家深長之慮, 然當時士大夫, 殊不知高麗慕華之誠, 出於赤心, 爲遼金所牽制, 不能一心事宋.”

19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太平御覽云, 漢時霍里子高, 朝鮮人也. (…)) 余在熱河太學, 閱樂器無所謂箜篌者. 皇城琉璃廠中, 多使人求之, 而適未得果, 不識其製.”

197)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新羅時土產. 有大小花魚牙錦, 朝霞錦, 白氈布.”

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 <순가락과 젓가락이 달린 나무>에서는 당나라 단성식(段成式)의 『유양잡조(酉陽雜俎)』에 실린 순가락과 젓가락이 달린 나무가 자라는 신라의 섬 설화 대목을 들고는 잘못된 이야기¹⁹⁸⁾라 했다.

(19) <고구려 경계의 신라산>에서는 송나라 허항종(許亢宗)의 『봉사행정록(奉使行程錄)』에 나온 인삼과 백부자가 나는 신라산이 고구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구절을 인용하고는, 신라산이 어찌 고구려와 경계를 접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사실을 근거로 잘못¹⁹⁹⁾이라 했다.

(20) <자작나무 아래 인삼>에서는 고려 인삼을 예찬한 중국 문헌인 『인삼찬(人蔘讚)』에 나온 자작나무[가수] 아래 인삼이 있다는 4언시를 인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작나무 용도를 밝혔다.²⁰⁰⁾

(27) <금강산의 관음담>에서는 관음보살이 빨래했다는 전설이 담긴 금강산의 관음담 이야기를 수록한 『명산기(名山記)』 구절²⁰¹⁾을 인용했다. 이 네 항목은 자국의 영토와 관련된 설화를 두고 사실 여부를 놓고 시비를 따지거나, 한시의 소재가 된 수목에 주목하거나, 자국의 명산(名山)에 있는 명천담(名泉談)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문헌에서 자국의 위상이 신비화되어 있거나, 지리적 인식이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어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인접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은 진정한 상호 문화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국이 외국에 대해 아는 것만큼 외국에서 자국에 대해 알지 못하고 부정

198)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酉陽雜俎, 近有海客往新羅, 吹至一島上, 滿山悉是黑漆匙筋, 多大木. (….) 此似妄也. 吾南沿海島中, 若有是木, 豈有不聞之理?”

199)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許亢宗行程錄, (….) 金人云此新羅山. 其中產人蔘白附子, 與高句麗接界. 此妄也. (….) 而金人所指新羅山, 安得與高句麗接界?”

200)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高麗人蔘讚, (….) 中國文書, 多載此贊. (….) 椶樹卽我國所謂自作木, 以爲冊板. 我國至賤, 而中原墳墓, 皆種此樹, 青石嶺成林.”

201)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名山記曰; 江原道金剛山中, 有一泓曰觀音潭, (….) 諺傳觀音浣處.”

확하게 알려지고 있는 사실에 대한 발분(發憤)의 감정도 드러내거나, 비판적인 논조를 편 항목도 적지 않다. (14) <천하의 명산>에서는 명나라 장천복(張天復)이 편찬한 『황여고(皇輿攷)』에서 천하의 명산이 중국에 다섯, 오랑캐 땅에 셋이 있다는 말을 인용하더니, 천하의 명산은 중국 안이든 밖이든 훨씬 많다면서 잘못²⁰²⁾이라 했다. (15) <강과 하의 차이>에서는 『황여고』와 명나라 진정(陳霆)이 지은 『양산묵담(兩山墨談)』에서 천하의 강 소개 대목과 ‘강(江)’과 ‘하(河)’의 기준 대목을 인용하고, 강과 하의 기준이 중국의 회수라는 구절은 잘못이라 했다. 강과 하의 차이는 청탁이 기준으로, 박지원 자신이 여행 길에서 건넌던 압록강은 맑았고, 요하, 난하 등은 누런 흙탕물이었다²⁰³⁾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16) <왕공의 과거 답안지>에서는 명나라 양순길(楊循吉)의 『지이(志異)』에서 명나라 왕월(王越)의 사적을 적은 구절을 인용했다. 양순길의 기록은 회오리바람이 왕월의 과거 답안지를 날린 것만 적고 조선 성종 때 경복궁에서 발견된 사실은 몰랐으며, 왕월이 출세한 것은 알았으나 조선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 왕월의 답안지를 건네주어 왕월이 출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모른 것 아니겠느냐며 그럴듯한 허구²⁰⁴⁾라 했다. (25) <왕유가 그린 돌의 행방>에서는 작가 미상의 미술서적 『단청기(丹青記)』에 나온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에 얽힌 일화를 인용했다. 고구려가 망한 당나라 헌종 때 고구려 사신을 보냈다는 구절이나, 왕유가 그린 돌이 우리나라로 날아왔다는 사연은 그럴듯한 허구²⁰⁵⁾라 평했다.

(29) <고려의 송연묵>에서는 명나라 문인 서위(徐渭)의 『노사(路史)』에 나온 고

202)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皇輿攷曰: 天下名山有八而五在中國. 泰山, 華山, 少室, 太室, 首陽. 而其三在外夷. 此妄也. (….) 天下名山, 豈止有八而中國豈止於五, 外夷名山, 亦豈止三?”

203)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皇輿攷云; (….) 兩山墨談陳霆著 云, (….) 此說非是. 江與河以清濁分. 余渡鴨綠江, 江之廣不踰於漢江, 而清則比之. 自至皇京, 凡渡水十餘. (….) 而所名混河、遼河、灤河、太子河、白河等, 水皆黃濁.”

204)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楊循吉志異云, (….) 此王越事也. 我成宗朝景福宮簡儀臺邊, 落一紙, 中朝試券. 其封彌乃王越名, 附貢使, 奏其券. 天子嘉越有風力, 乃拜執憲之職. 循吉所記, 只言其旋風飛券而不詳其下落, 泛言其由執憲以進, 而未諳其實由我國奏聞于天子也.”

205)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丹青記: 王維爲岐王, 畫一大石. (….) 而高句麗亡於唐高宗永徽中, 則憲宗時, 安得遣使? (….) 其飛石之說, 本自荒誕, 而所記又甚乖謬. 此應本之王越試券事, 依係爲此說耳.”

려의 조공품 송연목 사연을 인용했다. 이에 대한 명나라 학자 왕사정(王士禎)의 논변도 실었다. 박지원은 왕사정이 송연목과 돌먹에 대해서는 논변하면서도 당나라 때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거론하지 않은 점²⁰⁶⁾을 따졌다.

(22) <『시경(市警)』의 소서(小序) 논란>에서는 북경 단가루(段家樓)에서 한족 사대부 초팽령(初彭齡), 고역생(高穰生) 등과 『시경』의 소서(小序)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내용을 적었다. 박지원은 그들에게 『시경』은 모두 특정 작가가 있는 것이 아닌 여항(閻巷) 사람들이 부른 공동작의 노래집이며, ‘소서’에서 시 한 편 한 편이 개인작이라 주장한 것은 잘못²⁰⁷⁾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여섯 항목에서는 사실 여부를 두고 사실 논거를 들어가며 시비를 따져 사실을 바로잡았다.

셋째, 자국 문화의 풍습이든 외국 문화의 풍습이든 역사적 교류의 연원을 알고, 풍습의 타당성과 부당성을 시비하기도 하며, 외국문화의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는 현실주의 관점을 표명하여 긍정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4) <도포와 갓>에서는 옥전현 한 점포에서 조선 사신의 도포를 보고, 청나라 승려들의 도포와 닮은 것이 신기해 구경거리가 된 사연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의관 제도는 신라에서 당의 물물 제도를 받아들여 지속되어 온 것이므로, 청나라 승려들이 조선의 의관 제도를 본뜬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옳다²⁰⁸⁾는 견해를 폈다. 의관 제도를 만든 중국에서는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그 풍속이 남아있는데, 의관 제도를 수용한 조선에서는 그 풍속이 이어지고 있는 사례를 대비하여, 의복문화의 발상지에서 자기 문화의 산물을 몰라보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와 반대로 (5) <갓>에서는 청나라 승려들이 쓰는 갓과 몽골인이 쓰는 갓을 언급하더니, 조선의 풍습은 사대부들이 겨울에도 갓과 부채를 사용하여 타국 사람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다²⁰⁹⁾고 했다. 실용성과 기능에 맞게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외국

20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徐渭路史云: 唐時高麗貢松烟墨. (….) 王阮亭辨: (….) 而獨不辨唐時元無高麗, 何也?”

207)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余嘗與初翰林彭齡高太史穰生, 飲段家樓, 紛紛以小序相質. 余大言曰: 詩三百, 不過當時閭巷間風謠. 歡愉疾痛喜怒哀樂之際 (….) 小序說詩, 必皆有作詩之人曰, 此某某之作, 如後世之全唐詩, 則斷可見其傳會.”

208)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我東袍笠與帶, 恰似中國之僧. (….) 而東方衣冠多襲新羅之舊. 新羅始倣華制. (….) 反謂中國僧徒, 悅我東衣冠而效之, 豈其然乎?”

209)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僧笠之以籊絲結者. (….)

과는 달리 실용성과 기능보다도 더 중시 여기는 자국 문화의 허례허식을 꼬집었다.

(7) <변발>에서는 명말 양명학자 이지(李贄: 1527~1602)의 변발이 청나라의 변발 제도의 조짐이었다면서, 변발 풍습이 100여 년이 넘게 흘렀으니, 청 이후 다시 머리를 기르고 모자를 쓰게 한다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²¹⁰⁾라 했다. 당대 정주학을 고수하는 사대부로부터 이단(異端) 문인이라 평가를 받은 이지를 논거로 삼은 점이나, 있는 것[현실]과 있어야 할 것[전통]의 관계에서 있는 것으로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박지원의 현실주의적 관점이 자못 흥미롭다.

(8) <민가 마당의 정원>에서는 연행 길 도중 찾은 어느 민가 마당에서 파초, 차미꽃, 대나무, 오동나무가 심어진 정원을 많이 보았다²¹¹⁾고 했다. 의관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보인 (4)와 (5)와는 달리 (7)과 (8)에서는 청나라 풍속에 대한 박지원의 긍정적인 관점이 감지된다.

또한 문화는 어느 한 국가나 특정 문명권이 독립적으로 점유하면서 형성·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 과정에서 수수(授受)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23) <월부채의 연원 >에서는 명나라 풍시가(馮時可)의 『봉창속록(蓬牕續錄)』 한 대목을 인용했다. 마테오리치(1552~1610)가 풍시에게 선물한 일본 월부채인 ‘취두선(聚頭扇)’에 얽힌 사연으로, 월부채는 일본→고려→중국 순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하고, 중국의 큰 부채인 ‘고려선’도 소개했다.²¹²⁾ 이 조항에서는 동아시아 한문문명권의 문화 교류 가운데 특이한 사례에 주목했다. 특정 문화는 문명의 중심부 국가에서 주변부 국가로 이행된다는 통념에 맞서 그 반대로 이행되기도 한다는 관점이 감지된다.

(33) <우리나라 한지를 예찬한 중국 사대부>에서는 우리나라 한지를 예찬한 중국 사대부로 왕세정(王世貞)과 서위(徐渭) 그리고 종성(鍾惺)²¹³⁾을 들었다.

蒙古人，亦夏天戴笠。(…)東俗之冬，天戴笠，雪裏把扇，爲他國所笑。”

210)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李卓吾以其煩癢，公然剃髮。(…)蓋中國剃髮之徵也。而愚民之習熟成俗者已百餘年之久，則亦或有以束髮加帽，反爲煩癢而不便者。”

211)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余入中，沿道二千里之間。(…)入人家休憩而去。丈二芭蕉，太湖石，茶蘼架子，斑竹欄干，往往而有，護階綠竹，滿簾翠梧，到處多見。”

212)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吳郡馮時可蓬牕續錄：(…)余至京，有外國道人利瑪竇，贈余倭扇四柄。(…)由此觀之，中國初無摺疊扇。(…)高麗學之日本，中原學之高麗歟?”

(24) <구라철현금>에서는 『봉창속록』에 나온 ‘철현금’과 ‘자명종’ 전래 과정을 들었다. 1772년 음력 6월 18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홍대용이 담현에서 철현금을 풀어내는 것을 본²¹⁴⁾ 일화도 들었다. (30) <만세 역법의 원조, 서광계>에서는 1581년 마테오리치가 중국으로 들어와 29년 머문 사실과 서광계(徐光啓)가 마테오리치에게 배워 만세 역법의 조종(祖宗)이 된²¹⁵⁾ 사연을 소개했다. 이 두 조항은 이슬람 문명권이나 유럽 문명권의 문화가 동아시아 문명권으로 유입된 문물을 제시하는 사례로, 이와 반대사례인 종이, 화약, 나침판이라는 동아시아 문명권의 문물이 이슬람 문명권을 거쳐 유럽 문명권으로 흘러든 역사적 사실과 함께 서로 다른 문명권의 문화 교류사적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박지원은 자국의 입장에서 우월감에 사로잡혀 외국 문화를 근거 없이 폄하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외국을 숭앙하는 태도를 보이기에 앞서 외국 문화와 제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일이 선결과제라고 여겼다. (3) <천비(天妃)>에서는 『청사전(淸祀典)』에서 발췌했다면서, 해신(海神) 천비의 존호가 붙어, 이슬람교를 숭상하는 회회(回回) 사람들이 천비 신앙을 지니고 있다²¹⁶⁾고 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그 자체로만 보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박지원이 발췌하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논거를 찾아 박지원의 의중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박지원이 발췌하고 있는 구절은 여느 문집에서는 출처를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1766년 음력 2월 17일자 일기에서 홍대용이 북경에서 만난 청나라 한족 선비인 반정균(潘庭筠)과 나눈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홍대용: 남쪽에서도 천주학자가 있습니까?

반정균: 천주교가 중국에서 행해지기는 하지만, 이는 금수(禽獸)의 종교이니, 사대부가 모

213)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王元美稱東紙, 徐文長甚愛東紙如錢厚者, 鍾伯敬嘗書唐劉昫虛詩十四首.”

214)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歐邏鐵絃琴, 吾東謂之西洋琴, 西洋人稱天琴, 中國人稱番琴, 亦稱天琴. (….) 而其以土調解曲, 始于洪德保, 乾隆壬辰六月十八日. 余坐洪軒, 酉刻立見其解此琴也.”

215)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皇明萬曆九年, 西洋人利瑪竇入中國, 留北京二十九年. (….) 獨力主其曆法者, 徐光啓一人, 遂爲萬歲曆法之祖宗.”

21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天妃俗傳, 黃河之神. 今清勅封爲天后, 回回人多入此教云.”

두 그르다 합니다.

홍대용: 천비(天妃)가 누구인가요?

반정균: 천비는 황하(黃河)의 신(神)입니다. 전해 들으니, 복건인(福建人)인 임씨(林氏)가 지금 칙봉(勅封)되어 천후(天后)가 되었다 하는데, 회회(回回)가 많이 이 종교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명(明) 만력 때 서양의 마테오리치가 중국에 들어오니 그 종교가 비로소 행하였다고 합니다.²¹⁷⁾

인용문이 지닌 문제점은 밑줄 친 구절을 기준으로 앞뒤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홍대용의 질문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북경 유리창에서 만난 선비 반정균에게 고향인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 지방에서도 예수회의 서양인 선교사들이 있어 한족 선비들이 천주교를 믿는 풍조가 벌어지고 있는냐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천주교라는 서양의 종교가 명말·청초에 마테오리치라는 신부가 중국에 들어온 뒤부터 중국에서도 성행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자기를 비롯한 한족 사대부들은 이교(異敎)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 활동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반정균이 대답해야 했다. 국문본 『을병연행록』에서 해당 날짜 동일한 대목을 보면, 밑줄 친 구절인 홍대용의 두 번째 질문이 빠져 있다는 점을 첫 번째 근거로 들 수 있다. 밑줄 친 ‘천비’는 복건지방에서 해상 무역 활동을 했던 상인들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바다의 수호여신으로, 송·원·명·청대를 거치면서 황실의 정치적 비호를 받은 중국의 민간신앙의 주체이므로, ‘천주교’나 ‘마테오리치’ 화소와는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화소라는 점을 두 번째 근거로 들 수 있다.

인용문이 지닌 문제점 가운데 또 하나는, 밑줄 친 구절 자체 내에도 존재한다. ‘천비’와 ‘황하의 신’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천비’와 ‘황하의 신’을 연결하고 있는 이는 홍대용과 박지원 이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당대 사대부들이 공유하고 있는 ‘황하의 신’은 일반적으로 하백(河伯)이다. 하백은 『장자(莊子)』 외편(外篇), 「추수편(秋水編)」에서 ‘북해(北海)의 신’인 약(若)과 함께 등장하여 좁은 시야를 지닌 상

217)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二, 『杭傳尺牘』, 「乾淨衝筆談」 2월 17일자 기사, “余曰: 南邊亦有爲西洋學者乎? 蘭公曰: 西教亦行于中國. 此禽獸之敎, 士大夫皆以爲非. 余曰: 天妃爲誰? 蘭公曰: 天妃, 黃河之神. 傳聞福建人林氏, 今勅封爲天后, 回回多入此敎. 明萬曆時, 西洋利瑪竇入中國, 其敎始行.”

징적인 인물을 표상하고 있다.

그런데 박지원과 홍대용은 각각 『청사전(淸祀典)』에서 발췌했다고 하기도 하고, 북경 유리창에서 만난 선비 반정균의 입을 빌려 왜 ‘하백’이 아닌 ‘천비’를 ‘황하의 신’라고 했는지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박지원과 홍대용이 ‘바다·얼음·도(道)’²¹⁸⁾로 상징되는 공간적인 변이·시간적인 변천·궁극적인 이치를 추구하는 실학자였고, 정주학(程朱學) 이외의 여러 학문에 밝았던 점으로 미루어, ‘황하의 신’으로 표상되는 절대주의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대결의식을 암시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할 따름이다.

(6) <청나라 과거 제도>에서는 청나라 향시 규정과 회시 규정²¹⁹⁾을 요약했다. (34) <청나라의 과거제와 조선의 과거제>에서는 합리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나라 과거제도와는 달리, 조선의 과거제도는 자연과 별열을 따져서 벼슬을 나누어주고 있는 세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두 나라의 과거제도의 운용상의 차이²²⁰⁾를 견주었다. 이 두 항목은 인재선발을 위한 양국의 제도 운용 사례를 비교해서, 이적의 나라로 바뀐 중국과 중화의 나라로 바뀐 조선이라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는 조선 사대부들에게 반대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8) <청조에 바치는 조공의 특산품>에서는 청 황실이 1637년 조선에 터무니없이 가혹하게 공물(供物)을 요구하였으나, 1780년 현재 박지원이 사행을 갈 때 공물은 매우 미미하다고 했다. 반면 조선에 하사하는 선물과 사신이 머무르는 동안 청 황실이 부담하는 비용은 매년 10만 냥이라서, 청나라 성립 초기와 견준다면, 조선이 청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다²²¹⁾고 했다. (31) <명나라 신종의 왜란 원조 금액>에서는

218) 『莊子』外編, 『秋水編』, “북해의 약이 말하길,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얘기해도 모르는 건 의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에게 어름에 대해 얘기해도 모르는 건 때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견이 좁은 선비에게 도에 관해 얘기를 해도 모르는 가르침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北海若曰: 井蠵不可以語於海者, 拘於虛也. 夏蟲不可以語於冰者, 篤於時也. 曲士不可以語於道者, 束於教也.)”

219)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中國鄉試之規. 第一場, 試以四書文三篇, 性理論一篇, 一晝夜而畢. (….) 會試之規亦同.”

220)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中原進士及第出身. 一甲三人壯元, 次榜眼, 次探花. 壯元即授翰林修撰, 榜眼及探花, 爲翰林編修. (….) 不比我東較量地闊, 分授三館之規.”

221)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崇禎丁丑十一月二十二日, 正朝使 與建州和解後, 韓亨吉, 書狀官李後陽之行, 定例外別貢紅柿三十駄. (….) 今此使行所

1592년에 명나라 신종(神宗)이 군사를 내주어 조선을 원조하는 데에 든 내탕금(內帑金)이 은 8백만 냥이²²²⁾라 했다.

(28)에 나타난 사실에 대해 박지원은 조·청의 부당한 대외 관계가 점차 개선되어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 반면, (31)에 나타난 사실을 되새김으로써 조선이 청과 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의 경우, 청의 ‘혜택’은 명의 ‘은혜’와 동등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세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박지원은 청의 ‘혜택’은 청조의 통치술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치인의 권력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11) <화신의 행실>에서 건륭제의 총애를 받는 화신(和珅)이 당장은 황제의 신임을 얻고 있으나, 황제에게 바친 선물이 황제조차 지니지 않는 선물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면 화신이 이내 위태로워지리라²²³⁾ 평했다. 화신의 말로에 관한 이후 행적은 1799년(정조 23년) 음력 3월 30일, 서장관 서유문이 올린 문건 별단에 보이고 있다. 음력 1월 8일에 화신을 형부의 옥에 가두고, 그의 20가지 큰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여 중외에 포고하였다²²⁴⁾는 내용이다.

이처럼 박지원은 중국 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문화에 관한 이해와 소개 구절을 발췌해 중국과 조선 또는 서양과 동아시아의 긴밀한 문화적 상호 교류 관계 양상을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더욱 발전시켜 박지원은 『열하일기』의 탈고 뒤 실현되지 못했으나 『삼한총서(三韓叢書)』를 기획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중년(中年)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헌에 다 같이 실려 있거나, 중국과 우리나라에 함께 관련된 사실들을 뽑아내어, 그것들을 모아 하나의 총서를 만들고자 하셨다.

持方物，不過紙席，而中國賜賚供給，留館員役，常費十餘萬云。比諸清初，可謂反爲貽弊中國。”
222)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萬曆壬辰, 神宗天子大發兵, 東救我國之難. 其時所發帑銀八百萬兩.”
223)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銅蘭涉筆」, “卽今戶部尙書和珅, 皇帝寵臣也. (….) 和珅方其貴寵, 故皇帝亦嘗曰: 珅愛我也, 忘其家而獻於朕云爾. 則亦將曰; 朕以四海之富, 無此眞珠葡萄, 珅安從得此. 珅其危哉.”
224) 『正祖實錄』 51卷, 정조 23년 3월 30일 두 번째 기사, “書狀官徐有聞, 進聞見別單: (….) 正月初四日, (….) 乃於初八日, 下珅于刑部獄, 數珅二十大罪, 布示中外.”

(...)

특정한 책 전체를 편입하기도 했고, 방대한 책 가운데 한두 대목을 인용한 경우도 있으며, 본래 그런 책이 없지만 여기저기 글을 뽑아 모아서 책을 만들어 편입한 것이 있는가 하면, 없어진 지 이미 오래여서 그 이름만 전해오는 책에 대해 아버지의 견해를 첨가하여 후세 사람들이 본격적인 검토를 기다린 경우도 있다.²²⁵⁾

박지원의 아들 박종채(朴宗采: 1780~1835)는 『과정록(過庭錄)』에서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탈고한 뒤, 후속 작업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증언해주고 있다. 박종채가 부기한 서명 또는 작품명 가운데 『교방지(交聘志)』, 『통문관지(通文館志)』, 『통왜고(通倭攷)』, 『직방외기(職方外紀)』²²⁶⁾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조선과 중국과의 관계사를 넘어 일본 그리고 서양에까지 관심의 범위가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박지원은 대내외 문화교류의 흐름을 탐색하면서, 자국 내에 머물렀던 관심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외 교류의 실상을 파악하려 고심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드문 외국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치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기록정신을 보여주었고,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고증을 바탕으로 한 치열한 비평정신을 발휘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홍대용의 『의산문답』과 관련지어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타난 성격을 총괄해 보자.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통해 홍대용의 사상과 상통하는 작품을 「호질」에 담아 아내어 홍대용의 사상과 자신의 문학 창작 능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주목할 수 있다. 다른 생명체가 악하면 사람도 악한 존재이고, 사람이 선한 존재

225) 박종채, 『나의 아버지 박지원』, 들베개, 박희병 옮김, 1998; 『過庭錄』의 국역, p.262. ; 박종채, 『역주 과정록』, 김윤조 역주, 태학사, 1997, p.296. 여기에 서명 또는 작품명으로 추정되는 목록 178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서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26) 『교방지(交聘志)』,나 『통문관지(通文館志)』는 우리나라와 긴밀한 대외 관계에 있었던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성격의 저서이기 때문이고, 『통왜고(通倭攷)』는 현재 남아있지 않으나, 제명(題名)으로 미루어 일본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이며, 『직방외기(職方外紀)』는 1623년 항저우(杭州)에서 간행된 예수회의 선교사 알레니(艾儒略:1582~1649)의 저서로 세계지리서의 성격을 지닌 저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직방외기(職方外紀)』는 세계 42개국에 관한 다양한 제도와 풍속을 소개하고 있어, 당대 조선의 사대부들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한 저서이다.

이런 다른 생명체도 선하다는 주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인물균’을 여럿 가운데 하나로 다루는 데에 그쳤으나, 박지원은 홍대용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호질」에서 ‘하늘’의 입장이 아닌 ‘범’의 입장에서 ‘사람’을 나무라는 방식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사람이 저지르는 악행이 다른 생명체가 사람에게 저지르는 악행보다 훨씬 심할 수 있다는 사례를 들어가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풍자의 수법을 동원하고 있어 문학적 형상화 능력이 홍대용보다 앞섰다. 그런데 홍대용이 치열하게 몰두하여 깨내고자 했던 우주론의 깊이에 대해 박지원은 확실히 알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㉔ 내가 우리 서울을 떠나서 8일 만에 황주(黃州)에 이르렀을 때 일이다. 말 위에서 홀로 상념에 젖어, ‘학식이 진실로 없는 내가 중국에 들어가 만약 대유(大儒)를 만난다면 대체 무슨 질의를 던져 가슴앓이를 하게 할 수 있을까?’ 드디어 예전에 들었던 ‘지전설(地轉)이나 ‘월세계(月世)’에 관한 학설을 떠올릴 수 있었다. (...) 열하(熱河)에 들어가자, 먼저 이 학설을 기풍액(奇豐額)에게 소개했더니, 끄덕이기는 했지만 이해를 못했다. 왕민호(王民皞)와 학성(郝成)은 역시 분명히 알아듣지 못했으나, 혹정은 이 학설을 그렇게 틀렸다고는 하지 않았다.²²⁷⁾

㉕ 언젠가 홍대용과 함께 석치(石痴) 정절조(鄭結祚 1730~1781)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황도(黃道)·적도(赤道)와 남극(南極)·북극(北極)에 관해 토론을 하었는데, 어떤 때는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하였다. 그들이 나누는 학설은 모두 한없이 넓고 끝이 없으며, 논의하는 바가 어렵기도 해서 나는 자느라고 듣지 않았다. 새벽에 이르도록 두 사람은 여전히 어둡침침한 등불 아래에서 토론이 계속하고 있었다.²²⁸⁾

㉖ 이 덕보는 통명(通明)하고 민첩하고 겸손하고 단아하며, 식견이 깊고 견해가 정밀하였다. 특히 음률과 역법(曆法)에 뛰어났으니, 그가 만든 혼의(渾儀) 제기(諸器)는 오래오래 깊이 생각한 끝에 새롭게 기지(機智)를 짜낸 것이었다. 처음에 서양인들은 땅이 구형(球形)임을 설명하면서도 땅이 돈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덕보는 일찍이 논하기를 땅이 한 번 돌면 하

227)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鵠汀筆談」, “余離我京八日, 至黃州, 仍於馬上, 自念學識固無藉手, 入中州者, 如逢中州大儒, 將何以扣質, 以此煩冤? 遂於舊聞中, 討出地轉月世等說. (...) 既入熱河, 先以此說, 贊諸奇按察豐額, 奇雖頷可, 而不甚理會. 鵠汀志亭亦多聽瑩, 然鵠汀亦不以此說爲甚非也.”

228)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五 別集 『熱河日記』, 「謁聖退述」, 〈觀象臺〉 “嘗與洪德保共詣鄭, 兩相論黃赤道南北極, 或擺頭, 或頷可, 其說皆渺茫難稽. 余睡不聽. 及曉, 兩人猶暗燈相對也.”

루가 된다고 하였다. 그 설이 미묘하고 심오하였으나, 다만 미처 그에 대해 저술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의 만년에는 땅이 돈다는 것을 더욱 자신하여 의심이 없었다.²²⁹⁾

㉠에 따르면, 박지원은 1780년 연행 이전에 홍대용의 학설 지전설에 관해 충분히 들은 바가 있었고, 한족 사대부 기풍액(奇豐額)·왕민호(王民皐)·학성(郝成) 등에게 그의 학설에 관해 개괄적으로 소개할 정도의 지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에 따르면, 그 지식의 정도는 홍대용과 대등하게 토론을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학(西學) 서적을 통해 천문관측이나 역산(曆算)에 관한 조예를 갖춘 인물은 홍대용과 정철조(鄭喆祚: 1730~1781)임을 알 수 있다. ㉢에 따르면, 박지원이 지구설은 예수회 선교사들을 통해 수용하고, 지전설은 홍대용의 독자적인 학설로 파악하고, 생전에 홍대용이 자신의 학설을 담은 저술을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를 연결하여 이해해 보자. 박지원은 홍대용이 캐고자 했던 대도(大道)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지만 중국의 한족 선비와의 필담을 위한 여러 화제 가운데 독특한 화제의 하나로 활용하였을 뿐이었다. 또한 박지원은 천문학적 이해도 면에서 홍대용이 자신보다 나으며, 그 분야에서는 식견이 깊고 정밀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홍대용이 캐고자했던 지구의 형태와 행성운동의 관계, 자연 현상에 관한 탐구와 해명, 중화주의 세계관에 기반한 전통적인 분야설(分野說)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자연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길항 관계로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 확립 등에 관해서는 기풍액(奇豐額)·왕민호(王民皐)·학성(郝成)이 홍대용의 학설에 대해 보인 반응 이상을 박지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지원은 홍대용이 비교적 소홀하게 여겼던 산문문학 작품의 창작과 구성 능력 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열하일기』의 구성은 그 탁월한 재능이 겹으로 드러난 정점(頂點)이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1) 일기부를 일곱 개로 구분해 구성하여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점, (2) 필담부에서 필담 상황을 여느 연행 잡록보다도 정교하고, 상세하게 표현하여 독자들을 흡입

229) 朴趾源, 『燕巖集』 卷之二 『煙湘閣選本』, 「洪德保墓誌銘」, “嗟乎! 德保通敏謙雅, 識遠解精. 尤長於律曆, 所造渾儀諸器, 湛思積慮, 勘出機智. 始泰西人諭地球, 而不言地轉, 德保管論地一轉爲一日. 其說渺微玄奧, 顧未及著書. 然其晚歲益自信地轉無疑.”

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3) 잡기부에서 대중적인 성격과 전문적인 성격을 구분하여, 독립성을 띤 여러 편의 글을 독자의 수준에 맞게 골라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 등등의 특성은 여러 연행 잡록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보다는 여러 평범한 연행 잡록 가운데 탁월한 하나의 연행 잡록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만들었다.

(1) 『열하일기』 이전의 어느 연행록에서도 일기체 형식을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해 독립적인 제명을 붙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박지원이 사행 체험을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생각으로 의주에서 북경까지, 북경에서 열하까지, 열하에서 북경까지 여정 하루하루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책문 번영에 감탄하고, 요동 일대가 조선의 옛 영토임을 주장하며, 벽돌 사용의 이점을 논하는 「도강록」, 성경[심양]을 관광하고, 중국 상인들과 필담하는 「성경잡지」 등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세 의식과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를 자유자재로 연결하는 솜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면모는 수레 제도를 유심히 살피고, 상업 발달로 서민들이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면모를 부각하는 「일신수필」, 기문(奇文)이라 할 만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베껴와 자신의 사상과 표현 방식으로 재구성한 「관내정사」, 북경에 당도하여 감회를 술회하고 황제의 명으로 열하로 출발하느라 강행군하여 그 고생담을 서술하는 「막북행정록」, 피서산장을 방문하여 판채마를 접견하고 태학에 머물며 한림학사 왕민호와 필담하는 「태학유관록」, 열하에서 출발하여 북경으로 돌아가며 한층 여유로워진 여정을 밟고 견문과 필담이 적힌 이야기보따리를 보물처럼 지니고 북경으로 돌아와서는 잠시 헤어졌던 일행과 재회하는 과정을 그린 「환연도중록」 등등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필담 상황을 어느 연행록보다도 정교하고, 상세하게 표현하여 독자들을 흡입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도록 구성한 까닭은 무엇일까? 청조 아래 살고 있는 한족 사

대부들을 통해 청조 황실의 기만적인 통치술을 고발하고, 청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흐름을 간파해야 하는 과업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인 사대부 일반의 과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열하일기』 이전의 어느 연행록보다도 효과적이고 혁신적으로 필담 의례의 본모기를 보여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열하에서 만난 중국 사대부의 특징적인 면모를 「경계록」에서 소개했다. 자연스러운 화제를 통해 중국 사대부들이 박지원에 대한 경계를 점차 풀고, 감추고자 했던 진짜 속내를 조금씩 드러내게 하는 과정을 「망양록」과 「곡정필담」에서 생동하게 서술하고 있다. 「망양록」, 「곡정필담」, 「황교문답」 등의 필담부 성격이 무엇이며, 한족 사대부들과 교류를 통해 무엇을 깊이 살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조정에서 파견한 사대부들이 장차 어떤 외교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심세편」에서 총괄했다.

(3) 잡기부에서 대중적인 성격과 전문적인 성격을 구분하여, 독립성을 띤 여러 편의 글을 독자의 수준에 맞게 골라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까닭은 자국과 타국의 문화 교류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교류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 인식되었으며, 장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박지원의 단상을 표현하려는 데에 있다.

여기서 두드러진 특색은 자국의 문화와 타국의 문화 간에 개방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촉구한 점이 주목된다. 박지원은 자국에는 드문 외국 문화 사례, 자국의 문화가 외국에 전해지는 사례, 그 반대의 사례 등을 찾아 잡기부에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환희기」에서는 상하가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성격의 마술 공연을 기록한 것으로, 속을 만해서 속는 ‘관객’이 속을 만한 데 속지 않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마술 공연을 놀이문화의 하나로 즐기는 외국의 상황을 통해 자국의 사람들 또한 이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암시했다. 한편 외국의 학술 문헌들 가운데 자국의 역사와 문화, 제도와 풍습 등과 관련이 있거나,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실들을 발췌하여 요약한 뒤, 상호 문물 교류 실상 문제, 진위 문제 등에 관한 단상을 표명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 전문적 성격의 글이라 할 수 있다.

IV. 홍대용과 박지원의 작가정신 비교 논의

1. 송고의 글쓰기와 풍자의 글쓰기

기존의 논의에서는 박지원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어왔다. 그러나 홍대용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그 연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박지원은 일찍이 『열하일기』에 수록된 우언 작품을 통해 한문단편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는 평가가 정착된 까닭이다. 반면 홍대용은 지전설을 내세운 전통시대의 과학자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탓에 작가적 이미지가 약한 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정치 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중국의 개방화 정책에 힘입어 그동안 간헐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던 연행록이 본격적으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지는 데에 힘입어 인문학계에서도 동아시아 담론의 붐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연행록을 대상으로 답사를 통한 현장 연구와 실증적 문헌 연구 성과물이 증가하게 되었다.

여러 연행록 가운데 조선시대 ‘3대 연행록’으로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것이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연행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방식의 탐구가 이루어져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홍대용의 글쓰기가 비로소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박지원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는 심화기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홍대용과 박지원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탐색은 계속 진전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필자는 II-1장과 III-1장에서 홍대용은 구성 체계와 수사 활용의 측면에서 『의산문답』의 글쓰기 특징을 고찰하는 한편, 박지원은 구성 체계와 문체 활용의 측면에서 『열하일기』의 글쓰기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의산문답』과 『열하일기』를 대상으로 장면 구성과 논증의 활용 측면에서 홍대용과 박지원의 글쓰기 방식을 비교하려 한다.

왜 하필 논증의 활용 측면을 고찰해야 두 작가의 글쓰기 방식이 지닌 특징과 동질성이 잘 드러나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정적인 대상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묘사의

활용이나 동적인 대상을 시간적으로 표현한 서사의 활용은 『의산문답』의 도입부에 미미하게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미미하게 드러난 면을 가지고 비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다. 정보를 내세워 독자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설명의 활용 또한 『의산문답』의 문답부에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의산문답』의 주제 의식을 도출해 보았을 때 정보 전달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글쓰기 방식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

그렇다면 왜 필자가 논증의 활용 측면을 고찰하려 하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구성과 개요를 그려보고, 집필과 퇴고를 하는 과정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은 주제 설정이다. 홍대용과 박지원이 어떤 문학작품을 쓰려고 할 때 ‘어떤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정했을 것이다. 『의산문답』과 『열하일기』에 담긴 주제는 정조대 사회적 과제 혹은 시대적 사명감을 담아낸 어떤 주장이다. 논증은 주장을 내세워 독자를 설득하는 글쓰기 방식이다. 그러므로 두 작가의 글쓰기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서사와 묘사, 설명 방식의 활용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논증의 활용 측면을 건주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의산문답』과 『열하일기』에서 보이는 두 작품의 공통된 주제의식은 무엇일까? 주제의식을 하나로 볼 수도 여럿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필자는 (1)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관계 (2) 유한(有限) 세계와 무한(無限) 세계의 관계 (3)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의 관계 등을 들고자 한다. 홍대용의 작품에서는 (1)→(2)→(3) 순으로 다루었다. 박지원은 (1)을 다루면서 (3)을 암시하는 비유를 들기도 하고, 후지에서 (3)을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2)를 다루면서 예전 홍대용에게 들은 내용이라 하기도 하고, 코끼리를 대상으로 한 잡기에 (2)의 문제를 끼워 넣기도 했다. (3)에 관한 논의는 『열하일기』 서문, 일기부, 잡기부, 필답부에 곳곳에 산재한다.

두 작가는 (1)에서 다른 생명체, (2)에서 무한의 세계관, (3)에서 이적을 공통적으로 가치평가의 측면에서 절하(切下)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1)에서 다른 생명체, (2)에서 무한의 세계관, (3)에서 이적을, 이성의 측면에서는 탐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윤리적 측면에서는 존중의 대상으로 여긴 공통점이 있다.

(1)에서 다른 생명체, (2)에서 무한의 세계관, (3)에서 이적이 탐구의 대상이자,

존중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독자를 설득하려면, 사실논거·소견논거·선행논거를 적절히 들어야 했고, 연역, 귀납, 유추, 변증 등도 잘 선택해야 했으며, 다양한 수사와 문체를 활용해야 했다. 이 장에서 두 작가의 글쓰기 방식을 비교하기 위해 선택한 지문은 (1)이 선명하게 드러난 대목을 중심으로 하되, (1)이 나타나는 장면 고찰을 통해 (2)와 (3)에 관한 문제의식까지 연결하여 논의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할 것이다.

(1)을 다루기 위해 먼저 홍대용의 글쓰기 방식을 고찰해 보자. 홍대용은 허자의 ‘유추’에 근거한 ‘인물유분(人物有分)’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허자가 든 논거를 동일하게 활용하여 실옹이 ‘인물무분(人物無分)’의 주장을 펼치는 장면으로 구성하였다.

“지금 내가 너에게 물겠다. 너의 몸이 물(物)과 다른 점을 꼭 이야기하라.”

“그 바탕을 말하면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발이 모난 것은 땅을, 살과 머리털은 산과 숲을, 피는 하수(河水)나 바다를, 양쪽 눈은 해와 달을, 숨 쉬는 것은 바람과 구름을 각각 상징한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몸을 일러 소천지(小天地)라 합니다. 그 태어남을 말하면 아버지의 정자(精子)와 어미의 혈액이 교감하여 태(胎)를 이루고 달이 차면 나옵니다. 나이가 더해짐에 따라 지혜가 진보하고 일곱 구멍이 모두 밝아지며 다섯 성품이 함께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사람의 몸이 다른 물과 다른 점이 아닙니까?”

실옹이 말하길,

“아! 너의 말과 같다면 사람이 물과 다른 점이란 거의 없나니, 대저 털과 살로 된 체질과 정액의 교감은 초목이나 사람이 같거늘, 하물며 금수이겠는가?”²³⁰⁾

홍대용은 허자의 입을 빌려 ‘사람’은 ‘천지(天地)’의 축소판이므로 다른 생명체와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논거로 든 것은 이원론적 주기론에 근거한 ‘천원지방설’이다. 머리가 둥근 사실은 하늘이 둥근 것을 축소한 것이고, 발이 모난 사실은 땅이 모난 것을 축소한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논거로 삼고 있는 점, 살과 산, 털과 숲, 피와 하수(河水)나 바다, 두 눈과 해와 달, 숨 쉬는 것과 바람과 구름 등을 대응시킨 것은 모

230)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今吾問爾. 爾身之異於物者, 必有其說? 虛子曰: 語其質則頭圓者天也, 足方者地也, 膚髮者山林也, 精血者河海也, 雙眼者日月也, 呼吸者風雲也. 故曰人身小天地也. 語其生則父精母血, 感而結胎, 月滿而降生, 齒增而智長, 七竅通明, 五性具足. 此非人身之所以異於物者乎? 實翁曰: 噫! 如爾之言, 人之所以異於物者幾希, 夫髮膚之質, 精血之感, 草木與人同, 況於禽獸乎?”

두 유사성을 근거로 한 유추이다.

이에 대해 실용은 허자가 든 논거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허자의 주장에 반박했다. 천지와 자연물이 지닌 특성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사람을 소천지라 한다면 다른 생명체 또한 사람의 외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 유사성을 사실논거로 삼는다면, 사람과 다른 생명체는 같다는 주장이다. 여기까지는 허자가 대전제로 삼고 있는 ‘천원지방설’을 아직 문제 삼지 않고, ‘천원지방설’을 수용한 채로 ‘인물유분(人物有分)’을 부정하는 논법을 논쟁 대화 방식으로 구사한 특징을 보인다.

실용은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진실로 사람이로다. 오륜(五倫)과 오사(五事)가 사람의 예의(禮義)라면, ㉠ 떼를 지어 다니며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고, ㉡ 떨기로 나서 무성함은 초목의 예의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물(物)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물이 천하다. 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하늘이 보면 사람과 물은 균등하다. 무릇 ㉢ 지혜가 없기에 거짓이 없고 깨달음이 없기에 작위(作爲)도 없다. 그러므로 물이 사람보다 귀하다. 또한, ㉣ 봉황(鳳凰)은 높이 천 길을 날아다니고, 용(龍)은 날아 하늘에 있다. 시초(蓍草)와 울금초(鬱金草)는 신(神)을 통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재목으로써 그 쓰임새가 있다. 사람과 견주어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한가? 무릇 대도(大道)를 헤치는 것으로 공심(矜心)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사람이 자기 쪽만 귀하게 여기고, 물(物)을 천하게 여기는 사고는 공심(矜心)의 본바탕이다.”

(…)

“봉황과 용이 난다 하지만 금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초나 울금초, 소나무나 잣나무는 초목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백성에게 혜택을 입힐 인자함과, 임금 아래 세상을 다스릴 지혜도 부족합니다. 복식(服飾)·의장(儀章)의 제도나 예악(禮樂)·병형(兵刑)의 사용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사람과 같다 하십니까?”

(…)

“심하도다, 너의 미혹됨이여! ㉤ 물고기를 흐리게 하지 않음은 용의 백성을 위한 혜택이다. ㉥ 참새가 놀라서 달아나게 하지 않음은 봉황의 임금 아래 세상의 다스림이다. ㉦ 다섯 가지 채색 구름은 용의 의장이다. ㉧ 온몸에 두른 문채는 봉황의 복식이다. 바람과 우레가 떨

치는 것은 용의 병형(兵刑)이다. ㉘ 높은 언덕에서 화한 울음을 우는 것은 봉황의 예악(禮樂)이다. ㉙ 시초와 울금초는 종묘제사[廟社]에서 귀하게 쓰인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동량(棟樑)의 귀중한 재목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림에는 물(物)에 도움 받지 않음이 없었다. 무릇 ㉚ 군신(君臣)의 의리는 벌[蜂]에게서, 병진(兵陣)의 법은 개미[蟻]에게서, 예절(禮節)의 제도는 박쥐[拱鼠]에게서, 그물 치는 법은 거미[蜘蛛]에게서 각각 배운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聖人)은 만물(萬物)을 스승으로 삼는다.’ 하였다. 너는 어찌해서 하늘의 입장에서 물을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입장에서만 물을 보느냐?”²³¹⁾

허자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드는 실용의 논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를 해명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첫째, 홍대용이 허자의 ‘인물유분(人物有分)’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허자가 든 논거를 동일하게 활용하여 실용이 ‘인물무분(人物無分)’의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반복해서 활용하고 있다.

홍대용은 허자의 입을 빌려 절대적이고 고정불변의 천리(天理)가 사람에게 부여한 예의와 지각이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논거로 삼아 다른 생명체와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논거로 든 것은 성현의 경전에 근거한 ‘예의지각 유무설’이다. ‘천원지방설’이든 ‘예의지각 유무설’이든 성현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소견논거 이상의 의미는 없다. ‘천원지방설’에 근거를 둘 때에는 유사성을 근거로 한 유추를 활용했다면, ‘예의지각 유무설’에 근거를 둘 때에는 성현의 권위에 의해 확립된 보편 전제를 논거로 삼아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연역 추론을 활용했다.

이에 대해 실용은 허자가 든 논거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

231)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㉘, 實翁而笑曰: 爾誠人也. 五倫五事, 人之禮義也. 羣行啣哺, 禽獸之禮義也. 叢苞條暢, 草木之禮義也. 以人視物, 人貴而物賤. 以物視人, 物貴而人賤. 自天而視之, 人與物均也. 夫無慧故無詐, 無覺故無爲, 然則物貴於人, 亦遠矣. 且鳳翔千仞, 龍飛在天. 蒼鬯通神, 松栢需材, 比之人類, 何貴何賤? 夫大道之害, 莫甚於矜心. 人之所以貴人而賤物, 矜心之本也. ㉙(…) 鳳翔龍飛, 不離禽獸, 蒼鬯松栢, 不離草木. 仁不足以擇民, 智不足以御世. 無服飾儀章之度, 無禮樂兵刑之用. 其於人也, 若是班乎? (…) 甚矣, 爾之感也! 魚鮪不淪, 龍之澤民也. 鳥雀不猛, 鳳之御世也. 雲氣五采, 龍之儀章也. 遍體文章, 鳳之服飾也. 風霆震剝, 龍之兵刑也. 高崗和鳴, 鳳之禮樂也. 蒼鬯, 廟社之寶用. 松栢, 棟樑之重器. 是以古人之澤民御世, 未嘗不資法於物. 君臣之儀, 蓋取諸蜂, 兵陣之法, 蓋取諸蟻, 禮節之制, 蓋取諸拱鼠, 網罟之設, 蓋取諸蜘蛛. 故曰聖人師萬物. 今爾曷不以天視物, 而猶以人視物也?”

명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허자의 주장에 반박했다. ㉠과 ㉡에서는 성현의 경전에 근거해 확립된 보편적인 규범인 예의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규범이 사람들에게 있다면, 다른 생명체도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논거로 들었다. 허자가 활용한 논거가 성현의 권위에 기댄 소견 논거였다면, 실용이 든 논거는 ‘때를 지어 다니며 서로 불러 먹이는 것’과 ‘떨기로 나서 무성함’은 사람이면 누구나 관찰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실 논거라는 차이가 있다. 허자가 대전제로 삼고 있는 ‘예의설’을 부정하지 않고, ‘예의설’을 수용한 채로 ‘인물유분(人物有分)’을 부정하는 논법을 논쟁 대화 방식으로 구사한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성현이 제시한 오륜(五倫)·오상(五常) 등의 윤리가 사람에게 있다면, 다른 생명체도 그들 나름의 삶의 방식에 근거한 윤리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긍정하고 있는 셈이다. 홍대용은 사람이 귀하다면, 다른 생명체도 귀하다는 점을 말하려고 했다

㉢에서도 성현의 ‘지각설’을 부정하지 않고 ‘인물유분(人物有分)’을 부정하는 논법을 구사했다. 다른 생명체는 지(知)와 각(覺) 중 어느 하나가 모자라다는 논거를 받아들여 들이기는 했다. 그러나 지각이 내포하는 긍정적인 일면성을, 부정적일 수 있는 양면성으로 바꾸었다. 지각이 뛰어난 사람의 이면에 남을 속이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인위(人爲)적 또는 작위(作爲)적 행동을 하는 사실을 근거로 다른 생명체의 삶을 옹호하고자 했다. 지각이 모자란 쪽이 순수하고 진실한 삶을 영위하기에 가치가 있다는 반론으로 이에 수긍하는 독자의 공감대를 얻으려 했다.

㉣이 ㉠~㉢의 논거와 구별되는 점은 허자가 제시한 논거가 아니라 ‘인물무분(人物無分)’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용이 제시한 새로운 논거라는 점이다. 사람들이 흔히 신령스러워 하는 상상의 동물,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데에 사용하는 식물, 주거생활에 필요한 나무 등을 든 연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종교적이고 실용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 요건의 사례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숭앙의 대상, 운명을 헤아리기 위한 수단, 이로운 도구 등등 구실을 하는 다른 생명체를 천하게 보는 윤리관이 타당한지 독자로서 하여금 성찰하게 했다.

㉔~㉘에서 허자가 든 논거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허자의 주장에 반박하는 논거라는 공통점이 있다. ㉔에서 들었던 상상의 동물과 초목을 예시로 다시 활용했다. 특히 용과 봉황의 행위는 전거(典據)²³²를 활용해 반론을 위한 소견논거로 삼았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홍대용이 다른 생명체가 삶을 누리는 방식을 사실논거로 들었다면 오늘날 독자까지도 설득할 수 있었겠으나, 경전에 근거한 소견논거를 들고 있기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감이 있다. 용과 봉황이 상서롭고 고귀한 새의 상징일 수 있으나 ‘인물유분(人物有分)’을 부정하는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증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초, 울금초, 소나무와 잣나무의 쓰임새 서술은 ㉔의 반복이므로 강조를 위한 수사법이긴 하나 ‘초목에 불과하다’고 한 허자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으로서는 논거가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든 논거인 ㉘에서 사람이 만든 문물제도와 도구가 다른 생명체의 삶을 누리는 방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했다. 이 논거는 오늘날에도 생체모방학(Biomimetics)이 분과학문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다른 생명체가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 지니는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논거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천하다고 여기는 쪽이 귀하다고 여기는 쪽의 스승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논거로 반박을 무마하려 했다.

반면 박지원도 북곽 선생을 범의 대화 상대로 설정해 놓기는 했다. 그러나 논쟁 대화가 아닌 북곽 선생을 대상으로 한 범의 일방적인 진술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박지원이 문의 대화→논쟁 대화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범과 창귀의 대화 장면에서 문의 대화→논쟁 대화를 활용한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1)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박지원이 세 창귀 가운데 육훈의 ‘유추’에 근거한 ‘유자호식(儒者好食)’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육훈이 든 논거를 동일하게 활용하여 범이 ‘유자악식(儒者惡食)’의 주장을 펼치는 장면으로 구성한 글쓰기 방식과 비교해보자.

232) 『禮記』, 「禮運」, “용을 가축과 같이 길들이니 물고기가 놀라 흩어지는 일이 없고 봉황을 가축처럼 길들이니 새들이 놀라 날아가는 일이 없다.(龍以爲畜, 故魚鱗不滄; 鳳以爲畜, 故鳥不獮.)”

범이 이 세 창귀를 엄숙하게 불러 모으고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꼬?”
 (...)

그러자 육훈이 나선다.

“살덩이가 숲에 있으니 그야말로 육림입니다. 인자한 간과 의로운 쓸개를 가지고 있으며,
 충성을 끌어안고 고결함을 품었습니다. 머리에는 음악을 이고 발은 예를 실천하며, 입으로는
 제자백가의 말을 암송하고, 마음으로는 만물의 이치를 통달했습니다. 그 이름은 큰 덕을 가진
 선비라는 뜻의 ‘석덕지유’라고 하는데, 등살이 푸집하고 몸통이 오동통하며 다섯 가지 맛을 고
 루 갖추고 있지요.”

범은 그제야 만족한 듯 눈썹을 치뜨고 침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웃는다. 범이
 “잡은 그게 어떤 것인지 더 듣고자 하노라.”

세 창귀가 번갈아 범에게 추천한다.

“음 하나와 양 하나를 일러서 도라고 하는데, 선비는 도를 꿰뚫고 있습니다. 오행이 서로
 태어나게 하고, 육기가 서로 퍼지는데, 선비는 이것을 이끌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치고 이
 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답니다.”

범은 발끈하며 얼굴색이 변하여 불쾌해하면서,

“음양이라는 것은 기 하나가 왔다갔다 변화하는 것이거늘, 이것을 둘로 나누어 놓았으니,
 선비란 것의 고깃덩이는 잡스러운 것이다. 오행이란 본래 제각기 정해진 자리가 있어 서로 낱
 고 낱게 하는 상생 관계가 아니거늘, 지금 억지로 어미와 자식의 관계로 만들고 있구나. 심지
 어는 잔맛 신맛에까지 오행을 분배하고 있으니, 선비라는 고기는 그 맛이 순수하진 못할 게야.
 육기란 서로 쪼고 이끌어 줄 필요 없이 저절로 잘 돌아가는 것이거늘, 그런데도 지금 함부로
 육기끼리 도와주고 보충한다고 일컬으며 자신의 공로를 치켜세우게 하였다. 그러니, 그 선비
 고기라는 게 딱딱하여 얽히게 만들고, 순조롭게 소화되지 않는 음식이지 않겠느냐?²³³⁾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세 창귀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홍대용은 오
 직 허자와 실옹의 대화만으로 장면 구성을 짜고 있는 데에 반해, 박지원은 범에게 잡

233)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虎詔佷曰: 日之將夕, 于何取食? (...) 鬻渾曰: 有肉在林. 仁肝義膽, 抱忠懷潔. 戴樂履禮, 口誦百家之言, 心通萬物之理. 名曰碩德之儒, 背蝨體胖, 五味俱存. 虎軒眉垂涎, 仰天而笑曰: 朕聞如何? 佷交薦虎曰: 一陰一陽之謂道, 儒貫之. 五行相生, 六氣相宣, 儒導之. 食之美者無大於此. 虎愀然變色易容而不悅曰: 陰陽者, 一氣之消息也而兩之, 其肉雜也. 五行定位, 未始相生, 乃今強爲子母, 分配醜醜, 其味未純也. 六氣自行, 不待宣導, 乃今妄稱財相, 私顯己功, 其爲食也. 無其硬強滯逆而不順化乎?”

아 먹힌 창귀를 등장시켜 문의 대화→논쟁 대화를 활용해서 사람 가운데 선비가 지닌 기존 관념을 깨뜨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용문에 따르면, 박지원은 육혼의 입을 빌려 ‘사람’ 가운데 가장 맛있는 범의 떡이로 ‘선비’를 추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육혼은 범에게 ‘선비’가 천지(天地)의 도(道)를 꿰뚫고 있는 존재이므로 다른 떡이보다 좋은 떡이라는 주장을 폈다. ‘살덩이가 숲에 있으니 육림’이라는 구절에서는 사림(士林)의 선비를 연상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간담과 인의(仁義), 머리와 발을 예약과 대응시키고 있다는 점 등은 모두 인접성, 관련성을 근거로 한 환유(換喩)적인 표현이다.

이에 대해 범은 육혼이 든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선비’는 천지(天地)의 도(道)를 꿰뚫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며 다른 떡이보다 더 맛이 없는 음식이라고 주장했다. ‘음양오행육기’에 관한 ‘도’가 허위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육혼의 말을 듣고 범이 반박하는 구절에 주목해 보자. 하나인 기를 선비들이 둘로 나누었다고 했다. 음과 양이 둘로 이루어진 별개의 실체라는 입장이 이원론적 주기론자의 입장이다. 하나인 기가 왔다갔다 변화하는 것이 음과 양이라고 범이 반박했다. 음과 양은 하나의 기운이 진퇴하며 나타나는 양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기일원론자의 입장이다. 오행이 상생하며 상극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이원론적 주기론자의 입장이다. 오행은 여러 사물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기일원론자의 입장이다.

박지원이 둘로 대비한 두 세계관을 (1), (2), (3)에 적용하면 육혼의 주장과 범의 주장이 내포하는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주희의 학설인 이원론적 주기론에서는 태극(太極)과 음양(陰陽)을 다르다고 본다. 음과 양 그 자체가 태극이라 한 홍대용이나 박지원의 주장과 대립된다. 주희의 세계관을 (1)에 적용하면, 별도로 존재하는 천도(天道)에 의해 음과 양에 구분을 지었기 때문에 귀천 혹은 선악에 의한 인물지분(人物之分)을 두었다고 한다. (2)에 적용해 보면, 유한한 세계에서 성현이 만든 규범과 제도라는 사회적 질서를 존송해야 마땅하고,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무한한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괴력난신(怪力亂神)이므로 금기의 대상이자 폄하의 대상으로 여긴다. (3)에 적용해 보면, 중화와 이적은 고정불변의 구분이 있어야 하고, 중화가

이적을 교화하거나 이적이 중화를 본받을 수는 있으나 정반대로 이적이 중화를 교화하거나 중화가 이적을 본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런데 홍대용과 박지원은 『의산문답』과 『열하일기』에서 태허(太虛)=일기(一氣)=음양(陰陽)이라면서 음(陰)과 양(陽)이라는 변화 그 자체가 일기(一氣)일 뿐 별도의 일리(一理) 또는 천도(天道)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대용과 박지원에게 (1)에서 다른 생명체, (2)에서 무한의 세계관, (3)에서 이적은 이성적으로는 탐구의 대상이고, 윤리적 측면에서는 존중의 대상이다.

홍대용과 박지원의 세계관을 (1)에 적용하면, 인물무분(人物無分)이므로, 사람과 다른 생명체는 귀와 천, 선과 악 사이를 오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같다. 범이 북쪽 선생을 먹이로 삼는 것은 악이고, 사람이 다른 생명체를 먹이로 삼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논리를 극복하고자 했다.

(2)에 적용해 보면,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무한한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이 본래 지니고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 가운데 하나이다. 무한한 세계라는 대상이 홍대용의 취향이 두드러진 천문 현상이든 박지원의 취향이 두드러진 타국의 문화 현상이든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 실상을 밝히는 데에 힘써야 한다. 천문 현상과 타국의 문화 현상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대상이라는 점에서 홍대용과 박지원에게는 탐구의 대상이었다. 홍대용과 박지원에게 있어 중화 문명의 우주관, 서양의 기독교 문명의 우주관, 한족의 풍습과 제도, 만주족의 풍습과 제도 등은 선인(先人)이나 선배 문인(文人)들이 아직 충분히 해명하지 않은 전인미답(前人未踏)의 탐구 분야였다.

(3)에 적용해 보면, 중화라는 양과 이적이라는 음은 하나인 일기(一氣)가 왔다갔다 변화하는 것이므로, 당·송·명의 중화 문학·종교·제도를 존송하는 데에 머물지 말고, 원·청·양이(洋夷)의 이적 문학·종교·제도를 존중하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특히 청(淸)과 양이(洋夷)를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파악해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존명대의(尊明大義) 이념은 극복 대상이었다.

‘일기지소식(一氣之消息)’이라 한 범의 주장에 내포된 의미는 더 캐내어 의미를 재구성해야 하지만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기로 한다. 그러면 글쓰기 방식 측면에서

어떤 특징이 보이는가? 이원론적 주기론의 입장을 지닌 선비를 대변하는 쪽이 육훈이다. 기일원론의 입장을 지닌 쪽이 범이다.

인용문에 따르면, 범이 육훈의 주장에 반박하는 논쟁 대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이 제기한 문의 대화 장면은 육훈의 추천 장면에서 논쟁대화 장면으로 전환되어 왜 범이 ‘유자악식(儒者惡食)’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지 독자가 납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여기까지는 구성상의 조리가 잘 갖추어진 장면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육훈이 대전제로 삼고 있는 ‘음양오행육기설’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추천받은 큰 덕을 지닌 선비인 북곽 선생을 등장시켜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구성상 조리가 다소 미흡한 면이 드러나는 대목과 대조해 보자. 홍대용의 『의산문답』에서도 인물지본→고금지변으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고금지변에 관한 화제에 관한 허자의 물음이 들어가야 구성상 조리(條理)가 정연하게 되는데, 인물지본과 고금지변 사이의 연결고리를 마련하지 않아 구성상 조리에 비추어 구성상 미흡한 점이 드러난 대목을 앞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호질>에서도 ‘유자악식(儒者惡食)’의 주장과 연장선상에서 북곽 선생을 등장시켜 선비에 대한 본격적인 질타가 나오는 대목은 구성상 조리가 미흡한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호질>에서 범과 북곽 선생이 만나는 장면을 구성할 때 ‘생살선악론(生殺善惡論)’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북곽 선생이 사람이 범보다 선하고, 범이 사람보다 악하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상황 설정이 들어가야 구성상 조리가 맞게 된다. 생살선악론이란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관계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선이고 남의 삶을 유린하는 것이 악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고매한 인품과 학문적 깊이를 지닌 북곽 선생이 과부와 놀아나려다 과부의 아들들에게 들켜 도망치고 우연히 범과 대면하는 상황 설정만 있다. 큰 덕을 가진 선비라는 뜻의 ‘석덕지유(碩德之儒)’를 대표하는 북곽 선생의 역할이 그만큼 미미하다.

우선, 범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에 해당하며 사회악이라 불릴 만한 언행을 북곽 선생이 저질렀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겉으로는 고매한 척하며, 속으로는 윤리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저지른 북곽 선생의 언행에 대해 범은 직

접적으로 문제 삼지도 않았다. <호질>에서도 범과 세 창귀의 만남 장면과 범과 북곽 선생의 만남 장면을 견주어 볼 때, 구성상의 조리와 함께 구성상의 미흡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박지원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든 논거들은 당대 독자의 범위를 넘어서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성찰을 이끌어낼 만한 논거들인데다가 홍대용의 논거와 견주어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범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든 논거들을 들어보자. 북곽 선생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질타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작품 외적 세계의 독자들로부터 공감대를 넓히려는 박지원의 집필 의도가 집약된 대목이다.

- ㉠ 오류를 지키지 못하는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²³⁴⁾
- ㉡ 형벌을 통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도 사회악이 늘고 있다.²³⁵⁾
- ㉢ 사람을 위한 마소의 고생과 정성을 헤아리지 않는다.²³⁶⁾
- ㉣ 범의 음식인 노루와 사슴조차 손을 뻗쳐 범의 끼니를 거르게 만든다.²³⁷⁾
- ㉤ 돈을 형님이라 하고, 장수가 되겠다며 아내를 죽이는 일을 저지른다.²³⁸⁾

234)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네가 말하는 천만 마디 말이 오류를 벗어나지 않고, 남을 훈계하고 권면할 때는 으레 예의염치를 들추어 대지만, 도성의 거리에는 형벌을 받아 코 떨어진 놈, 발뒤꿈치 없는 놈, 이마에 문신을 하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으니, 이들은 모두 오류를 지키지 못한 망나니가 아니더냐.(汝千語萬言, 不離五常, 戒之勸之, 恒在四綱, 然都邑之間, 無鼻無趾, 文面而行者, 皆不遜五品之人也.)”

235)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형벌을 주는 도구인 포승줄과 먹실, 도끼와 톱을 날마다 쓰기에 바빠 겨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악을 막지 못하고 있도다.(然而徽墨斧鉞, 日不暇給, 莫能止其惡焉.)”

23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그렇지만 너희 인간들은 마소 대접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태우고 부러먹는 고생과, 심부름하고 주인을 따르던 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마소를 잡아 푸줏간이 비좁도록 채워 놓고 뿔과 갈기도 남기지 않았다.(而馬牛之有功於汝乎? 然而不有其乘服之勞, 戀效之誠, 日充庖廚, 角鬣不遺.)”

237)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이것도 부족하여 내 양식인 노루와 사슴에까지 손을 뻗쳐, 우리가 산에서도 배를 못 불리고 들에서도 끼니조차 거르게 만들었다.(而乃復侵我之麋鹿, 使我乏食於山, 缺餉於野.)”

238)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심한 놈은 돈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장수가 되겠다고 제 아내조차 죽이는 판인데 삼강오륜을 더 이야기할 나위가 있겠느냐?(甚者, 呼錢爲兄, 求將殺妻, 則不可復論於倫常之道矣?)”

- ㉠ 메뚜기, 누에, 벌, 개미 등 다른 생명체의 삶을 유린하고 있다.²³⁹⁾
- ㉡ 가뭄이나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는다.²⁴⁰⁾
- ㉢ 공덕을 세우고 원수를 갚겠다며 전쟁을 일으켜 백만 사상자를 낸다.²⁴¹⁾
- ㉣ 먹이를 잡는 도구를 발전시켜 화포와 같은 무기를 만들어 악용한다.²⁴²⁾
- ㉤ 붓과 같은 도구를 악용하여 필화(筆禍)를 당한 원혼을 만든다.²⁴³⁾

㉠에서 ㉣까지는 박지원이 범의 입을 빌려 범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은 하나라는 주장²⁴⁴⁾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예증들을 표면에 제시해서, 그것을 논거로 삼아 박지원이 어떤 이면의 생각을 독자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독자가 스스로 알아내도록 암시하는 방법이다.

㉠·㉡에서는 오류와 같은 윤리와 형벌을 운용하는 제도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운용하고 있으나 무력하다고 했다. 그러니 윤리와 제도가 없는 다른 생명체보다 귀하며 선하다고 할 근거가 무너지게 된다. 사람도 천하고, 악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

239)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선과 악으로 구별한다면 공공연히 밭과 개미집을 터는 놈이야말로 천지의 큰 도적놈이 아니겠느냐? 제 마음대로 메뚜기와 누에의 밀천을 훔치는 놈이야말로 인의를 해치는 큰 화적이 아니고 무엇이냐?(自其善惡而辨之, 則公行剽劫於蠶蟻之室者, 獨不爲天地之巨盜乎? 肆然攘竊於蝗蚩之資者, 獨不爲仁義之大賊乎?)”

240)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지난 해 섬서성 관중 지방에 큰 가뭄이 들었을 적에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은 수효가 수 만 명이요, 몇 해 전에 산둥에서 큰 홍수가 났을 때도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은 수효가 수만 명이었다. (去年關中大旱, 民之相食者數萬, 往歲山東大水, 民之相食者數萬.)”

241)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춘추시대에는 덕을 세우겠다고 싸운 전쟁이 열일곱 번이요, 원수 갚는다고 일으킨 전쟁이 서른 번이니, 피가 천 리 사이에 흐르고 널브러진 시신이 백만이나 되었다.(春秋之世, 樹德之兵十七, 報仇之兵三十, 流血千里, 伏屍百萬.)”

242)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너희 인간들이 먹이를 잡는 도구야말로 진경 어질지 못한 것이었다. (...) 한 방만 터뜨리면 소리는 산악을 무너뜨리고 불길을 번쩍번쩍 벼락보다도 더 무서운 화포까지 있다.(不仁哉, 汝之爲食也. (...) 聲隕華嶽, 火洩陰陽, 暴於雷霆.)”

243)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그래도 제 마음대로 포학을 부리기에는 부족하다 하여, 이번에는 부드러운 털을 입으로 빨고 아교풀로 붙여 붓이라는 뾰족한 물건을 만드니 (...) 이놈의 병장기를 한번 휘두르면 온갖 귀신들이 한밤에 통곡하게 된다.(是猶不足以逞其虐焉, 則乃吮柔毫, 合膠爲鋒, (...) 此兵一動, 百鬼夜哭.)”

244)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虎誠惡也, 人性亦惡也. 人性善則, 虎之性亦善也.”; “自天所命而視之, 則虎與人, 乃物之一也.”

㉔·㉕·㉖에서는 다른 생명체는 사람들의 의식(衣食)을 위해 도구 노릇을 하거나 사람들이 사는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다른 생명체가 사는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다른 생명체의 삶의 방식이 모든 생명체가 사는 모범을 보인 사례이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존하는 방식으로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말하려고 했다.

㉗에서는 돈을 물신화하고, 사회적 명예를 위해 가족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지지한다고 했다. 삶의 진실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평가가 역전된다. 돈을 물신화하여 활용하지 않고 사회적 명예에 과도한 가치평가를 매기지 않는 다른 생명체의 삶이, 돈에 지나치게 구속받고 사회적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려고 했다.

㉘·㉙에서는 자연 재해와 사회적 재앙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재해와 재앙에 대처하는 다른 생명체보다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례를 제시했다. 다른 생명체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방식보다 더 큰 가치를 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려 했다.

㉚·㉛에서는 ‘화포’와 ‘붓’이라는 부분으로 ‘무(武)’과 ‘문(文)’이라는 무략(武略) 활동과 문식(文識) 활동이라는 전체를 표현하는 대유법을 활용하여 문무 활동에서 보이는 사회적 폐단 사례를 제시했다.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개발한 도구 활용의 단계에서 사회적 권력을 쟁취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도구를 악용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과 면모가 과연 야만(野蠻)을 극복한 문명(文明)의 가치로서 올바른지를 말하려고 했다. ‘석덕지유’를 대표하는 북곽 선생이 범의 주장을 듣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중요한 논거는 ㉛이다.

“너희 인간들이 먹이를 잡는 도구야말로 진정 어질지 못한 것이렸다.

(…)

그래도 제 마음대로 포악을 부리기에는 부족하다 하여, 이번에는 부드러운 털을 입으로 빨고 아교풀로 붙여 붓이라는 뾰족한 물건을 만드니, 그 모양은 대추씨 같고 길이는 한 치도 안 된다. 이것을 오징어 먹물 같은 시키면 물에 듬뿍 찍어서는 가로 찌르고 모로 찌르면 굵은 놨은 갈고리 창 같고, 날이 난 놨은 식도 같고, 뾰족한 놨은 검 같고, 갈라진 놨은 가지창 같

고, 끝은 놨은 화살 같고, 둥그스레한 놨은 활같이 생겨먹었으니, 이놈의 병장기를 한번 휘두르면 온갖 귀신들이 한밤에 통곡하게 된다. 참혹하게 서로 잡아먹기를 누가 너희 인간들보다 더 심하게 할 것이냐”

북곽 선생은 자리를 옮겨 엎드리고 엉거주춤 절을 두 번 하고는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옛글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하면 하늘도 섬길 수 있다.’라고 했으니 인간 세상 친한 사람에게 범님의 가르침을 감히 받들겠습니다.”

하고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들어 보나, 오래도록 범의 분부가 없었다. 두렵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며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 살펴보니, 날이 밝았고 범은 이미 가고 없었다.

아침에 감을 매려 가는 농부가 있어서,

“북곽 선생께서 어찌하여 이른 아침부터 들뜬에 절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북곽 선생이 대꾸하길,

“내가 『시경』에 있는 말을 들었으니, ‘하늘이 높다 이르지만 감히 등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두텁다 이르지만 살금살금 걷지 않을 수 없네.’ 하였다네.”²⁴⁵⁾

홍대용과 박지원은 논증을 하는 추론 방법 면에서 볼 때 유추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사람과 다른 생명체가 다 같이 삶을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쪽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른 대상도 지니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용문에서 홍대용의 논거 활용 사례와 차이 점이 드러난다. 홍대용은 다른 생명체도 사람과 같은 자연의 일부이며, 탄생·성장의 과정을 겪고, 지(知)나 각(覺)을 지니며, 예의와 문물제도와 상응하는 삶의 행동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논거들을 제시했다. 이와 달리 박지원은 범의 입을 빌려 범의 성품이 악하다면 사람의 성품 역시 악하며,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면 범의 성품 역시 선하다는 점에서 범과 사람은 천명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생명체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같다고 했다.²⁴⁶⁾ 그러면서 든 논거들로는 사람이 다른 생명체보다 더 심한 악행을 저

245)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義不可勝用也, 不仁哉. (….) 是猶不足以逞其虐焉, 則乃吮柔毫, 合膠爲鋒, 體如棗心, 長不盈寸. 淬以烏賊之沫, 縱橫擊刺, 曲者如矛, 銛者如刀, 銳者如鈞, 歧者如戟, 直者如矢, 彀者如弓, 此兵一動, 百鬼夜哭. 其相食之酷, 孰甚於汝乎? 北郭先生離席俯伏, 逡巡再拜, 頓首頓首曰: 傳有之, 雖有惡人, 齋戒沐浴, 則可以事上帝, 下土賤臣, 敢在下風. 屏息潛聽, 久無所命, 誠惶誠恐, 拜手稽首, 仰而視之, 東方明矣, 虎則已去. 農夫有朝菑者問: 先生何早敬於野? 北郭先生曰: 吾聞之, 謂天蓋高, 不敢不局, 謂地蓋厚, 不敢不踣.”

지르고 있다는 논거들을 제시했다. 또한 박지원은 새로운 인물인 농부를 등장시켜 범 앞에서 보인 북곽 선생의 반성과 성찰이 고식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풍자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홍대용과 박지원의 글쓰기 방식이 지닌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주제의식을 구현하기 위한 논증의 활용 측면이다. 동일한 대상을 놓고,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례로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관계’를 다룬 장면을 선택해 이것저것 예증으로 드는 산만한 논의를 피하고자 했다. 홍대용이 사람과 다른 생명체는 귀천의 등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든 논거들을 검토한 결과, 사람이 지닌 특징을 다른 생명체도 지니고 있다는 논거, 다른 생명체가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토대라는 논거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귀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다른 생명체의 가치를 사람의 지위에까지 끌어올리려는 홍대용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홍대용의 논증 활용이 지닌 특징은 귀한 쪽은 그대로 두고, 천한 쪽을 귀한 쪽으로 상향평준화해 숭고미를 구현하려 했다는 점이다.

반면 박지원이 사람과 다른 생명체는 선악의 등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든 논거들을 검토한 결과, 사람이 다른 생명체의 삶을 유린하고 있다는 논거, 사람이 스스로 사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논거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생명체는 악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사람의 가치를 다른 생명체의 지위에까지 끌어내리려는 박지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박지원의 논증 활용이 지닌 특징은 악한 쪽은 그대로 두고, 선한 쪽을 악한 쪽으로 하향평준화해 풍자미를 구현하려 했다는 점이다.

24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二 別集 『熱河日記』, 「關內程史」, <虎叱>, “虎誠惡也, 人性亦惡也. 人性善則, 虎之性亦善也.”; “自天所命而視之, 則虎與人, 乃物之一也.”

2. 내외론과 점외론

기존의 논의에서는 홍대용과 박지원을 북학파(北學派)로 분류하여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사상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동질성만을 강조할 경우 개별적으로 이론 독자적인 성과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론을 제기한 논의가 있어왔다. 따라서 홍대용과 박지원 문학정신이 지닌 특성과 특성의 이면에 내재해 있는 문학정신의 동질적 기반에 관한 포괄적이고 심화된 논의가 선결과제이다.²⁴⁷⁾ 필자는 II장에서 III장까지 그들이 이론 독자적인 성과에 초점을 두고, 개별적이며 단계적인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고찰 결과를 근거로 하여 홍대용·박지원의 글쓰기에 나타난 작가정신이 지닌 특징을 논의한다. 이어서 홍대용·박지원의 글쓰기에 나타난 작가정신의 동질성을 논의한다. 비판적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대외 체험을 통해 자국의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민(民)과 국(國)의 역동적 활성화를 지향하려 했던 점을 부각하려 한다.

18세기 후반 조선에서는 선비가 해야 할 일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조선 중화주의 이념이 문제였다. 성현이 만든 중화와 이적의 구분에 뿌리를 둔 중화사상의 구현이 선비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라고 하면서 선비의 삶을 통제하려 들었다. 당시 대외 교류 문제에 관한 조정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을 들어보자. 『의산문답』과 『열하일기』가 집필된 후인 몇 해가 지난 후인 1786년 음력 1월 22일 조정(朝廷)의 입장이다.

1. 신하는 사적으로 외국과 교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옛사람이 한 말이다. 비록 열국이 서로 빙문하던 때에도 오히려 그르게 여겼다. 더구나 지금은 양국이 조약을 맺은 것이 엄명할 뿐만이 아니어서 칙사가 나왔을 때에 사신에 관한 일 외에는 일찍이 얼굴을 대하고 얘기한 적

247) 박희병, 『범애와 평등-홍대용의 사회사상』, 돌베개, 2013, pp.208-210에 있는 주 22번과 주 25번에서 박희병은 담헌과 연암, 그리고 조정의 북학론 사이에 어떤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한편으로는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따로’ 파악하는 태도가 요청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담헌과 연암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암의 사유가 담헌에게로 간 것이라기보다, 담헌의 사유가 연암에게로 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사행이 저 나라에 도착했을 때에 군관과 서기 등 여러 사람 중에 혹 조금이라도 저 나라의 문자를 아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저 나라 사람을 찾아 방문하는 것을 고상한 일로 여겨 혹 필담을 나누기도 하고 혹 시를 주고받기도 하며 심지어 시고(詩稿)의 발문을 요구하여 얻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온 뒤에는 반드시 사행이나 역행(曆行) 편에 서찰을 왕복하고 저들은 향이나 차를 선물로 보내오고 이쪽에서는 종이나 붓을 선물로 보내며, 말할 때에 나라의 기휘를 가리지 않고, 선물을 보내는 것이 거의 예물을 보내는 것과 같다. 잘못된 일을 서로 본받아 점점 습속이 되니 일이 사리에 어긋나고 양국 간에 사단이 생길까 염려된다. 그리고 서적은 문헌을 증빙하고 전례를 상고하는 도리상 중국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으나 명교(名敎) 가운데에 절로 즐거움이 있고 이단은 심술을 망치기 쉬우니, 방대한 오거서(五車書)를 갖추면서 어찌 구입해야 할 것과 구입해서는 안 될 것이 없겠는가. 그런데 근년 들어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병폐는 더욱 심해지고 실제에 힘쓰는 풍조는 점점 쇠해지고 있다. 우리 유가의 절대적으로 필요한[菽粟] 글을 버리고 저 이단[左道]의 궤박한 책을 취하여 비싼 값으로 몰래 사서 반드시 내오고 마니, 이러한데도 금하지 않으면 세도를 그르치고 정학(正學)을 해치는 것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앞으로는 한결같이 대계(臺啓)에 따라 별도로 사목을 만들어 금지하는 조항에 첨가해 넣어 삼가 준수하고 엄히 금할 수 있게 하라.²⁴⁸⁾

정조는 조선의 선비와 중국의 선비가 사행을 통해 필담을 나누고 교우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자제군관 자격으로 사행을 떠난 홍대용처럼 북경에서 한족 사대부와 필담을 나누고 귀국 후 한족 사대부와 사적인 시간을 주고받으며 학문적인 교류를 지속하는 행위를 ‘호기지벽(好奇之癖)’이라 규정하였다. 또한 정학(正學)과 이단(異端)의 엄격한 구분을 허물고 공관병수(公觀併受) 즉 공정한 마음으로 다른 사상의 장점을 두루 취하려고 보는 서적들을 ‘좌도벽계지서(左道僻詭之書)’라 규정하였다. 마침내 정조는 홍대용과 박지원의 연행 이후 부정적인 대청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자 ‘이러한 지경인데도 금하지 않으면 세도를 그르치고 정학

248) 『日省錄』, 正祖 十年 一月 二十二日, “一, 人臣無外交, 古人有言, 雖在列國交聘之時, 猶且非之. 況今兩國約條, 不啻嚴明, 勅行出來之日, 使事外曾無接面打話之事. 至於我國人則不然, 使行到彼時, 軍官書記諸人中, 或有稍解文字者, 則必以尋訪彼人爲高致, 或筆談或唱和, 甚至於求得詩稿弁首之文. 及其出來之後, 必因使行曆行, 往復書札, 彼以香茶, 此以楮管, 語言不擇於忌諱, 贈遺殆同於饋問. 互相效尤, 轉輒成習, 事屬乖當, 慮在生釁. 至若書籍, 則徵文獻考典禮之道, 不得不資於中國, 而名敎自有樂地, 異端易壞心術, 則許大五車之藏, 豈無當購不當購者? 而挽近以來, 好奇之癖益滋, 務實之風漸衰. 捨此吾儒菽粟之文, 取彼左道僻詭之書, 高價潛貿, 必出乃已, 此而不禁, 其爲乖世道而害正學, 容有極哉? 此後, 并一依臺啓, 別爲事目, 添入禁條, 以爲恪遵痛禁之地.”

을 해치는 것'이 끝이 없을 것 같아 금령(禁令)을 반포(頒布)하기까지 하였다.

1. 위 항의 여러 조목을 매 사행 때마다 본사에서 사전에 효유하여 한 사람도 모르는 폐단이 없게 하고,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발각되는 대로 금령을 무릅쓰고 범한 형률을 적용하여 서장관이 압록강을 건너온 뒤에 장문하여 논감하게 하라. 서찰이나 선물을 주선해서 전해 주는 것은 곧 역관들의 소행이다. 수색할 때에 상사(上使)와 부사(副使)의 소속을 막론하고 발각하지 못했다가 다른 경로로 발각되면 일체 논책하고, 서장관의 소속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등급을 더해서 감죄하라.

1. 사행의 일과 관계되는 일로서 주선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은 세 사신이 상의해서 잘 처리하고 조정에 돌아온 뒤에 사정을 조목조목 진달하라.

1. 각각 그 소속이 죄를 범하면 해당 사신은 논책하고, 수색할 때에 발각될 경우 세 사신을 논죄하는 등의 절목을 한결같이 위 항목의 조건에 따라 시행하라.

1. 반부(灣府)에서 수색할 때 만약 점검하지 못하고 위 항목의 금지하는 물건을 몰래 사서 가지고 나왔다가 뒤에 발각되는 일이 있으면 해당 의주 부윤(義州府尹)을 엄하게 논감하라.²⁴⁹⁾

압록강을 건넌 뒤부터 물화를 교역하고 비용을 수수하는 행위 이외에는 청나라 사람들과 친밀히 왕래하지 못하도록 명하였다.²⁵⁰⁾ 특히 자제군관과 서기의 언행은 사신들이 더욱 주의 깊게 살피도록 당부하였다. 필담을 나누거나 시를 주고받는 행위 또한 엄금하였다.²⁵¹⁾ 필담을 나누거나 시를 주고받는 행위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사대

249) 『日省錄』, 正祖 十年 一月 二十二日, “一, 上項諸條, 每使行時, 自本司先期曉諭, 俾無一人不知之弊, 而如有犯者, 隨其現發, 以冒禁律, 書狀官還渡江後, 狀聞論劾. 書札贈遺之居間相傳者, 卽是譯舌輩所爲. 搜驗毋論上副使所屬, 朦不覺察而從他現發, 則一體論責, 書狀官所屬有所犯科, 則加等劾罪. 一, 關係使事, 不得不周旋者, 三使臣商議善處, 還朝後, 條陳事情. 一, 各其所屬犯科, 當該使臣論責, 及搜驗時現發, 三使臣論罪等節, 一依右項條件施行. 一, 灣府搜驗時, 如不照管, 致有各項禁物潛買出來從後現發之事, 則當該義州府尹, 從重論劾.”

250) 『日省錄』, 正祖 十年 一月 二十二日, “1. 사행이 압록강을 건너간 뒤에 일행 중의 군관·서기를 단속해서 물화를 교역하고 비용을 주고받는 것 외에는 저 사람들과 친밀히 왕래하지 못하게 해서 방한(防閑)을 보존하라.(一, 使臣渡江後, 約束一行中軍官書記, 凡係物貨交易盤纏與受外, 毋得與彼人親昵往來, 以存防閑.)”

251) 『日省錄』, 正祖 十年 一月 二十二日, “1. 필담을 나누고 시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달리 금령이 없는 것은 대체로 국경을 나가는 사행 편을 통해 이웃나라의 정세를 엿보려는 의도에서이다. 그런데 근래에 저 나라의 물정은 알 길이 없고 우리나라의 일은 도리어 노출된다는 탄식이 있다. 사단을 일으킨다는 것이 비록 지나친 우려인 듯하지만, 작은 일부터 막아서 먼 앞날을 염려해야 하므로 이 일부터 시작하여 먼저 금단하라.(一, 筆談唱和, 別無禁

교린국의 정세를 엿보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어야 했다. 박지원이 필담을 나눈 후 필담의례에 해당하는 「심세편」에 천하정세를 엿보기 위한 필담이었다고 밝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독자 가운데 정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조는 청나라나 일본의 정세를 엿보려다 조선의 정세를 노출될 것을 더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필담과 수창시 수수 행위를 금기 사항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사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귀국 후 서찰로 문안하고 토산물을 선물하는 행위 또한 막았다.²⁵²⁾ 정도(正道)에 어긋나는 패관소품 서점을 들여오는 일도 형률로 다스리려 하였다.²⁵³⁾

한편, 중화 중심주의의 지배이념이 홍대용과 박지원이 추구하고자 했던 대외에 대한 존중과 탐구 정신을 억압하려 들어 홍대용과 박지원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을 제외한 이웃 나라를 이적시하는 이념과 규제를 무릅쓰고 『의산문답』과 『열하일기』를 통해 반론을 하여 홍대용과 박지원은 대외에 대한 존중의식과 대외에 대한 탐구의식을 공유하는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홍대용의 『의산문답』에 나타난 ‘내외론(內外論)’과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타난 ‘점외론(覘外論)’은 공통적으로 청나라를 바라보는 조선 사대부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반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에 관한 논의는 미진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 절에서 『의산문답』에 나타난 ‘내외론’과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타난 ‘점외론’에 초점을 맞추어 홍대용·박지원의 글쓰기에 나타난

防者，蓋因出疆之使，庸寓覘國之意。而挽近以來，彼中物情既無知得之路，我國事務反有透露之歎。生釁雖若過憂，防微宜存遠慮，此事爲始，先加禁斷。”

252) 『日省錄』, 正祖 十年 一月 二十二日, “1. 서찰로 문안하고 토산물을 선물하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간에 교제할 때에 옛날을 얘기하며 정분을 나누는 일이다. 그러나 양국의 사람들이 마침 사행이 왕래하는 것으로 인하여 비록 잠시 수작했다고 하더라도 나온 뒤까지 무슨 정이 있다고 안부를 묻고 선물을 보내기를 평소에 친한 사람처럼 한단 말인가. 나라의 금령을 어기고 사체를 그르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앞으로는 각별히 금단하여 범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하라.(一, 書札問訊, 土產贈遺, 自是我人交際間, 道舊敘情之事, 而兩國之人, 適因使行往還, 雖或暫時酬接, 出來之後, 情於何有, 而問訊贈遺, 便若親素者? 其違邦禁而乖事面, 當如何哉? 此後, 另加禁斷, 俾勿犯科.)”

253) 『日省錄』, 正祖 十年 一月 二十二日, “1. 무릇 서적에 관계되는 것은 경(經)·사(史)·자(子)·집(集)으로서 늘 있는 것이고 응당 비축해야 할 것 외에 정도에 어긋나거나 요망한 이단과 관계된 것은 일절 엄히 금하라. 역관이나 세 사신의 소속을 막론하고 만약 몰래 사 오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불사르고, 범한 자는 금지하는 물건을 몰래 산 형률로 논죄 하라.(一, 凡係書籍, 經史子集之所可常有而應蓄者外, 涉於左道不經, 異端妖誕之書, 一切嚴防, 而毋論譯官及三使臣所屬, 如有潛質之舉, 有所現發, 則卽其地燒火, 犯者, 以禁物潛買律論.)”

작가정신이 지닌 특징을 도출하고, 박지원의 ‘점외론’을 근거로 허생과 박지원을 동일 시하여 실천적 조선중화주의자로 볼 수 있는지 논의하려고 한다.²⁵⁴⁾

먼저, 홍대용의 『의산문답』에서 ‘내외론(內外論)’을 표명하고 있는 구절과과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 ‘점외론(覘外論)’을 표명하고 있는 구절을 들어보자.

㉔ “하늘이 내고 땅이 길러주는, 무릇 혈기가 있는 자는 모두 이 사람이다. 여럿 가운데 뛰어나 한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자는 모두 이 임금이다. 문을 거듭 만들고 해자를 깊이 파서 강토를 조심하여 지키는 것은 다 같은 국가이다. 장보이건 위모건 문신이건 조계건 간에 다 같은 자기들의 풍습이다. 하늘에서 본다면 내외의 구분이 어찌 있겠는가? 그러므로 각각 제 나라 사람을 친하고 제 임금을 높이며 제 나라를 지키고 제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가 한가지다. 대저 천지의 변함에 따라 인물이 많아지고 인물이 많아짐에 따라 물아(物我)가 나타나고 물아가 나타나며 따라 내외(內外)가 구분된다. 장부와 지절은 한 몸뚱이의 내외이다. 자신의 사지(四肢)와 처자는 한 집안의 내외이다. 형제와 종당(宗黨)은 한 문중의 내외이다. 이웃 마을과 네 변두리[四境]는 한 나라의 내외이다. 법이 같은 제후국과 왕화가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는 천지의 내외이다. 무릇 자기의 것이 아닌데 취하는 것을 도(盜)라 하고, 죄가 아닌데 죽이는 것을 적(賊)이라 하며, 사이(四夷)로서 중국을 침노하는 것을 ‘구(寇)라 하고, 중국으로서 사이를 번거롭게 치는 것을 ‘적(賊)이라 한다. 서로 구(寇)하고 서로 적(賊)하는 것은 그 뜻이 한 가지다.”²⁵⁵⁾

㉕ “대체로 대의(大義)를 온 천하에 외치고자 한다면, 첫째 천하의 호걸을 먼저 사귀어 맺어야 할 것이다. 남의 나라를 치고자 한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고서는 이룩하지 못하는 법이다. 이제 만주(滿洲) 청(淸)이 갑자기 천하를 맡아서 제 아직 중국 사람과는 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판 아닌가. 그럴 즈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술선적으로 행복하였으니 저편에서는 가장 우리를 믿어 줄 만한 사정이 아닌가. 이제 곧 그들에게 청하기를, 우리 자제들을 귀국에 보내어 학문도 배우려

254) 박희병, 같은 책, pp.227-228에서는 연암과 초정의 ‘북학론’은 담헌 사유의 어떤 계기를 원용해 창안한 것으로 보고, 담헌 사상의 핵심은 대내외 관계에 있어서 ‘평등’으로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담헌은 급진 좌파에 해당하며, 박지원과 박제가 간에 또 얼마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중도 좌파에 해당할 것이라 평가했다.

255)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天之所生, 地之所養, 凡有血氣, 均是人也. 出類拔華, 制治一方, 均是君王也. 重門深濠, 謹守封疆, 均是邦國也. 章甫委貌, 文身雕題, 均是習俗也. 自天視之, 豈有內外之分哉? 是以各親其人, 各尊其君, 各守其國, 各安其俗, 華夷一也. 夫天地變而人物繁, 人物繁而物我形, 物我形而內外分, 臟腑之於肢節, 一身之內外也. 四體之於妻子, 一室之內外也. 兄弟之於宗黨, 一門之內外也. 里之於四境, 一國之內外也. 同軌之於化外, 天地之內外也. 夫非其有而取之謂之盜, 非其罪而殺之謂之賊, 四夷侵疆, 中國謂之寇, 中國瀆武, 四夷謂之賊, 相寇相賊, 其義一也.”

니와 벼슬도 하여 옛날 당(唐)·원(元)의 고사(故事)를 본받고, 나아가 장사치들의 출입까지도 금하지 말아 달라 하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친절을 달게 여겨서 환영할 터이다. 그제야 국내의 자제를 가려 뽑아서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지식층(知識層)은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고, 세민(細民)들은 멀리 강남(江南)에 장사로 스며들어 그들의 모든 허실(虛實)을 엿보며, 그들의 호걸(豪傑)을 체결(締結)하고선 그제야 천하의 일을 꾀함직하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임금을 세우되 주씨(朱氏)를 물색(物色)해도 나서지 않는다면 천하의 제후(諸侯)들을 거느려 사람을 하늘에 추천한다면, 우리나라는 잘되면 대국(大國)의 스승 노릇을 할 것이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백구(伯舅)의 나라는 무난할 게 아닌가.”²⁵⁶⁾

㉠에서 홍대용이 중화와 이적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든 논거들을 검토해 보자. 이적의 나라에도 중화의 나라와 다를 바 없이 백성·임금·국가·풍습이 있다는 논거, 이적의 나라에서도 자기가 속한 쪽의 백성·임금·국가·풍습을 존중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거, 중화와 이적의 관계는 장부와 지절·남편과 처자처럼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에 비유된다는 논거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화의 나라가 존중받을 만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이적의 나라의 가치를 중화의 나라의 지위에까지 끌어올리려는 홍대용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홍대용은 중화의 가치가 높다고 여기는 쪽이 스스로 높게 여기도록 그대로 두고 이적의 나라 사람들도 중화의 나라 사람들과 동일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상향평준화해 숭고미를 구현하려 했다.

또한 홍대용은 중화와 이적의 관계가 내외의 차이만 있을 뿐 우열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쪽을 중화로 여기고 외국을 이적으로 여기는 점은 두 나라가 같기 때문에 청나라가 조선을 이적으로 볼 수도 조선이 청나라를 이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나라 사이에 적대 관계가 형성되어 한쪽이 다른 쪽을 공격해 승패를 나누는 다툼을 벌이려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소속되어

256) 朴趾源, 『燕巖集』 卷之十四 別集 『熱河日記』, 「玉匣夜話」, “夫欲聲大義於天下而不先交結天下之豪傑者, 未之有也. 欲伐人之國而不先用謀, 未有能成者也. 今滿洲遽而主天下, 自以不親於中國, 而朝鮮率先他國而服, 彼所信也. 誠能請遣子弟入學遊宦, 如唐元故事. 商賈出入不禁, 彼必喜其見親而許之. 妙選國中之子弟, 薙髮胡服, 其君子往赴賓舉, 其小人遠商江南, 覘其虛實, 結其豪傑, 天下可圖而國恥可雪. 若求朱氏而不得率天下諸侯, 薦人於天, 進可爲大國師, 退不失伯舅之國矣.”

있는 쪽을 옹호하려는 관점을 고수하는 것은 보편적인 관점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려 했다.

홍대용의 내외론은 청나라에 사는 선비든 조선에 사는 선비든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여 자국만을 옹호하고 외국에 배타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장면이 지니고 의미를 풀이하면 홍대용은 중화와 이적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두 나라가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임을 천명한 것이 된다. 청나라의 실상을 알기 위한 대외 체험을 한 뒤에 홍대용은 우호적인 교류를 통한 화합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두 나라 사이에 상생의 필요성을 부각하여 대외 인식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㉔에서 박지원은 중화와 이적의 관계는 우열의 차별이 있다고 했다. 이적의 나라가 된 청나라나 중화의 나라가 된 조선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는 표리가 달라 표면적으로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우호 관계이다. 이면적으로는 적대 의식과 차별 의식이 엄존하는 적대 관계이다. 한쪽이 다른 쪽을 공격하여 승패를 나누는 다툼을 벌이려는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상대의 허실을 파악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에게 다가가 살피야 한다고 했다. 적을 살피지 않고 승리를 거둘 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승패를 나누는 다툼의 도달점은 이적의 나라가 된 중국을 중화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중화주의 이념을 구현하게 하는 데에 있다.

박지원의 점외론은 중화주의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자국이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화주의 이념을 실행하는 방식과 실천 측면에서 미흡한 면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장면이 지니고 의미를 풀이하면 박지원은 중화와 이적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승패를 나누는 다툼을 벌여 중화에 속하는 쪽이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당위성을 천명한 것이 된다. 청나라의 실상을 알기 위한 대외 체험을 한 뒤에 박지원은 적대국의 동태 파악을 위한 실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상극의 필요성을 부각하여 대외 실천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는 의문점은 박지원은 대외 실천의 개혁론인 ‘점외론’에 나타난 것처럼 화이의 구분을 수용하는 실천 지향의 조선 중화주의자였을까? 하는 점이다.

박지원은 <호질> 끝 장면에서 농부를 등장시켜 범 앞에서 보인 북곽 선생의 반성과 성찰이 고식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풍자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허생전> 끝 장면에서도 허생의 ‘점외론’을 듣고 난 이완이 수용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분노를 표출하고는 다음날 집을 떠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이완의 북벌 실행 의지가 허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풍자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박지원은 <호질>에서 사람과 다른 생명체는 선악의 등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사람이 다른 생명체의 삶을 유린하고 있다는 논거, 사람이 스스로 사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논거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생명체는 악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사람의 가치를 다른 생명체의 지위에까지 끌어내리려는 박지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고, 악한 쪽은 그대로 두고 선한 쪽을 악한 쪽으로 하향평준화해 풍자미를 구현하려 했다고 보았다.

<허생전>에서도 조선이 청나라와 승패를 나누는 다툼을 벌여 중화의 이념을 회복하려는 실행 의지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든 논거들을 검토해 보면 명나라를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중화의 나라 조선에서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있다는 논거, 명나라 출신 귀화인을 방치하고 있다는 논거, 청나라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미숙하다는 논거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대외 물자 교역의 폭이 좁아 거상(巨商)들의 독과점 조장을 허용하고 있다는 논거,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유랑하다가 군도(群盜)가 되고 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논거 등등은 명나라를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중화의 나라 조선이 처한 부정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나라는 이적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조선 중화주의의 가치를 이적의 나라 청나라의 지위와 그리 다를 바 없어 중화를 지향하는 조선의 지위를 끌어내리려는 박지원의 의도를 보여 준다. 적대시하는 쪽인 이적의 나라 청나라는 폄하하거나 멸시하는 입장인 것처럼 그대로 두고 명나라를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중화의 나라 조선 즉 존숭한 쪽을 적대시하는 쪽과 함께 하향평준화해 풍자미를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점외론’의 서술층위 이면에는 화이지분의 부정정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홍대용·박지원의 글쓰기에 나타난 작가정신 비교 연구는 두 작가의 글쓰기 특성과 함께 동질성 또한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연구 방향이므로 각자의 특성 이면의 기반인 공통점은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국이 고수하는 중화주의 이념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대외 체험을 통해 현실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과 국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발현하게 하여 역동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의 논의 방향은 홍대용·박지원이 공유하고 있는 작가정신의 공통 기반을 『담헌서』·『연암집』 등으로 확대하여 찾아보는 방법을 취한다. 특히 (가) 비판적인 현실인식, (나) 대외 체험을 통해 자국의 개혁 방향 모색, (다) 민(民)과 국(國)의 역동적 활성화 지향 등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가) 홍대용과 박지원은 18세기 후반 조선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의론지가(議論之家)로 보면 노론이며, 명분지가(名分之家)로 보면 문반인 홍대용은 1765년과 1766년에 걸친 연행 이후로 사람이 변해 돌아왔다. 어떻게 변했다는 것인가?

정주학은 정학(正學)이고, 나머지 학문은 이단(異端)이라는 구분이 엄격한 점이 조선의 상황이었다. 조선은 지리적으로는 이적이나, 문화적 중화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였다. 반면 청나라는 지리적으로는 중화이나, 문화적으로는 이적의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는 뜻이다. 홍대용의 이러한 비판적 현실 인식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1) 『일동조아』 발문 (2) 『항전척독』 (3) 『의산문답』을 논거로 들어 사고전환의 변화과정을 추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1) 연행 이후 청나라 한족 사대부와의 진정한 사귀는 홍대용으로 하여금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아직 사귀어보지 않은 일본인 학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까지 갖추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긍정적인 시각은 1763년 일본통신사행을 다녀온 원중거의 저서에 발문을 써준 구절에 드러난다. 일본문인과 수창한 시문을 엮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동조아(日東藻雅)』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일본 통신사행 수창집(酬唱錄)이다.

저 이토우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와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의 학설은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요체만은 몸을 닦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다. 그들도 또한 성인의 무리이다. 그들의 학설대로 다스린다 하더라도 또한 옳지 않겠는가?

더구나 망령되게 성명(性命)이나 논하고 한가로이 불로(佛老)를 배척하며, 참다움을 꾸미고 거짓을 파는 것은 우리의 학문에 이익이 없다. 어찌 저 돌피 따위의 익음으로 오히려 죽히 흉년을 구제할 수 있는 것과 같겠는가?

현옹(玄翁) 원중거의 학설, ‘정학(正學)을 밝히고 사설(邪說)을 없앤다.’는 것은 급선무라고는 할 수 없다.²⁵⁷⁾

(2) 정학을 옹호하고, 이단을 배격하는 18세기 조선의 주류 학문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홍대용은 일본의 학술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청나라 한족 사대부 손용주(孫蓉洲)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좀 더 나아가 이단의 학문이라 일컫는 것들의 장점을 보기 시작해서 이단 옹호론으로 발전했다. 양주학파의 개인주의[爲我]는 맑고 고아(高雅)하다, 목적학파의 겸애(兼愛)와 근검(勤儉), 그리고 절용(節用)은 세상의 급박한 사정에 대비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등등 이단의 학문이 지닌 장점을 보아가며 상대적인 평가를 매겼다.

그러더니 이단의 학문이 행해진다고 해서 세상에 손해될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고, 세상의 속된 선비들이 자칭 정학(正學)이라고 소리치면서 그저 옛 자취만을 고식적으로 기대어 본뜨고, 마침내 아무런 실용이 없는 결과에 이르는 실태를 비판했다. 홍대용은 정학과 이단의 관계 설정 문제를 놓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단의 학문이 비록 여러 가지 있으나, 마음을 맑게 하고 세상을 구제하여,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데로 돌아감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고, 저들이 옳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찌 흠이 되겠습니까?

가지런히 하기 어려운 것은 物인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가장 심하니, 사람마다 각각 좋아하여 숭상하는 것이 따로 있는 법입니다. 그 누가 능히 이것을 하나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각각 그 옳을 닦고 각각 그 능한 점을 다하여 나를 버리고 풍속을 좋하게 하기를 목

257)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三, 「日東藻雅跋」, “然彼伊物之學, 雖未詳其說, 要以修身而濟民, 則是亦聖人之徒也. 因其學而治之, 不亦可乎? 況妄談性命, 漫關佛老, 假眞售僞, 莫利於吾學, 豈若彼稊稂之熟, 猶足以救荒歟. 玄翁之明正學息邪說, 不可謂急先務也.”

표로 한다면 대동(大同)하는 데에 어찌 해가 되겠습니까?²⁵⁸⁾

(3) 정학과 이단을 균등하게 놓고 정학의 폐단과 이단의 이점을 들어가며, 이단을 옹호하는 단계를 거쳐 『의산문답』에 이르게 되면, 이학(理學)의 존립 기반인 ‘이(理)’에 관한 개념을 다시 규정하면서, 서학의 ‘지구설’을 옹호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대용은 근래에 서양의 어떤 지역에서 주장하는 ‘지구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옛 상식에만 안주하여 옛 상식을 익히는 데에만 편히 여길 뿐 고찰을 통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치를 평생 동안 탐구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²⁵⁹⁾

이 단계에 이른 홍대용은 ‘이(理)’는 초월적이고 선형적이며 불변의 총체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理)’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이고 경험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제인 기(氣)의 조리(條理)일 뿐이었다. 따라서 이치는 성현의 말씀 자체를 전제로 이미 밝혀진 진리가 아니라, 서양 어떤 나라의 어떤 서양인이 발견한 ‘지구설’처럼 어디에서든 누군가가 계속 발견해야 할 무엇이라 여겼다.

한편 홍대용이 박지원을 위해 쓴 서문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홍대용을 위해 쓴 박지원의 서문이 있다. 이 서문을 통해 이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18세기 후반 조선에 대한 비판적 현실 인식을 가늠하기 위한 중요한 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자료는 『회우록』 序 일부이다. 『회우록(會友錄)』은 홍대용의 『을병연행록』이나 『연기』와 함께 18세기 후반, 조·중 문인 간의 교류의 실상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문헌으로 19세기까지 이어진 조·중 문인 간 교류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만한 자료이다. 『회우록(會友錄)』을 읽고 난 뒤 쓴 박지원의 서문을 보자.

㉔ 우리나라 36도(都)의 땅을 돌아보면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임하여 바닷물이 하늘과

258)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一, 『杭傳尺牘』, 「與孫蓉洲書」, “是以異學雖多端, 其澄心救世, 要歸於修己治人則一也. 在我則從吾所好, 在彼則與其爲善, 顧何傷乎? 難齊者物而心爲甚, 人各有好尚, 孰能一之? 然則各修其善, 各效其能, 要以祛私而善俗, 則何害於大同乎?”

259)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醫山問答』, “世之人, 安於故常, 習而不察, 理在目前, 不曾推索, 終身戴履, 昧其情狀, 惟西洋一域, 慧術精詳, 測量該悉, 地球之說, 更無餘疑.”

더불어 끝이 없고 이름난 산과 큰 멧부리들이 그 중앙에 서리어 있어, 들판은 백 리가 트이어 있는 곳이 드물고 고을은 천 호가 모여 있는 곳이 없으니 그 지역 자체가 벌써 편협하다 하겠다.

㉔ 그런데 옛날의 이른바 양(楊)·묵(墨)·노(老)·불(佛)이 아닌데도 의론의 유파가 넷이며, 옛날의 이른바 사(士)·농(農)·공(工)·상(商)이 아닌데도 명분의 유파가 넷이다. 이것은 단지 숭상하는 바가 동일하지 않을 뿐인데도 의론이 서로 부딪치다 보니 진(秦)과 월(越)의 거리보다 멀어진 것이요, 단지 처한 바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도 명분이 비교하고 따지는 사이에 화(華)와 이(夷)의 구분보다 엄하게 된 것이다.

㉕ 그리하여 형적이 드러남을 꺼려서 서로 소문은 들으면서도 알고 지내지 못하며, 신분상의 위엄에 구애되어 서로 교류를 하면서도 감히 벗으로 사귀지는 못한다. 마을도 같고 종족도 같고 언어와 의관(衣冠)도 나와 다른 것이 극히 적은데도, 서로 알고 지내지 않으니 혼인이 이루어지겠으며, 감히 벗도 못 하는데 함께 도를 도모하겠는가? 이러한 몇몇 유파가 아득한 수백 년 동안 진과 월, 화와 이처럼 서로 대하면서 집을 나란히 하고 담을 잇대어 살고 있으니, 그 습속이 또 어찌 그리도 편협한가! 260)

㉖에서는 마지막 문장인 ‘기위지야역이협의(其爲地也亦已狹矣)’라는 구절이 주목된다. 지리적 중화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조선 사대부들은 광활한 영토를 지녔던 중국을 중심으로 번두리에 위치한 이적(夷狄)의 땅 가운데 하나가 ‘조선’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명이 망하고 청이 들어서서,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하던 시절로 바뀌자, 명의 제도와 문물을 고스란히 계승한 문화적 중화주의를 모색하고 있었으나, 지리적 중화주의 인식은 여전히 지니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중화주의의 극복 논리 개발은 홍대용이 가장 앞섰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중국이나 서양 각국, 러시아와 캄보디아를 예증으로 삼아 자기 쪽을 기준으로 정계로 삼고 다른 지역은 횡계나 도계로 삼는다는 점에서 지구의 어느 지역이든 정계라는 명제를 도출했다. 이러한 사실명제를 근거로 할 때, 지리적 중화주의

260) 朴趾源, 『燕巖集』 卷之一 『煙湘閣選本』, 「會友錄序」, “遊乎三韓三十六都之地, 東臨滄海, 與天無極, 而名山巨嶽, 根盤其中, 野鮮百里之關, 邑無千室之聚, 其爲地也亦已狹矣. 非古之所謂楊墨老佛而議論之家四焉, 非古之所謂土農工商而名分之家四焉. 是惟所賢者不同耳, 議論之互激而異於秦越, 是惟所處者有差耳, 名分之較畫而嚴於華夷. 嫌於形跡, 則相聞而不相知, 拘於等威, 則相交而不敢友. 其里閭同也, 族類同也, 言語衣冠其與我異者幾希矣, 既不相知, 相與爲婚姻乎, 不敢友焉, 相與爲謀道乎? 是數家者, 漠然數百年之間秦越華夷焉, 比屋連牆而居矣, 其俗又何其隘也!”

이념은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 서양이 발견한 지구설을 홍대용이 주목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도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리적 중화주의에 관한 대응 방식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지원은 지리적 중화주의 이념에 관한 나름의 대응 방식을 모색한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홍대용의 ‘지구의 어느 지역에 위치하든 모두 정계’라는 홍대용의 명제는 지리적 중화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 논리이면서, 문명권, 나라, 지방의 영토적 규모 면에서 대소(大小)에 따른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에 반증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에서는 ‘의론지가(議論之家)’와 ‘명분지가(名分之家)’의 정체성이 주목된다. 신호열·김명호 선생의 주를 참조로 하면, 의론지가는 노론(老論), 소론(少論), 남인(南人), 북인(北人)의 사색당파를 가리킨다. 명분지가는 문반(文班), 무반(武班), 중인(中人), 서얼(庶孽)을 가리킨다.²⁶¹⁾ 의론지가의 경우 이단의 네 학문 분야인 양주(楊朱)의 학파, 묵적(墨翟)의 학파, 노자(老子)의 도가학과, 불교학과와 견주고 있다. 명분지가의 경우는 신분제인 선비, 농부, 장인, 상인과 견주고 있다. 이를 미루어 박지원이 정치 성향, 신분, 학문, 생업 등에서 차별적인 분열 양상을 보이는 조선사회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여기서 조선사회의 생업 간 차별적인 분열상을 예증으로 들어보자. 상공업에 종사하는 공인과 상인은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백성들로 취급하였다. 조선에서 공상세(工商稅)를 제정한 기본 취지는 상공업을 억제하여 농업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²⁶²⁾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우려하면서 조정에서 해야 할 일은 상공업 발달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²⁶³⁾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 활동한 14세기부터 홍대용과 박

261) 박지원, 『연암집』상, 신호열·김명호 옮김, 돌베개, 개정판: 2012, P.19에서 주4와 주5 참조.

262) 鄭道傳, 『三峯集』 卷之七, 「朝鮮經國典」, 《賦典》 중 〈工商稅〉 항목, “선왕이 공상세(工商稅)를 제정한 것은 상공업을 억제하여 농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 공·상에 관한 제도가 없어서 백성들 가운데서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공과 상에 종사하였으므로 농사를 짓는 백성이 날로 줄어들었으며, 상공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피폐하였다. 이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先王制工商之稅, 所以抑末作, 而歸之本實. 國家前此未有定制, 民之遊惰者皆趨之, 而南畝之民日益減, 末作勝而本實耗, 不可不慮也.)”

지원이 활동한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농본상말(農本商末)의 정책은 확고부동한 국가 이념이었다. 조선(朝鮮)의 근본은 농민이며, 상공업의 발달은 곧 농업 종사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에 조선 후기 지식인들 가운데 박지원·박제가의 경우처럼 상공업 진흥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수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결과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박지원과 박제가에 앞서 상공업 진흥정책을 내놓은 학자는 토정 이지함, 중봉 조현, 농암 유수원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했다.

박 지원은 사색당파의 분열이 적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 비유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았다. 명분에 따른 네 구분 역시 중화와 이적의 구분에 비유할 만큼 엄격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결과가 어떤 부작용을 유발했는지를 ㉔에서 제시했다.

‘불상지(不相知)’, ‘불감우(不敢友)’라고 했다. 서로 알지도 못하고, 감히 교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의론이 다른 가문이나 명분이 다른 가문끼리는 혼인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 했다. 그러나 학문적 토론을 통해 서로에게 이로운 결실을 거둘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박 지원은 이러한 조선 학계의 편협함을 탄식했다. 이러한 강도 높은 비판적 현실인식은 박제가²⁶⁴⁾ 를 위해 쓴 『북학의』 서문

263) 『正祖實錄』 五十卷, 정조 22년(1798) 11월 30일 1번째 기사,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농사를 지어 살아간다. 농사가 잘 되지 못하면 백성들에게 곡식이 없게 되니, 백성들이 곡식이 없으면 나라가 어찌 다스려지겠는가?(國以民爲本, 民以農爲生. 農不殖則民不穀, 民不穀則國何父?)”; 『正祖實錄』 五十二卷, 정조 23년(1799) 12월 13일 2번째 기사, “돌아보건대, 지금 말엽에 치달리는 풍조가 형성되어 본업에 힘쓰는 것은 수치로 여기고들 있다. 그런데 농업으로 되돌리고, 상공업은 억제시키는 정책을 펴기 위해 농정(農政)에 대한 윤음(綸音)을 반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대로 방치한 채 놓고먹으면서 이익을 독점하게 해 준다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할 것이다. (...) 묘당에서 사도(四都)와 팔도(八道)에 거둬 타일러 관하(管下) 수령들을 엄히 단속토록 함으로써 각각 경내에서 금단하게 하라. 그리고 실혹 감영과 고을에서 영을 내리기 전부터 점포를 차린 곳이 있다 하더라도 일체 혁파해버리고 채굴하는 일에 종사하던 무리들을 농업으로 전환시키도록 하라. (願今逐末之習, 務本爲反本. 抑末之政, 一邊頒示農政綸音, 一邊任他游食射利, 可謂當句不成說. (...) 自廟堂, 申諭四都八道, 俾即嚴飭管下守宰, 各從境內禁斷. 雖或有營邑立令前設店處, 一切革罷, 以其淘採之類, 歸之南畝.)”

264) 김문용은 『북학의』에 나타난 박제가의 경제사상이 重商主義的인지 重農主義的인지 문제 제기하고, 이것은 그의 경제사상에서 두드러지는 중상적 요소가 과연 당시의 농본주의적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인가 여부에 관한 문제로, 박제가의 사상이 ‘중상’이라 하더라도 ‘중농’과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폈다. 다른 논쟁점으로는 박 지원과 박제가 사이의 사상적 동질성 여부를 들었다. 양자의 사상적 차이를 강조하는 견해는,

에서 한층 더 강화된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한쪽 구석 땅에서 편벽된 기운을 타고나서, 밭은 대륙의 땅을 밟아 보지 못했고 눈은 중원의 사람을 보지 못했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제 강역(疆域)을 떠나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학의 다리가 길고 까마귀의 빛이 검듯이 각기 **제가 물려받은 천성대로 살았고**, 우물의 개구리나 밭의 두더지마냥 **제가 사는 곳이 제일인 양 여기고 살아왔다**. 예(禮)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누추한 것을 검소하다고 여겨 왔으며, 이른바 사민(四民 사(士) · 농(農) · 공(工) · 상(商))이라는 것도 겨우 명목만 남아 있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도구는 날이 갈수록 빈약해져만 갔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배우고 물을 줄을 몰라서 생긴 폐단이다.²⁶⁵⁾

인용문에 따르면, 조선의 정치적 내부 분열과 자기 기만적 안일주의는 대외 관계에서의 자기 방어적 폐쇄주의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어 내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통상의 필요성을 문제제기하며, 외국 상선과의 교류가 고려 때에는 이루어졌는데 조선에 들어 끊긴 사실을 든 사람은 박지원과 박제가였다. 그들이 청과 일본, 서양 각국은 문물 교류를 통해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국가의 재정을 늘리고 있는데, 조선은 망설이고 있는 실정을 비판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국의 폐쇄주의와 협소함에 대한 불만은 박지원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박제가가 홍대용에 관한 인물평을 담은 시 자료를 논거로 들어보자.

책 읽던 여가에 만 리 밖 그리노니,	朱墨餘閒萬里愁,
최고운의 옛 고장서 중원을 꿈꾸었네.	孤雲舊縣夢中州.
만약에 우리 인생 서양 배에 오른다면,	人生若上西洋舶,
관내의 벼슬아치보다 상인이 더 나으리.	估客優於關內侯 ²⁶⁶⁾

그들이 젊었을 때는 사제 간이면서 동지 사이이기도 했지만, 말년에 이르러 박지원이 사상적으로 퇴보하고 두 사람 사이에 교류(交遊)도 그다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그러나 비록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학파적 동질성을 해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견해를 폈다. 김문용, 「박제가 경제론의 논리와 구조」, 『민족문화연구』3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00, pp.430-453.

265) 朴趾源, 『燕巖集』 卷之七 別集 『鍾北小選』, 「北學議序」, “吾東之士, 得偏氣於一隅之土, 足不蹈函夏之地, 目未見中州之人, 生老病死, 不離疆域. 則鶴長烏黑, 各守其天, 蛙井蚶田, 獨信其地. 謂禮寧野, 認陋爲儉, 所謂四民, 僅存名目, 而至於利用厚生之具, 日趨困窮. 此無他, 不知學問之過也.”

인용한 한시는 박제가가 여러 사대부들과 함께 교우관계를 맺던 시절에 회작으로 왕어양(王漁洋:1634~1711)의 세모회인시(歲暮懷人詩) 60수를 본떠 지은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박제는 19수와 20수에서 1765년 자제군관 자격으로 연행을 다녀온 양허(養虛) 김재행(金在行)과 홍대용을 다루었다.

스무 번째 수인 인용 한시를 보면, 박제가가 홍대용의 어떤 면모를 부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어 흥미를 끈다. ‘드넓은 중원을 갖다 오고선 마음은 세속과 소원해졌고’²⁶⁷⁾, ‘여주 항주 선비를 한 번 만나곤 언제나 수리의 책을 보던’²⁶⁸⁾ 홍대용이 국내에서 관료 생활을 하는 것보다, 서양 상선을 타고 상인이 되어 세계를 누비는 장면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서양 상선을 통해 국내에서의 정치적 내부 분열 양상에 대한 불만을 대외 관계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결구에서 박제가가 홍대용의 진심은 조선 내부에서의 정적인 활동에 속하는 관료로서의 삶보다는 외부에서의 역동적인 활동에 속하는 해외 무역상으로서의 삶이 인생에서 더 가치가 있으며, 월등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이것이 홍대용의 초빙으로 박지원이나 박제가 등이 자신의 집에 들렀을 때, 홍대용이 박지원이나 박제에게 털어놓은 내심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나) 그러면 홍대용의 『의산문답』과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타난 작가정신의 시발점은 언제였을까? 그 시발점은 홍대용이 청나라 한족 지식인과의 대외적 교류를 우연히 성사시켰을 때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박지원의 증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에 제 나라에 있을 때는 한 마을에서 살면서도 서로 알고 지내지 않더니 지금은 만 리 먼 나라 사람과 사귀었다.

266) 朴齊家, 『貞蕤閣集』, 『貞蕤閣初集』, 「戲倣王漁洋歲暮懷人」, 六十首 중 二十首.

267) 朴齊家, 『貞蕤閣集』, 『貞蕤閣初集』, 「洪湛軒茅亭次原韻」, “身入中原濶, 心於世俗疎.”

268) 朴齊家, 『貞蕤閣集』, 『貞蕤閣初集』, 「洪湛軒茅亭次原韻」, “一遇餘杭士, 常觀數理書.”

전에 제 나라에 있을 때는 같은 종족이면서도 서로 사귀려 하지 않더니 지금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과 벗을 하였다.

전에 제 나라에 있을 때는 언어와 의관이 똑같아도 서로 벗하려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느닷없이 언어가 다르고 복색이 다른 속인들과 서로 마음을 허락하였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²⁶⁹⁾

인용문에 따르면, 박지원은 홍대용이 국내에서와는 달리 대외 체험을 통해 인생에서 단 한 번의 행운을 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청나라 한족 사대부와 서로 마음을 허락하며 사귀었다고 했다. 대외 체험 이전의 홍대용은 당색이 다르면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서로 알고 지내는 법이 없었다. 대외 체험 이전의 홍대용은 신분이나 처지가 다르면 같은 민족이면서도 사귀려 들지 않았다. 대외 체험 이전의 홍대용은 같은 언어나 의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벗을 사귀는 데에 소극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박지원은 홍대용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증언했다.

이어서 박지원은 홍대용에게 한족 사대부와 우연한 교류를 통한 개방적인 인식 전환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홍대용은 박지원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홍군이 우수 어린 표정을 짓더니 이윽고 이렇게 말했다.

내 감히 우리나라에 벗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벗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 처지에 제한되고 습속에 구속되어 그런 것이니 마음속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어찌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니며 그 사람들이 선왕의 법복(法服)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 공자(孔子)가 밟던 땅이 왜 아니겠으며, 그 사람들이 사귀는 선비들이 어찌 제(齊), 노(魯), 연(燕), 조(趙), 오(吳), 초(楚), 민(閩), 촉(蜀)의 널리 보고 멀리 노닌 선비들이 아니겠으며, 그 사람들이 읽는 글들이 어찌 삼대(三代) 이래 사해만국(四海萬國)의 극히 많은 전적(典籍)이 아니겠습니까?

269) 朴趾源, 『燕巖集』 卷之一, 『煙湘閣選本』, 「會友錄序」, “然而向也居其國, 則同其里閭而不相知, 今也交之於萬里之遠. 向也居其國, 則同其族類而不相交, 今也友之於不可復見之人. 向也居其國, 則言語衣冠之與同而不相友也, 迺今猝然相許於殊音異服之俗者. 何也?”

제도는 비록 바뀌었으나 도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옛 중국이 아닌 지금 중국에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는 살고 있을망정 그 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270)

홍대용은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제도를 바꾸었으나 도의(道義)는 그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청나라 한족 사대부들이 청나라 백성으로 살고는 있으나, 청조의 관료가 되기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는 사실도 들었다. 이러한 논리는 조선 중화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선비들의, 예상되는 반발을 고려한 수사학으로 판단된다.

이미 한 차례 김종후(金鍾厚: 1721~1780)와의 논쟁에서 “강희(康熙) 이후로는 백성과 더불어 편히 쉬면서 다스리는 도(道)를 간단하게 함으로써 한 시대를 진압하고 복종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듣고 보는 것이 익숙해져서 옛날처럼 편케 여긴 지가 백 년이 넘었으니, 중국 본토 사람으로서 스스로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높은 벼슬로 초빙하면 달려갔던 자를 깊이 꾸짖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현실주의 시각을 드러냈다가 반발을 산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271)

청나라 인식 문제에서 예상되는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홍대용의 수사학적 표현은 『의산문답』 끝 대목에서 ‘역외춘추론’을 펼치며 ‘용하변이(用夏變夷)’의 논리를 전개하는 데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며,(272) 박지원이 이러한 논리를 고스란히 이어

270) 朴趾源, 『燕巖集』 卷之一, 『煙湘閣選本』, 「會友錄序」, “洪君愀然爲問曰: 吾非敢謂域中之無其人而不可與相友也. 誠局於地而拘於俗, 不能無鬱然於心矣. 吾豈不知中國之非古之諸夏也, 其人之非先王之法服也. 雖然, 其所處之地, 豈非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所履之土乎, 其所交之土, 豈非齊魯燕趙吳楚閩蜀博見遠遊之士乎, 其所讀之書, 豈非三代以來, 四海萬國極博之載籍乎? 制度雖變, 而道義不殊, 則所謂非古之諸夏者, 亦豈無爲之民而不爲之臣者乎?”

271)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三, 「與金直齋鍾厚書」, “且康熙以後與民休息. 治道簡儉, 有足以鎮服一時. 其耳目習熟, 安若故常, 百有餘年, 則華人之不能引義自廢, 奔馳於車弓之招者, 亦不必深責也.”

272) 공자가 오랑캐의 나라로 옮겨갔다면, 오랑캐를 중화의 문물로 변화시키는 업적을 남겨 오랑캐의 땅에서 새로운 『春秋』를 지었을 것이라는 대목을 가리킨다. 하지만 화이의 구분은 자기 쪽을 중화로 삼고, 상대방을 이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내외의 논리일 뿐이라고 이미 앞에서 반박한 바 있으므로 굳이 공자와 같은 성인이 오랑캐의 땅으로 옮겨가는 상황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자기를 옹호하고 상대방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양상은 개인, 가족, 지방, 국가 등을 불문하고 흔히 보일 수 있는 일이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역외춘추론’ 구절은 조선 중화주의 노선을 고수하는 선비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학적 장치로 보인다.

받아 박제가를 위한 『북학의』 서문에서 다시 활용되고 있다.

만일 장차 배우고 문기로 활진대 중국을 놓아두고 어디로 가겠는가? 그렇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의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은 오랑캐들이다.” 하면서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여, 중국의 옛날 법마저도 다 함께 알잡아 무시해 버린다.

저들이 진실로 변발(辮髮)을 하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 있지만, 저들이 살고 있는 땅이 삼대(三代) 이래 한(漢), 당(唐), 송(宋), 명(明)의 대륙이 어찌 아니겠는가?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삼대 이래 한, 당, 송, 명의 유민(遺民)이 어찌 아니겠는가? 진실로 법이 훌륭하고 제도가 아름다울진대 장차 오랑캐에게라도 나아가 배워야 하는 법이거늘, 하물며 그 규모의 광대함과 심법(心法)의 정미(精微)함과 제작(制作)의 광원(宏遠)함과 문장(文章)의 찬란함이 아직도 삼대 이래 한, 당, 송, 명의 고유한 옛날의 법을 보존하고 있음에랴

우리를 저들과 비교해 본다면 진실로 한 치의 나은 점도 없다. 그럼에도 단지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에 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 산천은 비린내 노린내 천지라 나무라고, 그 민은 개나 양이라고 욕을 하고, 그 言語는 오랑캐 말이라고 모함하면서,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 배척해 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장차 어디에서 본받아 행하겠는가?273)

박지원은 30대 중반에 이미 과거 보기를 포기했다. 그러자 마음에 여유가 생겨 속세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연암 골짜기에 은거하였다. 1780년 연행 길에 나설 때 신분은 자제군관이지만, 실제로는 선비이기에 역관이나 의원과 같은 중인처럼 행동을 자유분방하게 놀리기 어려웠다. 하지만 몸을 단정히 하는 군자처럼 굴다가는 청나라에서 보고자 하는 천하의 대세를 알아낼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중국의 상인들과 필담을 나누고, 장시에 들어서면 술집이나 음식점 등을 찾다니며 필담을 나눌 상대를 고르는 행동을 스스로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적이

273) 朴趾源, 『燕巖集』 卷之七 別集 『鍾北小選』, 「北學議序」, “如將學問, 舍中國而何? 然其言曰: 今之主中國者, 夷狄也. 恥學焉, 并與中國之故常而鄙夷之. 彼誠薙髮左衽, 然其所據之地, 豈非三代以來漢唐宋明之函夏乎? 其生乎此土之中者, 豈非三代以來漢唐宋明之遺黎乎? 苟使法良而制美, 則固將進夷狄而師之, 況其規模之廣大, 心法之精微, 制作之宏遠, 文章之煥爛, 猶存三代以來漢唐宋明固有之故常哉! 以我較彼固無寸長. 而獨以一撮之結, 自賢於天下曰: 今之中國, 非古之中國也. 其山川則罪之以腥羶, 其人民則辱之以犬羊, 其言語則誣之以侏離, 并與其中國固有之良法美制而攘斥之. 則亦將何所做而行之耶?”

없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나날이 전문하는 바가 새롭게 늘며 국내에 머물렀을 때 품어보지 않았던 포부가 생겨나 안목도 넓어지는 것도 느꼈다. 이때의 대외 체험을 통한 각성은 일심동체가 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1778년 박제가의 『북학의』를 사흘 동안 읽으면서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그(박제가-인용자 주)는 농잠(農蠶), 목축(牧畜), 성곽(城郭), 궁실(宮室), 주거(舟車)로부터 기와, 대자리, 붓, 자 [尺] 등을 만드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헤아리고 마음으로 비교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배웠다. 시험 삼아 책을 한 번 펼쳐 보니, 나의 일록(일하일기)과 더불어 조금도 어긋나는 것이 없어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았다. 이러한 까닭에 그가 진실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보여 준 것이요, 나도 흐뭇이 여겨 3일 동안이나 읽어도 싫증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아! 이것이 어찌 우리 두 사람이 눈으로만 보고서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진실로 비 뿌리고 눈 날리는 날에도 연구하고, 술이 거나하고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토론해 오던 것을 눈으로 한번 확인한 것뿐이다.

요컨대 이를 남들에게 말할 수가 없으니, 남들은 물론 믿지를 않을 것이고 믿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화를 낼 것이다. 화를 내는 성품은 편벽된 기운을 타고난 데서 말미암은 것이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원인은 중국의 산천을 비린내 노린내 난다고 나무란 데 있다.²⁷⁴⁾

박지원의 제자 박제가²⁷⁵⁾ 또한 홍대용의 대외체험과 대외인식에 관한 각성에 자극을 받아 연행을 다녀온 뒤, 『북학의』를 저술하며 품었던 개혁 의지를 슬회하는 한시를 새벽에 책상에 앉아 남겼다.

274) 朴趾源, 『燕巖集』 卷之七, 別集 『鍾北小選』, 「北學議序」, “自農蠶畜牧城郭宮室舟車, 以至瓦簞筆尺之制, 莫不目數而心較. 目有所未至, 則必問焉, 心有所未諳, 則必學焉. 試一開卷, 與余日錄, 無所齟齬, 如出一手. 此固所以樂而示余, 而余之所欣然讀之三日而不厭者也. 噫! 此豈徒吾二人者得之於目擊而後然哉, 固嘗研究於雨屋雪簷之下, 抵掌於酒爛燈炮之際, 而乃一驗之於目爾. 要之不可以語人, 人固不信矣, 不信則固將怒我. 怒之性, 由偏氣, 不信之端, 在罪山川.”

275) 해양물류학회에서 2002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아 ‘조정학술상’을 제정하고, 한국사학과와 경제경영학계의 박제가 관련 논문을 묶어, 해운물류론을 집중 조명했다. 그 저서가 『조정 박제가의 실학사상과 해운통상론』이다. 박제가의 통상유통론을 유수원 및 홍대용, 박지원, 아담 스미스의 통상유통론과 비교하면서, 박제가의 사치(奢侈) 용인(容認)에 의한 자본축적론의 선진성을 평가했다. 오세영·윤일현·김성준, 『조정 박제가의 실학사상과 해운통상론』, 신서원, 2004.

땅 파서 황금을 얻는다 해도,	掘地得黃金,
만균인들 그저 굶어 죽을 수밖에.	萬均空餓死.
바닷속 진주를 캐내어 와도,	入海採明珠,
백곡을 개똥과 바꿔야 하리.	百斛換狗矢.
개똥은 거름으로 쓸 수 있지만,	狗矢尙可糞,
진주야 어디에 쓴단 말인가.	明珠其奈何.
<u>육로 재화는 연경과 통하지 않고</u>	陸貨不通燕,
<u>바다 장사는 왜 땅을 넘지 못하지.</u>	海賈不踰倭.
비유하면 들판에 우물 있는데,	譬如野中井,
물 못 길러 목말라 갈증 나는 격.	不汲將自渴.
안민은 보화에 있지 않으니,	安民不在寶,
먹고 살 일 나날이 힘겨움 염려하노라.	生理恐日拙.
지나친 절약 백성들 즐겁지 않고,	太儉民不樂,
가난하면 도둑질이 많아진다네.	太窶民多竊 ²⁷⁶⁾

인용한 시에서 대외 문물 교류의 한계가 조선의 가난이라는 현실을 낳고, 민생을 궁핍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대용과 박지원 그리고 박제가는 대외 교류의 상대가 망한 명나라인가 흥한 청나라인가에 구애받지 않았다. 30여 개 나라와 통상하고 있는 일본인가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서양 각국인가도 가리지 않았다. 어느 나라가 됐든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조선의 대외 교류 상대국으로서 국내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개혁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받아들여 했다.

(다) 홍대용은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관계에서 사람은 귀하고 다른 생명체는 천하다는 사고방식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다른 생명체는 사람의 스승이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은 다른 생명을 존중하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 존중의 사상은 ‘인(人):인(人)’의 관계에도 적용되어 上·下로 구성된 정치체도의 구상

276) 朴齊家, 『貞蕤閣集』, 『貞蕤閣二集』, 「曉坐書懷」 七首 중 五首.

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㉔ 아홉 도의 전답(田畓)을 고루 나누어 가구당 한 사람이 아내가 있는 남자에 한해서는 각각 2결(結)을 받도록 한다.²⁷⁷⁾

㉕ 후세의 간관(諫官)이란 제도는 좋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단지 육경(六卿)의 소속이 각각 맡은 바가 있어 한번 호령으로 가부를 결정하므로 10여 명의 듣고 본 것으로는 두루 다 알기가 어렵다. 낭리(郎吏)와 목수(牧守)는 직접 목격하여 잘못된 결정에 분개하여 말하고 싶으나 월권(越權)하는 것이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관직 설치한 뜻은 비록 좋으나 간언을 오게 하는 길은 좁다. 마땅히 양사를 혁파하여 위로 공경(公卿)으로부터 아래 서예(胥隸)에까지, 가까운 데는 환시(宦寺)로부터 먼 데는 농묘(農畝)까지 각각 맡은 일을 집행함에 소회(所懷)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도록 하여야 한다.²⁷⁸⁾

㉖ 대개 인품(人品)에는 고하가 있고 재주는 장단점이 있다. 그 고하에 따라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 쓴다면 천하에 전혀 못쓸 재주란 없다. 면(面)에서 가르치는 데는 그 중 뜻이 높고 재주가 많은 자는 위로 올려 조정에서 쓰도록 하고, 자질이 둔하고 용렬한 자는 아래로 돌려야(野)에서 쓰도록 한다. 그 중 생각을 잘하고 숨씨가 재빠른 자는 공업(工業)으로 돌리고, 이(利)에 밝고 재물을 좋아하는 자는 상업(商業)으로 돌리며, 피를 좋아하고 용맹이 있는 자는 무반(武班)으로 돌리며, 소경은 점치는 데로, 궁형(宮刑) 당한 자는 문 지키는 데로 돌리며, 심지어 병어리와 귀머거리·얕은뱅이까지 모두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놀면서 입고 먹으며 일하지 않는 자는 나라에서 벌주고 향당(鄉黨)에서도 버려야 한다.²⁷⁹⁾

㉗ 우리나라는 본래 명분(名分)을 중히 여겼다. 양반들은 아무리 심한 곤란과 굶주림을 받더라도 팔짱 끼고 편케 앉아 농사를 짓지 않는다. 간혹 실업에 힘써서 몸소 천한 일을 달갑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모두들 나무라고 비웃기를 노예(奴隸)처럼 무시하니, 자연 노는 백성은 많아지고 생산하는 자는 줄어든다. 재물이 어찌 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성이 어찌 가난

277)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林下經綸」, “均九道之田, 什而取一. 男子有室以上, 各受二結.”

278)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林下經綸」, “後世諫官之法, 非不好矣, 但六卿之屬, 各有所掌, 一號一令, 當否立辦, 十數人之間見, 理難遍及. 郎吏牧守, 雖有目擊, 慷慨欲言而畏於越俎, 不敢出位. 此其設官之意雖好而來諫之道狹矣. 當革兩司, 上自公卿, 下至胥隸, 近自宦寺, 遠至農畝, 各執藝事, 有懷必陳.”

279)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林下經綸」, “凡人品有高下, 材有長短. 因其高下而舍短而用長, 則天下無全棄之才. 面中之教, 其志高而才多者, 升之於上而用於朝, 其質鈍而庸鄙者, 歸之於下而用於野. 其巧思而敏手者, 歸之於工, 其通利而好貨者, 歸之於賈, 問其好謀而有勇者, 歸之於武. 瞽者以下, 宮者以閹, 以至於啗齷跛躄, 莫不各有所事. 其遊衣遊食不事行業者, 君長罰之, 鄉黨棄之.”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목별로 조항(條項)을 엄격히 세워야 마땅할 것이다. 그 중 사·농·공·상(士農工商)에 관계없이 놀고먹는 자는 관(官)에서 벌칙을 마련하여 세상에 용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재능과 학식이 있다면 비록 농부(農夫)나 장사치의 자식이 낭묘(廊廟)에 들어가 앓더라도 참람스러운 것이 없고, 재능과 학식이 없다면 비록 공경(公卿)의 자식이 여대(輿臺)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한탄할 것이 없다. 위와 아래가 힘을 다하여 함께 그 직분을 닦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상고하여 상벌(賞罰)을 베풀어야 한다.²⁸⁰⁾

㉞ 시험 삼아 우리나라 군정(軍政)을 논해 보자. 군사를 뽑는 데는 속오(束伍)의 법이 있고, 부(部)를 나누는 데는 진관(鎭管)의 시설이 있으며, 기르는 데는 양역(良役)의 배[布]가 있고 가르치는 데는 지남(指南)의 글이 있다. (...) 이것이 모두 선왕(先王)의 어진 법이었다. 그렇지만, 행한 지 이미 오래되어 폐단이 이내 따르므로 소략하고 형편없음이 그렇듯 심하게 되었다. 오늘날을 위해서 계획하면 옛날 법을 따라 거듭 밟히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전일 제도를 한번 변해서 다시 고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²⁸¹⁾

인용문 ㉞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홍대용은 『임하경륜(林下經綸)』에서 토지제도를 구상하면서 균전제(均田制)를 주장했다. 모든 백성이 일정한 토지를 소유하게 하여 분배의 균등을 실현하려는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으로 배타적 특권의식에 대한 반대의사를 천명한 것이었다.

인용문 ㉞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홍대용은 백성을 위한 분배의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한편, 백성의 바람이 조정에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상명하달(上命下達)의 방식만으로는 나라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사회 제도의 운영이 실제 생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쪽은 상층의 권력층이 아니라 하층의 관료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

사회 제도의 문제를 간파한 쪽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의 간격이 너무 멀면

280)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林下經綸」, “我國素重名分. 兩班之屬, 雖顛連窮餓, 拱手安坐, 不執耒耜. 或有務實勤業, 躬甘卑賤者, 羣譏衆笑, 視若奴隸, 遊民多而生之者少矣. 財安得不窮而民安得不貧也? 當嚴立科條. 其不係四民而遊衣遊食者, 官有常刑, 爲世大戮. 有才學, 則農賈之子坐於廊廟而不以爲僭, 無才無學, 則公卿之子歸於輿臺而不以爲恨. 上下戮力, 共修其職, 考其勤慢, 明施賞罰.”

281)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林下經綸」, “試論我國軍政. 則選兵而有束伍之法, 分部而有鎭管之設, 養焉而有良役之布, 教焉而有指南之書. (...) 此皆先王之良法. 雖然, 行之既久, 弊仍隨之, 凌遲疎畧, 如此之甚也. 爲今之計, 當率由舊章而申明之耶? 當一變前法而更張之耶?”

민심의 이반(離反) 현상으로 인해 국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기에 하층 세력이 상층 세력으로부터 월권(越權)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안심하고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당대 긴요한 과제였다.

정치적 옳고 그름에 대한 언론 활동, 문무 관료에 대한 통제와 감시, 지방의 풍속을 바로잡는 일, 분하고 억울한 일을 해소시켜 주는 일, 분수에 지나치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는 일 등을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고유 업무만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된 언론 양사(兩司)를 폐지하고, 나라의 모든 관리와 백성들의 업무로 여기도록 하여 상하의 언로가 개방성을 지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소수의 특권층이 저지른 폐단을 시정할 수 있으리라 본 것이다.

인용문 ㉠과 ㉡를 연결해서 정리하면, 흥대용은 백성들이 누구나 일정한 생업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편, 생업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난관을 국가 기관에 소회(所懷)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민(民)과 국(國)의 역동적 활성화를 실현하는 길이라 믿었다.

인용문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흥대용은 신체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에 죄를 저지른 사람에 이르기까지 놀고먹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각기 인품과 능력에 어울리는 일을 찾아 생업을 누리면서 삶의 보람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조정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국정과업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새로운 문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면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해관계에 밝고 부를 축적하기를 좋아하면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략전술을 좋아하고 용맹한 기운이 있으면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재능은 타고나며, 그 재능을 사회적으로 사장시키지 않고 고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발상으로 다양한 가치의 실현이 곧 민(民)과 국(國)의 역동적 활성화를 이루는 길이라 판단한 결과이다.

인용문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의 재정이 날로 줄어드는 이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적고 놀고먹는 사람들이 많은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유식 양반에 대한 홍대용의 비판의식이 드러나는 구절로 주목할 만하다.

박제가²⁸²⁾의 혁신안과 견주어 보자. 박제가는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 유식 양반들이 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정에서 유도하고, 재리(財利)를 충족함으로써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저 놀고먹는 자들은 나라의 큰 짐벌레들입니다. 놀고먹는 자가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이유는 사족(士族)이 날로 번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나라에 온통 갈려 있어서 한 가닥 벼슬로는 모두 옴아멜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처리할 방법이 반드시 따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근거 없는 소문을 날조하는 무리가 사라지고 국가의 통치가 제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신은 수륙의 교통요지에서 장사하고 무역하는 일을 사족에게 허락하여 입적(入籍)할 것을 요청합니다. 밀친을 마련하여 빌려주기도 하고, 점포를 설치하여 장사하게 하고, 그 중에서 인재를 발탁함으로써 그들을 권장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이익을 갖도록 유도하며, 그들이 가진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축소시킵니다. 이것이 현재의 사태를 바꾸는 데에 일조할 것입니다.²⁸³⁾

그런데 홍대용은 더욱 파격적인 주장을 했다.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지를 국가로부터 배분받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배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준 뒤에 능력 여부에 따라 직분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균등한 토지 분배를 통한 병·농 일치 제도를 바탕으로 전국이 9도(道) 81군(郡) 729현(縣) 6,164사(司) 60,149면(面)으로 구성된 왕정국가를 구상한 홍대용의 대안²⁸⁴⁾은 홍대용의 ‘균(均)’철학이 사회제도의 개혁안과 결합될 때 미칠 사회적 파장

282) 이현창은 박제가의 경제정책론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해서 부국책(富國策)의 체계로서의 경제정책론, 개국통상론(開國通商論), 국내시장 육성론, 기술발전론, 신분제 개혁론으로 구분하여 논의한 뒤, 박제가의 경제사상과 정책론은 부국을 도모하는 조선 후기에 나타난 최상의 정책론이라고 평가했다. 이현창,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발전안을 제시한 박제가』, 실학박물관 실학인물총서 6, 민속원, 2011.

283) 朴齊家, 『北學議』 外篇, 「丙午正月二十二日 典設司 別提 朴齊家 所懷」, “夫遊食者國之大蠹也. 遊食之日滋, 士族之日繁也. 此其爲徒殆遍國中, 非一條科宦之所盡羈縻也. 必有所以處之之術. 然後, 浮言不作國法可行. 臣請, 凡水陸交通, 販賣之事, 悉許士族. 人籍或資裝以假之設, 以居之顯擢, 以勸之使之. 日趨於利, 以漸殺其遊食之勢. 開其樂業之心, 而消其豪強之權. 此又轉移之一助也.”

284) 洪大容, 『湛軒書』 內集 卷四, 補遺, 「林下經綸」, “分國爲九道, 京都居一焉. 必均其地方.

은 가능하기 어려우나, 군전제만 주목해 보더라도 놀라운 발상이었음을 헤아릴 수 있다. 1799년 기준, 170만 5459호에 각 호당 6400평(21,157㎡) 정도의 토지를 고루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면, 놀고먹는 유식 양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천의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의 계급 이동이 지금보다 훨씬 유동성을 발휘하게 되어 재능과 학식을 발휘하는 데에 힘쓸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그러면 사회적 특권 계층이 몰락하기도 하고 사회적 소외 계층이 신분 상승을 실현할 수 있게 되니 민(民)과 국(國)의 역동적 활성화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인용문 ㉔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사회제도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고(古)의 답습보다는 금(今)의 경장이 민(民)과 국(國)의 역동적 활성화를 실현하는 길이라 확신했다. 이는 민(民)의 다양하고 커다란 잠재력을 조정에서 억누르는 방향에서 벗어나 반대로 활성화함으로써 국(國)의 활력을 얻어내려는 발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박지원은 그의 제자 박제가와 함께 상인과 장인의 잠재력에 주목한 작가이다. 자국의 규모는 작고, 자국의 백성은 가난하며, 자국의 제정은 모자라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았다. 그러고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궁구하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정덕(正德)의 실현이라는 전제를 앞세우지 않고, 이용(利用)과 후생(厚生)을 위한 모색을 선결과제로 삼았다. 그들은 온갖 재화의 원활한 유통과 기술의 개발을 통해 민(民)과 국(國)의 역동적 활성화를 실현하려고 했다.

박지원은 정조에게 술회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편 박제가와 달리 자신의 주장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여 『열하일기』 가운데 <허생전>에 담으면서 독창적으로 형상화했다. <허생전>에서 직설적인 화법과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유를 지닌 인물인 허생을 내세워 반상(班常)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실주의 노선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했다. 변산 도적을 회유하여 무인공도(無人空島)로 데려다가 농사를 짓게

(…)分道爲九郡, 伯營居一焉. (….) 分郡爲九縣, 守治居一焉. (….) 分縣爲九司, 監治居一焉. (….) 分司爲九面, 司治居一焉.” ; “均九道之田, 什而取一, 男子有室以上, 各受二結.” ; “道伯爲大將軍, 郡守爲將軍, 縣監爲校尉, 司長爲旗摠, 面任爲隊長.”

하여 수확한 농작물을 일본 나가사키 지방에 파는 장면을 통해 해외 통상의 본보기로 삼은 바 있다.²⁸⁵⁾

박제가가 유식양반을 상인으로 전환시키자고 주장하거나, 장인으로 하여금 외국 상선의 선박 기술자로부터 기술을 배워야한다고 주장한 것 등등은 주변국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낸 객관적인 사실이었다. 육로와 해로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의 개선이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국가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통찰은 『북학의』에서 일관성 있게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었다.

현재 국가의 큰 폐단은 한마디로 가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을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중국과 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정에서 사신 한 사람을 파견하여 중국 예부에 이러한 자문을 보내십시오. 가진 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없는 것을 얻고자 무역하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법입니다. 일본과 유구, 안남, 서양의 무리가 모두 민·절강성·교주·광주 등지에서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뱃길을 통하여 상인들이 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반드시 아침에 요청하면 저녁에는 허가를 내줄 것입니다.²⁸⁶⁾

경국제세(經國濟世)의 문장가가 되겠다는 박제가의 포부는 1777년 사행인 편에 받은 이조원(李調元: 1734~1803) 편지에 대한 답서로 『호저집』에만 실려 있는 한 자료를 보면, 제1차 연행 전 해인 27세 때에도 홍대용이나 박지원이 지닌 경제사상의 영향을 받아 이미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는 억지로 지어선 안 되고 문장은 경국제세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정초(鄭樵)와 고염무(顧炎武)의 학문을 사모하였습니다. 민생이 날로 궁핍해짐을 슬퍼하고 동지들이 대개 가난한 것이 가여워, 중국의 제도를 배워 토실을 쌓고 수차를 만들어, 비용은 줄이되 수확은 두터이 함으로써 한 고을의 풍속을 옮겨 벗들의 삶이 어긋남이 없게 하

285) 「허생전」의 구성 방식과 그 의미를 공간적 측면에서 분석한 글로는 정성훈,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타난 공간 양상과 그 의미」, 『인문학 연구』 제49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pp.63-93 참조.

286) 朴齊家, 『北學議』 外篇, 「丙午正月二十二日 典設司 別提 朴齊家 所懷」, “當今國之大弊。曰貧何以揀貧? 曰通中國而已矣。今朝廷馳一介之使, 咨於中國之禮部曰; 貨遷有無, 天下之通義也。日本琉球安南西洋之屬, 皆得交市於閩浙交廣之間。願得以水路通商賈, 比諸外國焉。彼必朝請而夕許之矣。”

는 것이 오랜 고심입니다. 하지만 작은 몸뚱이로 천하를 크게 돕는 뜻을 지녔고, 하룻저녁의 근심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백년의 혜택을 바라고 있으니 어렵습니다.²⁸⁷⁾

한편 농암(龔菴) 유수원(柳壽垣: 1694~1755)은 박지원·박제가보다 앞서 중상주의(重商主義) 노선을 천명하였다.

옛사람들이 반드시 통상혜공(通商惠工)을 급무로 삼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사민(四民) 중에서 하나가 빠져도 그 폐해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주현에서 용도가 번다한 것은 그 고을 안에 공상(工商)이 없기 때문이며, 백성들이 공역(供億)을 지탱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고, 세민(細民)들이 요판(料販)으로 호구(糊口)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노(吏奴)가 빈곤하여 지탱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 매매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고을들이 물건을 사들이기 어려워서 관리와 백성에게 모두 폐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은가.²⁸⁸⁾

그는 조정에서 상공업의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면, 전국의 모든 읍내에 상점이 들어서게 되고, 상품 거래가 크게 성하여지면, 꿩·닭·돼지고기·채소·젓갈·기름·식초·두부·미역·과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관아에서 사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공장(工匠)의 제품과 기우(器盂)·포백(布帛) 같은 것들도 관아에서 사 쓸 수가 있게 되는 효과를 보리라 예상했다.²⁸⁹⁾ 한 고을의 백성들이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모두 읍내에 와서 사가게 될 것이고, 멀고 가까운 곳의 상고(商賈)들이 왕래하며 교역하게 될 것이며, 시골사람들이 채소와 시탄(柴炭) 등의 여러 가지

287) 朴長範, 『縞紵集』 一冊 중 卷之一, p32. “自以爲詩不强作·文附經濟, 慨然慕鄭漁仲·顧寧人之爲學. 哀民生之日乏, 憫同志之多窘, 欲學中國之制, 築土室, 造水車, 省費而厚斂, 移風俗於一鄉, 庶朋友之無違, 此宿夕之苦心也. 雖然, 以眇然之身, 而有大庇之志, 無終夕之憂, 而望百年之惠, 難矣哉.” ; 이승수, 「박제가 삶 의 마음속 出路, 燕京의 友情」,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0집,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p.196에서 재인용. 원문은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 시스템 (<http://www.nl.go.kr/korcis/>)에서 제공하고 있다.

288) 柳壽垣, 『迂書』 卷七, 「論外方派支公費」, “古人必以通商惠工, 爲急務者何也? 四民之中, 闕一則必有其弊. 今之州縣, 用度煩夥者, 以其邑內無工商也. 百姓供億難支者, 亦以此也. 細民無以料販糊口者, 亦以此也. 吏奴貧困難支者, 亦以此也. (...) 買賣不通, 故各邑貿易極難, 官吏民俱弊, 豈不可歎.”

289) 柳壽垣, 『迂書』 卷七, 「論外方派支公費」, “商販大盛, 則凡邑內必有塵肆之屬. 雉、鷄、豬肉、蔬菜、卵醢、油、醋、泡、藿、果實, 日用飲膳所需, 官可貿用也. 凡百工, 伎器皿布帛之類, 官可貿用也.”

물건을 갖고 와서 팔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도 했다.²⁹⁰⁾

그런데 박지원·박제가는 유수원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국 내의 상공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외국에서 산출되는 상품을 통상(通商)을 통해 수입해야 재화가 늘어나고 유용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는 발상까지 해냈다. 그 연유는 수레를 이용한 육로 통상 규모보다 배를 통한 해상 통상 규모가 크며, 육로 400km[1,000리]와 해로 4,000km[10,000리]를 견주었을 때에도 육로보다 해로가 통상하기 편리하다는 데에 있었다. 서쪽 방향으로 등주·내주 지방, 남쪽으로는 강서 지방과 교류가 가능하다면서 고려 시대 통상 무역 선례를 든 걸 보면, 박지원·박제가의 해안은 유수원과 달리 대외 체험을 통해 더 폭넓은 정보를 접했던 조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려와 달리 조선 시대에 들어와 400년 동안 중국 쪽과의 해상을 통한 통상 무역 사례가 없었던 까닭을 추정했는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비유(比喻) 수사를 활용했다. 조선이 400년 동안 해상을 통해 외국과 통상하지 않는 태도를 건문이 적고, 의심이 많은 어린아이[조선]가 낯선 손님[외국 상인]을 보면 경계를 하는 모양에 견주었다. 이는 조선의 기상이 아둔하고, 재능과 식견이 모자란 데에 있다²⁹¹⁾고 했다.

집안의 우환이 겹치는 바람에 『열하일기』를 미완으로 남겨둔 박지원과 달리 박지원의 제자 박제가는 1786년 음력 1월 22일에 정조(正祖)에게 소회(所懷)를 밝히며 다음과 같은 현실인식과 개혁의 실천을 촉구했다.

지금 천하가 동쪽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서쪽 끝의 티베트(藏地), 남쪽으로 자바 섬(瓜哇), 북쪽으로 할하(喀爾喀)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지 거의 200년이 되었으니, 이는 지난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지금 같은 때 힘을 다하여 스스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 변고가 일어났을 때 더불어 걱정할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신이 보기에는 집사를 맡은 신하들이 태평 시절을 과장하여 꾸미기에 겨를이 없는 듯합니다. (...) 그런데 도리어 조정에서 탄식을 발하며 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시고, 주저하며 위축되어 하려고 하면서도 하지 않으신 지가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장차 풍속을 그대로 따라 다스리고 미봉하여 대충 때우고 가면서 스스로 소강(小康) 상태에 편안해하실 것입니까?²⁹²⁾

290) 柳壽垣, 『迂書』 卷七, 「論外方派支公費」, “一邑之民, 買似稍難物者, 必赴邑內買去也. 遠近商賈, 必往來交易也. 村里小民, 必持蔬菜、柴炭、等百物來賣. 此乃所謂村販也.”

291) 朴齊家, 『北學議』 外篇, 「通江南·浙江商舶議」, “然而國朝四百年, 不通異國之一船. 夫小兒見客, 則差澁啼哭, 非性也. (...) 風氣之質實, 才識之不開職有於此.”

인용문에 따르면, 홍대용이 경장(更張)을 통해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제가²⁹³⁾ 또한 정조에게 자신의 소회를 밝히면서 제도 개혁을 촉구하였다. 제도 개혁에는 시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자국에서 인재를 파견하고, 외국에서 인재를 초빙하는 방안은 자국과 외국의 국제관계가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박제가는 이러한 호기(好機)를 놓치지 말자고 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홍대용이나 박지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개혁적인 성향의 선비들이 촉구한 혁신적인 발상 전환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자료는 박지원이 당시 대구판관(大邱判官)에게 답하는 서간에 드러나고 있다.

허허! 우리나라의 인재 등용하는 길은 너무도 좁아서 과거(科擧)를 거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학식이 천리(天理)와 인사(人事)를 꿰뚫어 알고, 재주가 문무(文武)를 겸비했다손 치더라도 진실로 출세할 길이 없소. 지금 조정에서 활개를 치며 백성과 나라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정치와 교화에 참여하고 협찬(協贊)한다는 사람치고 대과(大科)에 급제하지 않고 진출한 자가 누가 있단 말이오? (...) 나나 그대가 크게는 대과 급제를 못 했을 뿐더러, 작게는 또한 진사(進士)가 되지 못했으니, 둘 다 따분한 백도(白徒)요 여항(閭巷)의 미천한 신세라 실없는 얘기나 하고 날을 보내는데, 제 판에는 그래도 유생 차림으로 거들대지만 그것은 남루해진 지 이미 오래며, 임시변통으로 양반이라 칭하지만 외람된 짓이라 부끄러울 뿐이지요. 머리는 허영고 얼굴은 누렇게 뜬 채 당세에 대한 희망을 끊었더니, 늙마에 일명(一命)으로 잇달아 동료가

292) 『日省錄』, 正祖 十年 一月 二十二日, “今天下東自日本, 西極藏地, 南起爪哇, 北際容爾喀, 兵塵不動幾二百年, 此往牒之所無也. 不以此時僂力而自修, 它邦有警, 與有憂焉. 臣恐執事之臣不遑於崇飾太平也. (...) 乃反中朝發歎, 治不徯志, 吝且畏約, 欲發未發, 十年之久乎. 將因俗爲治, 彌縫牽補, 自安於小康耶?”

293) 근래 실학사상의 계승 발전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실시학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조정 박제가 연구』라는 단행본을 출간했다. 특히,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는 「‘제(際)’를 자각한 자의 고뇌」에서 근대 지향적인 사상의 선구자로서의 초정이 아니라 주변 엘리트로서의 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인간적인 고뇌, 심리적인 갈등 등을 밝히려고 했다. 아울러 주변 엘리트로서 초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박제가의 ‘際’론이라면서, ‘제’론은 중국 주변부의 조선인 엘리트일 뿐만 아니라 서자(庶子) 지식인이라는 두 조건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관점을 초정의 경세론에 투영하여, 『북학의』가 단순히 북학, 이용후생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작이었다기보다, 士族의 실태를 드러내고 집권 閥族을 비판하기 위해 집필된 저작으로 보아야 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부정적 현실 비판을 통한 대안제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양 견해는 두루 타당하다. 안대회·이현창·한영규·김현영·미야지마 히로시, 『조정 박제가 연구』, 실사구시 실학연구총서 7, 사람의 무늬, 2013, pp.352-362 참조.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오! (...) 내 신세를 돌이켜 보건대 오십 년 동안 겨우 끼니를 때우고 쌀독도 자주 비어 내 몸도 주체하지 못하던 주제에, 임금의 은혜를 두터이 입어 갑자기 부자 영감이 되어, 뜰에는 수십 개의 가마솥을 벌여 놓고 1400여 명의 못 먹여 부황 들어 쓰러져 가는 동포들을 불러다가 한 달에 세 번씩 먹이는 즐거움을 실컷 누리니, 즐거움치고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또 어디 있겠소?²⁹⁴⁾

박지원은 이 서간에서 자신을 ‘결결 선생[笑笑先生]’이라 불러 달라면서 지방관으로서 드는 자괴감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홍대용이나 박지원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특정한 지방 관원으로서의 역할뿐이었다. 획기적인 정책을 실현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과거 급제를 통해 고위 관직에 오르는 통로를 밟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홍대용과 박지원은 당대, 대과를 거쳐 고위 관직에 오른 인사들과는 거리가 먼 선비들에 불과했다. 그들은 지방 관원으로 활동하면서 맡은 역할을 짧은 복무기간에 내에 온전히 해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방관원으로서의 운신(運身)의 폭 또한 좁았다. 벼슬길에 오르기 전, 대외체험을 통해 터득한 자발적이고 그들의 창조적인 발상은 이곳저곳의 지방 관원을 전전하면서 점차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당대적 평가와는 다르게 오늘날 현재적 입장에서 재평가하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치열한 현실인식을 통해 당대 고위 인사들이 구상하지 못한 혁신적인 발상을 구상하고, 집필을 통해 후대의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남기는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업적은 공통적으로 민(民)과 국(國)의 역동적 활성화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그들의 작가정신은 민(民)의 가난과 국(國)의 소규모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첫째 비판적인 현실인식을 견지해야 할 것, 둘째 관심의 범위를 자국 내로 한정하지 않고 대외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국 내의 개혁안을 모색해야 할 것, 셋째 개혁안의 지향점에는 백성의 다양한 잠재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라의 국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 등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94) 朴趾源, 『燕巖集』 卷之二 『煙湘閣選本』, 「答大邱判官李侯論賑政書」, “噫! 我國用人之路至狹, 非由科目, 雖學貫天人, 才兼文武, 固無出身之道. 今之翱翔王朝, 籌謨民國, 參贊治化者, 其有不大科而進者乎? (...) 吾與足下, 大之既不得及第, 小而又不成進士, 俱白徒無聊, 闔葦閣里, 遊談送日, 自詔衿紳, 而藍縷已久, 權稱兩班, 而冒濫可羞. 皓首黃馘, 望絕當世, 何幸遲暮一命, 後先同榮! (...) 自作苦況哉, 顧此五十年簞瓢屢空, 不閱我躬者, 厚蒙天恩, 忽作富家翁, 庭列數十大鼎, 招來一千四百餘口, 顛頤顛連之同胞, 月三與之湛樂, 樂莫樂兮, 何樂如之?”

V. 결론

본고는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3)과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작가정신을 비교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두 작가의 대표 저작이라 할 수 있는 『의산문답(醫山問答)』과 『열하일기(熱河日記)』에 주목하였다. 본고는 작가의 문학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르 및 글쓰기 방식과 작가의 사상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존중’과 ‘탐구’라는 주제의식을 새롭게 고찰한 비교 연구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필자가 두 작가의 작가정신을 비교 고찰하려 한 까닭은 동시대 작가들 가운데 이례적으로 대외 체험과 상호 교류를 통해 정신적인 각성과 성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의산문답(醫山問答)』과 『열하일기(熱河日記)』는 두 작가가 남긴 저작 가운데 그들의 문학정신이 최종적으로 집약된 문학적 유산이고, 두 작품을 통해 두 작가의 문학정신을 비교함으로써 문학과 사상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조선후기 문학의 성격도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성과 가운데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의산문답』의 장르적 성격과 『의산문답』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을 먼저 고찰하고 이어서 『의산문답』의 주제의식을 분석하였다.

『의산문답』은 추상적인 관념을 의인화하여 대립되는 두 인물의 만남이라는 허구적인 사건을 설정하고, 구성 방식 측면에서는 주로 대화 형식을 취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장자 사상의 상대주의적 인식방법에 입각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장자』에서 유래한 동아시아 한문문명권의 우언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건에 부합한다.

홍대용은 『의산문답』 도입부에서 각각의 단락을 시간적 질서의 선후 관계와 사건의 인과 관계로 짜여 있는 유기적 질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유기적 질서를 이루고 있는 도입부는 서사성을 띤 자연적 구성이다. 자연적 구성은 시간적 구성과 공간적 구성으로 구분되는데 『의산문답』은 허를 의인화한 ‘허자’라는 인물이 ‘조선’에서 중국

으로 이동하고, ‘중국’에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도중 실을 의인화한 실웅이라는 인물이 사는 ‘의산’에서 문답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자연적 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방식은 도입부를 장식하고 있을 따름이다. 서사성은 (1) 일정한 성격을 가진 인물의 등장 (2) 유기적인 질서를 갖춘 사건의 전개 (3) 실제 있음직한 이야기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의산문답』에서는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유기적인 질서를 갖춘 사건이 미미하고, 사건의 진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창작의도가 드러나는 서사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반면 작품 외적 세계와 작품 내적 세계가 일치하며, 작품 외적 세계에서 작가가 살던 당대에 어떤 대상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허자와 실웅의 대화에 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술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교술적인 성격에 초점을 두고 『의산문답』의 구성 체계를 정리한 결과, 두 인물 간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지점부터는 여러 화제가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선후 관계의 관련성을 맺고 있는 연쇄적 질서와 특정 화제의 위치가 바뀌거나 특정 화제가 삭제되어도 무방한 삽화적 질서를 이루고 있는 구성 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연쇄적 질서와 삽화적 질서로 이루어진 작품의 문답부에 들어서면 인물무분, 천지지체형정상, 인물지분, 고금지분, 화이지분 순으로 화제의 변화에 따라 병렬식 구성을 취하고 있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지지체형정상의 경우는 계층적 구성도 나타났다. 그러므로 『의산문답』을 도입부의 구성방식과 문답부의 구성방식으로 양분해서 볼 때 작품의 구성방식은 서사적 교술 장르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자연적 구성과 화제의 변화에 따른 병렬식 대화체 구성이 결합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화를 마무리하지 않아 독자의 참여를 기대하는 미완성의 열린 구성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의산문답』의 서사적 교술산문 장르적 성격을 고찰한 성과를 근거로 하여 『의산문답』은 문학작품으로서의 자격 요건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음을 논증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첫째, 『의산문답』은 구성 측면에서 볼 때 과학 서적이라 볼 수 있는 『주해수용(籌解需用)』이나 철학 서적이라 볼 수 있는 『사서문변(四書問辨)』·『삼경문변(三經問辨)』과 같은 논리적 구성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산문답』은 도입부의 경우

공간의 이동에 따른 자연적 구성을 취하고 있고, 문답부의 경우 화제의 변화에 따른 병렬식 대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완성의 열린 결말로 처리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여운을 주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그러면 『의산문답』의 이러한 독특한 구성 방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당대 허와 실을 둘러싼 시대적 문제를 우회적으로 새롭게 다룬 『의산문답』은 허구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을병연행록』, 『연기』, 『회우록』 등에서 개별적으로 구사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자연적 구성, 화제의 변화에 따른 병렬식 구성, 우연한 만남이지만 매우 깊이 있는 정신적 교감을 나누게 된 문제해결식 대화 형식 등을 혼용하여 독창적으로 변용한 작품으로 보았다.

둘째, 『의산문답』은 인물 설정의 측면에서 볼 때 과학 서적이라 볼 수 있는 『주해수용』이나 철학 서적이라 볼 수 있는 『사서문변』·『삼경문변』에서와는 달리 작품 외적 자아와 작품 내적 자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의산문답』의 경우 도입부에서 허자와 실용을 소개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허자나 실용과 같은 작품 내적 자아는 작품 외적 서술자가 아니라 ‘허’와 ‘실’을 의인화한 가상의 인물이다. 이는 곧 홍대용이 작품을 구상할 때 학문관, 인성관, 우주관, 역사철학관, 국가나 문명을 보는 관점 등이 서로 또렷하게 구별되는 허구적인 두 인물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인물의 대화 진행 과정에서 교화와 설득의 방식으로 내적 각성을 이루어 가는 인물은 ‘자(子)’로, 자(子)가 내적 각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물은 ‘옹(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홍대용이 설정한 허구적인 장치 가운데 하나이다.

셋째, 『의산문답』은 배경 설정에서 볼 때 조선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지리적 권역으로는 중국이지만, 문화적 권역으로는 조선과 중국의 경계를 상징하는 가상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곧 홍대용이 현실 공간에서 부딪치는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상 공간을 허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당대 지식인으로서의 문제의식을 형상화하기 위한 작품으로 창작에 임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넷째, 『의산문답』은 문체상의 특징에서 볼 때 과학 서적이라 볼 수 있는 『주해수용』이나 철학 서적이라 볼 수 있는 『사서문변』·『삼경문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보 전달이나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논변류 문체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작품의 비중이 매우 높은 『의산문답』 문답부에서 홍대용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특정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연쇄나 점층, 영탄을 구사하기도 하며, 인물의 감정 표현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 유추나 설의의 표현방식을 구사하기도 하는 등 다채로운 수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의산문답』의 주제의식 분석에서는 도입부 형상화 의도를 파악한 결과, ‘고담준론이 통하지 않는 속세에 대한 허자의 한탄’과 함께 ‘표리부동한 허자에 대한 실용의 날카로운 비판인식’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곧 진실한 가치 추구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홍대용의 내면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판단을 근거로 하고 긍심(矜心), 승심(勝心), 권심(權心), 이심(利心)에 구애받지 않는 가치판단을 내려야 진실을 도달할 수 있다는 홍대용의 진리관을 표명한 것으로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홍대용은 사람의 관점으로 다른 생명체를 보지 말고, ‘하늘’의 관점에서 사람과 다른 생명체를 가지런하게 보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이때 ‘하늘’은 곧 흠어진 기와 뭉친 기로 가득한 우주 공간이다. 이 우주 공간에는 뭉친 기운의 규모가 제각각 존재하고 있다. 광활한 기운이 이합집산하며 역동적인 우주공간에서 보면 지구의 지표면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 생명체는 동질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나 할 것 없이 일시적이며 미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을 누리고 있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귀천의 가치관이나 선악의 가치관을 적용하는 생명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

홍대용은 지구중심설, 신선설, 음양오행설, 분야(分野)의 설 등등 기존 학설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한한 세계라는 대상을 새롭게 탐구하려 했다. 동시에 자기가 사는 곳을 세상의 기준점으로 삼고, 자기가 사는 방식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는 견해도 자기중심주의에 빠지기 십상이라며 부정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지구에서 제각각 어떤 지역에서 살아가든 모두 정계에서 살고 있다. 사람이든 다른 생명체든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을 영위하며 삶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 판단 근거로, 정계니 황계니 도계니 하는 범주 설정 자체가 임의적인 것이므로 자기 쪽만 정계라고 하거나, 사람은 정생(正生), 조·충·수·어는 횡생(橫生),

초목은 도생(倒生)이라 규정하는 범주 설정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자기 쪽만 귀하고 상대방은 천하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가치 판단을 내렸다.

홍대용은 차별성이 내재한 음양의 논리를 부정하고, 서로 나라와 나라끼리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내외의 논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화의 나라에 『춘추』가 있다면, 다시 특정 시기에 이적의 나라에서도 『역외춘추(域外春秋)』가 생겨날 수 있는 가정을 했다. 그 가정의 이면에는 중화의 나라라고 해서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평가 절하의 대상으로 여긴 이적을 존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동시에 장차 『역외춘추』를 마련할 이적의 나라에서도 배타적 국가주의나 대항적 국가주의를 넘어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중화의 문물을 창조할 수 있도록 중화의 나라와 화합하여 비약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금까지 고찰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홍대용이 『의산문답』을 집필한 동기를 총괄해 보았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는 그 어떤 서문도 남기지 않아 그 창작 동기를 우선 헤아려볼 필요가 있었다.

(1)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궁극적인 이치의 근본에 대한 의문을 풀려고 했다. (2) 성현의 말씀을 불변의 선형적인 이치로 여기는 이학(理學)을 하는 데서는 견줄 수 없는 만족을 기학(氣學)을 하는 데서 얻으려 했다. (3) 윤리적 · 천문학적 · 정치적 허위를 논박하고자 했다.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는 그 바탕이 다른 존재이며, 하늘과 닮은 사람은 귀하고 다른 생명체는 천하다는 유교적 윤리관은 허위라고 여겼다. 하늘은 둥근 반면, 땅은 평평하며 움직이지 않는 존재로 우주의 중심이라는 상하(上下) 관념이나 중변(中邊) 관념에 입각한 천문학은 허위라고 했다. 중화문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중심부이며, 그 이외의 나라들은 모두 이적으로, 중화가 이적을 침범하면 정당하고, 이적이 중화 문명을 침략하면 부당하다는 자기중심의 중화문명의 정치관은 허위라고 했다. (4) 『의산문답』을 당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으로 삼으려 했다. 인물성 동이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생명체는 사람의 스승이며 우주와 만물을 생성하는 기의 관점에서 보면 균등한 관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시아 사대

부의 중화 중심 우주관과 유럽 선교사의 신 중심의 우주관 사이의 논란에 대해서는 무한 우주에서 중심부는 없으며 진실은 우주와 기(氣)의 작용으로 인한 생성과 변화 그 자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심부 문명국과 주변부 나라들의 구분에 대해서는 구분의 자체가 배타적 국가주의 소산이거나 대항적 국가주의 소산이므로 중심부 문명국과 주변부 국가의 위상은 역사적 변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홍대용에게 심성론과 우주 본체론, 역사철학과 화이론 문제 등은 통합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하나의 연구 주제였던 것으로 보였다.

III장에서는 『열하일기』의 장르적 성격과 『열하일기』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을 먼저 고찰하고 이어서 『열하일기』의 주제의식을 분석하였다.

『열하일기』의 장르적 성격을 고찰한 결과, 『열하일기』의 전체적인 구성 체계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유기적 질서, 연쇄적 질서, 삽화적 질서 등을 근거로 『열하일기』의 장르적 본질이 일기문학의 특성이나 기행문학의 특성에 있다기보다는 잡록문학의 특성에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잡록적 성격을 부각하고자 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일기부에서 여정에 따라 날짜별로 당일에 주목할 만한 사건을 중심으로 인과 관계와 선후 관계가 긴밀하게 호응하고 있는 추보식 구성 방식에 입각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날짜의 일기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항은 잡기의 형식과 필담의 형식으로 독립시켜 일기부 편중 또는 편말에 배치하거나, 별도의 제명을 붙여 잡기부 편명이나 필담부 편명을 지닌 독립적인 편제 방식으로 변용하여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기부만 별도로 떼어내어 보면 일기부에 보이는 유기적인 질서를 근거로 하여 『열하일기』는 일기문학, 기행문학, 또는 기행일기 문학이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박지원의 문예성과 사상성은 일기부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박지원의 문예성과 사상성은 일기부 편중 또는 편말에 배치된 잡기나 필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별도의 제명이 붙은 잡기부나 필담부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잡기부나 필담부에서 보이는 연쇄적인 질서와 삽화적인 질서를 근거로 하여 『열하일기』를 잡록이라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박지원이 사용하는 잡록이라는 개념에는 단순히 둘 이상의 성격이 다른 글을 섞어서 기록한다는 의미 이외에 글의 다양성(多樣性)·포괄성(包括性)·개방성(開放性)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행재잡록』 곧 『열하일기』에서 연행 중 일어난 사건을 적은 기사(記事), 연행 중 동행했던 이들과의 대화를 적은 기담(記談), 연행 중 동행했던 이들에게 자신이 들려주거나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적은 기담(記譚), 연행 중 만난 청나라 사람들과 글로 나눈 대화인 필담(筆談), 연행 중 특이하게 꾸민 꿈을 적은 기몽(記夢), 연행 중 만난 청나라 한족 상인이 준 편지를 적은 기필(記筆)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진지한 문제의식을 품고 경서(經書)에서 제시하는 경세의식을 주로 나타내는 고문 글쓰기와 특정 사물에서 얻은 감회를 개성적인 필치로 표현하여 문예의식을 주로 나타내는 패관소품체의 경계를 허물어 다양하고 개방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하는 자신의 글을 잡록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품격(品格)이 낮다는 의미가 ‘잡록(雜錄)’이란 개념에 내포되어 있었지만 박지원은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버리고 ‘잡록’이란 서로 다른 것들 간의 상호 결합을 통한 다양성의 창출, 포괄성의 확보, 개방성의 지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것으로 보고 잡록 장르를 선택한 것으로 보았다.

개인의 정감이나 해학성이 두드러진 표현 이면에는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의 구분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극복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었다. 또한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보여준 글쓰기는 정조대 고문 글쓰기 위주의 문예 정책에 맞서 패관소품 글쓰기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의 구분을 허물고 패관소품 글쓰기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박지원이 잡록이라는 장르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상층 문인들의 규범 문학 장르만으로 고문 글쓰기와 패관소품 글쓰기를 자유자재로 혼용해내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글의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볼 때 다양성(多樣性)·포괄성(包括性)·개방성(開放性)을 특징으로 하는 장르가 잡록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열하일기』의 주제의식을 고찰한 결과를 다음과 같다.

박지원은 조선중화주의 의식이 투철한 사신들이 통념에 사로잡혀 실상을 보지 못하는 현실에 맞서 청나라 자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포부를 품었다. 사신들과 대비되는 인물로 득룡을 부각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청나라 상인의 생활이나 청나라 문물제도를 탐구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열하에 머물 때에는 외교 문서를 탐구 대상으로 삼아 외교 체계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러한 면모를 부각하여 대청 외교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이라는 주제의식을 구현한 것으로 보았다.

박지원은 청나라 한족 사대부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청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흐름을 면밀하게 파악하려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존재했던 사신들의 단일한 외교 전술에 일침을 가하고, 끊임없이 변모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향과 외교 방법론을 모색하려 했던 박지원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국과 인접한 나라의 관계 설정은 우호 관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우호 관계 이면에 자리 잡은 긴장 관계와 숨은 의도를 읽어낼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박지원의 대외인식을 헤아릴 수 있었다. 외교의 실상을 탐색하기 위한 박지원의 노정과 천하정세의 흐름 파악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박지원의 의식은 표리 관계를 맺고 있는 주제의식으로 보았다.

연희와 환희는 당시 유랑예인 집단이 주제로 담당하는 공연물이었고 유랑 예인들의 사회적 신분은 최하층에 속했으며 조선의 선비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박지원은 혼하고 하찮은 대상에서 천하의 장관(壯觀)을 발견하는 선비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박지원은 청나라 풍속 가운데 시정(市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행되고 있었던 공연 문화에 주목하고 이를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시정문화에 대한 박지원의 애정 어린 시선을 드러낸 것으로 보았다.

박지원은 대내외 문화교류의 흐름을 탐색하면서, 자국 내에 머물렀던 관심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외 교류의 실상을 파악하려 고심했다. 조선에서는 드문 외국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치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기록정신을 보여주었고,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고증을 바탕으로 한 치열한 비평정신을 발휘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통해 홍대용의 사상과 상통하는 작품을 「호질」에 담아내어 홍대용의 사상과 자신의 문학 창작 능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냈다. 다른 생명체가 악하면 사람도 악한 존재이고, 사람이 선한 존재이면 다른 생명체도 선하다는 주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인물군’을 여럿 가운데 하나로 다루는 데에 그쳤으나, 박지원은 홍대용과 동일한 주제의식을 「호질」에서 ‘하늘’의 입장이 아닌 ‘범’의 입장에서 ‘사람’을 나무라는 방식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사람이 저지르는 악행이 다른 생명체가 사람에게 저지르는 악행보다 훨씬 심할 수 있다는 사례를 들어가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풍자의 수법을 동원하고 있어 문학적 형상화 능력이 홍대용보다 앞섰다. 또한 박지원은 홍대용이 비교적 소홀하게 여겼던 산문문학 작품의 창작과 구성 능력 면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열하일기』의 구성은 그 탁월한 재능이 겉으로 드러난 정점(頂點)이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1) 일기부를 일곱 개로 구분해 구성하여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점, (2) 필담부에서 필담 상황을 여느 연행록보다도 정교하고, 상세하게 표현하여 독자들을 흡입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점, (3) 잡기부에서 대중적인 성격과 전문적인 성격을 구분하여, 독립성을 띤 여러 편의 글을 독자의 수준에 맞게 골라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 등등의 특성은 여러 연행 잡록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보다는 여러 평범한 연행 잡록 가운데 탁월한 하나의 연행 잡록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만들었다.

IV장에서는 II장에서 III장까지의 논의 결과를 근거로, 글쓰기 방식을 비교하는 한편, 두 작가의 현실개혁 정신이 지닌 특성과 동질성을 비교하였다.

홍대용과 박지원의 글쓰기 방식이 지닌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주제의식을 구현하기 위한 논증의 활용 측면이다. 동일한 대상을 놓고,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례로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관계’를 다룬 장면을 선택해 이것저것 예증으로 드는 산만한 논의를 피하고자 했다.

홍대용이 사람과 다른 생명체는 귀천의 등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든 논거들을 검토한 결과, 사람이 지닌 특징을 다른 생명체도 지니고 있다는 논거, 다른

생명체가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토대라는 논거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귀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다른 생명체의 가치를 사람의 지위에까지 끌어올리려는 홍대용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홍대용의 논증 활용이 지닌 특징은 귀한 쪽은 그대로 두고, 천한 쪽을 귀한 쪽으로 상향평준화해 숭고미를 구현하려 했다는 점이다.

반면 박지원이 사람과 다른 생명체는 선악의 등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든 논거들을 검토한 결과, 사람이 다른 생명체의 삶을 유린하고 있다는 논거, 사람이 스스로 사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논거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생명체는 악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사람의 가치를 다른 생명체의 지위에까지 끌어내리려는 박지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박지원의 논증 활용이 지닌 특징은 악한 쪽은 그대로 두고, 선한 쪽을 악한 쪽으로 하향평준화해 풍자미를 구현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어서 홍대용의 내외론과 박지원의 점외론이라는 주제의식을 구현한 사례로 ‘중화와 이적의 관계’를 다룬 장면을 선택했다.

홍대용의 내외론은 청나라에 사는 선비든 조선에 사는 선비든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여 자국만을 옹호하고 외국에 배타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까지를 놓고 장면이 지니고 의미를 풀이하면 홍대용은 중화와 이적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두 나라가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임을 천명한 것이 된다. 청나라의 실상을 알기 위한 대외 체험을 한 뒤에 홍대용은 우호적인 교류를 통한 화합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두 나라 사이에 상생의 필요성을 부각하여 대외 인식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박지원의 점외론은 중화주의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자국이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화주의의 이념을 실행하는 방식과 실천 측면에서 미흡한 면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까지를 놓고 장면이 지니고 의미를 풀이하면 박지원은 중화와 이적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승패를 나누는 다툼을 벌여 중화에 속하는 쪽이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당위성을 천명한 것이 된다. 청나라의 실상을 알기 위한 대외 체험을 한 뒤에 박지원은 적대국의 동태 파악을 위한 실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상극의 필요

성을 부각하여 대외 실천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는 의문점은 박지원은 대외 실천의 개혁론인 ‘점외론’에 나타난 것처럼 화이의 구분을 수용하는 실천 지향의 조선 중화주의자였을까? 하는 점이다.

박지원이 <허생전>에서 조선이 청나라와 승패를 나누는 다툼을 벌여 중화의 이념을 회복하려는 실행 의지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든 논거들을 검토해 보면 인재 불등용 논거, 명나라 출신 귀화인 방치 논거, 청나라 동향 미파악 논거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나라는 이적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조선 중화주의의 가치를 이적의 나라 청나라의 지위와 그리 다를 바 없어 중화를 지향하는 조선의 지위를 끌어내리려는 박지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적대시하는 쪽은 그대로 두고 존중한 쪽을 적대시하는 쪽과 함께 하향평준화해 풍자미를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점외론’의 서술층위 이면에는 화이지분의 부정정신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홍대용·박지원이 공유하고 있는 작가정신의 공통 기반을 찾기 위해 『담헌서』, 『연암집』 등으로 확대하여 찾아보는 방법을 취했다. 그 결과, 그들은 공통적으로 치열한 현실 인식을 통해 당대 고위 인사들이 구상하지 못한 혁신적인 발상을 구상하고, 집필을 통해 후대의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남기는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업적은 공통적으로 민(民)과 국(國)의 역동적 활성화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들의 작가정신은 민(民)의 가난과 국(國)의 소규모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첫째 비판적인 현실인식을 견지해야 할 것, 둘째 관심의 범위를 자국 내로 한정하지 않고 대외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국 내의 개혁안을 모색해야 할 것, 셋째 개혁안의 지향점에는 반드시 백성의 다양한 잠재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라의 국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 등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당대 폄하나 금기의 대상이 된 것들에 대한 윤리적 ‘존중’과 이성적 ‘탐구’라는 주제의식을 독창적인 문학작품을 통해 꺾진하게 구현한 홍대용·박지원의 작가정신이 앞으로의 작가정신을 모색하는 데에 디딤돌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겨날 보편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도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원전 및 역주서류

- 朴長龍, 『縞紵集』, 하버드대학 연칭도서관 소장본.
 朴齊家, 『貞蕤閣全集』, 여강출판사, 1986.
 朴齊家, 『貞蕤集』, 국사편찬위원회, 1961.
 朴齊家, 『楚亭全書』, 아세아문화사, 1992.
 朴齊家, 『貞蕤閣集』, 한국문집총간 261, 민족문화추진회, 2000.
 朴宗采, 『過庭錄』, 필사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朴趾源,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민족문화추진회, 2000.
 成大中, 『青城雜記』, 고려대 육당문고 소장본.
 成大中, 『青城集』, 한국문집총간 248, 민족문화추진회, 2000.
 柳得恭, 『冷齋集』, 한국문집총간 260, 민족문화추진회, 2000.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문집총간 257, 민족문화추진회, 2000.
 正 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263, 민족문화추진회, 2000.
 崔漢綺, 『增補 明南樓叢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洪大容, 『湛軒書』, 한국문집총간 248, 민족문화추진회, 2000.
- 박제가, 『완역 정본 북학의』, 안대회 역, 돌베개, 2013.
 박제가, 『북학의』, 이익성 역, 을유문화사, 1971, 초판; 2011, 재판
 박제가, 『궁핍한 날의 벗』, 안대회 옮김, 태학사, 2000; 『貞蕤集』 選譯.
 박제가, 『정유각집』 상·중·하, 정민·이승수·박수밀 외 옮김, 돌베개, 2010.
 박종채, 『역주 과정록』, 김윤조 역주, 태학사, 1997.
 박종채,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박희병 옮김, 1998; 『過庭錄』의 국역.
 박지원, 『고추장 작은 단지 보내니』, 박희병 옮김, 돌베개, 개정판: 2006.
 박지원, 『세계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상·하, 고미숙·길진숙·김풍기 엮고 옮김, 그린
 비, 2008.

- 박지원, 『연암산문정독』, 박희병 외 역, 돌베개, 2007-2009.
- 박지원, 『연암집』, 신호열·김명호 옮김, 돌베개, 개정판: 2012.
- 박지원, 『열하일기』 1~3, 김혈조 옮김, 돌베개, 2009.
- 박지원, 『열하일기』 상·중·하, 리상호 옮김, 보리, 2004.
- 박지원, 『열하일기』, 이가원 역, 민족문화추진회, 1966; 대양서적, 1973.
- 박지원, 「燕巖先生書簡帖 脫草 원문 및 역주」, 『대동한문학』22, 대동한문학회, 2005.
- 원중거,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박재금 역, 소명출판, 2006; 『和國志』의 국역.
- 원중거,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을 만나다』, 김경숙 역, 소명출판, 2006; 『乘槎錄』의 국역.
- 유수원, 『국역 우서』, 민족문화추진회, 1981-1982.
- 이덕무, 『국역 청장관전서』, 민족문화추진회, 1978-1982.
- 이희경, 『북학 또 하나의 보고서 설수의사』, 진재교 외 옮김, 성균관대 출판부, 2011.
- 최한기, 『기학』, 손병욱 역주, 통나무, 2008.
- 최한기, 『기축체의』, 이종란 풀어쓰, 풀빛, 2012.
- 최한기, 『운화축협』, 이종란 옮김, 한길사, 2014.
- 홍대용, 『국역 담헌서』, 민족문화추진회, 1974-1975.
- 홍대용,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김태준·박성순 옮김, 돌베개, 2001; 『乙丙燕行錄』의 현대역.
- 홍대용, 『주해 을병연행록』, 소재영·조규익 외 주해, 태학사, 1997.
- 홍대용, 『을병연행록』 1~2, 정훈식 옮김, 도서출판 경진, 2012.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 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a.net/>)

2. 단행본

- 강동엽, 『열하일기 연구』, 일지사, 1988.
-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 출판부, 1973.
- 권오영 외, 『해강 최한기』, 청계, 2004.
-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 김명호,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 김문용, 『홍대용의 실학과 18세기 북학사상』, 예문서원, 2005.
- 김수중, 『한국의 서사문학과 민속』, 보고서, 2013.
- 김용섭,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II)』(증보판), 지식산업사, 2007.
- 김인규, 『북학사상의 철학적 기반과 근대적 성격』, 다운샘, 2000.
- 김태영, 『실학의 국가 개혁론』, 서울대 출판부, 1998.
- 김태준, 『홍대용과 그의 시대』, 일지사, 1982.
- 김태준, 『홍대용 평전』, 민음사, 1987.
- 김태준, 『홍대용』, 한길사, 1998.
-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사업단,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집』, 문예원, 2012.
- 문석윤 · 박희병 · 김문용 · 송지원 · 이경구, 『담헌 홍대용 연구』, 실사구시 실학연구총서 3, 사람의 무늬, 2012.
- 박수밀,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돌베개, 2013.
-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 박희병, 『문화와 근대』, 돌베개, 2003.
- 박희병, 『연암을 읽는다』, 돌베개, 2006.
- 박희병, 『저항과 아만』(개정판), 돌베개, 2012.
- 박희병, 『범애와 평등』, 돌베개, 2013.
- 신용하, 『조선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 연구』, 지식산업사, 1997.
-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 안대회 · 이현창 · 한영규 · 김현영 · 미야지마 히로시, 『조정 박제가 연구』, 실사구시 실학연구총서 7, 사람의 무늬, 2013.
- 오세영 · 윤일현 · 김성준, 『조정 박제가의 실학사상과 해운통상론』, 신서원, 2004.
- 오수경, 『연암그룹 연구』, 한빛, 2003.
-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 이가원, 『연암소설 연구』, 을유문화사, 1965.
- 이가원, 『조선문학사』, 태학사, 1997.
- 이종란, 『최한기의 운화와 윤리』, 문사철, 2008.
- 이지양 · 이현우 · 이철희 · 한영규 · 손혜리, 『실학과 문학 연구』, 실사구시 실학연구총서 5, 사람의 무늬, 2012.
- 이현창,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발전안을 제시한 박제가』, 실학박물관 실학인물총서 6, 민속원, 2011.
- 임기중,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6.
- 임용한,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 위즈덤 하우스, 2012.
- 임종태, 『17·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서구 지리학 이해- 지구와 다섯 대륙의 우화』, 창비, 2012.
- 임형택 · 김명호 · 염정섭 · 리쉐탕 · 김용태, 『연암 박지원 연구』, 실사구시 실학연구총서 4, 사람의 무늬, 2012.
- 정훈식, 『홍대용 연행록의 글쓰기와 중국인식』, 세종출판사, 2007.
-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1978; 제2판 1998.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조선후기문학』 3, 지식산업사, 1984; 제4판 2005.
- 조동일,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 조동일, 『카타르시스 라사 신명풀이-연극·영화미학의 기본원리에 대한 생극론의 해명』, 지식산업사, 1997.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조동일,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 지식산업사, 1999.
- 조동일, 『철학사와 문학사 둘인가 하나인가』, 지식산업사, 2000.
- 조동일, 『한국학의 진로』, 지식산업사, 2014.
- 하우봉,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 일지사, 1989.
- 한국우언문학회 편, 『우언의 인문학적 위상과 현대적 활용』, 박이정, 2006.
- 한영우, 『꿈과 반역의 실학자 유수원』, 지식사업사, 2007.

3. 소논문

-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의 문제점-《迂書》의 상업정책 분석」, 『한국사연구』6, 한국사연구회, 1971, pp.265-286.
- 구만옥, 「조선 후기 주자학적 우주론의 변동」,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2.
- 구만옥, 「마테오 리치 이후 서양 수학에 대한 조선지식인의 반응」,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2010, pp.301-355.
- 권연웅, 「노이점의 『隨槎錄』 해제 및 원문 표점」, 『경북사학』 제22집, 경북사학회, 1999, pp.141-239.
- 길진숙, 「홍대용의 「의산문답(醫山問答)」 읽기와 문학 교육적 성찰」, 『우리어문연구』29, 우리어문학회, 2007, pp.165-199.
- 김명호, 「『열하일기』 「일신수필」 서문과 동·서양 사상의 소통」, 『국문학연구』28, 국문학회, 2013, pp.225-255.
- 김명호, 「이언진과 虞裳傳」, 『한국문화』7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pp.161-194.
- 김문식, 「연암 박지원의 목민서, 『七事考』」, 『동양학』 4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pp.21-41.
- 김문용, 「박제가 경세론의 논리와 구조」, 『민족문화연구』3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00, pp.430-453.
- 김선희,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의 유교적 변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수중, 「<유구왕세자외전>의 역사의식과 문학적 상상력」, 『韓國言語文學』88, 한국언어문학회, 2014, pp.81-100.
- 김영식, 「조선 후기의 지전설 재검토」, 『동방학지』133,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6, pp.79-114.
- 김용덕, 「정유와 연암」, 『동양학』1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8, pp.527-537.
- 김인규, 「홍대용 사회개혁론의 특징과 그 의의」, 『한국사상과 문화』3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pp.215-244.
- 김철조, 「연암집 異本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17, 한국한문학회, 1994, pp.157-189.
- 김철조, 「『열하일기』 번역의 여러 문제들」, 『한문학보』19, 우리한문학회, 2008,

- pp.679-718.
- 남권희, 「새로 발견된 노이점의 <수사록>에 대한 서지적 연구」, 『圖書館學論集』2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5, pp405-437.
- 문중양, 「18세기 조선 실학자의 자연지식적 성격-상수학적 우주론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제21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1999, pp.27-57.
- 박상영 · 권오민 · 오준호, 「『熱河日記』所載「金蓼小抄」翻譯에 관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25,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12, pp. 51~68. 박상영, 「연암 저작 추정서 『翼鑑』에 관하여」, 『한국의사학회지』제27권 제2호, 한국의사학회, 2014, pp. 121~126.
- 박성래, 「홍대용의 과학사상」, 『한국학보』23, 일지사, 1981, pp.159-180.
- 박성래, 「홍대용 『湛軒書』의 서양과학 발견」, 『진단학보』79, 진단학회, 1995, pp.247-261.
- 박희병, 「홍대용 연구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진단학보』79, 1995, pp.193-214.
- 박희병, 「천견경제와 홍대용 - 중화적 화이론의 해체양상과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4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pp.373-413.
- 백승철, 「농암 유수원의 상업관과 상업진흥론」, 『동방학지』140,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7, pp.195-220.
- 서현경, 「연민선생과 『열하일기』번역」, 『열상고전연구』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pp.151-186.
- 서현경, 「『열하일기』定本の 탐색과 서술 분석」,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8.
- 송영배, 「홍대용의 상대주의적 사유와 변혁의 논리-특히 莊子의 상대주의적 문제의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학보』제74집, 일지사, 1994, pp.112-134.
- 송영배, 「마테오 리치가 소개한 서양학문관의 의미」, 『한국실학연구』17, 한국실학학회, 2009, pp.7-41.
- 신용하, 「담헌 홍대용의 사회신분관과 신분제도 개혁사상」, 『한국문화』1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1, pp.345-374.
- 신의철, 「연행록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한중 서적교류의 양상」, 『태동고전연구』25,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0, pp.227-264.
- 심경호, 「조선후기 한문학과 袁宏道」, 『한국한문학연구』34, 한국한문학회, 2004, pp.117-156.
- 심경호, 「조선후기 지성사와 제자백가-특히 『관자(管子)』와 『노자(老子)』의 독법과

-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13, 한국실학학회, 2007, pp.365-405.
- 안대회, 「조정 박제가의 연행과 일상 속의 국제교류」, 『동방학지』145, 동방학회, 2009, pp.365-405.
- 안대회, 「조선후기 연행을 보는 세 가지 시선」, 『한국실학연구』19, 한국실학학회, 2010, pp.37-64.
- 안재순, 「조선후기 실학의 주체성 문제-박지원·박제가·정약용의 북학론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40, 동양철학연구회, 2004, pp.69-103.
- 유봉학, 「북학사상의 형성과 그 성격-담헌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사론』8, 서울대 국사학과, 1982, pp.183-246.
- 윤주필, 「朝鮮朝 寓言小説의 反文明性-「의산문답」의 허구적 장치를 중심으로」, 『道敎文化研究』12, 한국도교문화학회, 1998.5, pp.179-215.
- 윤주필, 「우언 글쓰기와 원리와 적용 자료의 범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8, 한국한문학회, 2001, pp.5-35.
- 이강엽, 「「찰십륜포」 연작 연구」, 『동방학지』12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pp.165-198.
- 이강엽, 「연행록(燕行錄)의 꼬끼리 기사(記事)와 박지원(朴趾源)의 「상기(象記)」」, 『韓國漢文學研究』48, 한국한문학회, 2011, pp.359-390.
- 이경보, 「홍대용의 상대주의적 사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9.
- 이동환, 「연암 사상의 한계에 대하여」, 『대동한문학』23, 대동한문학회, 2005, pp.5-19.
- 이승수, 「박제가 삶의 마음속 출로, 燕京의 友情」, 『동아시아문화연구』제50집,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pp.187-214.
- 이승준, 「담헌 홍대용의 「의산문답」 연구 -문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53, 우리어문학회, 2015, pp.153-179.
- 이현창, 「유수원과 박제가의 상업진흥론」, 『한국실학연구』4, 한국실학학회, 2002, pp.35-81.
- 이현창, 「박제가 경제사상의 구조와 성격(1)」, 『한국실학연구』10, 한국실학학회, 2005, pp.131-156.
- 이현창, 「박제가 경제사상의 구조와 성격(2)」, 『한국실학연구』11, 한국실학학회, 2006, pp.183-215.
- 이현식, 「『열하일기』의 제일장관, 청나라 중화론과 청나라 문화 수용론」, 『동방학지』 14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8, pp.433-469.

- 이현식, 「『열하일기』의 「황성기」, 청 왕조 정통론」, 『국어국문학』152, 국어국문학회, 2009, pp.331-363.
- 이현식, 「「도강록」 序, 열하일기를 위한 위장」, 『동방학지』152,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0, pp.163-203.
- 임종태, 「무한우주의 우화」, 『역사비평』71, 역사문제연구소, 2005, pp.261-285.
- 임준철, 「박지원 「幻戲記」의 幻術 考證과 분석」, 『민족문화연구』57, 민족문화연구원, 2012, pp.569-613.
- 임준철, 「연행록 幻術記事를 구성하는 세 가지 층위와 幻史」, 『한국한문학연구』51, 한국한문학회, 2013, pp.487-533.
- 전용훈, 「조선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정성훈,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타난 공간 양상과 그 의미」, 『인문학 연구』제 49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pp.63-93.
- 정재철, 「한국한문학 연구의 몇 가지 쟁점」, 『동방한문학』57, 동방한문학회, 2013, pp.21-50.
- 정학성, 「虎叱에 대한 재성찰」, 『한국한문학연구』40, 한국한문학회, 2007, pp.209-242.
- 조동일, 「조선시대 인성론의 선악 논란」, 『문명연지』16, 한국문명학회, 2015, pp.5-16.
- 천관우, 「홍대용의 실학사상」,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92, pp.348-366.
- 하우봉, 「원중거의 한일관계사 인식- 『和國志』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제50집, 한일관계사학회, 2015, pp.35-68.
- 한우근, 「正祖丙午所懷膽錄의 분석적 연구- 李朝時代 百官陳言의 한」, 『서울대논문집』11, 서울대, 1965, pp.3-51.
- 허남진, 「조선후기 氣철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